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 국어영역 사회탐구교과 배경지식

Directed by Jcos

지리학  
역사학

제 1 교시

2015학년도 교육과정 탐구영역 배경지식

# 국어 영역 (한국 지리)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배점은 2점 또는 3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1 교시

국어 영역

1. 국토의 위치와 영토 문제

국토는 국민, 주권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다. 국토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삶이 누적된 공간이며,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이 실현되는 공간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공간이다.

한 나라의 위치는 자연환경이나 역사, 문화, 경제, 국제 관계 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치는 국가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리적 위치**는 위도와 경도로 표현되고, **지리적 위치**는 대륙과 해양 등 지형지물로 표현되며, **관계적 위치**는 주변국과의 정치 및 경제적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수리적, 지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 특징을 갖지만, 관계적 위치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특징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위도 상으로 북위 33° ~ 43°의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여 계절 변화가 뚜렷한 냉, 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경도 상으로 동경 124° ~ 132°에 위치하며, 표준 경선은 동경 135°로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본초자오선이 지나는 영국보다 9시간 빠르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태평양의 서쪽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대륙의 영향을 받아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또한,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이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는 데 유리하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임해 공업 지역이 발달하였으며, 국제 무역과 문화 교류가 활발하다.

관계적 위치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대 상황과 국제 정세에 따라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위치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과거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여 일본에 전달하였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국가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태평양 시대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국가 역량에 따라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연결하는 중심지로서 동아시아 경제권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역**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 범위로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총면적은 약 22.3만 km<sup>2</sup>이고, 그중 남한의 면적은 약 10만 km<sup>2</sup>이다. 우리나라는 서, 남해안에 갯벌이 넓게 분포하여 예전부터 간척으로 국토 면적을 넓혀 왔다.

**영해**는 일반적으로 저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이다.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은 **통상 기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한다. 서,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아 **직선 기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한다. 일본과 가까운 대한

해협에서는 직선 기선에서 3해리까지만 영해로 설정한다. 한편, 각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배타적 경제 수역(BEZ, Exclusive Economic Zone)**으로 설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변국과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일본, 중국과 어업 협정을 체결하고, 한, 일 중간 수역과 한, 중 잠정 조치 수역을 설정하여 해당 수역의 어족 자원을 공동으로 보존, 관리하고 있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이다. 영공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대기권에 한정되며, 대기권 밖에 우주 공간은 어느 국가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인공위성을 통한 각종 관측 자료 수집이 늘어나면서 영공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독도는 신생대 제3기에 해저 약 2,000m에서 용암이 솟아올라 형성된 **화산섬**이며, 동해의 영향으로 온화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으며, 동도와 서도 및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독도에는 주민들, 독도 경비대원, 등대 관리원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 숙소, 등대, 접안 시설, 경비대 숙소 등이 있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한 이후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었으며,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지도 등의 고문헌과 고지도에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독도는 영역적, 경제적, 환경 및 생태적 측면에서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독도 연근해는 우리나라의 영해이며, 독도는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의 기준이 되므로 그 **영역적 가치**가 매우 크다. 또한, 동해의 교통 요지로 태평양을 향한 해상 전진 기지 역할도 할 수 있다.

독도는 **경제적 가치**도 뛰어나다. 독도 주변 해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 조정 수경을 형성하는 곳으로 어족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또한, 주변 바다에는 미래의 에너지로 주목받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분포한다. 최근에는 울릉도와 독도 간 여객선을 운항하면서 섬을 찾는 관광객도 늘고 있다.

독도는 **생태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철새들의 이동 경로상 중간 휴식처 역할을 해서 섬 전체가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독도는 여러 단계의 화산 활동을 거쳐 형성되어 다양한 지형을 볼 수 있으며, 해저 화산의 진화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표본이다.

동해는 아시아 대륙의 북동부에 위치한 바다로, 한반도와 러시아의 연해주, 일본 열도로 둘러싸여 있으며, 평균 수심은 1,684m이고 가장 깊은 곳은 3,762m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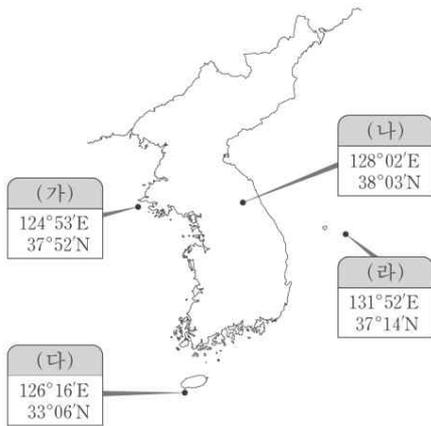
우리는 한반도 동쪽의 바다를 2,000년 이상 **동해**라고 불렀다. 동해라는 지명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표기되었듯이 기원전부터 사용되었으며, 광개토태왕릉비(414)의 비문에 서도 동해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8세기에 일본국이 역사에 등장하였으므로,

우리가 동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일본국이 성립한 시기보다 700여 년이나 앞선다.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는 일본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세계 지도가 본격적으로 제작되던 19세기 말,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이 동해의 명칭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1992년 우리나라는 국제 연합(UN)의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UNCSSGN)에서 동해(East Sea) 표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후 정부와 민간단체는 동해 표기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동해를 표기하는 지도가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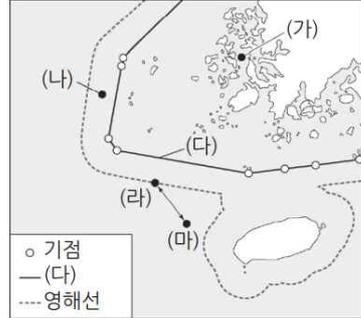
일본은 독도와 동해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넘겨 독도의 영유권과 주변 해역의 경제적 이권을 주장하려고 한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1.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우리나라 영토의 최서단(극서)에 위치한다.
- ② (나)는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이 지나는 곳이다.
- ③ (다)는 종합 해양 과학 기지가 건설된 곳이다.
- ④ (가)는 (라)보다 일몰 시각이 이르다.
- ⑤ (다)와 (라)는 영해 설정에 통상 기선을 적용한다.

2. 지도의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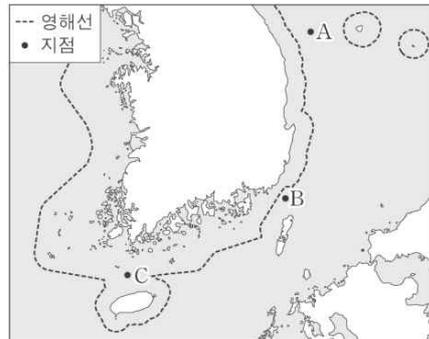


< 보 기 >

- ㄱ. (가)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영해의 범위가 확대된다.
- ㄴ. (나)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 ㄷ. (다)는 직선 기선이다.
- ㄹ. (라)와 (마)의 최단 경로는 한·일 중간 수역을 지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지도의 A~C 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모든 행위는 국가 간 사전 허가가 없음을 전제로 함.)



- ① A : 우리나라 자원 탐사선이 탐사 활동을 함.
- ② B : 외국 화물선이 항해함.
- ③ C : 우리나라 해군 함정이 항해함.
- ④ A, C : 우리나라 어선이 고기잡이를 함.
- ⑤ B, C : 외국이 인공 섬을 설치함.

2. 국토 인식의 변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공간에 대한 이해를 **국토관**이라고 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그 사회가 공유하는 국토관도 변화되었으며, 우리 조상들의 국토관은 풍수지리 사상이나 고지도, 고문헌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풍수지리**는 산줄기의 흐름, 산의 모양, 바람과 물의 흐름을 파악하여 좋은 터, 즉 명당을 찾는 사상이다. 풍수지리 사상은 땅은 만물을 길러 내는 어머니와 같다는 지모(地母) 사상과 음양오행설이 결합되어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우리 조상들이 자연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과정에서 땅을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이 인식한 데서 비롯되었다.

풍수지리는 살아 있는 사람의 주거지를 다루는 양택(陽宅) 풍수와 죽은 사람의 뒷자리를 찾는 음택(陰宅) 풍수가 있는데, 양택 풍수는 오랫동안 집과 마을의 입지 선정 및 국가의 도읍지 선정 등에 영향을 주었다. 풍수지리 사상에서 명당으로 보는 **배산임수**(背山臨水) 지역은 오늘날에도 주거지로서 선호도가 높다.

고지도는 우리 조상들의 국토관과 세계관을 보여 주며, 옛 지명과 산천, 도로, 행정 구역, 역사적 위치 등 지리적 인식의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 그 의의가 크다.

조선 전기에는 주로 통치를 위하여 행정적, 군사적 측면에서 지도가 제작되었다. 주요 지도로는 **훈일강리역대국지도**(1402)가 있는데, 현존하는 지도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이다. 이 지도는 지도 중심부에 중국이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어 조상들의 국토에 대한 자긍심을 엿볼 수 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민간에서 제작된 **천하도**가 널리 유행하였다. 천하도는 중국을 중심에 두고 세계가 원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도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상상의 국가와 지명이 다수 표현되어 있다.

조선 후기에는 목판 인쇄술의 발달과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도, 도별도, 군현도 등 다양한 지도가 제작되었다. 특히, 실측을 토대로 대축적 지도가 제작되었는데, 정삼기의 동국지도(1740), 김정호의 청구도(1834)와 **대동여지도**(1861)가 대표적이다. 한편, 세계 지도로는 경, 위선을 사용한 지구전후도(1834)가 있는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한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지도로 평가받고 있다.

지리지는 저술 주체에 따라 국가 주도로 제작된 **관찬 지리지**와 개인이 제작한 **사찬 지리지**로 구분되며, 기술된 지역의 범위에 따라 전국지, 지방지, 읍지 등으로 구분된다.

조선 초기에는 국가 통치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청의 주도로 방대한 규모의 전국 지리지가 편찬되었다. 이 시기의 관찬 지리지들은 통치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연혁, 토지, 호구, 성씨, 인물, 물산 등의 항목별로 묶어 백과사전식으로 기술하였는데,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 후기에는 실학자들이 국토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한 사찬 지리지를 많이 편찬하였다. 사찬 지리지는 특정 주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설명식으로 기술한 서술 방식이 특징이다. 이 시기에 편찬한 대표적인 지리지는

이중환의 『**택리지**』, 신경준의 『**도로고**』, 『**산수고**』,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김정호의 『**대동지지**』 등이 있다. 특히, 『**택리지**』는 조선 팔도 각 지방의 지리적 특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하였다.

국토관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변화되기도 하며, 국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일제는 우리 국토가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대륙과 도서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었다는 왜국된 국토관을 강요하였다. 또, 우리 국토를 ‘갯벌이 많아 쓸모없는 땅’, ‘나약한 토기 형상을 한 땅’ 등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이 추진되면서 국토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개발,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려는 능동적, 진취적인 국토관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간척 사업, 댐, 고속 국도, 공업 단지의 건설 등이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적극적인 국토 개발의 결과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역 간 불균형과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최근에는 우리 국토를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생태 지향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국토관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 공원 및 생태 하천 조성, 국립 공원 관리, 습지 보호 지역 지정, 하천, 갯벌의 복원 등을 통해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조선 시대에 편찬된 (가), (나) 지리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신증동국여지승람』, 『택리지』 중 하나임.)

(가) 【**건치연혁**】 본래 백제의 남한산성이다. 성종(成宗) 2년에 처음으로 12목(牧)을 두었는데 광주(廣州)는 그 하나이다.

【**군명**】 남한산·한산주·한주·회안(淮安)·봉국군(奉國軍)

【**형승**】 한수(漢水)의 남쪽으로 토양이 기름지다. 백제 시조 온조의 말이다. 고적(古跡) 편에 나타나 있다. 면이 모두 높은 산이다.

(나) 여주 서쪽이 광주(廣州)이다. 석성산(石城山)에서 나온 한 가지가 북쪽으로 한강 남쪽에 가서 된 고을인데 읍은 만 길 산꼭대기에 있다. ㉠ 광주의 서편은 수리산이며 **안산(安山) 동쪽에 있다.** 여기에서 서북쪽으로 뺀 산맥이 수리산맥 중에서 가장 긴 맥이다.

- < 보 기 >
- ㄱ. (가)는 백과사전식으로 서술되었다.
  - ㄴ. (가)는 국가 통치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 ㄷ. (나)는 조선 전기에 저술되었다.
  - ㄹ. (나)의 ㉠은 가거지의 조건 중 생리(生利)에 해당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지리 정보와 지역 조사

지리 정보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과 지역에 관한 정보로, 지표상에 나타나는 지리적 현상을 확인 및 분석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다. 지리 정보는 크게 기후, 지형, 식생 등에 관한 자연 정보와 인구, 문화, 경제 등에 관한 인문 정보로 나뉜다. 지리 정보는 위치와 형태를 나타내는 **공간 정보**, 장소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 정보**, 다른 장소와 지역 간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리 정보들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표, 그래프, 지도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종이 지도, 통계 자료, 신문 기사, 도서 등을 찾거나 현지에서 직접 조사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와 통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리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원격 탐사** 기술의 발달로 인공위성이나 항공기에서 촬영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지리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지리 정보를 분석하고 표현할 때에는 지형도 등의 **종이 지도**를 이용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디지털 형태의 **수치 지도**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수치 지도는 종이 지도와 달리 사용자가 원하는 주제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다른 정보들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리 정보 체계**(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는 지표 공간의 다양한 지리 정보를 수치화하여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가공, 분석, 처리하여 다양하게 표현해 주는 종합 정보 시스템이다. 지리 정보 체계는 복잡한 지리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지리 정보 체계의 **중첩 분석**을 활용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고, 위치 관계를 분석하여 시간과 거리를 고려한 최적의 경로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도 있다.

지리 정보 체계는 초기에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지도 제작과 환경 분야에서 주로 사용해 왔으나 컴퓨터, 인터넷,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등의 발달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환경과 연결된 **웹(Web) GIS**를 통해 개인의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리 정보를 편리하게 얻고 있다. 지리 정보 체계의 **공간 연산 기능**을 통해 지리정보를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점과 기업의 입지 선정, 지역 개발 계획의 수립, 환경의 변화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는 지리 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및 재해 관리, 토지 및 국토 환경 관리 등에 이용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조사**는 지역 특성을 파악하거나 지역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자 할 때 다양한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또한, 지역의 변화를 파악하거나 어떤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조사가 필요하다. 지역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목적을 정하고, 목적에 맞는 조사 주제와 지역을 선정한 다음,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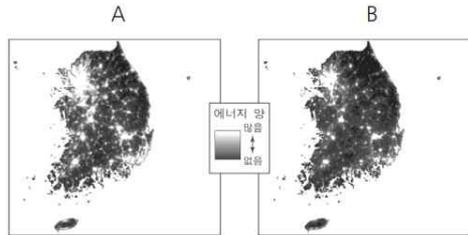
효과적인 지역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 과정을 잘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설계에 따라 **실내 조사**와 **야외 조사**를 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지리 정보를 표현 및

재구성함으로써 조사 목적에 맞는 결과를 얻는다. 이러한 지역 조사는 **현장 체험 학습, 가족 여행, 답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5. 다음 자료는 지리 정보 수집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은/는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리 정보 수집 방법이다. 인공위성에 장착된 센서는 밤 시간에 건물이나 가로등과 같은 시설에서 방출된 빛에너지 양을 측정함으로써 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센서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연도에 수집한 지리 정보의 사례는 A, B와 같다.

<인공 조명의 빛에너지 양을 기록한 인공위성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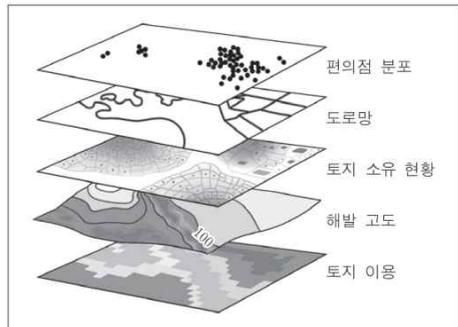


\* A, B는 각각 일년 동안의 빛에너지 양을 기록한 것임.

< 보 기 >  
 ㄱ. (가)를 이용하여 속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ㄴ. (가)의 주요 방법으로는 실측, 설문 조사가 있다.  
 ㄷ. (가)를 통해 지리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ㄹ. A는 B보다 지리 정보의 수집 시기가 이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에 제시된 자료만으로 지리 정보 체계(GIS)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지 이용별 면적 비율  
 ② 황사에 따른 호흡기 환자 수  
 ③ 도로에 인접한 편의점의 개수  
 ④ 도로 상의 두 지점 간 최단 거리  
 ⑤ 해발 고도 100m 미만 지역의 토지 소유 현황

4.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의 모습

한반도는 오랜 기간에 걸친 다양한 지형 형성 작용을 받아 복잡한 지체 구조가 나타난다. 가장 먼저 형성된 시, 원생대의 **평북, 개마 지괴, 경기 지괴, 영남 지괴**는 안정된 지각으로 한반도의 바탕을 이루며, 열과 압력에 의해 변성된 변성암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시, 원생대의 지괴 사이에는 **평남 분지와 옥천 습곡대**가 분포한다. 고생대 초기에는 해성층인 조선 누층군이 형성되었으며, 석회암이 주로 분포한다. 고생대 말기에서 중생대 초기에는 육성층인 평안 누층군이 형성되었으며, 무연탄이 매장되어 있다. 중생대 중기부터 말기에는 거대한 호수였던 **경상 분지**를 중심으로 두꺼운 육성층인 경상 누층군이 형성되었다. 경상 누층군에서는 중생대에 살던 공룡의발자국과 뼈,알 화석 등이 발견된다. 한반도에는 신생대에 형성된 지층이 적다. 신생대 제3기에는 **두만 지괴, 길주명천 지괴** 등이 형성되었는데, 이 지층에는 갈탄이 매장되어 있다.

고생대까지 안정을 유지해 오던 한반도는 중생대에 일어난 세 차례의 지각 변동과 신생대의 **경동성 요곡 운동** 등의 영향을 받아 지형의 골격이 형성되었다.

중생대 초기에 일어난 **송림 변동**은 주로 북부 지방에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 라오등 방향 (동북동~서남서)의 **지질 구조선**이 형성되었다. 중생대 중기에는 **대보 조산 운동**이 일어나 중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중국 방향 (북동~남서)의 지질 구조선이 형성되었으며, 넓은 범위에 걸쳐 많은 양의 마그마가 관입하여 대보 화강암이 형성되었다. 중생대 말기에는 경상도 일대에서 소규모로 마그마가 관입한 **불국사 변동**이 일어났다.

신생대 제3기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지각이 융기하여 비대칭의 **경동 지형**(傾動地形)이 형성되었으며, 이때의 융기 운동으로 함경, 낭림, 태백산맥 등이 형성되었다. 신생대 제3기 말~제4기 초에는 화산 활동으로 백두산과 그 주변 지역, 신계-곡산, 철원-평강,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지에서 화산 지형이 형성되었다.

한편, 신생대 제4기에는 빙기와 간빙기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타났으며, 이러한 **기후 변화**는 해수면의 변동을 가져와 다양한 지형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산지 지형의 기본 골격은 신생대의 지각 변동으로 형성되었다. 우리나라 산지는 크게 **1차 산맥과 2차 산맥**으로 구분된다.

1차 산맥은 신생대 제3기 이후 경동성 요곡 운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해발 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함경산맥, 낭림산맥, 태백산맥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산맥은 동쪽으로는 급사면을 이루고 서쪽으로는 완사면을 이루고 있어 비대칭적인 지형이 나타나고 있다.

2차 산맥은 지질 구조선을 따라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1차 산맥보다 고도가 낮고 연속성이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강남산맥, 묘향산맥, 멸악산맥, 차량산맥 등 1차 산맥에서 뻗어 나간 산맥들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산맥은 방향에 따라 라오등 방향 (동북동~서남서) 산맥과 중국방향 (북동~남서) 산맥,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이 속한 한국 방향 (북북서~남남동) 산맥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해발 고도 1,000m 이상의 고지대는 국토 면적의 약 10%에 불과하며, 해발 고도 200~500m의 **저산성 산지**가 40% 이상을 차지한다.

한반도는 신생대 제3기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을 축으로 하는 경동성 요곡 운동의 영향으로 높은 산지는 북동쪽에 분포하고, 낮은 산지나 평야는 남서쪽에 분포하고 있다. 산지가 동쪽에 치우쳐 있어 주요 하천은 주로 황, 남해로 흐른다.

한편,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비교적 기복이 작고 경사가 완만한 고원 지형이 나타나는데, 이를 **고위 평탄면**이라고 한다. 고위 평탄면은 과거 오랜 기간 침식을 받아 평탄해진 곳이 융기한 후에도 남아 있는 지형으로, 대관령 일대와 진안고원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여름철에 서늘한 기후를 이용한 **고랭지 농업**이 발달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지들을 **돌산과 흙산**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북한산, 설악산, 금강산의 **뾰족한 봉우리**들은 바위로 이루어진 돌산으로, 이는 중생대에 관입한 화강암이 오랫동안 침식 작용을 받아 지표에 드러나면서 형성된 산지이다. 흙산은 시, 원생대에 형성된 암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 풍화와 침식을 받으면서 두꺼운 토양으로 덮인 산지로서 지리산, 덕유산 등이 이에 속한다. 흙산은 돌산보다 토양층이 두꺼워 식생이 발달하기에 유리하다.

산지는 지역 간의 경계를 이루어 교류의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나, 지하자원과 삼림 자원 등 각종 자원 공급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교통, 통신의 발달로 접근성이 향상되고, 뛰어난 경관을 바탕으로 관광 산업이 발달하면서 산지가 현대인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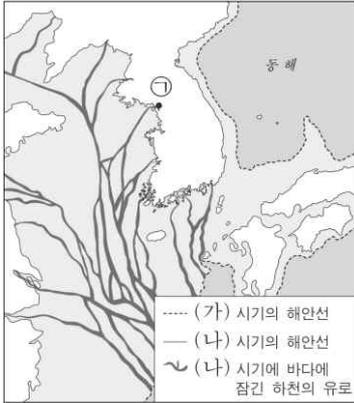
오늘날 산지는 도로, 댐 등의 건설이나 레저 시설 조성 등의 지속적인 개발로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다. 이로 인해 집중 호우 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많은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산지를 개발할 때에는 생태 지향적 관점에서 인간 생활에 이로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하며, **자연 휴식권**제 확대, **생태 이동 통로** 건설 등 산지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그림의 (가), (나) 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마그마가 굳어서 형성되었다.
- ② (가)는 평북·개마 지괴와 형성된 시기가 같다.
- ③ (나)는 오랜 퇴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 ④ (나)는 대보 조산 운동이 일어난 시기에 형성되었다.
- ⑤ (나)는 주로 침식 분지의 주변 산지를 구성하는 암석이다.

8. 지도는 최종 빙기와 후빙기의 해안선을 나타낸 것이다. (나) 시기와 비교한 (가) 시기 ㉠ 지점의 상대적 특성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해발 고도가 낮았을 것이다.
- ② 하천의 유량이 많았을 것이다.
- ③ 연평균 기온이 높았을 것이다.
- ④ 하천 중적층의 두께가 얇았을 것이다.
- ⑤ 화학적 풍화 작용이 활발했을 것이다.

9. (가), (나) 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으)로 이루어진 산의 정상부는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이 솟아 오른 흰색에 가까운 암석이 노출되어 있다. 북한산 인수봉과 설악산 울산 바위는 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 (나) (으)로 이루어진 산의 정상부는  (가) (으)로 만들어진 산의 정상부에 비해 암석의 노출이 적고, 상대적으로 두꺼운 토양층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나) 은/는 지리산, 덕유산의 기반암이다.

- ① (가)는 시·원생대에 변성 작용을 받은 암석이다.
- ② (가)에는 마그마의 급속한 냉각으로 주상 절리가 형성된다.
- ③ (나)는 경상 분지 지역에 널리 분포한다.
- ④ (가)와 (나)로 이루어진 침식 분지에서 (나)는 주로 배후 산지를 이룬다.
- ⑤ (나)는 (가)보다 이른 시기에 형성된 암석으로 조선 누층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5. 하천 지형과 해안 지형

우리나라는 경동 지형과 남서 방향의 지질 구조선이 하계망에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큰 하천은 황해와 남해로 흐르는데 이들 하천은 대체로 유역 면적이 넓고 유량이 많으며, 유로가 길고 경사가 완만하다. 반면, 동해로 흐르는 하천들은 두만강을 제외하고는 유역 면적이 좁고 유량이 적으며, 유로가 짧고 경사가 급하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 세계적인 대하천보다 유역 면적이 좁아서 유량의 변동이 매우 심하다.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하천의 유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집중 호우가 내리면 하천이 범람하여 주변 지역에 홍수 피해를 주기도 한다. 반면에, 강수량이 적은 겨울에는 하천의 유량이 매우 적다. 우리나라는 하천의 하상계수가 크기 때문에 수운 발달에 불리하고, 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

조차가 큰 황해나 남해로 흘러드는 하천의 하구 부근에는 밀물 때 바닷물이 역류하는 **감조 구간**이 나타나는데, 과거에는 이를 하천 수운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감조 현상은 하천 주변 지역에 **염해**를 일으키거나, 밀물 때 홍수가 발생하면 강물이 잘 빠지지 않게 해 홍수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감조 하천의 하구 부근에 **하굿둑**을 건설하여 염해 방지와 물 자원 확보, 교통로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하천의 중, 상류 지역에서는 산지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곡류 하천이 나타난다. 지반의 용기로 인해 하방 침식이 진행되면서 하천 바닥을 깎아 깊은 골짜기를 이루면, 이를 **감입 곡류 하천**이라고 한다. 감입 곡류 하천 주변에서는 계단 모양의 **하안 단구**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안 단구는 지면이 비교적 평탄하고 홍수 때에도 침수의 위험이 낮아 마을이 형성되거나 농경지, 교통로 등으로 이용된다. 두 개 이상의 하천이 합류하거나 화강암이 관입한 지역에서는 암석의 차별 침식으로 **침식 분지**가 형성되기도 한다.

산지에서 평지로 이어지는 골짜기의 입구에는 유속의 감소로 하천의 운반 물질이 쌓여 부채 모양의 **선상지**가 발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오랜 침식으로 경사가 급변하는 지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상지가 잘 발달하지 않는 편이다.

하천의 하류 지역에서는 하천의 하방 침식보다 측방 침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넓은 평야 위를 흐르는 하천은 측방 침식으로 유로 변경이 쉬운 **자유 곡류 하천**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유로 변경 과정에서 하중도나 우각호, 구하도 등의 지형이 발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경지를 보호하고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유 곡류 하천의 유로를 직선화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자연 상태의 자유 곡류 하천을 보기 어려워졌다. 하천의 중, 하류 지역에서는 하천의 범람으로 운반 물질이 퇴적되어 **범람원**이 형성된다. 범람원은 자연 체방과 배후 습지로 구성된다.

하천이 바다로 유입하는 큰 하천의 하구에서는 유속 감소로 하천의 운반 물질이 퇴적되어 **삼각주**가 형성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큰 하천이 조차가 큰 황해나 남해로 유입되어 하구에서 퇴적 물질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삼각주의 발달이 미약하다. 그러나 낙동강 하구에서는 비교적 조차가 작아 조류의 힘이 약하고, 많은 양의 토사가 운반되므로 삼각주가 발달하였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해안선은 지반 운동과 해수면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서, 남해안은 산맥이 해안을 향해 뻗어 있고, 후빙기에 해수면이 상승하여 침수되었기 때문에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 해안**과 **다도해**를 이루고 있다. 이는 산맥과 해안선이 교차하는 형태로 만나 높은 산지 부분은 곳이나 반도, 섬 등으로 남았고, 산지 사이의 골짜기 부분은 침수되어 만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동해안은 해안선과 가까이 평행하게 뻗은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해안선이 단조롭고 섬이 적다.

해안은 파랑, 연안류, 조류, 바람 등의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곳으로서 침식, 퇴적 작용이 일어나 다양한 해안 지형이 형성된다. 바다 쪽으로 돌출한 **곶**에서는 파랑의 영향으로 침식 작용이 활발하여 **암석 해안**이 발달하고,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간 **만에**에서는 퇴적 작용이 활발하여 **모래 해안**이나 **갯벌 해안**이 발달한다.

**연안류**는 곳에서 침식된 물질이나 하천에서 공급된 모래와 자갈을 운반하여 퇴적 지형을 형성한다. **조류**는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바닷물의 흐름으로, 조차가 큰 해안에서는 조류에 의해 운반된 물질들이 연안에 퇴적되어 **갯벌**이 형성된다.

파랑의 작용이 활발한 곳에서는 주로 침식 지형이 나타난다. 해안에 있는 산지나 구릉이 파랑 에너지에 의해 침식되면 **해식애**가 형성되고, 그 전면에 파랑의 침식으로 평탄한 **파식대**가 형성된다. 파랑의 침식으로 해식애가 후퇴하면서 파식대는 점점 넓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침식을 견디고 남은 **시 스택**, **시아치**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해식애가 파랑에 의해 침식되는 과정에서 암석의 약한 틈을 따라 해식동굴이 형성된다.

파식대가 지반의 융기나 해수면 하강으로 파식대 형성 당시의 해수면보다 높아지면 계단 모양의 **해안 단구**가 형성된다. 해안 단구는 융기량이 많았던 동해안에서 잘 나타나며, 비교적 평탄하므로 마을이 형성되거나 농경지, 교통로 등으로 이용된다.

파랑의 작용이 약해지는 만에서는 주로 퇴적 지형이 나타난다. 파랑에 의해 침식된 물질이나 하천에 의해 공급된 모래가 해안을 따라 퇴적되어 **사빈**을 형성하고, 사빈의 모래가 연안류를 따라 이동하여 길게 퇴적된 **사주**를 형성한다. 사빈의 배후에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 퇴적된 **해안 사구**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겨울철 북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해안에서 큰 규모의 해안 사구가 발달한다. 또한, 사주로 인해 육지와 연결된 섬을 **육계도**라고 한다.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와 만이 형성되고, 이 만의 입구를 사주가 막으면 **석호**가 형성된다. 석호는 영랑호, 청초호, 경포호 등 강원도 동해안에 잘 발달해 있으며, 경치가 아름다워 관광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조차가 큰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조류에 의한 퇴적 작용이 활발하여 갯벌이 잘 발달한다. 갯벌은 조차가 크고 파랑이 약하며 바닷속의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해안에 잘 발달한다. 우리나라의 서, 남해안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갯벌이 넓게 발달하며 세계 5대 갯벌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인간은 하천을 물 자원의 공급처, 교통로와 휴식 공간 등으로 이용하면서 하천 지형에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 하천의 중, 상류에는 물 자원 확보, 전력 생산 등의 목적으로 **댐**이 건

설되었다. 그러나 댐 건설로 수몰 지역이 생겨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하천 중, 하류의 범람원은 농지 확보를 위해 대부분 개간되면서 **습지**가 파괴되고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하천 하구에는 용수 확보와 염해 방지를 위해 하굿둑이 건설되면서, 하천의 흐름을 막아 물 오염이 심해지기도 한다.

도시를 흐르는 하천은 도시화 과정에서 대부분 복개되어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콘크리트 제방 공사과 직선화 사업이 진행되어 홍수 위험이 증가하였다. 또, 경관이 뛰어난 하천 주변에 들어선 위탁 시설이나, 무분별한 습지 매립, 하천 골짜기 채취 등으로 하천 지형과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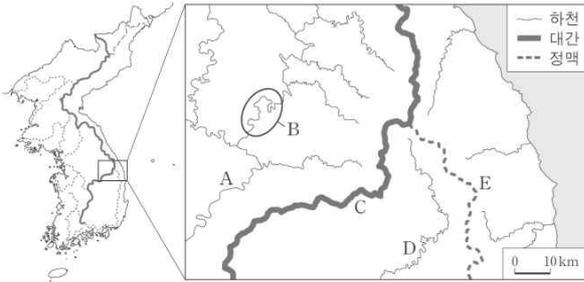
하천은 인간뿐만 아니라 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관리하고 보전해야 한다. 최근에는 생태 공간으로 하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자연 상태의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인 하천 주변의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서, 남해안에서 진행된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국토의 면적은 확대되었지만, 갯벌이 감소하여 해양 생태계의 변화가 생겼으며 어족 자원이 감소하였다.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의 건설뿐만 아니라 방조제와 방파제, 해안 도로 등의 각종 시설물이 바닷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 해안 지형을 크게 변화시켰다. 또, 사빈과 해안 사구, 석호들이 교통로와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훼손되었다.

해안의 이용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이익과 편리함을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태계에 악영향과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무분별한 해안의 개발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특히 해안 시설물들은 **해안 침식**을 심화하여 해안 지형을 파괴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안의 보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태계 기능 회복과 생태 관광 조성 등을 위해 **갯벌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빈의 모래가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래 포집기**나 **그로인**을 설치하고, 사구의 침식을 막기 위해 식생을 정착시키는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형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후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 개발 이전에 장기적인 안목과 예측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하며, 개발은 최대한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0. 지도의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 하천의 하구에는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다.
- ② B 구간에서는 감입 곡류보다 자유 곡류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 ③ C 대간은 한강 유역과 낙동강 유역 간의 분수계를 이룬다.
- ④ D 하천은 황해로 유입한다.
- ⑤ E 정맥은 영남 지방과 호남 지방 간의 경계를 이룬다.

11. 다음은 우리나라 하천에 대한 다큐멘터리 대본이다. 밑줄 친

㉠, ㉡과 지도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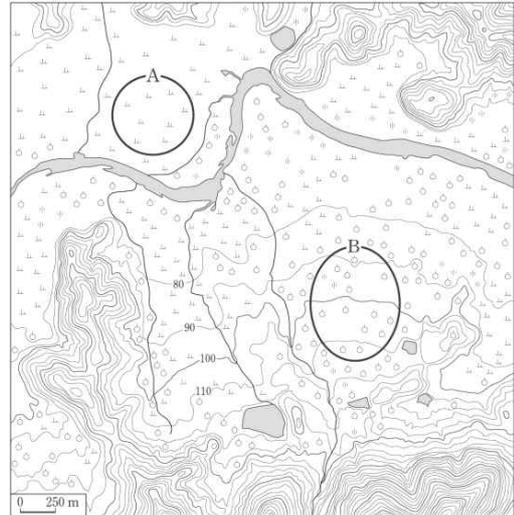
저는 울진군 남대천에 있는 안너품 마을에 와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비가 올 때만 물이 흘러내리는 약 7m 높이의 광풍폭포가 있습니다. 강물은 평소에도 ㉠ 마을을 돌아 곡류하는 물길로 흐르지만, 비가 와 강물이 불어나면 ㉡ 폭포를 지나가는 물길로 더 많이 흘러갑니다. 비 올 때 폭포의 풍경이 장관입니다.

The figure includes two photographs: the top one shows a river with a waterfall (평상시), and the bottom one shows a river with a large waterfall (강우 시). The topographic map shows contour lines and labels for '광풍폭포', '안너품', and points ㉠ and ㉡. A scale bar indicates 100m.

- < 보 기 >
- ㄱ. ㉠ 유로는 조류에 의해 하천 수위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 ㄴ. 하상의 평균 경사는 ㉠ 유로보다 ㉡ 유로가 급하다.
  - ㄷ. A에서는 침식보다 퇴적이 우세하다.
  - ㄹ. B에서는 둥근 모양의 자갈이 발견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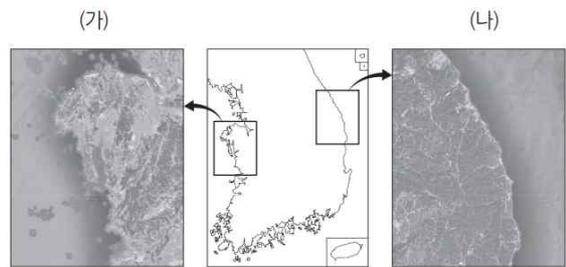
12. 지도의 A, B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A는 B에 비해 경사가 급하다.
  - ㄴ. A는 B에 비해 배수가 양호하다.
  - ㄷ. A는 B에 비해 침수 가능성이 높다.
  - ㄹ. A, B는 하천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가), (나) 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에는 현재 석호가 많이 분포한다.
- ② (나)에는 리아스 해안이 발달해 있다.
- ③ (가)는 (나)보다 조차가 크고 조류의 작용이 활발하다.
- ④ (가)는 (나)보다 신생대 지반 융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 ⑤ (나)는 (가)보다 해안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

14 다음은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가) 지형에 대한 답글의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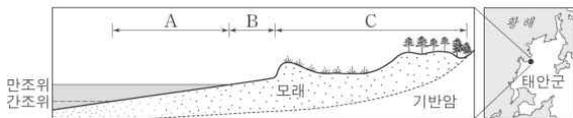
지리 선생님 :  
강릉시 강동면 일대에는  
해발 고도 70m 내외에서  
넓고 평탄한 지형면이  
책상 또는 계단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가) 지형에 대한  
특징을 답글로 남겨주세요.

(가) 지형도: 강릉시 강동면 일대 지형도. 해발고도 100m 선이 표시되어 있다. 평탄한 지형면이 계단 모양으로 나타나 있다. (가) 지형에 대한 답글을 달 수 있는 창이 있다.

답 : 서해안보다 동해안 지역에서 잘 나타나요.  
을 : 공룡 발자국 화석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병 : 동근 자갈과 모래로 구성된 퇴적층이 나타나요.  
정 : 과거 파식대가 지반 침강에 의해 형성되었어요.

-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5 다음 자료의 A~C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A는 하루 종일 바닷물에 잠기는 곳이다.  
ㄴ. B는 최종 빙기에 해수면 하강으로 형성되었다.  
ㄷ. C는 바람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 모래 언덕이다.  
ㄹ. B, C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해안에 잘 발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

한반도는 대체로 안정 지괴를 이루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화산 활동은 없지만, 중생대와 신생대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화산 지형이 곳곳에 분포한다. 특히, 신생대 제3기 말에서 제4기 초에 마그마가 분출하여 백두산, 울릉도와 독도, 철원-평강, 제주도 등지에 다양한 화산 지형이 형성되었다.

백두산과 한라산은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분출하여 완만한 경사를 갖는 산록부를 형성하였고, 이후 유동 성이 작은 조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경사가 급한 산정부를 이루었다. 백두산의 정상에는 칼데라호인 천지가 있고, 한라산의 정상에는 화구호인 백록담이 있다. 제주도에는 한라산 이외에도 오름이라고 불리는 기생 화산이 발달하였으며, 용암 동굴, 주상 절리 등 다양한 화산 지형이 분포한다.

울릉도는 점성이 큰 조면암과 화산 쇄설물들로 이루어졌으며, 경사가 급한 종 모양의 화산섬이다. 섬의 북쪽 중앙부에는 칼데라 분지인 나리 분지가 있고, 분지 안에서 알봉이 분화하여 이중 화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용암 대지는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지각 운동으로 갈라진 지표면의 틈새를 따라 다량으로 분출하여 기존의 평야와 하천 등을 메워 형성된 대지이다. 철원 일대의 용암 대지는 신생대 제4기에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이 당시의 계곡과 분지를 메워 형성되었으며, 이후 하천의 침식 작용을 받은 곳이 깊은 협곡을 이루었다. 협곡이 발달한 한탄강 주변에는 주상 절리가 노출되어 있으며, 용암 대지 위에서는 수리 시설을 이용하여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용식되어 형성된 돌리네, 석회동굴 등의 지형을 말한다. 석회암은 주로 고생대 전기의 조선 누층군에 분포하는데, 산호나 조개껍데기 등의 유기물로 이루어진 탄산칼슘 성분이 주를 이룬다. 카르스트 지형은 조선 누층군이 분포하는 평안남도, 강원도 남부, 충청북도 북동부, 경상북도 북부 일대에 주로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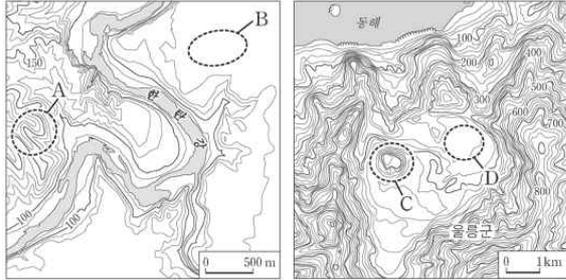
땅속의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으면서 타원형으로 움푹 파인 와지가 형성되는데 이를 돌리네라고 한다. 돌리네로 모여든 빗물은 밖으로 흘러 나가지 않고 땅속으로 스며들게 된다. 돌리네 내부는 주변에서 모여든 토사가 쌓여 두꺼운 토양층을 형성하며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돌리네는 주로 밭으로 이용된다.

석회암은 주로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로 이용되고 제철 공업에도 이용된다. 대표적인 원료 지향 공업인 시멘트 공업은 석회암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달하는데, 석회암의 채굴로 지형 경관이 파괴되기도 한다.

지하로 침투한 빗물과 지하수에 석회암이 용식되고 난 후,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드러난 공간이 석회동굴이다. 석회동굴 내부에는 종유석과 석순, 석주 등이 발달한다.

석회동굴은 지하에 형성된 자연 경관으로 학술 가치가 높으며, 동시에 친체의 관광 자원이다. 동굴의 보존을 위해서는 입장 인원이나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16. 지도의 A~D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는 화산 쇄설물에 의해 형성된 화산체이다.
- ② B는 C보다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되었다.
- ③ C의 기반암은 A의 기반암보다 형성 시기가 이른다.
- ④ D는 C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 ⑤ B와 D에서는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17. 다음 자료의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리 동아리 탐구 보고서〉

1. 주제 : 지도에 나타난 A 지형의 특성

2. 탐구 활동

1) A 지형의 단면도 그리기

〈A 지형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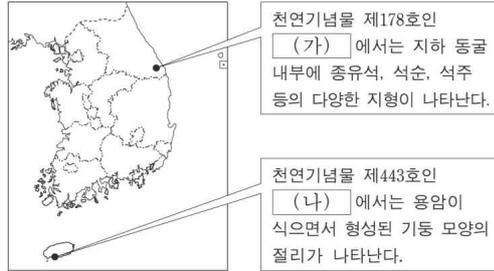
〈제작한 단면도〉

2) A 지형과 관련된 특성 설명

(가)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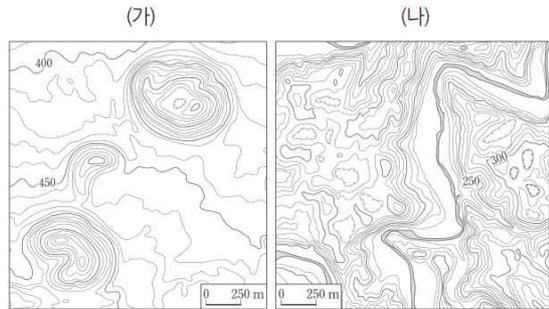
- ① '람사르 협약 지정 습지'로 관리되고 있다.
- ② 중생대 화강암이 분포하는 곳에 주로 나타난다.
- ③ 하천 주변의 평탄한 면에 위치하여 주로 논으로 활용된다.
- ④ 지표면에는 기반암이 풍화된 검은색 토양이 널리 나타난다.
- ⑤ 용식 작용으로 인접한 A와 결합되어 규모가 커지기도 한다.

18. (가), (나) 지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관입된 화강암이 차별 침식을 받아 형성되었다.
- ② (나)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 ③ (가)의 기반암은 (나)의 기반암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 ④ (가), (나) 모두 배수가 불량하다.
- ⑤ (가), (나) 모두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 형성되었다.

19. (가), (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에는 칼데라호, (나)에는 우각호가 나타난다.
- ② (가)에는 돌산, (나)에는 주상절리가 잘 나타난다.
- ③ (가)는 신생대, (나)는 고생대에 형성된 암석이 기반암을 이룬다.
- ④ (가), (나)에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 ⑤ (가), (나)에서는 기후의 영향을 받은 적색 토양이 발달한다.

7.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기후**는 어떤 장소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기 현상의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상태를 말한다. 기후는 한 장소에서 순간순간 변화하는 대기의 상태인 날씨와 구별되며, 기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기 현상을 나타내는 기온, 강수, 바람 등을 분석한 후 종합해야 한다. 기후는 기온, 강수, 바람 등의 **기후 요소**들로 구성되며, 기후 요소의 지역적 차이에 영향을 주는 위도, 수륙 분포, 지형, 해발 고도, 해류 등을 **기후 요인**이라고 한다.

**위도**는 지역의 기후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후 요인이다. 저위도 지역은 태양의 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높은 반면,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면서 태양 복사에너지의 양이 줄어들어 기온이 낮아진다. 남부 지방은 북부 지방보다 기온이 높는데, 이는 위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륙 분포**는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로 인해 기후에 영향을 주는데, 바다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게 나타난다.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지는데, 고도가 높은 산지 지역은 여름에도 서늘하며, 늦가을부터 눈이 내리기도 한다.

**지형**은 강수에 큰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산지 지역은 평야 지역보다 강수량이 많은데, 산지 지역 중에서도 비구름이 상승하는 바람받이 사면은 강수량이 많은 반면, 바람 그늘 사면은 강수량이 적다. 이 밖에 **해류, 기단, 전선** 등의 기후 요인도 기후 요소에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여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냉, 온대 기후**에 속한다. 중위도 지역은 태양의 고도가 높은 시기에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 여름이 되고, 태양의 고도가 낮은 시기에 반대로 겨울이 된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여 **계절풍 기후**의 특성이 나타난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랭 건조한 북서 계절풍이 불고 강수량이 적다.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남서, 남동 계절풍이 불고 강수량이 많다.

우리나라는 중위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여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겨울에는 냉각된 대륙의 영향으로 비슷한 위도의 대륙 서안보다 기온이 낮지만, 여름에는 따뜻한 바다의 영향으로 기온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륙 서안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남북으로 길어서 남북 간의 기온 차가 큰데, 위도의 영향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기온의 지역차는 비슷한 위도의 동서 지역 간에도 나타나며, 특히 겨울철에 뚜렷하다. 수륙 분포의 영향으로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겨울 기온이 높다. 또한, 동해안은 서해안보다 겨울 기온이 높는데, 이는 태백산맥이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고, 동해의 수심이 황해보다 깊기 때문이다. 해발 고도가 높은 대관령 지역은 비슷한 위도의 강릉이나 인천보다 연중 기온이 낮다.

**기온의 연교차**는 남해안에서 북부 내륙으로 갈수록 대체로 커진다. 쉽게 가열되고 냉각되는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연교차가 크며, 서해안 지역이 동해안 지역보다 크다. 기온의 일교차는 봄과 가을의 맑은 날에 크고, 장마철에 작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 정도이며, 세계적으로 볼 때 습윤 기후 지역에 속한다. 강수량은 계절 차와 연 변동이 크며, 지역 차도 크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강수는 여름철에 집중된다.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과 **장마 전선, 태풍**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연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내리며, **집중 호우**의 형태로 내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겨울철에는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대체로 줄어들지만, 지형과 풍향 등의 영향으로 지역적 차이가 큰 편이다. 비구름이 상승하는 바람받이 지역은 **지형성 강수**가 많이 내려 다우지를 이루는 반면, 낮고 평평한 지역이나 바람그늘 지역은 소우지를 이룬다. 다우지는 제주도, 남해안 일대, 한강 유역, 청천강 중, 상류 등으로 이들 지역은 여름철 남서 기류의 영향을 받아 연 강수량이 많다. 한편, 바람그늘 지역인 개마고원 일대와 영남 내륙 지역, 낮고 평평한 지역인 대동강 하류 일대는 연 강수량이 적다.

울릉도, 호남 지방, 영동 지방 등은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린다. 울릉도, 호남 지방의 강설은 북서 계절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눈구름을 형성해 발생하고, 영동 지방의 강설은 바다를 건너온 북동 기류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에 위치하고 있어 연중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풍**이 많이 불고,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 남동풍** 등 남풍 계열의 바람이 많이 분다.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여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열대 저기압으로, 필리핀 동부 해상에서 발생하여 주로 6~9월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태풍은 강한 바람과 집중 호우를 동반하기 때문에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오호츠크해 기단이 세력을 확장하면 우리나라에 북동풍이 자주 분다. 북동풍이 불 때 영동 지방은 기온이 낮고 비가 자주 내리지만, 영서 지방은 북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편 현상**이 나타나 고온 건조해진다. 이때 습윤한 바람이 높은 산지를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이다. 영서 및 경기 지방에 부는 고온 건조한 바람을 **높새바람**이라고 부른다. 높새바람이 불면 영서 지방에서는 가뭄이나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 기후에 영향을 주는 기단으로는 대륙성 기단인 시베리아 기단과 해양성 기단인 오호츠크해, 북태평양, 적도 기단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기단이 교대로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면서 계절별로 독특한 기후 현상이 나타난다.

겨울에는 대륙 내부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고, 일본 북동쪽 해상에 저기압이 발달하여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는 서고동저형을 이룬다. 시베리아 고기압은 발달과 쇠퇴를 반복하는데, 이로 인해 추위가 심한 날과 덜한 날이 교대로 나타나는 **삼한 사온 현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겨울 기온은 매우 불규칙적이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기도 하고, 한파가 몰아쳐 추운 날씨가 지속되기도 한다. 대륙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며, 차가운 북서풍이 황해를 건너오면서 눈구름을 형성하여 서해안에 폭설이 내리기도 한다.

봄은 대체로 온화하지만, 시베리아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강해져 **꽃샘추위**가 발생하고,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차하면서 날씨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이동성 고기압이 통과할 때에는 화창하지만, 저기압이 통과할 때에는 흐리거나 봄비가 내린다.

봄은 겨울보다 강수량이 많지만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가 건조해지며 초목이 말라 있어 산불이 발생하기 쉽다. 또, 중국 내륙이나 몽골의 건조 지역에서 발생한 흩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황사 현상**이 발생하고, 늦봄에서 초여름에여서 지방과 경기 지방에서는 **눈새바람**이 불기도 한다.

여름은 장마철과 한여름으로 이루어진다. 6월 하순이 되면 열대 기단과 한대 기단 사이에 형성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장마가 시작된다. 장마철에는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날씨가 많으며, **집중 호우**가 내리기도 한다. 이 시기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불쾌지수가 높고,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장마가 끝나면 북태평양 기단이 확장하면서 한여름이 되는데, 강한 일사로 **소나기**가 자주 내린다. 낮에는 불볕더위가 자주 나타나며, 한밤중과 새벽에도 일 최저 기온이 25℃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발생한다. 한편, **태풍**이 불어올 때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한다.

가을에는 대륙 내부에 찬 공기가 쌓여 고기압이 만들어지고, 이동성 고기압이 연이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맑은 날씨가 나타난다. 가을의 맑은 날씨는 농작물의 결실과 수확에 도움을 준다. 늦가을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점차 발달하는 시기로 단풍이 든 후 낙엽이 지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서리가 내린다.

기온은 의식주 등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의생활**과 관련하여 여름에는 시원한 모시나 삼베로 옷을 만들어 입어 더위를 극복하였으며, 겨울에는 동물의 털이나 가죽, 목화에서 얻은 솜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 추위를 극복하였다.

**식생활**과 관련하여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에서 잘 자라는 벼를 재배하였고, 겨울에는 추위에 잘 견디는 보리나 밀을 재배하였다.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운 겨울에는 김장을 하였는데, 김장을 담그는 시기와 **김치**의 맛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겨울이 비교적 온화한 남부 지방은 김치가 쉽게 시어지기 때문에 짜고 맵게 담갔으며, 기온이 낮은 북부 지방은 싱겁고 담백하게 담갔다.

**주생활** 역시 기온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인 한옥에는 추운 지방에서 발달한 **온돌**과 더운 지방에서 발달한 **대청마루**가 함께 나타난다. 각 지역의 가옥은 기후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구조로 발달했는데, 겨울이 춥고 긴 북부 지방으로 갈수록 폐쇄적인 형태를 보이고, 여름이 무덥고 긴 남부 지방으로 갈수록 개방적인 형태를 보인다.

계절이 바뀔에 따라 기온도 변하는데, 이러한 기온 변화는 일상생활이나 여행, 지역 축제 등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수 특성은 물 공급이나 가옥의 구조와 형태, 산업의 발달 등에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강수량의 차가 커서 홍수와 가뭄이 잦으며, 연 강수량에 비해 물 자원 이용률이 낮다.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집중 호우로 홍수가 발생하기 쉽다. 하천 주변의 사람들은 고도가 다소 높은 자연 제방에 주로 거주하였는데, **터돋움집**을 지어 홍수에 대비하였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발생하여 식수가 부족해지고

벼농사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 조상들은 일찍이 **저수지**나 **보**를 만들었으며, 오늘날에도 **다목적 댐**을 만들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있다. 강수가 적은 지역은 일조 시수가 길다. 이러한 영향으로 서해안에서는 **천일제염업**이 이루어지고, 경북 내륙 지역에서는 **사과 재배**가 활발하다.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적설로 가옥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하였다. 한편, 폭설이 잦은 울릉도의 전통 가옥에는 우데기라는 방설벽을 둘러 겨울철 활동 공간을 마련하였다.

**계절풍**은 주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고온 다습한 여름 계절풍의 영향으로 벼농사가 발달하였으며, 한랭한 겨울 계절풍을 피하면서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남향의 배산임수 지역에 마을이 입지하였다.

강한 바람이 자주 부는 곳에서는 **방풍림**을 조성하거나 가옥을 지을 때 바람에 대비하였다. 제주도의 전통 가옥은 지붕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그 위에 그물망처럼 줄을 엮어 강풍에 대비하였다. 또, 집의 입구에 **돌담**으로 쌓은 곡선 형태의 울타리를 두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누그러뜨렸다. 황해의 섬 지방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극복하기 위해 ‘ㄷ’자 형태로 집을 짓고 마당에 지붕을 덮기도 하였으며, 호남 지방에서는 까대기를 설치하여 바람과 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날씨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경제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봄에 가뭄이 지속되면 모내기가 늦어지고, 가을에 첫서리가 일찍 내리면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한다. 이러한 날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민들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수리 시설을 활용한다.

날씨는 **계절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조업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음료나 냉, 난방기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원자재 구매, 생산 및 유통량 조절, 제품 진열, 광고 등에 기상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고량을 줄이고 매출액을 늘리고 있다.

날씨는 서비스업에도 큰 영향을 준다. 편의점은 날씨에 따라 진열되는 상품이 달라지고, 택비 및 운송 서비스업에서는 비가 내릴 때 할증 요금을 받기도 한다. 스포츠 산업도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이면 축구, 야구 등의 스포츠 용품의 판매가 늘어나며, 겨울에는 스키 용품의 판매가 증가한다. 최근에는 날씨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돔 구장을 이용하여 야구를 즐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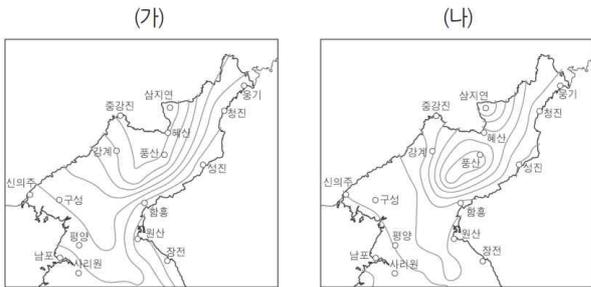
기후의 지역 차는 **농업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후는 벼농사에 유리하며, 겨울철에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는 남부 지방에서는 벼를 수확한 후 늦가을에 보리를 심어 이듬해 초여름에 수확하는 그루갈이를 하기도 한다. 해발 고도가 높아 여름에 서늘한 기후가 나타나는 대관령 일대에서는 초지를 조성하여 고기소와 젖소를 기르거나 고품질 채소를 재배한다.

각 지방 자치 단체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 중에는 기후의 특색을 활용하는 축제가 많은데, 벚꽃 축제인 진해의 군항제, 보령의 머드 축제, 김제의 지평선 축제, 화천의 산천어 축제 등이 대표적이다. 또, 강원도 태백 및 경상남도 남해에서는 유리한 기후 환경을 이용하여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기도 한다.

기후의 지역 차는 세계적 차원에서도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준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가을의 단풍이나 겨울의 눈과 스키 등을 즐기 위해 찾아온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울철에 타이, 필리핀 등과 같이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나라나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를 방문하기도 한다.

20. 지도는 (가), (나)월의 평균 기온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등치선도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1월, 8월 중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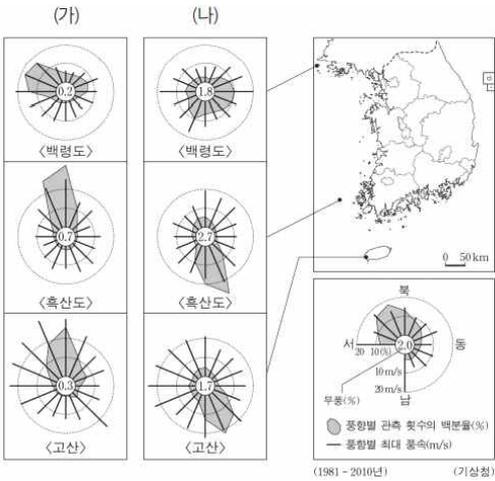


\* 1973~1994년 평년값임.  
\*\* (가)의 등치선은 2°C 간격, (나)의 등치선은 1°C 간격임. (기상청)

< 보 기 >  
 가. (가)에는 남고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주로 나타난다.  
 나. (가)는 (나)보다 강수량이 적다.  
 다. (나)는 (가)보다 대륙성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 (가)에서 (나) 사이의 기간은 (나)에서 (가) 사이의 기간보다 황사 발생 빈도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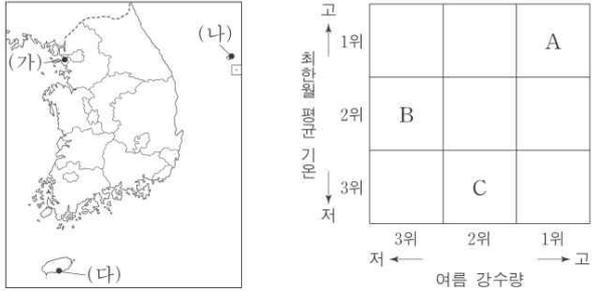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21. 다음은 (가), (나) 시기 세 지점의 풍향과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1월 또는 7월임.)



- ① (가)의 세 지점 풍향은 주로 남풍 또는 남동풍이다.  
 ② (나)의 백령도 서풍 비율은 동풍 비율보다 높다.  
 ③ (가)는 7월이고, (나)는 1월이다.  
 ④ (가)는 (나)에 비해 무풍의 비율이 높다.  
 ⑤ (가), (나) 모두 최대 풍속이 가장 빠른 곳은 고산이다.

22.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성을 그림과 같이 나타낼 때,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A~C에서 고른 것은?



	(가)	(나)	(다)
①	A	B	C
②	A	C	B
③	B	A	C
④	B	C	A
⑤	C	B	A

23. 다음은 기후 단원에 대한 한국 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가장 적절한 학생을 고른 것은?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 8. 자연재해와 기후 변화

자연환경 요소들이 인간 생활에 피해를 주는 자연 현상을 **자연재해**라고 한다. 자연재해는 홍수, 가뭄, 태풍 등 기후적 요인의 자연재해와 지진, 화산 활동 등 지형적 요인의 자연재해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강수의 계절 차와 연 변동이 크고, 태풍이 통과하므로 기후적 요인의 자연재해가 잦다. 하지만 지형적 요인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홍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주로 장마 전선이 정체하거나 온대 저기압 및 태풍이 통과할 때 발생한다. 홍수가 발생하면 하천이 범람하여 저지대의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된다. 홍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하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사방 공사를 하여 피해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여름에서 초가을에 걸쳐 발생하는 **태풍**은 우리나라 부근을 통과하면서 피해를 준다. 태풍은 바다에서 위력이 강해 내륙 지역보다는 섬과 해안 지역에 더 큰 피해를 준다. 특히, 태풍이 통과하는 지역의 오른쪽인 위험 반원에 자주 놓이는 남동해안 지역의 피해가 잦다.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는데, 태풍이 지날 때는 강풍이 불어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태풍의 피해를 줄이려면 정확한 태풍 예보와 체계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한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것을 **폭설** 또는 대설이라고 한다. 폭설이 내리면 산간 마을이 고립되고, 눈이 쌓이면서 비닐하우스, 축사, 건물 등이 붕괴되며, 교통이 마비되어 도로가 혼잡해진다. 이에 폭설이 잦은 지역에서는 제설 장비를 갖추어 폭설에 대비하고 있다.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발생한다. 가뭄은 다른 자연재해보다 진행 속도가 느리지만 피해 범위는 넓다. 가뭄이 심하면 농작물이 말라죽고 공업용수나 생활용수가 부족해진다. 봄에 가뭄이 들면 모내기가 늦어지는데, 이때 조상들은 메밀과 같은 구황 작물을 심기도 하였다. 또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예로부터 보나 저수지를 만들었으며,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댐을 건설하였다.

지형적 요인의 자연재해에는 **지진**, **화산 활동** 등이 있다. 지진과 화산 활동은 지각판이 충돌하거나 분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면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 일대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지각판의 경계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2016년 경상북도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지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진은 언제, 어떤 규모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무엇보다도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강화해야 하고,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지구의 기후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기후 변화**는 현재의 기후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점차 변화하는 현상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화산 폭발로 대기 중의 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거나, 지구 공전 궤도의 변화로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달라지면서 기온이 오르내리는 등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산업 혁명 이후에는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위적 요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의 사용량 증가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 기체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온실 효과**를 가중시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 삼림 및 자원 개발, 농경지 확보 등으로 온실 기체 농도를 낮추는 기능을 가진 **열대림**이 빠르게 파괴되면서 기후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울, 인천, 강릉, 대구, 목포, 부산의 6개 지점에서 관측한 값에 따르면, 지난 100년(1912~2011년) 동안 연평균 기온이 1.7°C 상승했는데, 이는 세계 기온 상승 평균치인 0.74°C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이 촌락 지역보다 기온 상승 정도가 높는데, 이는 도시의 **열섬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열섬 현상은 냉·난방, 자동차 등으로 인해 인공 열이 많이 발생하고, 지표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인공 구조물이 많이 덮여 있는 도시 지역에서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마다 변동 폭이 커지고 있다. 연 강수 일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하였으나, 집중 호우의 발생 빈도는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편, 겨울철 강수량은 큰 변화가 없으며,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강설 일수는 감소하였다.

한반도의 기온 상승은 **식생** 및 농업 활동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 남해안에서 자라는 난대림의 분포 지역이 북쪽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제주도 한라산에서는 식생 분포의 고도 한계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반면, 단풍이 드는 시기는 늦어지고 있다.

농업 활동과 관련하여 노지 작물의 생육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농작물 재배 북한계선이 북상하고 있다. 주요 과일 재배 지역이 북상하면서 대구의 명물이던 사과가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평창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사과의 고장이던 충청북도 충주에서는 한라봉이 재배되기도 한다.

기후 변화는 한반도 주변의 해양 환경에도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한류성 어족인 명태가 거의 잡히지 않게 된 반면, 난류성 어족인 오징어와 멸치를 잡을 수 있는 해역이 넓어지고 있다. 또한, 참다랑어와 고래상어 등 열대 바다에서 서식하는 어류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97년에는 교토 의정서가 의결되었으며, 2015년에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채택되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아시아권 최초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였으며,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 개발을 지원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능형 교통 조정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을 늘리고 자원 절약형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이용하며, 여름철 냉방 온도를 높이고 겨울철 난방 온도를 낮추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식생**은 지역의 기후·토양·지형·생물 등의 자연적 요인은

물론 인위적 요인의 영향도 받는다. 식생은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식생의 수평 분포는 위도, 수직 분포는 해발 고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식생의 수평 분포**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의 순서로 나타난다. 남해안과 제주도 및 울릉도의 저지대는 난대림 지대로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의 상록 활엽수가 주로 자란다. 개마고원과 일부 고산 지역은 냉대림 지대로 전나무, 가문비 나무 등의 침엽수가 주로 자란다. 냉대림과 난대림 사이의 지역에서는 낙엽 활엽수와 침엽수가 섞인 혼합림이 자란다. 침엽수와 상록 활엽수는 연중 나뭇잎이 초록색을 띠지만, 낙엽 활엽수는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 때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진다.

**식생의 수직 분포**는 제주도의 한라산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가면서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 관목대, 고산 식물대가 순서대로 나타난다.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초지대는 목축을 위해 조성된 인공 식생이다.

**토양**은 암석이 물리적·화학적 풍화와 함께 생물의 작용을 받아 입자가 작은 흙으로 변한 것이다. 토양은 모든 생물이 성장하는 토대가 되며, 농업·축산업·임업 등 인간 활동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성대 토양**은 기후와 식생의 특성을 반영하는 토양으로, 온대림 지역의 갈색 삼림토와 냉대림 지역의 회백색토가 주를 이룬다. **간대토양**은 기반암(모암)의 특성을 반영하는 토양으로, 붉은색의 석회암 풍화토와 흑갈색의 현무암 풍화토가 대표적이다.

토양의 생성 시기가 짧은 **미성숙토**는 충적토와 염류토가 대표적이다.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충적토는 하천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퇴적된 토양으로 비옥하다. 염류토는 간척지에 주로 분포하는데, 염분을 제거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도시 지역의 확대, 도로와 주택 건설, 경작지 확대 등으로 식생이 많이 파괴되었으나, 최근 식생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을 국립 공원으로 지정하여 초목 채집을 제한하거나, 나무 심기와 숲 가꾸기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여 임목 축적량을 늘리고 있다.

토양은 한 번 오염되거나 침식되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 **계단식 경작**이나 **등고선식 경작**을 하고 있으며, 토양 보존을 위해 퇴비 및 유기질 비료 사용, 객토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였는데, 이는 전통 마을에서 잘 드러난다. 마을의 뒷산은 겨울철 북서풍을 막아 주고 땀감을 제공하였으며,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공하였다. 또, 마을 입구에 **마을 숲**을 조성하거나 생활 하수를 정화하는 연못을 두기도 했다.

우리 국토는 일본의 식민 지배, 6·25 전쟁, 산업화 과정에서 많이 훼손되었다. 정부는 산지와 숲에 자연 휴식년제를 도입하였으며,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시행하여 환경 훼손을 줄여나가고 있다. 한편, **도시 농업**에 참여하는 주민이나 유기 농업에 힘쓰는 농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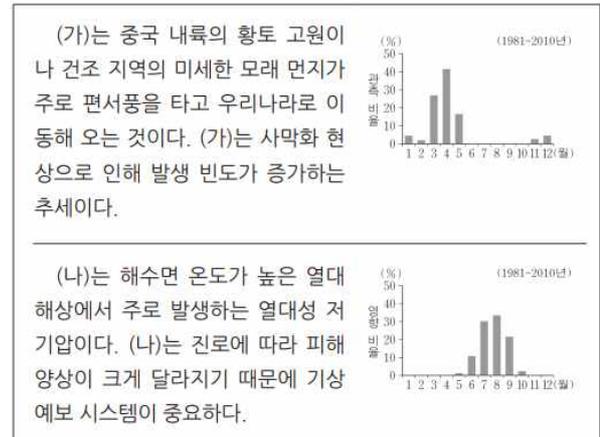
24. 표는 어느 월의 기후 자료이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기후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위 : °C, mm)

구분		○월 상순	○월 중순	○월 하순
서울	평균 기온	-2.3	-2.4	-2.5
	강수량	8.7	7.1	5.0
청주	평균 기온	-2.2	-2.3	-2.5
	강수량	9.7	8.8	7.0
부산	평균 기온	3.6	3.2	2.7
	강수량	10.3	12.9	11.2

- ① 태풍의 영향으로 집중 호우가 내린다.
- ② 눈새바람이 불어 영서 지방에 가뭄이 발생한다.
- ③ 대류성 강수가 자주 발생하며 열대야가 나타난다.
- ④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장마 전선이 형성된다.
- ⑤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삼한사온 현상이 나타난다.

25. 다음 자료의 (가), (나) 기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측(영향) 비율 = 월별 관측(영향) 횟수 ÷ 총 관측(영향) 횟수 × 100 (기상청)

- ① (가)는 가시거리를 짧아지게 하여 교통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 ② (가)는 미세 먼지 농도를 높여 호흡기 질환 발병률을 증가시킨다.
- ③ (나)는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하여 풍수해를 일으킨다.
- ④ (나)는 해일을 발생시켜 해안 저지대의 침수를 유발하기도 한다.
- ⑤ (가)는 (나)보다 농작물 재배에 큰 피해를 준다.

26 다음은 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학생의 발표 내용이 옳은 것은?

교사 : 자연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개발 활동으로 (가)에서 (나)로 바뀔 경우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발표해 봅시다.

- ① 갑 : 생물종의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 ② 을 : 대기 습도가 대체로 높아집니다.
- ③ 병 : 지표의 토양 유실이 감소됩니다.
- ④ 정 : 토양 내 수분 함유량이 증가합니다.
- ⑤ 무 : 강수 시 빗물의 지표 유출량이 증가합니다.

9. 촌락의 변화와 도시 발달

사람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공간을 취락이라고 하며, 취락은 인구나 산업 활동 등에 따라 **촌락**과 **도시**로 구분한다. 촌락은 도시보다 인구 규모가 작고 인구 밀도가 낮지만, 국토 공간에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촌락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부분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며, 식량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촌락은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지역으로 도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촌락의 입지에는 물, 지형, 기후 등의 자연적 조건과 산업, 교통, 방어 등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 전통 촌락의 입지는 용수 확보와 농경지 분포 등 자연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배산임수**와 같은 풍수지리 사상이 반영되었다. 근래에는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면서 사회·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표수가 부족한 제주도에서는 생활용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용천대를 따라 촌락이 형성되었고, 범람원에서는 홍수의 위험이 낮은 자연 제방에 촌락이 형성되었다.

하천이나 도로, 철도 등이 있어 교통이 편리한 곳은 접근성이 좋아 일찍부터 촌락이 발달하였다. 육상 교통로에는 조지원, 역곡 등 **역원** 취락이 형성되었고, 수운의 요충지를 따라 노량진, 삼랑진, 마포 등 **나루터** 취락이 형성되었다. 한편, 지형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나 국경 및 해안 지역에는 남한산성, 부산 수영, 중강진과 같은 **병영촌**이 발달하였다.

촌락은 기능에 따라 그 특성과 경관이 다르게 나타난다. 촌락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과 어업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어촌**, 산지에서 다양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산지촌** 등으로 구분된다.

**농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촌락으로 일반적으로 농경지와 배후 산지가 만나는 산록면에 위치한다. 농업 활동은 협동 노동의 필요성이 커 가옥이 밀집하여 분포하는 **집촌**(集村)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어촌**은 주로 해안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촌락으로, 항구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다. 항구 뒤쪽의 산지에 마을이 위치하며, 대부분 주거지 주변에 경지가 있어 농업과 어업을 함께 하는 반농 반어촌을 이룬다. **산지촌**은 경사가 급하고 경지가 좁아서 주민의 상당수는 밭농사, 임산물 채취, 목축업 등을 하며 생활한다. 산지촌은 가옥이 드문드문 흩어져 분포하는 **산촌**(散村)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촌락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 향도 현상**이 나타나면서 촌락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촌락에서는 청장년층의 인구 유출이 많아지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생활 환경이 악화되었다. 또한, 출산율 저하로 폐교가 증가하였고, 노년층 인구 비중의 증가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촌락에 거주하는 결혼 적령기의 남성 중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대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촌락 간에도 경제 활동 방식과 경관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대도시와 인접한 근교 촌락에서는 도시민에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공급하기 위한 상업적 농업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한 촌락에서는 공장, 물류 창고,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촌락과 도시 경관이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촌락은 영농의 기계화, 친환경 농작물 재배, 고소득 작물의 시설 재배와 같은 집약적 토지 이용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전자 상거래를 통해 도시민에게 직접 작물을 판매하는 등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촌락을 홍보하고, 전통 경관을 관광 자원화하여 도시민을 위한 다양한 촌락 체험 행사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정주 공간은 규모가 작은 촌락에서부터 지역의 중심지인 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규모가 다른 정주 공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정주 체계**를 형성한다.

도시와 주변 촌락은 정주 체계를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 관계에 있다. 도시는 행정 기관, 금융 기관, 상업 시설 등이 모여 있는 **중심지**로서 주변 지역인 촌락에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한다. 반면, 촌락은 각종 농수산물과 축산물 등을 도시에 공급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촌락이 지닌 여유움을 바탕으로 도시민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 최근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도시와 촌락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으며, 도시와 촌락의 상호 의존적인 발전을 위해 **도농 통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도시는 읍사무소 소재지인 작은 중심지에서부터 군청, 경찰서 등이 있는 군청 소재지, 지역의 중심 도시인 도청 소재지, 광역 중심지나 국가 중심지에 해당하는 광역시·특별시 등 규모가 다양하다. 이들 도시는 상호 의존하면서 다양한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작은 도시들은 좁은 범위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큰 도시들은 비교적 넓은 범위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인구 규모에 따라 대도시와 중소 도시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시기에 따라 도시 인구가 차별적으로 성장하여 변화해 왔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인구가 대도시로 유입되었다. 특히, 서울의 과도한 인구 집중으로 **중추 도시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외곽으로 대도시권이 광역화되었다.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지에서도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대도시권의 확대가 나타났다. 1970년대 이후에는 수출 위주의 공업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남동 임해 지역의 항구를 중심으로 포항, 울산, 창원, 광양, 여수 등의 공업 도시가 발달하였다.

최근에는 정부가 대도시의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한 인구 분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와 위성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 중소 도시는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도시 발달에는 대도시, 공업 도시, 위성 도시의 성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위 도시로,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도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지방 중소 도시 간의 교통망이 미약한 반면, 서울과 지방의 중소 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교통망이 발달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수직적 도시 체계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도시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 기관을 이전하여 **혁신 도시**를 건설하거나, **중추 도시 생활권**을 육성하는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도시 간 상호 교류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인 도시 계층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급격한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범세계적—국가적—지역적 차원의 도시 체계를 연계하여 앞으로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 도시 체계 속에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된 기능을 갖추도록 준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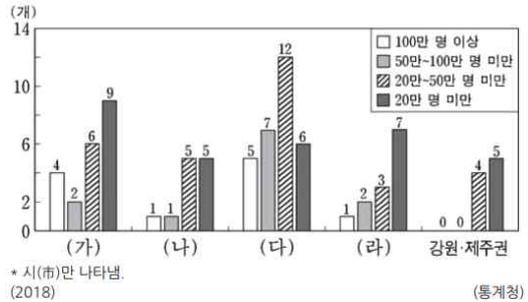
27. 다음 자료는 학생이 전통 촌락의 입지에 관하여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통 촌락의 입지〉

구분	입지 사례	주요 입지 요인
자연적 조건	범람원상의 자연 제방	㉠ 경지와 가까우며 피수에 유리함.
	구릉지의 남향 사면	㉡ 일조량이 풍부하며, 북서풍을 피할 수 있음.
	해안의 용천대	㉢ 풍수해를 줄일 수 있음.
사회·경제적 조건	역원 취락(역삼동, 조처원)	㉣ 주요 도로상의 교통 요지였음.
	방어 취락(중강진, 통영)	㉤ 국방상의 요충지였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28. 그래프는 인구 규모에 따른 권역별 도시 분포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라)는 각각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중 하나임.)



- < 보 기 >
- ㉠. (가)의 100만 명 이상의 도시들은 모두 광역시이다.  
 ㉡. (다)는 (가)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 (다)는 (라)보다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높다.  
 ㉣. (가)는 수도권, (나)는 충청권, (다)는 영남권, (라)는 호남권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10. 도시 구조와 대도시권

도시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규모가 커지게 된다. 도시 규모가 작을 때는 주택, 공장, 상점, 관공서 등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면 도시 기능이 복잡·다양해지면서 비슷한 종류의 기능이 집적되거나 분산되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 지역이 형성된다. 이를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라고 한다.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접근성과 지대**이다. 도심은 도시에서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지가와 지대가 매우 높아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상업·업무 기능이 들어서게 된다. 반면에,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주거 기능과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공업 기능은 지가와 지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간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입지한다. 이처럼 상업·업무 기능이 도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집심 현상**, 주택이나 학교, 공장 등이 외곽으로 분산되는 현상을 **이심 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시 내부에서는 상업·업무 기능, 공업 기능, 주거 기능 등이 적절한 위치에 입지하는 공간적 분화가 이루어진다.

도시의 내부는 도심과 부도심, 중간 지역, 주변 지역 등으로 구성된다. **도심**에는 관청이나 대기업의 본사, 금융 기관의 본점, 백화점, 전문 상가 등과 같은 중심 업무 기능과 전문 상업 기능이 집적되는데, 지대가 높기 때문에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층 빌딩이 밀집하게 된다.

도심에는 업무 및 상업 공간이 많아서 주간에는 유동 인구가 많고, 야간에는 상주인구가 적은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도심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매우 혼잡하다. 서울의 중구와 종로구 일대, 부산의 중구 일대가 도심에 해당한다.

도심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의 주요 결절점에는 **부도심**이 형성된다. 부도심은 도심에 집중된 상업 및 서비스 기능을 분담하여 도심의 과밀화와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의 영등포, 강남, 용산, 청량리 등과 부산의 해운대, 동래 등이 부도심에 해당한다.

도심과 주변 지역 사이에는 도시의 팽창 과정에서 도심으로부터 빠져나온 공장, 주택, 상점, 학교 등이 혼재하는 **중간 지역**이 형성된다. 최근 대도시에서는 **중간 지역**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주변 지역**에는 신혼 주택 지역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도심으로부터 이전해 온 공업 지역이 나타나거나, 농촌 경관이 곳곳에 남아 있다. 주변 지역 밖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도시의 녹지 공간을 보전하고, 시가지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기도 한다.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도시 내부의 토지 이용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 대도시의 도심에서는 재개발을 통해 주거용 토지 이용 비중은 크게 줄어들고, 상업·업무용 토지 이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부도심에서도 상업·업무용 토지 이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도심의 인접 지역에서는 공장이 이전한 자리에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도 한다. 최근에는 지하철,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의 발달로 도시의 주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서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대도시는 중소 도시보다 사회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도시는 자본, 정보, 노동력 등을 획득하기 쉽고 금융, 교육, 교통 등의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인구나 기능이 집중한다.

대도시로 인구나 기능이 집중되면서 주택 부족 및 땅값 상승, 교통 혼잡 등의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거와 공업 기능 등이 도시 외곽으로 분산되는 **교외화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교통의 발달과 대도시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주변에서는 **위성 도시**가 발달하고, 근교 농촌 지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도시와 주변 지역이 기능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게 된다.

대도시권은 교통수단의 발달과 교통망의 확충에 따라 그 범위가 넓어진다. 이로 인해 대도시 근교의 농촌 지역에서는 도시적 경관과 생활 양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 도시로 하는 대도시권 형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나 산업이 집중되면서 서울에서는 과밀 문제가 발생하였다. 1980년대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추진되면서 서울의 주거와 공업 기능 등이 인천 및 경기 일대로 분산되었다. 특히,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고, 주민들의 통근 편의를 위해 지하철·고속 국도 등 광역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서울의 대도시권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의 대도시들도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교통망이 확충됨에 따라 대도시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도시 주변의 근교 농촌에서는 교통의 발달에 따라 대도시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농촌과 도시의 경관이 함께 나타난다. 또한, 농경지가 감소하고 2수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져, 도시적 토지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근교 농촌에서는 대도시와의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였고, 토지 이용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 농업 경관이 증가하였다. 농가의 경우 과거보다 **겸업농가**의 비중이 높아졌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 인구의 비중도 증가하였다. 또한, 대단위 택지 개발과 공장 이전 등으로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의 비율이 높아져 촌락의 공동체 의식은 점차 약화되었으며, 주민 구성도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근교 농촌 지역이 관광농원, 주말농장 등으로 개발되면서 도시민에게 주말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29. 다음은 도시 단원에 대한 한국 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지 않은 학생을 고른 것은?

〈도시 내부 구조〉

- 도시 내 기능 지역 분화
  - 도시 내부에서는 유사한 종류의 기능이 집적하거나 분산하는 과정을 통해 ㉠ 기능 지역 분화가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도시 내부는 기능별 ㉡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주거 지역 등으로 분화된다.
- 도심의 특성
  - ㉢ 중심 업무 기능의 집중
  - 주거 및 공업 기능의 ㉣ 이심 현상
  - ㉤ 인구 공동화 현상

말줄 친 ㉠-㉤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갑 ㉠은 접근성과 지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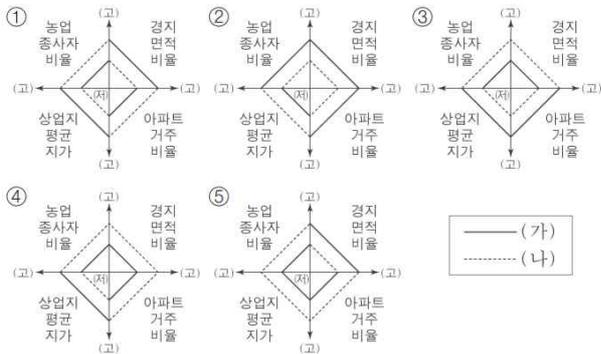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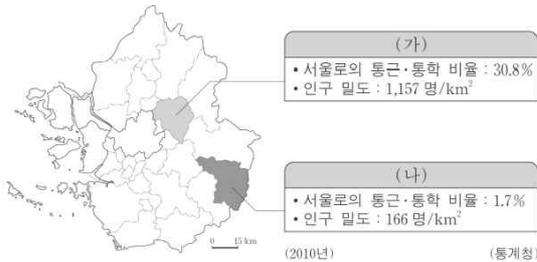
을 ㉡은 도심에서 주거 기능이 상업 기능보다 대체로 높아요.

병 ㉢으로는 대기업 본사나 금융 기관의 본점 등이 있어요.

정 ㉣은 도심에서 주변 지역으로 기능이 이전하는 현상이에요.

무 ㉤은 도시의 상주 인구가 감소하고 주간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30. (가), (나)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옳게 나타낸 것은?



11. 도시 계획과 재개발, 지역 개발

사람들이 생활하는 도시 공간을 효과적으로 만들고,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며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계획하는 것을 도시 계획이라고 한다. 도시 계획은 건축물·도로·공원 등을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경제 활동과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으로서, 인구·교통량·주택·산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도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 도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도시**를 계획하여 재난, 지능형 교통 시스템, 지하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 재개발**은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건물을 철거·수리·개조 등의 과정을 거쳐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 도시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시가지 확장에 따른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 부족과 불량 주택 문제 등이 나타났다. 도시 재개발은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해당 지역을 새롭게 활성화하는 도시 재생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재개발 사업은 대상 지역에 따라 **도심 재개발**, **산업 지역 재개발**, **주거지 재개발** 사업으로 구분된다. 도심 재개발은 도심의 노후화된 건물이나 불량 주거 지역을 상업 및 업무 지역으로 변화시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산업 지역 재개발은 도시 내의 노후 산업 단지 또는 전통 시장 등을 아 파트형 공장, 현대식 시장, 주거 지역 등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주거지 재개발은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도시 재개발은 시행 방법에 따라 **철거 재개발**,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철거 재개발은 기존의 건물과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여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보존 재개발은 역사 및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의 환경을 유지·관리하는 방식이다. 수복 재개발은 기존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수리 및 개조하여 보완하는 도시 재개발 방식이다.

**도시 경관**이란 건축물, 도로, 토지 이용 모습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도시의 겉모습을 의미한다. 산업화 시대의 도시 계획은 경제적 효율성에 치중하여 도시 경관이 기존의 시설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삶의 질을 중시하게 되면서 도시 이미지나 주민 생활을 반영한 경관 중심의 도시 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노후된 기반 시설 및 주거지가 개선되면서 도시 경관이 변화한다. 도심 재개발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거나, 주택 재개발로 낡은 주택들이 고층 아파트로 바뀌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 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도시 재개발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주거 유형이 획일화되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기도 한다.

도시 계획 및 재개발은 공간 효율성과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 생활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주민의 보행이 안전해지고 공공 및 상업 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되면서 삶의 질이 개선된다. 하지만 도시 계획과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높은 입주 분

담금으로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형성된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재개발 지역과 주변 지역의 교류가 단절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시민 단체, 공공 기관 등이 협력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도시 계획과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 개발**은 지역의 잠재력을 살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의 발전을 극대화하고 지역 격차를 줄임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개발 방식에는 불균형 개발 방식과 균형 개발 방식이 있다. 불균형 개발 방식은 중앙 정부가 개발 계획을 수립·집행하는 **하향식 개발**로, 투자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 개발 방식은 자원의 효율적 투자가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은 높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낮고 역류 효과가 클 때는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단점이 있다.

균형 개발 방식은 지역 주민의 요구와 참여에 기반을 둔 **상향식 개발**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과 경제적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주로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 개발 방식은 지역 주민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진행할 수 있으나,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경제 기반 확충을 위해 수도권과 남동 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개발**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에는 인구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광역 개발** 정책과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을 시행하였다. 1990년대에는 산업 지대를 조성하고 지방 도시를 육성하여 지방 분산형 국토 골격을 형성하기 위한 **균형 개발**을 시행하였다. 2000년대에는 지역의 **균형 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화에 적합한 글로벌 녹색 국토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 개발을 통해 고속 국도, 항만, 다목적 댐, 산업 단지 등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의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최근에는 서울숲 공원 조성, 울산 태화강변 생태 공원 조성 등 환경친화적인 개발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 위주의 국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공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수도권에서는 다양한 기능과 인구의 과도한 집중으로 집값 상승,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경제가 침체되거나 인구와 자본의 유출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해졌다. 농촌에서는 청장년층의 인구 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 인구 고령화, 생활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에는 경제 성장으로 발생한 환경 오염의 피해와 관련하여 **환경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 오염 피해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

공간 및 환경 불평등 문제는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거나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저

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의 공간 및 환경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 전략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생활 환경이 열악한 낙후 지역의 주거·보건·생활 기반 시설 등에 관한 투자가 필요하며,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 도시와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에 세금 감면 및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어 수도권외의 인구와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지방 중심 도시, 중소 도시, 농촌 지역의 주민이 불편함 없이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행복 생활권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들 역시 친환경 농업, **농촌 체험 관광 마을**, 장소 마케팅 등 각 지역에 맞는 자립적인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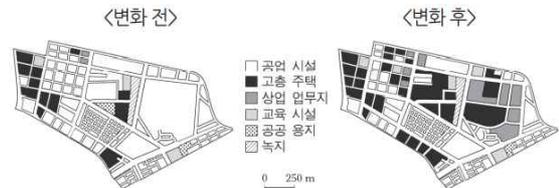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지역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인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개발을 추구하면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의 국토 개발은 산업화로 발생한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시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토 공간에 관한 사회적·경제적 요구와 환경 및 생태적 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지속 가능한 국토 공간의 조성은 경제 성장, 환경 보전, 사회 통합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생산, 유통, 소비와 같은 경제 활동에서 환경적 가치를 고민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추구하여 사회적 지속성을 유지하는 등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지역 주민,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이 합심하여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활동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한 국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감소, 친환경 산업 육성, **슬로시티** 운동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1. 지도는 ◎◎시 □□동 일부의 토지 이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의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지가가 하락했을 것이다.
  - ㄴ. 상주인구가 증가했을 것이다.
  - ㄷ. 토지 이용 집약도가 낮아졌을 것이다.
  - ㄹ. 공업 용지의 면적 비중이 감소했을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자원의 의미와 자원 문제

자원은 자연물 중에서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쓸모가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기술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하고, 그중 경제성이 있어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자원을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한다.

자원은 가변성, 유한성, 편재성 등의 특성이 있다. **가변성**은 과학 기술의 발달 정도나 경제적 수준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자원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검은 액체에 불과했던 석유가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자원이 된 것은 자원의 가변성과 관련 있다.

대부분의 자원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언젠가는 고갈되는데, 이러한 자원의 특성을 **유한성**이라고 한다. 또, 특정 자원은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데, 이를 자원의 **편재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원의 유한성과 편재성으로 인해 자원 보유국이 자국의 자원을 무기화하는 **자원 민족주의**가 나타나 국제적인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원은 의미에 따라 좁은 의미의 자원과 넓은 의미의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자원은 철광석, 석탄, 석유 등의 **천연자원**을 말하고, 넓은 의미의 자원은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 조직, 전통 등의 **문화적 자원**과 노동력, 기술, 창의력 등의 인적 자원을 포함한다.

자원은 재생 가능성에 따라 **비재생 자원**과 **재생 자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비재생 자원은 소비되는 속도가 자원이 보충되는 속도보다 빨라 언젠가는 고갈되는 자원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 에너지가 대표적이다. 재생 자원은 지속적으로 공급·순환되는 자원으로 태양광(열), 풍력, 수력 등이 있다. 한편, 철, 구리 등의 금속 광물은 사용량과 재활용 수준에 따라 고갈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는 지각이 형성된 시기가 오래되고 지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광물 자원이 분포하지만 매장량은 적은 편이다. 주요 광물 자원의 대부분은 북한에 분포하며, 남한은 금속 광물의 매장량은 적지만, 비금속 광물의 매장량은 비교적 풍부하다.

금속 광물 중 가장 많이 소비되는 **철광석**은 제철 및 철강 공업에 주로 이용되며, 대부분이 북한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강원도 양양에서 철광석이 소량 생산되고 있으며, 대부분을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수강 및 합금용 원료로 이용되는 **팅스텐**은 과거에 강원도 영월(상동)에서 상당량을 생산하였으나, 값싼 중국산이 수입되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이용되는 **석회석**은 고생대 조선 누층군이 분포하는 강원도 남부 및 충청북도 북부 지역에서 생산되며, 매장량이 풍부하다. 도자기 공업과 종이, 화장품, 도료 등의 원료로 쓰이는 **고령토**는 강원도와 하동, 산청을 비롯한 경상남도 서부 지역에서 많이 산출된다.

에너지 자원에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신탄(숯과 뽕나무)의 소비 비중이 높았으나, 산업이 발달하면서 석탄과 석유의 소비 비중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 가장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에너지 자원은 무연탄으로, 고생대 평안 누층군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무연탄은 1960년대부터 주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었으나, 석유와 천연가스의 소비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와 1989년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탄광이 폐쇄되어 현재는 생산량이 적다.

제철 공업 및 발전용으로 이용되는 역청탄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석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에너지 자원으로, 주로 화학 공업의 원료 및 수송용 연료로 이용된다. 석유는 신생대 지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1980년대 말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석탄, 석유보다 연소 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어 최근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천연가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울산 앞바다의 가스전에서 2004년부터 소량 생산하고 있다.

전력의 대부분은 화력, 원자력,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발전 설비 및 발전량 비중이 가장 높은 **화력 발전**은 발전소 건설비가 적게 들고 입지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어,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충청남도 서해안, 남동 임해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그러나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들고, 대기 오염 물질 및 온실 기체 배출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원자력 발전**은 적은 양의 연료로 대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발전소 건설 기간이 길고 건설비가 많이 들며, 지반이 안정되고 냉각수 확보가 쉬운 곳에 입지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방사능 누출의 위험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경상북도 울진과 경주(월성), 전라남도 영광, 부산광역시(고리)에 있다.

**수력 발전**은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고 발전 과정에서 대기 오염 물질 및 온실 기체 배출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어렵고 댐 건설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대규모 수력 발전소가 건설되면 수몰 지역이 발생하고 생태계와 기후가 변화하는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수력 발전소는 한강, 낙동강, 금강 등의 대하천 중·상류 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우리나라는 자원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부존 자원이 빈약하여 대부분의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자원 민족주의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서 자원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최근에는 중국, 인도 등 개발 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자원 소비가 급증하면서 자원 고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자원의 개발 및 소비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확대하고, 첨단 산업과 같이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면서도 부가

가치가 높은 **에너지 절약형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한다. 또,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해외 자원을 개발하고 자원의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화석 에너지 고갈에 대비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 화석 연료를 변환하여 사용하는 신 에너지와 햇빛·물·지열 등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재생 에너지를 말한다. 석탄 액화·가스화 및 수소 에너지, 연료 전지 등이 대표적인 신 에너지이고, 수력·태양광·풍력·조력 등이 재생 에너지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적 제약이 크고 화석 연료보다 경제적 효율성은 낮지만, 장래에는 화석 연료 고갈 문제와 환경 오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는 총 에너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최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일조량이 풍부한 호남 서해안과 영남 내륙 지방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이나 산지 지역에 주로 건설된 **풍력 발전**은 대관령·영덕·제주도 등에 분포한다. 이 밖에도 조차를 이용하는 시화호 조력 발전소가 있으며, 제주도에는 파랑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파력 발전소가 있다.

32. 다음은 '자원' 관련 단원의 발표 수업 안내이다. 이를 토대로 작성한 발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단원 내용 중 발표할 '주제어'를 선정한다.
- 각 주제어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정의한다.
- 각 주제어에 대한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조사 내용'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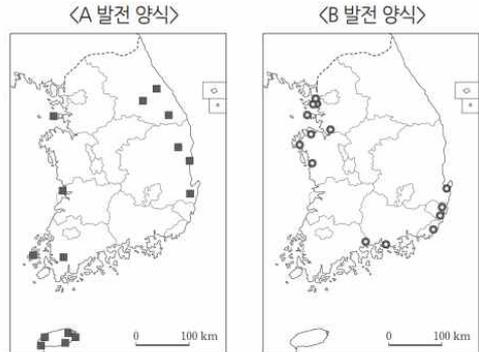
	주제어	개념	조사 내용
①	도시 광산	폐가전제품에 포함된 광물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사업	바람 지도와 일사량 지도에 바탕을 둔 풍력,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
②	신·재생 에너지	기존 화석 연료를 변환하거나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	석유 파동 이후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석유 수입국의 다변화
③	자원의 가변성	자원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고갈될 수밖에 없는 특성	상동 텅스텐 광산의 폐광과 폐광된 이후 광산 재가동의 이유
④	자원의 유한성	기술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원의 가치가 달라지는 특성	주요 지하자원의 가채연수 파악 및 대체 자원 개발 현황
⑤	자원의 편재성	자원이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 치우쳐 분포하는 특성	지역 간, 국가 간 이동이 많은 자원의 분포 지역 파악

33. 그래프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1차 에너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주로 내륙 지역에서 생산된다.
- ② (나)는 (다)보다 에너지 생산 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
- ③ (라)는 (다)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른다.
- ④ 1차 에너지의 생산량은 석탄이 수력보다 많다.
- ⑤ 1차 에너지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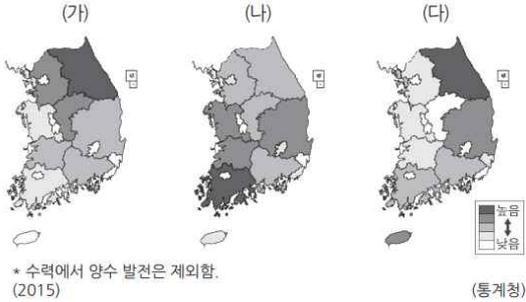
34. 지도는 A, B 발전 양식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B 발전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 발전 양식은 설비 용량 5,000kW 이상, B 발전 양식은 100만 kW 이상만을 표시한 것임.

- ① A는 발전량에서 수력보다 비중이 높다.
- ② A는 대부분의 연료를 수입에 의존한다.
- ③ B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소비지로부터 먼 곳에 입지한다.
- ④ A는 B에 비해 기후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 ⑤ B는 A에 비해 발전 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과 온실 기체의 양이 적다.

35. 지도는 (가)~(다) 신·재생 에너지의 지역별 생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세 에너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수력, 풍력, 태양광 중 하나임.)



- < 보 기 >
- ㄱ. (가)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많이 부는 지역에서 생산이 유리하다.
  - ㄴ. (나)는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서 생산이 유리하다.
  - ㄷ. (다)는 낙차가 크고 유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생산이 유리하다.
  - ㄹ. (다)는 (나)보다 에너지 생산 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농업의 변화와 농촌 문제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농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도농 간의 소득 격차 확대와 생활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농촌의 청장년층이 대도시로 이동하는 이촌 향도 현상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촌에서는 노동력 부족, 인구 고령화, 휴경지 증가, **경지 이용률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한편, 농경지가 공장, 주택, 도로 등으로 이용되면서 경지 면적이 감소하였으나, 경지 면적보다 농업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하면서 가구당 경지 면적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러한 농촌 인구의 변화와 가구당 경지 면적 증가 등과 관련해 **영농의 기계화**가 진행되었으며, 영농 조합과 농업 회사 등이 많이 설립되었다.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가 변하면서 쌀과 맥류 등의 곡물 소비는 줄어들고 채소, 과일, 특용 작물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고 있다. 또한, 교통과 농업 기술의 발달로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을 이용한 **시설 재배**가 늘어나면서 농산물 가공 공장과 저장 창고 등의 농업 시설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식량 작물인 **쌀**은 중·남부 지방의 평야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다수확 품종이 개발되고 영농 기술이 발달하면서 쌀 수확량이 많이 증가하였으나, 식생활 구조 변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쌀의 1인당 소비량과 재배 면적은 감소하였다. **맥류**의 대표적인 작물인 보리는 주로 벼의 그루같이 작물로 남부 지방에서 재배되는데, 최근 수익성 감소와 외국 농산물의 수입 확대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많이 감소하였다.

채소, 과일 등과 같은 **원예 작물**은 식생활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증가로 생산량이 많이 증가하였다. 원예 작물은 주로 대도시 주변의 근교 농촌에서 시설 재배를 통해 집약적으로 재배하는데, 교통 발달로 원교 지역에서도 재배가 늘어나고 있다. **낙농업**은 우유·유제품 등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제주도와 대관령 등지에는 대규모 육우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농촌은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후된 생활 환경 개선 및 영농의 기계화 등을 추진하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의 부채가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였다. 복잡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 증가 등의 문제로 최근 농가 소득 중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와의 소득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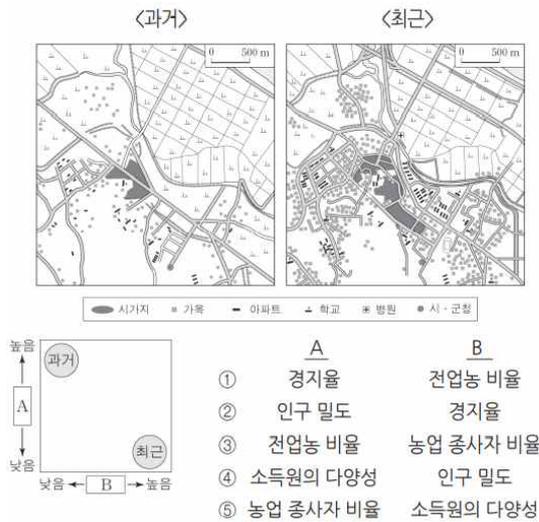
세계 무역 기구(WTO) 체제 및 자유 무역 협정(FEM) 확대로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의 농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량 자급률이 낮아짐에 따라 **식량 안보**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 밖에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한 농약 및 화학 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농촌의 생태 환경 파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 농업은 건강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 기술의 혁신과 농산물의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고, 수입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 유기 농업을 비롯한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지리적 표시제** 확대, 농산물 브랜드화, 농산물 직거래와 전자 상거래 확대, **로컬푸드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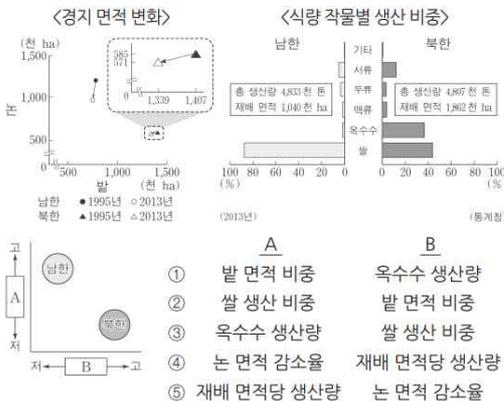
동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농촌 소득을 높여야 한다.

농업과 농촌은 최근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능을 넘어 자연환경 보전, 전원생활 공간이나 관광 및 휴식 장소의 제공, 전통문화의 계승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농업이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는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농촌 경제, 생태, 경관, 역사, 문화 등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36 지도는 어느 지역의 토지 이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두 시기의 상대적 특성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 A, B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은?



37 그래프는 남·북한의 농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상대적 특징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 A, B에 들어갈 지표로 옳은 것은?



14. 공업 발달과 지역 변화

우리나라의 공업은 1960년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정부의 수출 주도 정책으로 섬유, 신발 등 노동 집약적 **경공업**이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1970년대에는 정부의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 철강, 석유 화학, 기계 등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 공업**이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남동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1980년대에는 자동차, 조선 등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중화학 공업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성장하였고, 국내 임금 상승,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컴퓨터, 신소재, 생명 공학 등 지식·기술 집약적인 **첨단 산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신기술 융합 산업**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 집약적 경공업 중심에서 자본 집약적 중화학 공업, 기술·지식 집약적 첨단 산업 중심으로 공업 구조가 고도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력이 풍부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원료 수입과 제품의 수출에 유리한 남동 해안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공업의 지역적 편재**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가 나타났다. 한편,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가공 무역**의 발달로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져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공업 발달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적은 대기업이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업의 이중 구조**는 균형적인 경제 성장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므로,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공업의 이중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공업의 입지는 지형, 원료 등의 자연적 요인과 시장, 노동력, 교통 등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공업은 일반적으로 생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입지한다. 생산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원료비, 운송비, 노동비 등이 있으며, 어느 요소의 비중이 더 높은가에 따라 입지가 달라진다. 최근에는 소비자 정보 및 생산 관련 지식·기술과의 접근성, 정부 정책, 환경 문제 등의 사회적 요인이 공업 입지 요인으로 중시되고 있다.

공업 입지 유형에는 운송비가 최소인 지점에 입지하는 **원료 지향 공업**, 시장 지향 공업, **적합지 지향 공업**이 있고, 노동비가 절감되는 지점에 입지하는 **노동력 지향 공업**, 집적 이익이 높은 지점에 입지하는 **집적 지향 공업** 등이 있다.

시멘트 공업과 같이 제조 과정에서 무게나 부피가 많이 감소하는 공업은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음료, 가구와 같이 제조 과정에서 무게나 부피가 많이 증가하는 공업은 시장 가까이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유, 제철과 같이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공업은 대부분 적합한 항구를 끼고 입지한다.

노동비의 비중이 큰 섬유, 전자 조립 공업은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 주로 입지한다. 다양한 부품을 조립하는 자동차, 조선

공업 등은 관련 업체들이 집적된 곳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첨단 산업은 운송비의 비중이 작고 부가가치가 커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자유롭지만, 전문 기술 인력과 연구 시설과의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도시 주변에 입지한다.

공업 지역은 한 곳에 여러 공장이 집적하여 형성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성한 경우가 많다. 1960년대 공업 발달 초기에는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공업이 발달하였다. 1970~80년대에는 수도권인 인천·부천·안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남동해 지역의 포항·울산·창원·광양·여수 등을 중심으로 중화학 공업이 발달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공업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충청 공업 지역과 호남 공업 지역의 해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단지가 조성되었다. 이곳들은 중국과 가깝고, 과밀화된 수도권의 공업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더욱 발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첨단 산업이 발달하면서 연구 개발 및 관련 정보, 고급 기술 인력이 풍부한 수도권에 **지식 기반 산업**이 집중하고 있으며, 충청권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산업 단지에는 연구 개발 기능이 강화된 **산업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어 지역의 혁신 역량이 높아지고 있다.

공업 지역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집적 이익과 집적 불이익, 정부의 정책, 교통·통신의 발달, 기업 조직의 성장과 세계화 등이 있다.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은 집적 이익이 발생하여 공업 지역이 형성되지만, 공장이 지나치게 집적하면 지가 상승,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등과 같은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여 공업 지역이 분산된다. 정부의 산업 단지 조성이나 **균형 개발 정책**도 공업 지역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준다.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로 운송비가 공업 입지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여 공업의 입지 가능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기업 조직이 성장하면서 대도시에는 본사와 연구소가 입지하고, 생산 공장은 지방이나 해외로 이전하는 **공간적 분업**이 진행되면서 일부 기업은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공업 지역이 형성되면 일자리가 창출되어 인구가 증가하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반면, 공업 지역이 쇠퇴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위축된다. 또, 쇠퇴하던 공업 지역에 새로운 산업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는데, 서울 디지털 산업 단지가 대표적이다.

38. 제시된 사례를 통해 A, B 기업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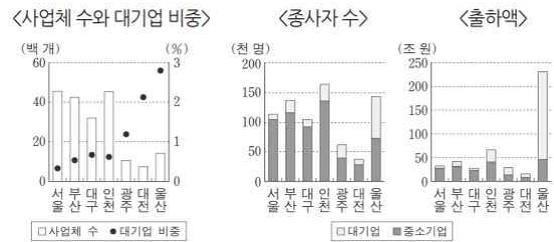
- A 기업은 주원료인 목재를 수입 혹은 해외 지역 조립을 통해서 공급받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이제는 원료의 90% 이상을 국내 폐지의 재활용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 B 기업은 국내 공장을 축소하고, 중국에 공장을 신설하여 제품 생산을 이원화하였다. 국내에서는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중국에서는 노동비의 비중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본사와 기술 개발 부문은 그대로 국내에 유지시켰다.

< 보 기 >

ㄱ. A 기업은 해외 원료 운송비의 부담이 더 커졌을 것이다.  
 ㄴ. B 기업은 국내 공장보다 중국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할 것이다.  
 ㄷ. B 기업의 국내 공장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생산 방식을 전환하였을 것이다.  
 ㄹ. A 기업은 기술 혁신을, B 기업은 분공장 설립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였을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9. 그래프는 7대 도시의 제조업체 규모별 현황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대기업 비중은 각 도시 내 사업체 중 대기업의 비중임.  
 \*\* 중소기업은 종사자 수 10~299명, 대기업은 300명 이상 기업체임.

- ① 사업체 평균 종사자 수는 서울이 광주보다 많다.
- ②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와 출하액은 대구가 부산보다 많다.
- ③ 중소기업의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은 서울이 울산보다 많다.
- ④ 7대 도시 중에서 대기업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다.
- ⑤ 7대 도시 중에서 종사자 수의 대기업 비중과 출하액의 대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이다.

## 15. 교통·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변화

상업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유통 활동을 말한다. 상업의 입지는 접근성, 지가, 유동 인구, 집적 이익 등의 경제적 요인과 도시 성장, 소비자의 생활 방식, 교통·통신의 발달 등의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상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의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어야** 하며, 상점의 입지는 상점의 규모와 기능, 상품의 구매 빈도와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백화점은 편의점보다 최소 요구치가 크기 때문에 상점의 수가 적으며, 지가가 비싸더라도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입지하여야 한다.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은 상대적으로 수가 많고 소비자의 분포에 따라 분산되어 있으나, 고가의 전문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은 그 수가 적고,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상업의 입지는 인구 증가, 교통·통신의 발달, 소비 행태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에는 일정 주기를 두고 열리는 정기 시장이 대부분이었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상설 시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또한,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시공간의 제약이 완화되어 상권이 확대되었고, 상품의 유통 구조는 단순해졌다. 한편,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소비 행태가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 공간이 증가하고 있다.

백화점은 접근성이 좋은 도심과 부도심에 입지하고 있으며, 대형 마트는 도시 내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다. 지가가 저렴하고 교통이 발달한 대도시 외곽 지역에는 대형 아웃렛 매장이 발달하고 있으며, 쇼핑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 상업 시설**이 철도 역사, 신도시의 상업 지구 등을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다. 또한,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 소셜 커머스의 발달로 입지가 자유로운 **무점포 상점**이 증가하면서, 물건을 배송하기 위한 **택배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

반면, 기존의 소규모 상점과 **전통 시장**은 시설의 노후화, 편의 시설 부족, 대형 마트의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도시 상권이 확대되면서 중소 도시 상권은 위축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전까지 농업 중심의 1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공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증가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감소하였고, 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서비스업, 교육·문화·디자인 산업 등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서비스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수요자 유형에 따라 개인이 이용하는 **소비자 서비스업**과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비자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이 대표적이며, 생산자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방송업, 사업 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이다. 서비스업 발달 초기에는 소비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았지만, 정부나 기업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관련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탈공업화 사회에서, 다른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큰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서비스업의 고도화**라고 한다.

소비자 서비스업은 소비자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 지역에 입점하여 입지하고 있으며, 업체 간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산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화된 상업 지구와 같이 전문화된 소비자 서비스업은 한곳에 집중하기도 한다. 생산자 서비스업은 교통과 통신이 편리하고 정보 및 전문 인력 획득에 유리하며, 기업의 본사가 집중된 대도시의 도심이나 부도심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편, 최근에는 대도시의 도심에서 높은 임대료나 교통 혼잡 등의 집적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서비스업은 대도시 교외 지역으로, 생산자 서비스업은 교통 조건이 유리하고 업무 및 생활 환경이 쾌적한 주변 도시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 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 **경부 고속 국도**를 시작으로 구축된 도로망은 여객과 화물 수송의 중심이 되었다. 철도 교통은 도로 교통의 발달로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서울, 부산, 대구 등에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대도시 교통난 해소와 대도시권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경부 및 호남 고속 철도**가 개통되어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한편, 국제 무역이 증가하면서 부산, 광양, 평택 등의 무역항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인천 국제공항**은 동북아시아 허브 공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된 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이동 통신 가입자와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발달로 **사회적 관계망**을 쉽게 구축할 수 있게 되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졌다.

교통·통신 발달로 시공간적 제약이 감소하면서 경제 활동의 공간적 분포가 변화하고 있다. 먼저 교통 발달의 측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산업과 인구가 집중하여 대도시로 성장하고, 간선 교통로를 따라 **통근·통학권** 등 생활권이 확대되어 대도시권이 형성되기도 한다. 또한, 지나친 집중으로 지가가 상승하고 교통 혼잡 등이 발생하면, 교통이 편리한 다른 지역에 다시 집중하는 **공간의 재조직**이 이루어진다. 한편,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발전이 정체되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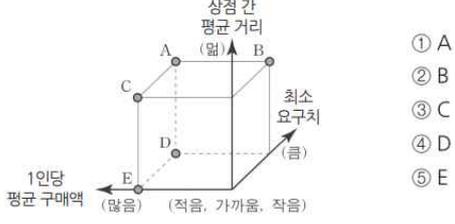
다음으로는 통신의 발달로 상업 입지가 달라지기도 한다. 무점포 상점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 외곽 지역에 물류 단지, 복합화물 터미널 등이 들어서면서 공간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기업 활동에서도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유가 원활해짐에 따라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본사는 대도시,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공장은 대도시 주변 지역이나 지방에 입지하는 **공간적 분업**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교통의 발달로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범위, 소비자의 이동 거리 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의 발달로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기업은 시장 파악이 쉬워지고, 소비자는 상품 정보 획득에 유리해지고 있다. 또, 일상생활의 시공간적 제약이 완화되면서 재택근무, 화상 회의 등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정보화**의 영향으로 지식 기반 산업이 발달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전문직 및 연구직 종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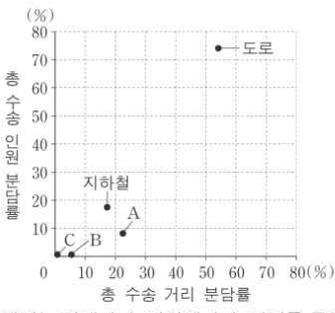
반면, 급격한 정보화로 개인 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지역 및 계층 간 격차 심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 정비, 개인의식 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40. 소매업태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OE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대형 마트, 편의점 중 하나임.)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41. 그래프는 교통수단별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을 나타낸 것이다. A ~C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총수송 거리는 여객 수송 인원에 수송 거리를 곱한 것임. (국토교통부) (2010년)

- ① A는 B보다 기상 조건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 ② B는 C보다 평균 운송 속도가 느리다.
- ③ C는 A보다 국내 화물 수송 분담률이 높다.
- ④ 기종점 비용은 A > C > B 순으로 높다.
- ⑤ 주행 비용 증가율은 C > B > A 순으로 높다.

16.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인구 성장은 출생, 사망에 따른 자연적 증감과 전입, 전출에 따른 사회적 증감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인구는 경제 발전, 인구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2012년 이후 5,00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까지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아 인구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1920년대 이후 근대 의료 기술의 보급과 식량 증산으로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가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광복 직후 해외 동포의 귀국과 6·25 전쟁 중 북한 동포의 월남으로 남한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타났으며, 전쟁 이후 **출산 붐(baby boom)** 현상으로 인구가 급증하였다.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1960~1980년대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출산 억제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출생률이 지나치게 낮아짐에 따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인구는 거주하기 유리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기후, 지형, 토양, 자원 등의 **자연적 요인**과 문화, 교육, 직업, 산업, 교통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있다. 전통적으로 인구 분포는 자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으나,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이 커졌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는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기후가 온화한 남서부 평야 지대는 경지 비율이 높아 인구가 밀집하였고, 겨울이 길고 추운 북동부 산간 지대에는 인구가 희박하였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구 분포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대도시와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는데,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또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교통과 서비스업이 발달한 대도시와 포항에서 여수로 이어지는 남동 임해 지역은 인구가 밀집해 있다. 반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일대의 산간 지대와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다.

우리나라는 근대화 이후 교통의 발달로 인구 이동이 활발해졌다. 일제 강점기에는 광공업이 발달한 북부 지방으로 인구가 이동하거나, 일본·중국·러시아 등 해외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광복 이후에는 해외 동포들이 귀국하여 고향이나 도시로 이동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촌 향토 현상**이 활발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고, **교외화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인구 구조는 연령별·성별·산업별 등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인구 구성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연령별 인구 구조는 출생과 사망, 전입과 전출로 결정되며,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은 비율이 감소하고있으며 노년층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또, 지역적으로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은 교육 기회와 일자리가 많은 도시에서, 노년층은 농어촌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성별 인구 구조는 **성비**를 통해 파악하는데 연령대 및 지역별로 달라진다. 대체로 출생 시에는 남초 현상이 나타나서 성

비가 높지만, 노년에 이를 수록 여초 현상이 나타나며 성비가 낮다. 지역적으로 대도시, 관광 도시 등은 여초 현상이,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도시, 휴전선 부근의 군사 도시 등은 남초 현상이 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전까지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났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 구조가 **중형**으로 변화하였으며, 점차 방추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중위 연령**은 점차 높아졌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경에는 총인구가 감소하고, 2060년경에는 노년층이 많은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면서 생산 연령층인 청장년층 인구 비중 감소와 노년층 인구 비중 증가로 **노년 부양비**가 상승하여 생산 연령층의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적극적 출산 장려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및 사회 복지 제도 확충 등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 2001년에 1.29명으로 낮아져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2015년 기준 1.24명으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 내에서도 최저 수준이다. 또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미혼 인구의 증가, 초혼 연령의 상승,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대부분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련이 있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는 자녀 보육비와 사교육비의 부담이 커지면서 **출산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감소하게 되며, 경제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부족, 소비 감소와 투자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의학 기술 발달과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으로 사망률이 감소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는 사망률 감소와 출생률 저하가 지속되었을 때 더욱 심화된다.

고령화는 연금·의료·복지 부문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인 노년층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는 현재의 청장년층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져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과 노동 생산성 저하 등을 가져와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불안한 노후 소득을 야기하여 개인 삶의 질마저 낮아질 우려가 크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인구의 불균등 분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간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구의 대부분은 도시에 분포하며, 도시 내에서도 보건·의료 시설, 소비 및 문화 시설 등이 갖추어진 지역에 인구가 몰리게 된다. 반면, 이러한 편의 시설이 없거나 생활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인구 감소가 더욱 심화되면서 일부 농촌과 지방 중소 도시들은 쇠퇴하기도 한다.

한편,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 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교통, 복지, 여가 활동, 사회적 관계망에서 낙후되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유소년층을 위한 문화·교육 시설보다 노인을 위한 문화·평생 교육·복지 시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폐교를 노인 복지 시설로 이용하는 등의 실질적 방안과 더불어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노인 밀집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인구는 국가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며, 생산과 소비 활동의 주체로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인구 감소는 경제 활동 전반을 둔화시키고 국가의 위상마저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 규모의 현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대체 출산율**은 2.1명이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대체 출산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출산 장려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결혼·출산·양육·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정부와 사회 전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출산과 양육의 주체가 되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의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과 남성의 육아 휴직을 보장하고, 직장 내 보육 시설을 활성화하며,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지원 방안 등의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양성평등 문화 확립과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화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노인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여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년 연장**, 재취업 기회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임금 피크제와 같은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며, 국가와 개인의 부담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연금 및 기초 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개인은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저축이나 보험 형태의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과 편의 시설을 확대하고, **실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더불어 노인을 위한 정신적·육체적 건강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자리 및 복지 비용과 관련하여 노인과 청년 세대 간의 합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노동 시장이 개방되고, 국가 위상의 제고와 한류 열풍 강화로 외국인의 국내 취업과 유학, 국제결혼 등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약 3.7%를 차지하며,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쉽고, 교육의 기회가 많은 수도권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 근로자의 임금 상승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3D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저임금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 업계의 수요에 따라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고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촌의 젊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면서 농촌에서는 결혼 적령기의 **성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부터 농촌을 중심으로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로, 결혼 이민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다.

오늘날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감소,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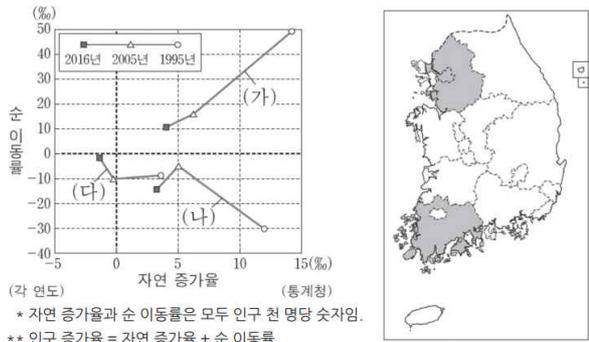
국내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곳곳에 출신 국가별 이주민 공동체가 형성됨에 따라 **다문화 공간**이 증가하고 있다. 안산시의 월곡동 국경 없는 마을, 서울의 혜화동 필리핀 장터, 이태원동 이슬람 중앙 성원 마을, 광희동 몽골 타운 등은 **다문화 사회** 모습을 잘 보여 주는 대표적 공간이다.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영향은 저렴한 노동력 유입으로 인한 경제 성장,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안, 다양한 문화적 자산 공유, 초국가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경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에 따른 사회적 편견과 차별,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정체성 혼란과 사회 부적응 등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2011년 4월부터 국기에 대한 맹세와 입영 선서에서 '민족'이라는 말이 삭제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반영한다. 이제 '우리 민족' 대신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말로 정체성을 통합하고 있다. 하지만 한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 마련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과의 상생할 수 있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다문화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외국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배려와 이해를 통해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려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으로 전문 기능 인력의 유입을 추진하여 다문화 사회의 편익을 높이고,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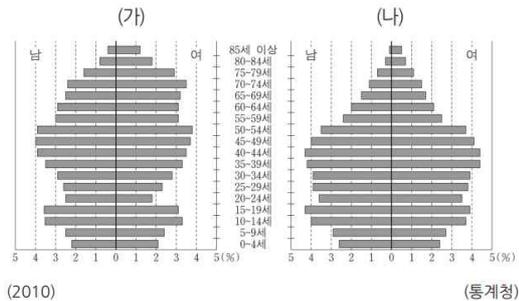
42.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3개 시·도의 시기별 인구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기 >
- ㉠. (가)와 (다)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 ㉡. 1995년에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가)와 (나)이다.
  - ㉢. 2005년에 순 전출을 보이는 시·도는 (나)와 (다)이다.
  - ㉣. 2016년에 출생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은 시·도는 (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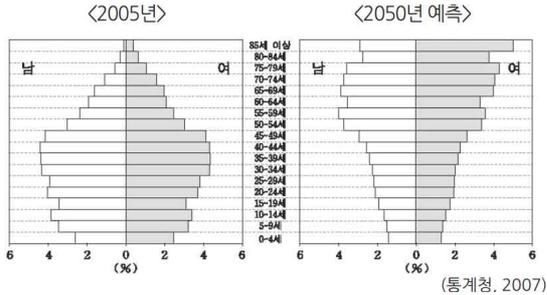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43. 그래프는 (가), (나) 지역의 인구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나)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중 하나임.)



- ① (가)의 노년 인구 부양비는 유소년 인구 부양비보다 높다.
- ② (나)는 노년층 성비가 유소년층 성비보다 낮다.
- ③ (가)는 (나)에 비해 중위 연령이 높다.
- ④ (가)는 (나)에 비해 총 인구 부양비가 낮다.
- ⑤ (가)는 (나)에 비해 농업 인구의 비율이 높다.

44.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인이 취업할 수 있는 일터를 개발한다.
- ② 출산 장려금 지급과 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 ③ 노인 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실버산업을 육성한다.
- ④ 정년 단축을 통해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 ⑤ 육아 휴직을 활성화하고 직장 내 보육 시설을 확대한다.

17.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지역이란 지리적 특성이 다른 곳과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를 의미한다. 지역은 대륙이나 국가와 같은 넓은 범위부터 우리 마을과 같이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지역은 여러 가지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지역성**이라고 한다. 지역의 지역성과 공간 범위는 시간의 흐름, 교통·통신의 발달, 지역 간의 상호 작용 등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최근에는 지방 자치 단체들이 지역성을 활용한 지역 이미지를 브랜드화하며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역은 지형, 기후와 같은 자연환경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산업, 종교, 언어와 같은 인문 환경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지역 구분에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동질 지역**과 **기능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동질 지역은 특정한 지리적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공간 범위를 말하는데, 농업 지역, 기후 지역, 문화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질 지역의 사례로 농업 지역을 벼농사 지역과 밭농사 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후 지역을 열대·온대·냉대 기후 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 지역은 중심지와 그 기능이 미치는 배후지가 기능적으로 결합한 공간 범위를 말하는데, 상권, 통학권, 통근권, 도시세력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능 지역은 중심에서 기능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주변으로 갈수록 기능의 영향이 점차 줄어든다. 또한, 기능 지역은 중심지와 주변 지역의 공간 관계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그 범위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변화한다.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된 지역은 지역 간 경계가 선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인접한 두 지역의 특성이 함께 분포하는 **점이 지대**가 나타난다. 점이 지대는 문화권, 언어권의 경계 지역에서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하나의 지역이 되기도 하지만,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특정 기준에 따라 서로 비슷한 특징이 나타나는 범위를 묶어 보면 우리의 국토 공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산줄기, 고개, 하천 등의 자연적 특성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였다. 산줄기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기 전에 지역 간의 교류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서 각 지역 특유의 지역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북부 지방, 중부 지방, 남부 지방** 세 지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남북 분단 이후 휴전선 북쪽을 북부 지방으로,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을 묶어 중부 지방으로, 전라권·영남권·제주도를 묶어 남부 지방으로 구분한다. 그 외에도 행정 구역에 따라 전국을 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황해·평안·함경도 8개 지역으로 나누기도 한다. 최근 남한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제주권의 6개 권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한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로 구성되며,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권을 이룬다. 서울은 조선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 왔으며, 인천은 인천 국제 공항과 인천항을 바탕으로 국제 물류의 중심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며, 서울의 배후지 역할을 한다.

수도권은 면적이 국토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기업 본사·정부 기관·대학·언론사·문화 시설 등이 집중된 우리나라의 핵심 지역이다.

수도권은 196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에는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 제조업이 분산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부터는 인천과 경기도의 산업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이후 수도권은 탈공업화가 진행되면서 2차 산업 비중이 줄어들고, 생산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경기도에는 넓은 공장 부지를 필요로 하는 지식 기반 제조업이, 서울에는 고급 인력 정보의 집적이 필요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발달하는 공간적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문화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해 문화 산업을 육성하는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다. 수도권은 풍부한 자본력과 넓은 소비 시장 등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기능이 집중해 있다. 특히, 서울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 시설의 상당수가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는 대형 공연장, 전시장, 경기장 및 다양한 문화 시설 등이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경기도 일대에 입지하는 문화 시설 입지의 공간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은 서울에 집중된 인구가 주변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및 문화 시설이 분산 재배치되고 있다. 또한, 광역 교통망의 구축에 따라 교외화가 나타나면서 인천, 수원, 성남, 고양 등 서울 주변 도시의 기능이 커져 **공간 구조의 다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나 각종 기능이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주택·도로 등 생활 기반 시설의 부족, 교통 체증과 주차난, 집값 상승과 도심 노후화, 환경 오염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삶의 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기능의 격차가 벌어지게 하여 **국토 공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및 기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과밀 부담금 제도**와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통해 공장 건축 허가 면적을 제한하면서부터 공장이 충청 및 호남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에 중앙 행정 기관의 일부를 이전하고, 주요 시도에 공공 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 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와 더불어 수도권을 다핵 연계형 공간 구조로 개편하여 수도권 내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 관리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 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자연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의 광역 차지 단체에서는 남아 있는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비오톱 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등 환경 보전

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경계로 **영서 지방**과 **영동 지방**으로 나뉜다. 영서 지방은 대체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행정 구역상 경기도와 접해 있다. 영서 지방은 고도가 높지만 평탄한 고원이 발달하며, 한강 유역의 분지에 춘천, 원주 등의 도시가 분포한다. 영동 지방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산지와 좁은 해안 평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안을 따라 강릉, 속초 등의 도시가 분포한다. 영서 지방은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며, 여름철 남서 기류의 유입으로 지형성 강수가 많고 집중 호우가 자주 내린다. 이에 비해 영동 지방은 태백산맥과 수심이 깊은 동해의 영향으로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온난하며, 겨울철에 북동 기류의 영향으로 강설량이 많다.

영서와 영동 지방은 험준한 태백 산지의 영향으로 지역 간 교류가 어려워져 언어, 음식, 가옥 등의 인문 환경이 다르게 나타난다. 영서 지방은 수도권과 유사한 영서 방언이 나타나지만, 영동 지방은 북쪽으로는 북부 지방, 남쪽으로는 영남 지방과 비슷한 방언이 나타난다.

산지의 비중이 높은 영서 지방은 감자, 옥수수 등의 밭농사 비중이 높으며, 태백 산지 주변의 고위 평탄면에서는 고랭지 농업, 목축업 등이 이루어진다. 영동 지방은 반농 반어촌의 경관이 나타나며, 아름다운 해안 지형과 항만을 바탕으로 관광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강원 지방은 풍부한 광물, 임산, 수산 자원을 바탕으로 광업과 임업, 수산업이 발달하였다. 특히, 석탄과 석회석, 철광석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서 남한 제1의 광업 지역으로 성장하였고, 석탄 생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증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가정용 연료의 변화와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서, 이 지역의 광업 도시들은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였다.

강원 지방은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농업, 임업, 광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관광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강원 지방은 석탄 산업이 쇠퇴한 폐광 지역을 활용하여 탄광촌을 관광지로 복원하거나 과거의 산업 철도를 이용하여 레저 활동을 유도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홍보하는데 힘쓰는 등 다양한 방향의 관광 산업 발달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 지방은 춘천의 바이오 산업, 원주의 의료 산업 클러스터, 강릉의 해양 신소재 산업 등 지식을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강원 지방은 풍부한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산업을 특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백 산지의 고위 평탄면에 조성된 목장과 풍력 발전기, 고랭지 농업 경관이나 석회동굴과 같은 카르스트 지형, 동해안을 따라 발달한 해수욕장 등은 관광 자원으로 가치가 높으며, 도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태백 산지 지역은 기후와 지형의 특성을 활용하여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평창은 2018년 동계 올림픽이 열리게 되어 교통, 숙박 시설 등 다양한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동계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통로들이 개설되어 강원 지방의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연관 산업의 발달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충청 지방**은 북쪽으로는 경기도, 동쪽으로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남쪽으로는 전라북도와 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청 지방은 수도권과 영·호남 지방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람과 물자가 모이는 교통의 요충지로 성장해 왔다.

과거 남한강과 금강을 이용한 내륙 수운이 황해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충주, 공주, 부여, 강경 등의 도시가 발달하였고, 1900년대 초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대전**이 철도 교통의 결절지로 성장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경부·호남·중부·중부 내륙·서해안 고속 국도가, 2000년대에는 고속 철도가 충청 지방과 연계되었다. 이와 같은 교통의 발달로 충청 지방은 전국 각 지역과의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곳이 되었으며, **교통·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충청 지방은 수도권 전철이 연장되고 고속 철도가 개통되면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수도권 배후지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2012년 7월 1일 중앙 행정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는 등 충청 지방은 수도권의 행정, 산업,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이전함으로써 수도권과 밀접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아산, 제조업이 발달한 당진·서산 등은 수도권의 인구나 기능이 분산되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업 도시**인 충주는 지식 기반형 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서해안에 인접한 태안 기업 도시는 관광 레저형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혁신 도시**로 지정된 진천·음성은 정부 기관의 이전 및 산·학·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주거 환경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충청 지방은 수도권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 성장으로 최근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대에 **내포 신도시**를 건설하여 충청남도청, 도의회, 교육청, 경찰청 등 충청남도의 지방 행정 기능을 이전하였다. 이러한 개발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 서북부 내륙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청 지방은 수도권의 공장 신설과 증설을 규제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의 공업이 이전하면서 제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충청 지방의 산업 단지들은 철도, 고속 국도 등 다양한 교통망을 따라 입지한다. 특히, 서북부 지역은 수도권과의 인접 효과, 중국 경제의 부상 등으로 **산업 단지 개발**이 두드러진다. 이곳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IT 업종 및 자동차 산업, 산업 원자재 공급을 위한 제철 및 석유 화학 공업이 발달하였다. 예를 들어 서산은 석유 화학 공업, 당진은 제철 공업, 아산은 IT 업종과 자동차 공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대전광역시에는 대덕 연구 단지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청주는 오송 첨단 의료 복합 단지·생명 과학 단지, 오창 과학 단지 등의 국책 사업 추진으로 지식 기반 제조업 및 연구 개발 기능이 발달하고 있다.

**호남 지방**은 북쪽으로는 금강을 경계로 충청 지방과 접하고, 동쪽으로는 소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영남 지방과 접해 있다. 호남 지방은 동부의 산지 지역, 서남부의 평야 및 도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넓은 평야와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농업, 어업 등이 발달하였다. 호남 지방은 농산물과 해산물이 풍

부하고, 예부터 전통 음식, 판소리, 민속놀이 등 다양한 문화가 발달해 왔다.

호남 지방은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 지대로 만경강, 동진강 주변의 **호남평야**와 영산강 주변의 **나주평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평야가 넓지만 하천 유역이 좁아 유량이 부족하고, 홍수나 바닷물의 역류에 의한 염해 등으로 농사짓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보, 제방, 저수지 등과 같은 수리 시설을 확충하여 물의 이용도를 높이고, 논지를 개간하여 농경지를 확장하였다. 특히, 섬진강 상류에 건설된 다목적 댐을 통해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되면서 농업이 발달하였다. 현재 호남 지방은 전국 쌀 생산량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호남 지방은 **간척 사업**을 통해 농경지를 확장하였다. 김제시 광활면, 부안군 계화도, 영산강 하구 등이 대표적인 간척지이다. 또한, 호남 지방에서는 금강 하구의 군산, 영산강 하구의 영암, 광양만 일대의 여수·광양 등 간척지에 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켰다. 2000년대에는 국내 최대의 새만금 간척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산업과 도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호남 지방은 기후가 온화하고 비옥한 평야가 발달하였으며, 긴 해안선과 넓은 갯벌을 끼고 있어 농업과 어업 위주의 1차 산업이 발달하였다. 호남 지방의 1차 산업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호남 지방의 공업은 1970년대 익산 자유 무역 지역, 여수 국가 산업 단지, 1980년대 광양 제철소가 조성되면서 발달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과의 교역에 유리한 **군산 국가 산업 단지, 대불 산업 단지** 등이 조성되었다. 호남 지방은 고속 국도의 확장, 고속 철도의 개통, 컨테이너항 건설 등을 통한 접근성 향상과 중국과의 교역 증가로 제조업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전통적 지역 중심지인 **광주**는 광(光) 산업, **전주**는 첨단 부품 소재 산업으로 공업 구조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과 광양만 일대는 **경제 자유 구역**으로, 전주·완주와 나주 일대는 혁신 도시로 지정되어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호남 지방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고유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관광 산업이 발달하였다. 지리산, 덕유산, 내장산, 무등산, 변산반도, 다도해 등 수려한 산과 바다가 국립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고인돌 유적지와 판소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갯벌과 습지는 생태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김제 지평선 축제**, 남원 춘향제, 보성 다향제 등 지역 축제가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으며, 자연 생태, 농경 문화, 문학, 예술 문화 관련 자원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남 지방**은 북쪽과 서쪽으로는 소백산맥이, 동쪽으로 태백산맥이 위치하는데, 그 사이로 흐르는 낙동강은 삶의 터전이 된다. 동쪽과 남쪽은 바다에 접하고 있어 해상 교통 발달에 유리하다.

영남 지방의 인구는 일찍이 낙동강 중·상류에 위치한 안동, 상주, 진주 등을 중심으로 분포하였다. 1970년대 이후 **영남 내륙과 남동 해안**에 산업 단지가 들어서면서 구미, 대구, 포항, 울산, 부산, 창원 등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증하였다. 반

면, 산지가 많아 교통이 불편한 경상북도 북부와 경상남도 서부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부산과 대구는 인구가 집중하면서 영남 지방을 대표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고, 울산은 1962년 공업 지구로 지정된 후 인구가 급증하였다. 최근에는 부산과 대구의 교외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양산, 김해, 경산 등으로 인구가 분산되고 있다.

영남 지방은 경지 면적이 넓고 농업 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사과 등의 **과수** 농업이 활발하고,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와 대도시의 근교에 **시설 원예 농업**이 발달하였다.

제조업은 정부의 거점 개발 정책과 수출 위주의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영남 내륙과 원료 및 제품 수출입에 유리한 남동 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구미는 전자 공업, 대구는 기계·섬유 공업, 포항은 철강 공업, 울산은 석유 화학·조선·자동차 공업, 부산은 기계·자동차 공업, 창원은 기계 공업, 거제는 조선 공업이 발달하였다. 영남 지방은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중심지로 제조업 생산액이 많고, 대기업의 비중이 높아 사업체 수 대비 종사자 수가 많다.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업 및 교육 서비스업이 발달하였고, 제조업을 바탕으로 사업 서비스업, 물류업 등이 발달하였다. 또한, 안동, 경주 등에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휴양 산업**이 발달하였다.

영남 지방은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정부축을 따라 발전하였으며, 울산·구미·포항·창원·거제 등은 제조업 기반이 강화되면서 급성장하였다. 부산과 대구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신발·섬유 공업 등의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서비스업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항으로서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동북아시아의 **물류 비즈니스 거점**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국제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 산업을 특화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대구**는 전통적 제조업인 섬유 공업이 쇠퇴하자, 대신 패션과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섬유 공업의 첨단화와 **첨단 의료 복합 단지**의 유치를 통해 고부가 가치 산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새로 조성되는 국가 산업 단지인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첨단 산업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울산**은 조선·자동차·정유 공업이 입지하면서 인구가 급성장하여 1997년에 광역시로 승격되었고, 최근에는 공업에 첨단 과학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개념을 접목하고 있다. **창원**은 기계 공업 단지의 조성 및 경상남도청의 이전으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2010년에는 마산·진해와 통합되었다. 창원은 제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 기반 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안동과 경주는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 관광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안동**은 조선 시대 고택과 서원이 잘 보존된 전통 마을을 관광 산업과 연계함으로써 발전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청의 이전으로 인해 행정 기능이 강화되었다. **경주**는 고분과 사찰, 불탑 등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보문 관광 단지를 중심으로 관광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또한, 도시 성장

이 정체되었던 **김천**과 **진주**는 최근 혁신 도시 지정으로 제도약을 꿈꾸고 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으로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통로에 위치하여 동북아시아의 주요 도시와 접근성이 높다. 제주도는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으며,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2002), 세계 자연유산(2007), 세계 지질 공원(2010)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다.

한라산은 전체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방패형 화산이지만, 중앙부는 경사가 급한중 모양의 화산을 이루며 정상에는 화구호인 백록담이 있다. 한라산 사면에는 약 400개의 **오름**이라고 불리는 기생 화산이 있으며, 섬 곳곳에 용암동굴, 주상 절리, 폭포 등 다양한 지형이 발달하여 관광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제주도는 남쪽에 위치하고 주변에 난류가 흘러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으며, 온화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해안 저지대에는 겨울철에도 따뜻하여 난대성 식물이 자라고,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져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잘 나타난다.

제주도의 지표는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덮여 있어서 물이 지하로 잘 스며든다. 제주도는 연 강수량이 많으나 하천의 발달이 미약하고, 비가 내릴 때만 하천에 물이 흐르는 건천이 주를 이룬다. 지하로 스며든 물은 해안 지역에서 솟아 **용천**을 형성하는데, 전통 취락은 물을 얻기 쉬운 해안가의 용천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삼무삼다의 섬으로 유명한 제주도는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독특한 문화가 나타난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무암을 이용하여 돌담을 쌓고, 새 (띠) 로 엮은 나지막한 지붕으로 강풍에 대비하였다. 또한, 기반암의 특성상 농사가 불리하여 경지는 대부분 밭으로 이용하였으며, 잡곡과 해산물을 활용한 음식 문화가 발달하였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육지와는 다른 방언을 사용하며, 다양한 설화와 민간 신앙, 세시 풍속 등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해 왔다.

제주도는 1960년대 이후 **관광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항공 교통의 발달과 아름다운 화산 지형, 온화한 기후, 독특한 섬 문화에 이끌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 지역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볼거리, 각종 먹거리와 즐길 거리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올레 탐방과 같은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관광객이 늘어나 관광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2년 **국제 자유 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되었고, 상품·자본 등의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또, 국내외 기업에 각종 규제 완화와 조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제주도를 명실상부한 국제 자유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방, 외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권을 보장받아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관광·교육·의료·첨단 산업 등을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 활성화와 청정한 자연환경 등의 영향으로 제주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수려한 자연환경을 연계한 생태 관광 지대를 조성하고, 해녀·돌담·방언 등을 활용하는 제주 고유의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 국민 소득의 증가와 인식 변화로 힐링, 웰빙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제주도는 마이스 산업, 승마와 요트와 같은 스포츠 관광, 의료 및 휴양 관광 등의 **고부가 가치 관광 산업**을 확충할 계획 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아열대성 작물의 재배가 늘어날 것이며, 복합형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건설되어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성장할 것이다. 또한, 아름다운 경관을 바탕으로 휴양 거점으로서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기능이 강화되고, 중산간 지역의 교육·휴양·주거 기능이 확충되면서 해안과 산지를 연계하는 공간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45. 다음은 수도권 도시에 대한 학습 노트의 일부이다. (가), (나) 를 지도의 A~D에서 고른 것은?

**(가)의 특징**

-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함.
-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과 서해안의 대표적 항구가 있음.

**(나)의 특징**

- 남북한을 연결하는 경의선이 지나는 곳에 위치함.
-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으며 출판 단지가 입지함.



- |     |     |     |     |
|-----|-----|-----|-----|
| (가) | (나) | (가) | (나) |
| ① B | A   | ② B | C   |
| ③ C | A   | ④ C | B   |
| ⑤ D | B   |     |     |

46. 학생이 답변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의 내용에 가장 적합한 탐구 주제는 무엇일까요?

**<탐구 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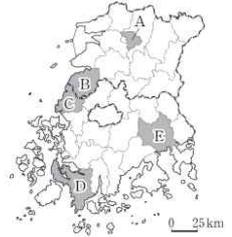
예술을 캐는 광산이라는 의미인 ○○○○은 정선의 폐광 자리에 세워진 아트 테마 파크이다. 2013년에 문을 연 이 시설은 지방 자치 단체가 시설비를 부담하고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채탄 시설과 예술을 결합하여 설치 미술 공간, 전시 공간 및 편의 시설 등으로 활용된 이곳은 최근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 ① 갑 : 광업의 쇠퇴 원인
- ② 을 : 탄광촌의 인구 변화
- ③ 병 : 무연탄 생산량의 현황
- ④ 정 : 폐광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노력
- ⑤ 무 : 폐광이 지역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

47. 표는 호남 지방의 답사 일정을 정리한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E에서 고른 것은?

구분	지역	주요 활동
1일 차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로 시티로 지정된 지역의 전통 한옥 마을 탐방</li> <li>• 한지 박물관에서 한지 공예 체험</li> </ul>
2일 차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 발전소 견학</li> <li>• 법성포에서 지역 특산물인 굴비 시식</li> </ul>
3일 차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연안 습지 방문</li> <li>• 국제 정원 박람회 개최 열렸던 ○○만 국가 정원 방문</li> </ul>



- |     |     |     |     |     |     |
|-----|-----|-----|-----|-----|-----|
| (가) | (나) | (다) | (가) | (나) | (다) |
| ① A | B   | C   | ② A | C   | E   |
| ③ A | D   | E   | ④ B | C   | D   |
| ⑤ B | E   | D   |     |     |     |

48. 다음 자료는 체험 학습 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이다. (가) 지역을 지도의 A~E에서 고른 것은?

geography ...

부모님과 (가) 도자기 축제에 다녀왔다. 도자 물레 체험, 도자 순례 교실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도자기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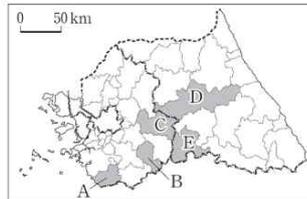
홍아오 · 냇길 달기 · 공유하기

geography ...

파가 임금님께 진상했다고 전해져 온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음식점 입구에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가) 쌀을 사용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홍아오 · 냇길 달기 · 공유하기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18. 북한 지역의 특성과 통일 국토의 미래

북한은 남한보다 산지와 고원의 비중이 높고, 평야의 비중이 작다. 마천령산맥과 함경산맥이 분포하는 북동부 지역에는 백두산을 비롯한 높고 험준한 산지가 많으며, 한반도의 지붕이라 불리는 **개마고원**이 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남령산맥**을 중심으로 서쪽은 동쪽보다 산지의 규모와 밀도가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산지 분포에 따라 **압록강, 대동강** 등 큰 하천들은 주로 황해로 유입되며, 대동강 하류 일대에 평야평야, 재령평야 등이 발달하였다. 동해 쪽으로 흐르는 하천은 **두만강**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사가 급하고 유로가 짧으며, 동해안을 따라 소규모의 평야가 발달하였다.

북한은 남한보다 위도가 높고 유라시아 대륙에 접해 있어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남한보다 겨울이 춥고 길며, 여름은 짧고 서늘하여 연평균 기온이 낮고,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특히, 개마고원의 삼지 연 일대는 고위도에 위치하고 해발 고도가 높아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다.

북한의 연 강수량은 남한보다 적은 편이며 대체로 여름철에 집중된다.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다. 강원도 해안 지역과 청천강 중·상류 지역은 다우지이며, 대동강 하류 지역과 관북 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소우지를 이룬다.

북한은 남한보다 경지 면적이 넓지만, 경사지가 많고 작물의 생장 가능 기간이 짧아 토지 생산성이 낮다. 북한은 밭의 비율이 경지 면적의 약 2/3를 차지하여 옥수수, 감자, 콩 등 밭작물의 생산량이 많고, 쌀은 주로 관서 지방의 평야 지대와 동해안의 좁은 해안 평야에서 생산된다. 북한은 식량 증산을 위해 **다락밭** 등을 통해 농경지를 개간하였으나, 오히려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은 남한보다 인구가 적고, 인구 밀도가 낮다. 현재 북한의 총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출생률 감소로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노년층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 북한의 인구는 서부 평야 지역과 동해안의 해안 평야에 주로 분포하며, 북동부 내륙 지역은 인구가 희박하다. 특히, 서부 평야 지역은 넓은 평야와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 풍부한 용수를 바탕으로 농업과 공업이 발달하여 인구의 4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북한은 인구의 6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발달은 미약하다. 관서 지방에는 평야를 비롯하여 신의주, 남포, 개성 등과 같은 도시들이 발달해 있다. 평양은 인구 300만 명이 넘는 북한 최대의 도시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의 중심지이다. 남포는 평양의 외항으로 서해 갑문이 건설된 이후 그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신의주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중국과의 교역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관북 지방에는 동해안을 따라 청진, 원산 등의 항구 도시가 일제 강점기부터 공업 도시로 성장하였다. 한편, 관북 내륙 지방은 험준한 산지가 분포하여 공업이 발달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인구 밀도가 낮고 도시 발달이 미약하다.

북한은 남한보다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북한은 300여 종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경제성이 있는 광물만도 220여 종에 이른다. 풍부한 지하자원은 북한 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높일 수 있다.

북한은 석탄이 에너지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높은 산지가 많고 하천의 폭이 좁아 남한보다 수력 발전의 비중이 높다. 수력 발전소는 1920년대 말부터 압록강 지류인 장진강, 부진강 등에 건설되었으며, 화력 발전소는 전력 소비가 많은 평양과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 수립 이후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함께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군수 산업과 연계된 중공업 분야에 과도하게 투자하여 산업 구조의 불균형이 심해졌다. 이에 따라 경공업과 농업의 생산성이 약화되었으며 생활필수품, 식량 및 원자재, 전력 등이 부족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농업·어업과 광공업의 비중이 높아 1·2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업 및 사회간접 자본 중심의 3차 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이후 수·출입 시장이 축소되었고, 자연재해로 식량난이 겹치면서 경제 위기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폐쇄적인 경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빠르게 성장한 중국의 개방 정책을 표본으로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개방 지역은 개방 정책이 체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류가 편리한 신의주·개성·금강산 일대 등 국경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었다.

북한의 개방 정책은 북핵 문제의 대두 이후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개성 공단의 반복적인 가동과 중단, 전력 부족과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 정치적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외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개방 지역은 지리적으로 교역에 유리하고, 인근에 지하자원과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며, 동아시아의 풍부한 소비 시장과 인접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지역들은 통일 이후에도 높은 투자 잠재력을 바탕으로 북한 경제 개발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냉전 체제가 붕괴한 이후 남북한 간 긴장 관계 완화와 북한의 개방화 노력에 힘입어 남북 교류도 활발해졌다. 초기에는 단순한 물자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경제 협력과 사회·문화 교류 등으로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남북 교류는 정부와 민간의 식량·비료 지원과 경의선 및 경원선의 교통로 복원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 위탁 가공을 통한 교역의 확대와 금강산 관광 지구, 개성 공업 지구의 개발 등을 통해서도 추진되었다. 특히, 스포츠 교류와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교류의 확대를 가져왔다.

남북 교류는 남북한 간의 긴장이 완화되는 시기에는 교류가 증가하고, 군사적 마찰을 빚었던 시기에는 교류가 중단되는 등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다.

다양한 남북 교류는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회·문화적 거리를 좁혀 분단으로 발생한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통일은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남한은 자본과 기술, 경제 성장의 경험 등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고, 북한은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 등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 상호 보완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의 통합 교통망 구축을 통해 대륙과 해양으로의 진출이 유리한 반도국의 잠재력을 살릴 수 있다. 대륙과 단절된 남한은 통일이 되면 **유라시아 횡단 철도** 및 **아시안 하이웨이**와 연결되어 동아시아 경제권의 주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한 **비무장 지대** 및 접경 지역의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평화 지대를 구축하고, 교통로를 연결하여 인적·물적 협력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자원 공동 개발, 관련 제도 개선 및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49. 표는 남한과 북한의 발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남한과 북한 중 하나이며, (가)~(다)는 수력, 원자력, 화력 중 하나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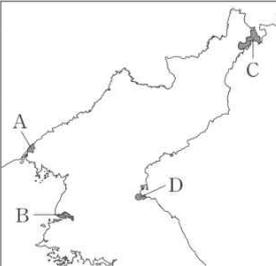
구분	A		B	
	발전 설비 용량 비중	발전량 비중	발전 설비 용량 비중	발전량 비중
(가)	7.3	1.5	59.2	60.2
(나)	23.3	30.9	0.0	0.0
(다)	69.4	67.6	40.8	39.8
합계	100.0	100.0	100.0	100.0

(2014년) (통계청)  
\* 신·재생 에너지 및 기타를 제외한 값을 100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것임.

- ① A는 북한에, B는 남한에 해당한다.
- ② (나) 발전소는 주로 내륙에 입지한다.
- ③ (다)의 연료는 북한이 남한보다 해외 의존도가 높다.
- ④ (가)의 발전량은 (나)보다 기후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 ⑤ (가)는 (다)보다 발전 시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많다.

50. 다음 자료의 (가)~(다) 지역을 지도의 A~D에서 고른 것은?

지역	특성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공식 경제 개발을 추진하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실험 계획</li> <li>• 도로 및 철도 교통의 요지</li> </ul>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특별시이며 대표적인 공업 도시</li> <li>• 갑문 설치 이후 물류 기능 강화</li> </ul>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개발 계획의 지원을 받은 북한 최초의 경제 특구</li> <li>• 금융 기반을 갖춘 국제 교류의 거점 구축 및 외자유치 계획</li> </ul>



- |   |     |     |     |   |     |     |     |
|---|-----|-----|-----|---|-----|-----|-----|
|   | (가) | (나) | (다) |   | (가) | (나) | (다) |
| ① | A   | B   | C   | ② | A   | C   | B   |
| ③ | A   | D   | B   | ④ | B   | C   | D   |
| ⑤ | B   | D   | A   |   |     |     |     |

2023학년도 수능 대비 모의고사 주요 문항 정답

1	⑤	2	③	3	⑤	4	①	5	⑤
6	②	7	①	8	④	9	④	10	③
11	④	12	⑤	13	③	14	②	15	⑤
16	④	17	⑤	18	③	19	③	20	④
21	⑤	22	⑤	23	①	24	④	25	④
26	⑤	27	②	28	③	29	②	30	③
31	④	32	⑤	33	⑤	34	④	35	④
36	⑤	37	②	38	⑤	39	⑤	40	①
41	③	42	⑤	43	④	44	④	45	④
46	④	47	②	48	②	49	④	50	①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2015학년도 교육과정 탐구영역 배경지식

# 국어 영역 (세계 지리)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내 생각에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배점은 2점 또는 3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1 교시

국어 영역

1. 세계화와 지역화

**세계화**는 인간의 활동 공간이 지리적으로 확대되고 국제적인 상호 연계성이 증대되어 국경의 제약이 점차 약해지는 현상이다. 오늘날 새로운 교통수단과 통신 기술의 발달은 이동과 소통에 장애가 되었던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크게 단축했으며, 그 영향으로 국가 간에 사람, 물자, 정보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 금융,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등의 주도로 세계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 또한 국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동시에 **국제 협력**과 지역 간 생산의 전문화를 통한 **국제적 분업**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역화**는 지역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증대하고 잠재력을 길러, 각 지역이 세계적 차원에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이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증가하여 세계의 다양한 상품과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계 각 지역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의 여러 나라는 지역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 **지역 브랜드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 지역의 기후, 지형, 토양 등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상품에 그 지역에서 생산, 가공되었음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이다. 장소 마케팅은 지역의 특정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기업과 관광객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지역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이미지와 시설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 축제 개최, 랜드마크 개발 등이 있다. 이처럼 지역의 정체성을 잘 살려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화로 상품과 서비스, 자본, 노동 등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경제의 세계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경을 넘어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화로 인해 각국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도 하지만, 국가 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기도 한다. 한편, 세계화와 지역화로 세계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하지만,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동안 세계화는 주로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문화의 세계화**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로 다른 문화를 쉽게 접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가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문화 갈등**이 발생하거나 지역의 전통 문화가 변질되기도 한다. 또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외된 소수 문화가 쇠퇴하거나 사라지는 부작용이 나타나 문화의 다양성이 약화되기도 한다.

세계화 시대에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나 자치 단체가 경제적, 문화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세계 여러 지역과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경쟁력도 높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지역의 문화 보존을 통해 세계 문화의 다양성에도 공헌할 수 있다.

1. 다음은 '경제 활동의 세계화' 단원에 대한 수행 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행 평가 보고서**

○학년 ○반 이름: ◇◇◇

주제: (가) 와/과 관련된 신문 기사 조사하기

**조사 내용 I**

미국의 치킨 업체 A사는 중국 매장에서 중국인들의 아침 식사인 요우티아오(기름 빵)와 또우장(콩즙)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피자 업체인 B사는 밥을 메뉴에 추가하여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었다. ... (후략) ...

- ○신문 2017년 ○월 ○일 -

**조사 내용 II**

서울에 본사를 둔 자동차 업체 C사는 'S' 발음을 좋아하는 인도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어 차량의 이름을 지었다. 또한 비포장 도로가 많은 도로 사정과 터번을 쓰는 인도인의 편의에 맞추어 차량을 개발했다. ... (후략) ...

- △일보 2016년 ○월 ○일 -

- ① 세계 도시의 성장
- ②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 ③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 전략
- ④ 첨단 산업의 입지 요인 변화
- ⑤ 생산 시설 이전에 따른 산업 공동화

2. 다음 자료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푸드 서비스 기업 □□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인근에서 ㉠ 1955년에 첫 매장을 개장한 이래, ㉡ 세계 여러 지역으로 진출하여 ㉢ 120여 나라에 3만 8천여 개의 매장을 가진 세계적 규모의 프랜차이즈 업체로 성장하였다. 최근에는 ㉣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여 지역 특화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각국에서 판매되는 이 기업의 햄버거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 ○○지수는 세계 여러 국가의 물가 수준을 비교할 때 활용된다.

<□□사 대륙별 매장 분포>

- ① ㉠ - 지리 정보 중 위치를 나타내는 공간 정보에 해당한다.
- ② ㉡ - 유럽보다 라틴 아메리카에 매장이 더 많다.
- ③ ㉢ - 원격 탐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이다.
- ④ ㉣ -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 전략이다.
- ⑤ ㉤ - 지역 브랜드화 전략에 해당한다.

## 2. 지리 정보와 공간 인식

지도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의 정보를 기호나 문자 등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사람들의 **세계 인식**을 반영한다. 따라서 지도에 표현된 내용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시대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은 일찍부터 지도 제작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5세기부터 활발한 동서 교류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많은 지리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지도 대부분은 중국과 그 주변 지역에 한정되어 표현되었는데, 이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인 **중화사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송나라의 **화이도**와 명나라의 **대명혼일도** 등이 중화사상이 반영된 대표적인 세계 지도이다. 이러한 중국 중심 세계관은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천하도** 등이 그 사례이다.

한편, 17세기 이후 이탈리아 출신의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제작한 **곤여만국전도**가 소개되면서 중국인의 세계 인식 범위가 더욱 넓어졌으며, 서구식 세계 지도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8세기 이후 실학자들에 의해 서양의 근대적 지도가 도입되었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천하도지도**, **지구전후도** 등이 제작되었다.

현존하는 세계 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이다. 이후 로마 시대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로마의 영토 확장 과정에서 얻은 지리적 지식과 지도 제작 기술을 집대성하여 세계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지도는 최초로 경위선 개념과 투영법을 사용하였으며 근대 세계 지도 제작의 기반이 되었다.

크리스티교의 영향을 받은 중세 유럽에서는 종교적인 영향으로 과학적, 실용적 지도 제작이 어려워졌다. 이 시기에 널리 사용된 **TO 지도**는 세계를 원형으로 표현하고, 크리스티교 세계관을 반영하여 지도의 중심에 예루살렘을 두었다. 반면, 이슬람 세계는 그리스, 로마의 지도 제작 기술을 받아들이고, 활발한 상업 활동을 펼치며 지리적 지식의 범위를 넓혀 갔다. 이를 바탕으로 **알 이드리시**는 이슬람교 성지인 메카를 지도 중심에 둔 세계 지도를 제작하였다.

15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인은 탐험을 통해 더욱 넓은 세계를 인식하였고, 인쇄술의 발달로 지도 제작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중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는 목적지까지의 항로가 직선으로 표현되어 나침반을 이용한 항해에 널리 사용되었다.

**지리 정보**는 지표 공간의 자연 및 인문 현상의 상호 작용에 관한 정보로서,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조사 지역을 방문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그 조사 결과를 담은 종이 지도, 문헌, 통계 책자 등을 통한 **간접 조사**로 지리 정보를 수집하였다. 최근에는 **원격 탐사** 기술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지리 정보를 분석하고 표현할 때에는 종이 지도를 이용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컴퓨터로 제작한 다양한 지도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지리 정보 체계(GIS)**는 지리 정보를 수치화하여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분석, 가공, 처리하여 필요한 결과물을 얻는 지리 정보 기술이다. 지리 정보 체계는 오늘날의 복잡하고 방대한 지리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

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주제도를 이용한 **정보 분석**을 통해 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지리 정보 체계는 초기에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지도 제작과 환경 분야 등에서 주로 사용해 왔으나 컴퓨터,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등의 발달로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연결된 **웹(Web) GIS**를 통해 개인의 실생활에 필요한 날씨, 길 찾기, 교통 정보 등의 지리 정보를 편리하게 얻고 있다.

과거의 세계 지도는 종이에 간단한 지형지물의 위치 및 형태 등 제한된 양의 정보만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이 발달한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정교한 **전자 지도**가 제작되면서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속성 정보를 지도에 기록할 수 있다.

오늘날의 전자 세계 지도는 종이 지도와는 달리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거나 통합할 수 있으며, 확대와 축소가 자유롭고 거리와 면적을 구하기 쉬워서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다양한 저장 매체를 통해 과거의 종이 지도보다 복사나 배포가 쉬워졌으며, 파일 형태로 제작되어 보관하기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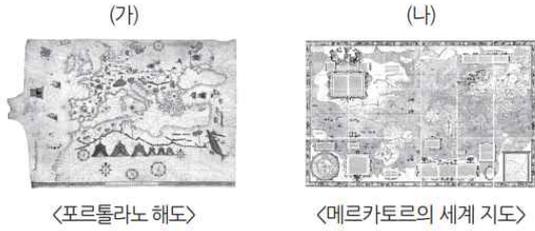
현재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활용과 목적에 부합하는 전자 지도를 제작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지도 제작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3. (가), (나)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 ① 항해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 ②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 ③ 종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 ④ 대륙의 면적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 ⑤ 지구를 구체(球體)로 인식하여 제작되었다.

4. (가), (나) 지도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 ① 항해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 ② 오세아니아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 ③ 지도의 위쪽이 동쪽을 가리키고 있다.
- ④ 대륙의 면적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 ⑤ 지도의 중심에 종교적 이상향이 표현되어 있다.

5. 지리 정보 수집 방식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실내 조사에서 정리된 지리 정보를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계획된 경로를 따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나) 지표면으로부터 반사 또는 방출되는 에너지를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등에 탑재된 센서로 감지하여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 보 기 >

ㄱ. (가)의 주요 조사 방법으로는 관찰, 실측, 면담이 있다.

ㄴ. (나)의 활용 사례로 북극해 해빙(海氷)의 면적이나 남극 상공의 오존층 파괴 범위 파악 등을 들 수 있다.

ㄷ. (나)는 (가)보다 지리 정보 수집에 활용된 시기가 늦다.

ㄹ. △△ 여행사 관광 프로그램 속의 유럽 여행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는 (나)가 (가)보다 적합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 열대 기후 환경

기후는 어떤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매년 되풀이되는 대기 현상의 종합적인 평균 상태로서 **기상**과 구분하여 사용한다. 기후는 인간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지역마다 다른 경관을 만든다.

기후는 기온, 바람, 강수 등의 **기후 요소**로 구성된다. 기온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 일변화가 나타나고 공전에 의해 연변화가 나타난다. 기온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대체로 **열적도**에서 양극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바람은 공기의 수평적인 움직임이다.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한 지구 표면의 불균등한 가열은 지역 간 기온 차이를 일으키고, 기온 차이에 따른 기압 차이가 공기를 움직이게 한다.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분다.

**강수**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비, 눈, 우박 등의 형태로 지표에 떨어지는 것이다. 강수량은 대체로 저위도 지역과 남, 북위 50° 부근에서 많고, 남, 북위 30° 부근과 극지방에서 적다.

기후 요소의 지역적 차이를 가져오는 다양한 원인을 **기후 요인**이라고 한다. 기후 요인에는 위도, 수륙 분포, 지형, 해발 고도, 해류 등 거의 변하지 않는 요인과 기단, 전선 등 수시로 변하는 요인이 있다.

**위도**는 지역의 기후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저위도 지역은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많아서 기온이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적어지면서 기온이 낮아진다. **수륙 분포**는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를 초래하여 기후에 영향을 준다. 같은 위도의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게 나타난다. 지형은 강수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평지보다는 산지가, 비그늘 사면보다는 바람받이 사면이 강수량이 많다. 같은 지역에서도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져 고도에 따라 다른 기후가 나타난다. **해류**는 수온에 따라 난류와 한류로 구분되며, 난류가 흐르는 해안 지역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지만, 한류가 흐르는 해안 지역은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다. **기단**은 기온과 수증기량 등의 성질이 비슷한 거대한 공기 덩어리로, 한 지역의 날씨와 기후는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전선**은 기온 차이가 큰 기단 사이에서 주로 발달하는데, 전선대를 따라 일반적으로 강수가 발생한다.

**열대 기후**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C 이상인 지역으로 적도를 중심으로 남, 북위 20° 사이에 분포한다. 연중 기온이 높아 기온의 연교차가 작으며, 많은 비가 내린다.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강한 일사로 상승 기류가 발달하여 대류성 강수가 빈번하고, 지표면에서는 저압대가 형성된다. 또한 저압대를 중심으로 주변으로부터 공기가 유입되는 **적도 수렴대**가 나타나는데, 적도 수렴대는 계절에 따라 남북으로 이동하며 기온과 강수에 영향을 준다. 열대 기후 지역은 강수량과 강수 시기에 따라 열대 우림 기후, 사바나 기후, 열대 몬순 기후로 구분된다.

**열대 우림 기후**는 연중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아 일 년 내내 강수량이 많다. 강수량의 계절적 변화가 적으며 연중 월 강수량이 60mm 이상이다.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강한 일사로 오후에 대류성 강수인 **스콜**이 자주 내린다. 열대 우림 기후는 아프리카의 콩고 분지, 동남아시아 적도 부근의 여러 섬,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분지 등에서 나타난다.

**사바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특징

이다. 연 강수량은 대체로 열대 우림 기후보다 적은 편이다. 건기에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고, 우기에는 적도 수렴대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많다. 사바나 기후는 아프리카 동부의 열대 우림 기후 지역 주변, 인도와 인도 차이나반도, 남아메리카의 야노스, 캄푸스, 오스트레일리아의 북부 등에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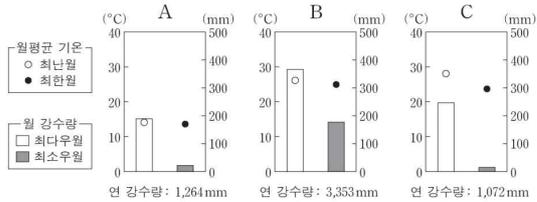
**열대 몬순 기후**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긴 우기와 짧은 건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연 강수량이 많지만, 건기가 있다는 점에서 열대 우림 기후와 구분된다. 고온 다습한 여름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우기에 강수량이 집중되며 우기의 강수량은 같은 기간의 열대 우림 기후보다 대체로 많은 편이다. 인도 남서 해안 및 동북부 해안, 동남아시아 일대, 남아메리카북동부 등에서 나타난다.

열대 기후 지역의 주민은 기후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피부 노출이 많고 개방적인 의복을 주로 입는다. 전통적인 가옥 형태로는 개방적인 구조의 **고상 가옥**이 발달하였으며, 가옥의 재료로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풀, 진흙 등을 이용하였다.

과거 열대 기후 지역의 원주민은 수렵과 채집을 하거나 **이동식 화전 농업**을 통해 카사바, 양, 타로 등의 식량 작물을 재배하였다. 근대에는 선진국에 의해 **플랜테이션**이 시작되면서 커피, 카카오, 차, 사탕수수, 고무 등을 대규모로 재배하여 수출하고 있다.

울창한 열대 우림이나 사바나 기후 지역의 다양한 동식물은 훌륭한 관광 자원이다. 최근 생태 및 체험 관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열대 우림 트레킹, **사파리 관광**, 전통 부족 생활 체험 등 관광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6. 그래프는 세 기후 지역 A~C의 기온과 강수량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최다우월은 연중 강수량이 가장 많은 달, 최소우월은 연중 강수량이 가장 적은 달을 의미함.

- ① A에서는 연중 우리나라의 봄과 같은 기온이 나타난다.
- ② B에서는 기온의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크다.
- ③ C에서는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뚜렷하다.
- ④ A는 B보다 대륙성 강수 일수가 적다.
- ⑤ B, C 모두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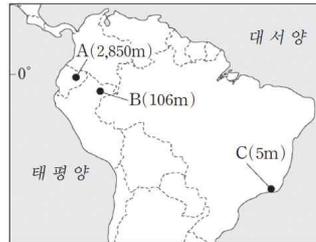
7. 다음 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도 부근 지역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유입량이 많아, ㉠ 지표면의 가열에 의한 상승 기류가 활발한 곳이다. 상승한 대기는 남·북위 25°~30° 부근에서 하강 기류가 되어 ㉡ 아열대 고압대를 형성한다. 그리고 하강한 대기는 다시 ㉢ 적도 쪽으로 이동하여 열대 수렴대를 형성한다.

한편, 기울어진 지구의 자전축으로 인해, ㉣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에 수직으로 전달되는 지점은 계절에 따라 이동한다. 따라서 열대 수렴대가 남북으로 이동하게 되어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는 ㉤ 사바나 기후 지역이 나타난다.

- ① ㉠에 의해 대륙성 강수가 발생한다.
- ② ㉡은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여름 기후에 영향을 준다.
- ③ ㉢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람은 무역풍이다.
- ④ ㉣은 북회귀선과 남회귀선 사이에 위치한다.
- ⑤ 남반구의 ㉤은 7월에 대부분 우기이다.

8. A~C 지역의 기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 안의 숫자는 평균 해발 고도임.

< 보 기 >

ㄱ. A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 이상이다.  
 ㄴ. C는 연중 적도 수렴대 안에 위치한다.  
 ㄷ. B는 A보다 7월 평균 기온이 높다.  
 ㄹ. C는 B보다 연 강수량이 적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온대 기후 환경

온대 기후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3^{\circ}\text{C}$  이상  $18^{\circ}\text{C}$  미만으로, 대체로 편서풍이 부는 중위도에 걸쳐 분포한다. 대륙 서안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대륙 동안은 내륙을 거쳐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온대 기후가 나타나는 중위도 지역은 계절별로 태양 고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태양 고도가 높은 여름철은 낮의 길이가 길며 기온이 높고, 태양 고도가 낮은 겨울철은 낮의 길이가 짧으며 기온이 낮다.

온대 기후 지역은 계절별 강수량과 여름철 기온에 따라 대륙 서안의 서안 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 지역, 대륙 동안의 온난 습윤 기후와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으로 구분된다.

위도  $40\sim 60^{\circ}$  부근의 대륙 서안 지역에는 서안 해양성 기후가 주로 나타난다. 서안 해양성 기후 지역은 연중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온화하여 대륙 동안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또한 연중 습도가 높고 강수 일수가 많다. 서안 해양성 기후는 서부 유럽, 북아메리카의 북서 해안, 칠레 남부,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뉴질랜드 등에서 나타난다.

위도  $30\sim 40^{\circ}$  부근의 대륙 서안 지역에는 지중해성 기후가 주로 나타난다.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여름철에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매우 덥고 건조하며, 겨울철에는 편서풍 및 전선대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온화하고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지중해성 기후는 지중해 연안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칠레 중부, 오스트레일리아 남서부, 아프리카 남서단 등에서 나타난다.

중위도의 대륙 동안은 여름철에는 해양성 기단, 겨울철에는 대륙성 기단의 영향을 받는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 이 지역은 비슷한 위도의 대륙 서안보다 기온의 연교차와 강수량의 계절적 차이가 크다. 온대 동안 기후는 강수량의 계절적 차이에 따라 온난 습윤 기후와 온대 겨울 건조 기후로 나뉜다.

온난 습윤 기후는 연중 습윤하지만, 여름철에 무덥고 강수량이 많으며 건기는 뚜렷하지 않다. 이 기후는 위도  $30\sim 40^{\circ}$  부근의 중국 남동부, 미국 남동부, 남아메리카 남동부,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 등에서 나타난다.

온대 겨울 건조 기후는 온난 습윤 기후보다 겨울철에 건조하다. 여름에는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는 한랭 건조하여 기온의 연교차와 강수의 계절 차가 매우 크다. 위도  $20\sim 30^{\circ}$  부근의 대륙 동안인 중국 남부, 인도차이나반도 북부,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중부 등에서 나타난다.

서안 해양성 기후 지역에서는 서늘한 여름에 잘 자라는 밀과 보리 등의 곡물을 재배하면서, 목초지를 따로 조성하여 소, 양, 돼지 등의 가축을 함께 기르는 혼합 농업이 발달하였다. 오늘날에는 대도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낙농업과 화훼 농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서안 해양성 기후 지역은 흐린 날이 많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주민들은 외출할 때 비옷과 우산을 챙기고, 맑은 날에는 일광욕을 즐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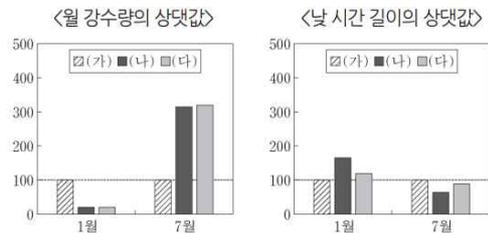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는 고온 건조한 여름에도 자랄 수 있는 코르크, 올리브, 오렌지 나무 등과 같은 경엽수를 이용한 수목 농업이 활발하다. 또한 기온이 온화하고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겨울철에는 밀, 보리, 귀리 등의 곡물을 재배한다. 지중해 연안에서는 여름철의 강렬한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 가옥의

벽면을 하얗게 칠하거나, 벽을 두껍게 하여 외부의 열을 차단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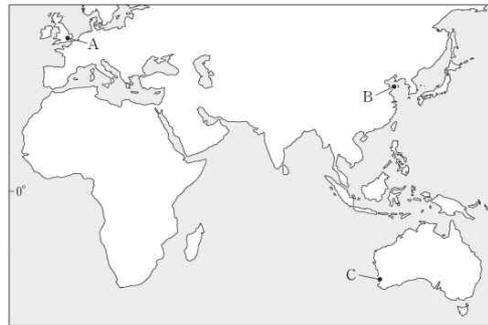
온대 동안 기후 지역은 고온 다습한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풍부하여 농업 발달에 유리하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온대 기후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발달하며, 겨울에도 온화한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는 벼의 2기작이 이루어진다. 또한 일조량이 많고 강수량이 풍부한 산지 지역에서는 차를 재배한다. 북아메리카 남동부 온대 기후 지역에서는 목화, 콩 등의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며, 남아메리카 남동부에서는 대규모의 기업적 목축업과 밀 농사가 이루어진다.

온대 동안 기후 지역은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내륙 수운 발달에 불리하다. 또한 홍수와 가뭄이 자주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2 그래프는 두 시기에 나타나는 (가)~(다) 도시의 상대적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를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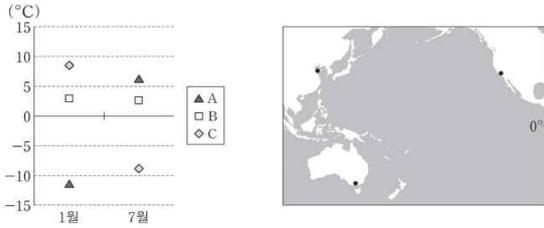


\* 월 강수량과 낮 시간 길이의 상대값은 (가)의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적 크기를 의미함.



- |   | (가) | (나) | (다) |
|---|-----|-----|-----|
| ① | A   | B   | C   |
| ② | A   | C   | B   |
| ③ | B   | A   | C   |
| ④ | B   | C   | A   |
| ⑤ | C   | B   | A   |

10.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기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기온 편차 = 시기별 각 지역의 기온 - 시기별 세 지역 기온의 평균

< 보 기 >  
 ㄱ. 1월에 낮 길이는 A~C 중 C가 가장 길다.  
 ㄴ. 7월에 A는 B보다 강수량이 적다.  
 ㄷ. 7월에 B는 C보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ㄹ. 연중 강수 분포는 A~C 중 B가 가장 고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기온 편차와 강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 시기는 각각 1월과 7월 중 하나임.)

시기 편차		지역		
		A	B	C
(가)	기온 편차 (°C)	6.9	-5.7	9.5
	강수 편차 (mm)	-6.6	86.9	-35.1
(나)	기온 편차 (°C)	-6.0	6.1	-8.6
	강수 편차 (mm)	1.6	-49.3	5.9

\* 기온 편차 = 월평균 기온 - 연평균 기온  
 \*\* 강수 편차 = 월 강수량 - (연 강수량 ÷ 12)

- ① (가) 시기는 1월, (나) 시기는 7월이다.  
 ② A에서는 올리브 등을 재배하는 수목 농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③ (가) 시기에 B는 주로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④ (나) 시기에 C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건기가 나타난다.  
 ⑤ (나) 시기에 밤의 길이는 A~C 중 A가 가장 길다.

5. 건조 및 냉·한대 기후 환경과 지형

건조 기후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으며, 연 강수량을 기준으로 250mm 미만의 사막 기후와 250~500mm의 스텝 기후로 구분한다.

사막 기후는 남·북회귀선 부근의 아열대 고압대 지역, 대륙 내부 지역, 한류가 흐르는 대륙의 서안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사막 기후 지역은 매우 건조하여 식생의 생장이 어려우며, 대부분 맑은 날씨가 이어져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스텝 기후는 사막 주변에 주로 분포하고 짧은 우기가 나타나며 키가 작은 풀이 자라는 초원을 이룬다.

건조 기후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기온의 일교차가 커서 물리적 풍화 작용이 활발하다. 이로 인해 사막 지역에서는 모래·자갈·암석 사막 등이 나타난다. 건조 기후 지역에서는 바람에 의한 침식·퇴적 작용이 활발하다. 바람에 의한 침식 작용으로 사막 포도가 형성되고, 바람에 날리는 모래의 침식을 받아 버섯바위, 삼릉석 등이 형성된다. 바람에 날리는 모래가 쌓이는 곳에서는 바르한과 같은 사구가 형성된다.

대부분의 유수는 지표면을 덮듯이 넓게 퍼져 흐르는 포상홍수의 형태로 나타나고, 포상홍수의 침식을 받은 산기슭에는 완경사의 침식면인 페디먼트가 발달한다. 사막에서는 와디와 플라야가 나타나고, 경사가 급한 계곡의 입구에는 선상지가 발달하며, 선상지가 연결되어 바하다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사막 기후 지역의 주민은 유목을 하거나, 물을 구할 수 있는 오아시스나 외래 하천 주변에서 오아시스 농업과 관개 농업을 한다. 스텝 기후 지역에서도 유목이나 소·양 등을 대규모로 사육하는 기업적 방목이 이루어지고, 토양이 비옥한 지역에서는 밀·목화 등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기도 한다.

냉대 기후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3°C 미만이고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C 이상으로,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로 겨울은 몹시 춥고 여름은 짧다.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대가 분포하며, 척박한 산성 토양인 포드졸이 나타난다. 냉대 기후 지역은 겨울 강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냉대 습윤 기후와 냉대 겨울 건조 기후로 나뉜다. 냉대 습윤 기후는 동부 유럽, 서부 시베리아, 캐나다 등에서 냉대 겨울 건조 기후는 동아시아 북부 등에서 나타난다.

한대 기후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C 미만으로 기온이 매우 낮아 나무가 자라기 어렵다. 한대 기후 지역은 최난월 평균 기온이 0°C 이상인 툰드라 기후 지역과 연중 월평균 기온이 0°C 미만인 빙설 기후 지역으로 나뉜다. 툰드라 기후 지역은 북극해 주변과 일부 고산 지대에서 나타나며, 짧은 여름 동안 작은 풀과 이끼류 등이 자란다. 빙설 기후 지역은 남극 대륙과 그린란드에서 나타나며, 지표면이 연중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 인간이 거주하기 어렵다.

냉·한대 기후 지역에서는 빙하 지형과 주빙하 지형이 주로 발달한다. 빙하 지형은 현재 빙하가 분포하는 극지방과 고산 지역, 과거 빙기 때 빙하로 덮여 있던 지역에 분포하며, 크게 빙하 침식 지형과 빙하 퇴적 지형으로 구분된다.

빙하 침식 지형 중 가장 대표적인 권곡은 계곡 상류에 형성된 반원 모양의 와지이며,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권곡이 만나면 뾰족한 봉우리인 호른(horn)이 형성된다. 하천이 만든 골짜기를 따라 곡빙하가 이동하면 골짜기의 사면이 깊게

파인 U자곡(빙식곡)이 형성된다. 피오르 해안은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U자곡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형성된 협만으로 노르웨이, 칠레 남부, 뉴질랜드 남서부, 알래스카 해안 등에서 볼 수 있다.

과거 빙하로 덮여 있던 지역에서는 빙하가 후퇴하고 남은 자갈, 모래 등이 퇴적된 **빙력토 평원**이 나타난다. 빙력토 평원에는 빙하가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 타원형 형태로 빙하 퇴적물이 쌓인 **드럼린**이 집단을 이루어 분포하고, 빙력토 평원의 말단부에는 빙하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퇴적된 **모래인**이 나타난다. 또한 빙하가 녹은 물이 고여 **빙하호**를 형성하거나, 빙하의 밑을 흐르면서 퇴적물을 쌓아 제방 모양의 **에스커**를 형성하기도 한다.

**주빙하 지형**은 지표면의 결빙과 융해가 반복되는 지역에서 발달하는 지형으로서 빙하 주변 지역이나 고산 지대에 주로 분포한다. 이 지역에서는 암석의 물리적 풍화 작용이 활발하여 암벽에서 많은 암설이 만들어지며, 암설이 아래로 떨어져 쌓이면 **애추**가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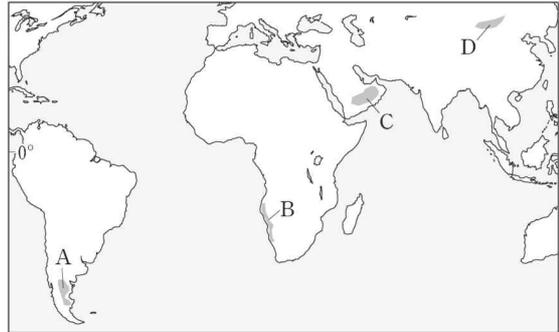
한편, 토양층은 여름에도 녹지 않는 **영구 동토층**과 여름에 일시적으로 녹는 **활동층**이 분포하며, 활동층에서는 기하학적인 모양의 **구조토**가 형성되기도 한다. 산지 사면에서는 여름철에 녹는 활동층이 경사면을 따라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솔리플렉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냉대 기후 지역에서는 주로 **밭농사**와 **임업**이 이루어진다. 냉대 기후의 남부 지역에서는 추위에 잘 견디는 보리, 밀, 귀리 등을 재배하는 농업이 이루어지며, 북부 지역에서는 타이가 지대를 중심으로 목재 및 펄프 공업이 발달하였다. 연중 강수량이 고른 북서부 유럽에서는 목초지 조성이 유리하여 밀 재배와 가축 사육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한다. 빙하 지형이 나타나 는 지역에서는 계곡의 큰 낙차를 수력 발전에 이용하거나, 피오르와 U자곡에 형성된 폭포, 빙하호 등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

현대 기후 지역에서는 기온이 낮아 농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순록을 유목하거나, 북극곰, 바다표범, 고래 등을 사냥하며 생활하였다. 가죽과 털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으며, 비타민을 얻기 위해 주로 생선과 고기를 날것으로 먹었다. 또한 토양층이 녹아 가옥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상 가옥을 짓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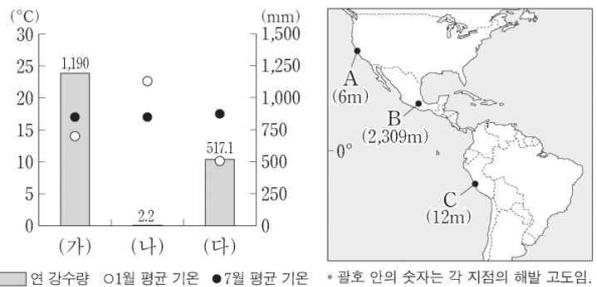
최근에는 북극 항로 개통, 각종 자원 채굴, 과학 및 군사 기지 건설 등 극지방 개발과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오로라, 빙하, 백야 현상 등을 체험하기 위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기후 변화**로 극지방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빙하의 양이 줄어들고 있으며, 빙하가 녹으면서 농경이 가능해지는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12. 지도의 A~D 사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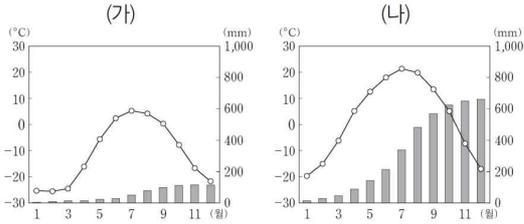
- ① A는 탁월풍의 바람 그늘(비 그늘)에서 발달한 사막이다.
- ② B는 한류의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되어 발달한 사막이다.
- ③ D는 해양으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 ④ A는 C보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 ⑤ C는 D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13. 그래프는 지도의 A~C 지역의 기후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다)는 지도에 표시된 A~C 지역 중 하나임.)



- ① (다)는 A이다.
- ② (가)는 (나)보다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다.
- ③ A는 C보다 1월 강수량이 많다.
- ④ B는 A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
- ⑤ C는 B보다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게 진행된다.

14. 그래프는 (가), (나) 지역의 월평균 기온과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누적 강수량은 1월부터 해당 월까지의 월 강수량을 합한 값임.

< 보 기 >  
 가. (가)에서는 순록을 볼 수 있다.  
 나. (나)에는 상록 활엽수림이 넓게 분포한다.  
 다. (가)는 (나)보다 최난월 강수량이 적다.  
 라. (나)는 (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15. 다음 자료는 여행기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년 △월 ○일  
 오늘은 처음으로 이누이트를 만났다. 이누이트는 동물 털과 가죽으로 만든 방한복을 입고 있었다. 이기가 지라고 있는 별판에는 (가) 이가 펼쳐져 있었다.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이 지형을 보았을 때, 너무도 신기하고 기뻐했다. 이누이트는 멀리 북쪽으로 사냥을 떠났다.

< 보 기 >  
 가. 빙하 퇴적물이 쌓인 모래인  
 나. 동결과 융해의 반복으로 형성된 구조토  
 다. 모래 바람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버섯 바위  
 라. 용식 작용으로 원추형의 봉우리만 남은 탑 카르스트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6. 세계의 주요 대지형

지구 표면의 기복이나 모양을 뜻하는 지형은 끊임없이 형성되고 변화한다. 그중에서도 대륙 규모의 큰 산맥이나 고원, 평야 등을 **대지형**이라고 한다.

대지형은 지반의 용기·침강 작용, 습곡·단층 작용 등과 같은 지형 형성의 **내적 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한편, 내적 작용에 의해 형성된 대지형은 **외적 작용**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대체로 지표의 기복이 줄어든다.

지각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으며, 맨틀 위에 떠 있는 모습으로 지구 표면을 구성한다. 지각판은 맨틀의 대류에 따라 서서히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갈라져 대지형을 형성한다. 이러한 지각판의 이동을 **판 구조 운동**이라고 한다. 지각판이 서로 만나는 경계 지역에서는 판들의 움직임에 따라 높은 산맥이나 해구, 호상 열도 등이 형성되며, 지각이 불안정하여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한다. 지진과 화산은 지형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연재해**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큰 피해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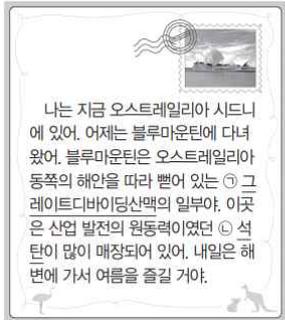
세계의 해지형은 조산 운동을 받은 시기에 따라 **안정육괴, 고기 습곡 산지, 신기 습곡 산지**로 구분된다. 안정육괴는 시·원생대 조산 운동 이후 조륙 운동과 오랜 기간에 걸친 침식 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안정육괴는 주로 대륙 내부에 넓게 분포하고, 기복이 작고 안정된 지형인 순상지, 구조 평야 등이 있다.

순상지는 방패를 얹어 놓은 모양으로 완만한 고원이나 평원을 이루며, 아프리카·발트·시베리아·로렌시아·브라질 순상지 등이 대표적이다. 구조 평야는 오랜 지질 시대를 거치면서 지각 변동을 거의 받지 않아 수평층 상태로 남아있는 지형이다. 오랜 침식의 영향으로 기복이 거의 없게 된 물결 모양의 평탄한 대평원으로, 유럽-러시아 대평원, 북아메리카 평원, 오스트레일리아 중앙 평원 등이 대표적이다.

**습곡 산지**는 형성 시기에 따라 **고기 습곡 산지**와 **신기 습곡 산지**로 나뉜다. 고기 습곡 산지는 고생대~중생대 초기 조산 운동으로 형성된 산지로서 오랜 기간 침식을 받아 해발 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산지를 이룬다. 지각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며,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주로 순상지 주변부에 분포하며 스칸디나비아산맥, 우랄산맥, 그레이트디바이딩산맥, 에팔라치아산맥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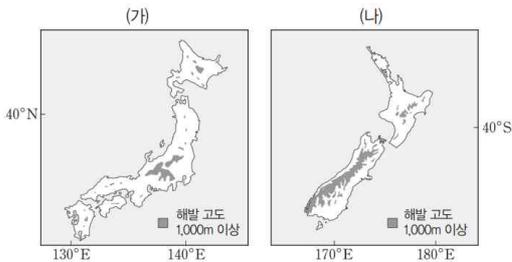
신기 습곡 산지는 중생대 말기부터 현재까지의 조산 운동으로 형성된 산지로서 해발 고도가 높고 험준하다. 지각이 불안정하여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산지 주변 지역에는 석유·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주로 지각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계를 따라 분포하여 지진대와 거의 일치한다. 신기 습곡 산지는 **현대평양 조산대**의 로키산맥, 안데스산맥, **알프스-히말라야 조산대**의 알프스산맥, 히말라야산맥 등이 대표적이다.

16. 다음 글은 여행 중인 두 학생이 보낸 엽서의 내용이다.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은 고생대 조산 운동으로 형성되었다.
- ② ㉠은 냉동 액화 기술의 개발 이후 소비가 급증하였다.
- ③ ㉢은 지각 판이 갈라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 ④ ㉢ 주변에는 온천을 이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하였다.
- ⑤ ㉤은 뉴질랜드에서도 볼 수 있다.

17. (가), (나) 국가의 자연 환경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가)의 산지는 대부분이 고기 습곡 산지로 오랜 침식을 받았다.

ㄴ. (나)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하계 강수 집중률이 높다.

ㄷ. (나)는 다양한 화산 지형과 간헐천, 온천 등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ㄹ. (가)는 (나)보다 열대성 저기압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들

베트남의 할롱 베이, 중국의 구이린 등지에는 탑 모양의 봉우리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데, 유네스코는 이곳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두 지역은 모두 석회암이 널리 분포하는 곳으로, 이러한 봉우리 형태의 지형을 **탑 카르스트**라고 한다.

석회암은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암석으로 탄산가스를 포함한 빗물이나 지하수에 잘 녹아 독특한 지형을 형성하는데 이를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한다. 카르스트 지형은 독특하고 아름다워 학술 및 경관적 가치가 높으며, 이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석회암이 지표수에 용식되거나, 지하수의 용식 작용으로 형성된 공간이 무너져 내리면 움푹 파인 웅덩이 모양의 돌리네가 형성된다. 이때 서로 인접한 **돌리네**가 성장하여 결합되면 우발라가 된다. 돌리네 내부에는 싱크홀이 발달하여 배수가 잘 된다. 이러한 카르스트 지형 주변에는 석회암이 용식된 후에 남은 철분이 산화되어 붉은색을 띠는 풍화토인 **테라로사**가 나타난다.

석회암 지대는 지하에서도 용식 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지하로 침투한 빗물과 지하수에 석회암층이 용식되고 난 후, 지하수가 더 아래쪽으로 빠져나간 공간은 **석회동굴**이 된다. 석회동굴은 내부에 **중유석, 석순, 석주** 등의 독특한 지형이 발달하여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카르스트 지형이 훼손되고 있어, 지형 파괴를 줄이고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미국 하와이섬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화산 활동이 시작되면 용암과 화산 쇄설물, 화산 가스 등이 지표로 분출되어 다양한 화산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화산의 분출 양상이나 흘러나온 용암의 특성에 따라 화산 지형의 형태가 달라진다.

점성이 작아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은 주변에 널리 퍼져 흐르면서 경사가 완만한 **순상 화산**을 형성한다. 반면, 점성이 큰 유문암이나 안산암질 용암은 멀리 흘러가지 못하고 쌓이면서 경사가 가파른 **용암 돔**을 형성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성층 화산**으로 폭발적인 분출로 쌓인 화산 쇄설물과 폭발 없이 흘러내린 용암류가 여러 층으로 겹겹이 누적되면서 성장한 원추 모양의 화산이다.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분출된 후 화구의 함몰이 이루어지면 본래의 화구보다 지름이 훨씬 큰 분지 형태의 **칼데라**가 형성되며, 일부는 물이 고여 **칼데라호**를 이루기도 한다. **용암 대지**는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지각의 갈라진 틈새를 따라 대규모 열하 분출하여 형성된 평탄한 지형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화산은 850여 개로 그중에서 80%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분포한다. 대규모 화산 활동은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와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위험한 화산 지역 주변에서도 주민들이 화산의 혜택을 이용하여 삶의 터전을 일구어 살아간다. 화산재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농업 활동에 유리하며, 화산 지대에는 구리, 주석, 유황 등 유용한 광물 자원이 많이 분포하여 광업이 발달한다. 또한

뜨거운 지하수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지열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화산 지형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관광 자원이며, 온천과 **간헐천** 등을 이용한 관광 산업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해안은 평야가 발달하여 농경에 유리하고 해상 교통과 육상 교통이 만나는 곳으로, 일찍부터 인간 삶의 터전이 되었다. 또한 지형 경관이 아름다워 관광지나 휴양지로 이용되는 곳이 많다. 해안 지형은 파랑, 연안류, 조류, 바람 등의 침식 및 퇴적 작용과 해수면 변동에 의해 형성되거나 변화한다. **파랑**은 주로 해수면 위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 발생하며 바다 쪽으로 돌출된 곳에서는 침식 지형을 형성하고, 육지 쪽으로 들어간 만에서는 퇴적 지형을 형성한다. **연안류**는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해수의 흐름으로 퇴적 지형을 형성한다. **조류**는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해수의 흐름으로 조류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연안에 퇴적되어 갯벌이 형성된다.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해수면의 변동**이나 **지반 운동**으로 해안 지형이 변화하기도 한다. 지반이 융기하거나 해수면이 하강하면 육지가 드러나 해안선이 단조로워진다. 반면, 지반이 침강하거나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선이 복잡해지고 섬과 만이 발달한다. 하천의 침식을 받은 계곡이 바닷물에 침수되면 **리아스 해안**, 빙하의 침식을 받은 계곡이 침수되면 **피오르 해안**이 형성되기도 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포트캠벨 국립 공원은 12사도 바위 등 아름다운 암석 해안이 펼쳐져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다. 이러한 암석 해안은 파랑의 침식 작용이 활발한 곳에서 주로 발달한다. 산지나 구릉이 파랑에 의해 침식되면 **해식애**가 형성되고, 그 전면에는 해식애의 후퇴로 남은 평평한 **파식대**가 형성된다. 또한 파랑의 차별 침식으로 해식동굴이 형성되고, 침식을 견디고 남은 **시아치나 시 스택**이 나타나기도 한다. 파식대가 지반의 융기나 해수면 하강으로 현재의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면 계단 모양의 **해안 단구**가 형성된다. 해안 단구는 비교적 평탄하여 취락이 입지하거나 농경지 및 교통로로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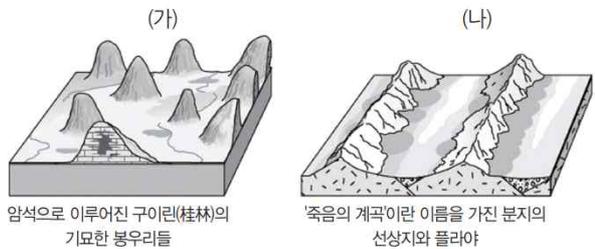
브라질의 코파카바나는 아름다운 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이와 같은 모래 해변은 파랑의 작용이 약해지는 만에서 주로 발달한다. 하천이나 암석 해안에서 공급된 모래가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 퇴적되어 **사빈**을 형성하며, 주로 해수욕장으로 개발되어 많은 휴양객들이 방문한다.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내륙 쪽에 쌓이면 **해안 사구**가 발달하는데, 사빈보다 고도가 높고 지반이 안정되어 취락이 입지하기도 한다.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 해안을 따라 이동하던 모래가 바다 쪽으로 길게 뻗어나가면서 쌓이면 **사취나 사주**가 발달한다. 긴 모래톱이 만의 입구를 막으면 **석호**가 형성되기도 한다.

점토, 모래 등의 물질이 조류에 의해 퇴적되면 갯벌이 형성된다. **갯벌**은 하천 운반 물질이 많고, 파랑의 작용이 약한 만이나 섬으로 가로막힌 해안, 조차가 크고 해저의 경사가 완만한 해안에서 잘 발달한다. 캐나다의 펀디만, 네덜란드·독일·덴마크의 북해 연안, 아마존강 하구, 미국 조지아주 해안, 우리나라 서해안 등지에는 세계적 규모의 갯벌이 형성되어 있다.

해안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규모 항만과 방조제 등이 건설되고 **간척 사업**으로 갯벌이 사라지는 등 개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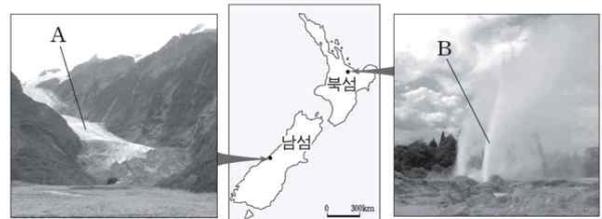
인한 환경 훼손이 잦아지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어 거주지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훼손되는 해안 지형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갯벌 복원** 사업을 하거나, 사빈의 모래 침식을 막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더불어 아름다운 해안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과 예측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18. 다음 자료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의 봉우리는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면서 굳어져 형성된 것이다.
- ② (가)의 평지는 용빙수에 의해 운반된 빙하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것이다.
- ③ (나)의 산지는 석회암이 일부 용식되고 남겨져 형성된 것이다.
- ④ (나)의 분지는 건조 분지로, 수분이 증발되면 저지대에 염분이 주로 집적된다.
- ⑤ (가)와 (나) 모두 화학적 풍화보다 기계적 풍화가 활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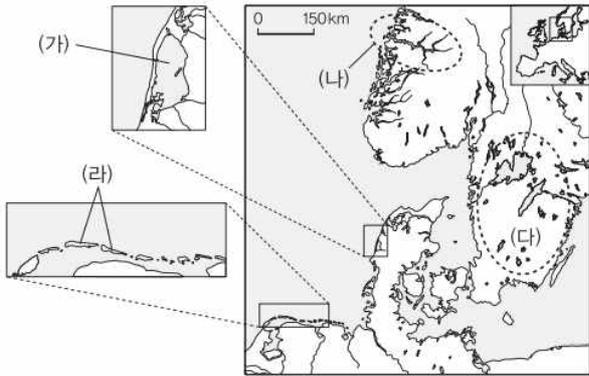
19. 자료의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A의 작용으로 칼데라가 형성된다.
  - ㄴ. A는 최근 지구 온난화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 ㄷ. B는 지하수가 지열에 의해 데워져 간헐적으로 분출된다.
  - ㄹ. A와 B는 주로 관개 농업에 이용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지도의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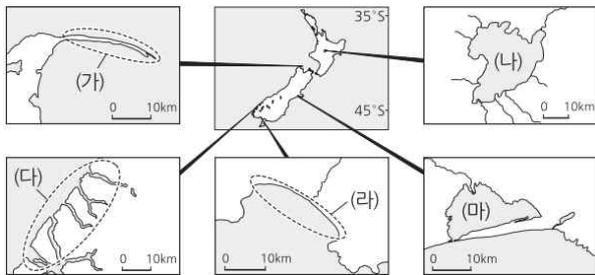


< 보 기 >

㉠. (가)는 수심이 얇고 주변 바다보다 염분의 농도가 높다.  
 ㉡. (나)의 협만 양쪽 절벽에는 폭포가 나타난다.  
 ㉢. (다)의 호소는 대부분 영구 동토층이 녹아 형성되었다.  
 ㉣. (라)는 주로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 발달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1. 지도의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의 주된 형성 원인은 조류의 퇴적 작용이다.  
 ② (나)는 권곡에 형성된 빙하호이며, 호수의 물은 대부분 주변 산지의 빙하로부터 공급된다.  
 ③ (다)는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골짜기가 해수면 상승에 의해 침수되어 형성된 해안이다.  
 ④ (라)에는 맹그로브 숲이 발달한 갯벌이 분포한다.  
 ⑤ (마)는 퇴적보다 침식이 활발한 해안에서 형성된 호수이며, 주변 바다보다 염분의 농도가 높다.

8. 주요 종교의 전파와 종교 경관

인류는 초월적인 존재를 경외하는 정신문화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정신문화는 교리, 경전 등으로 체계화되면서 종교로 승화하였다. 세계의 종교는 전 인류를 포교 대상으로 삼고 교리를 전파하는 **보편 종교**와 일부 민족의 범위 내에서 교리를 전파하는 **민족 종교**로 나뉜다. 그리스교, 이슬람교, 불교 등은 보편 종교이며, **힌두교**, 유대교 등은 민족 종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스교**는 하느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그의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며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그리스교는 서구 사회의 생활 양식과 사회 제도 등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슬람교**는 알라를 유일신으로 섬기고 쿠란을 설교한 무함마드를 성인으로 추앙한다. 이슬람교도는 국가 통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슬람교의 엄격한 계율에 따라 생활한다.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하며, 신에 대한 신앙보다는 개인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과 자비를 중시한다.

그리스교는 로마의 국교로 지정되면서 지중해 일대로 전파되었고, 유럽의 신행로 개척 시대를 거치며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슬람교는 군사적 정복 활동과 상업 활동을 바탕으로 북부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전역, 동남 및 남부 아시아 일대에 급속히 전파되어 건조 기후 지역의 중요한 문화 요소가 되었다. 불교는 개인 또는 대중 구제의 교리를 바탕으로 인도에서 발원한 이후 동남 및 동아시아 일대로 전파되었다.

종교는 인간의 행동 규범, 가치관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교의 전파는 문화권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성지는 종교의 가장 성스러운 공간으로서, 대체로 종교의 발원지인 경우가 많다. 성지에는 해당 종교와 관련된 건축물과 숭배의 공간 등이 어우러진 독특한 종교 경관이 나타나며, 신자들은 성지 순례를 통해 신앙심을 고취한다.

**예루살렘**은 그리스교와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로서, 특히 그리스교도에게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성스러운 곳이다. 또한 예루살렘은 이슬람교도에게는 무함마드가 다녀간 곳이며, 유대인에게는 민족의식이 형성된 원천이다. **메카와 메디나**는 이슬람교의 성지로서, 메카는 무함마드가 탄생한 곳이고, 메디나는 무함마드의 묘지가 있는 곳이다. **롬비니와 부다가야**는 불교의 성지로서, 롬비니는 석가모니가 탄생한 곳이고, 부다가야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곳이다. **바라나시**는 힌두교도가 신성시하는 갠지스 강가에 있으며, 힌두교도는 갠지스강에서 몸을 닦으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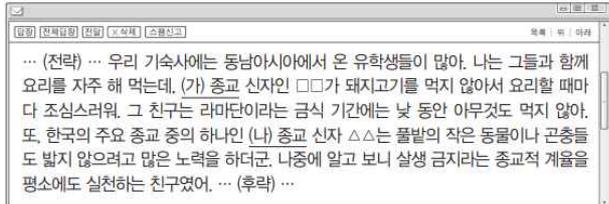
종교마다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서 각 종교와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종교 경관은 지표상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스교**의 종교 경관에는 종탑과 십자가가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생김새는 종파별로 다르다.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후로 인류의 구원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아라베스크 문양**이 돋보이는 **이슬람교**의 종교 경관은 중앙의 돔형 구조물과 주변의 첨탑이 어우러진 모스크가 대표적이다. 모스크의 돔형 지붕은 평화를, 그 위에 얹힌 초승달은 진리의 시작을 상징한다.

**불교**의 종교 경관은 불상을 모시는 불당, 사리를 안치한 탑 등이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져 펼쳐진다. 불교 사찰에서 흔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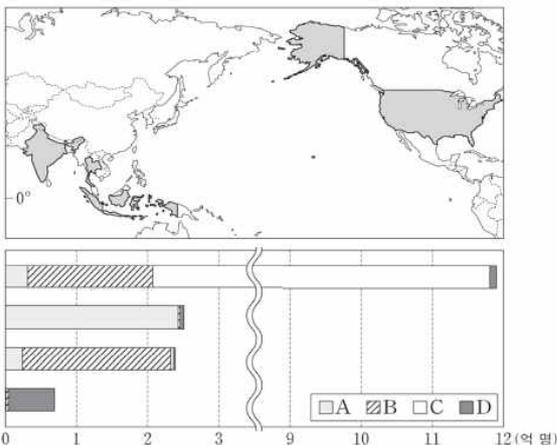
볼 수 있는 수레바퀴 문양은 윤회를 상징하며, 부처의 사리가 모셔진 탑은 부처가 영원히 머무르는 곳을 의미한다. **힌두교**의 종교 경관은 다양한 신들이 조각된 힌두 사원이며, 신들이 땅에 내려와 머무는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22 다음은 ○○ 학생이 외국에 있는 누나로부터 받은 전자 우편의 일부이다. (가), (나)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육식과 음주를 금기시한다.
- ② (가)의 여신도들은 천으로 머리나 몸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
- ③ (나)는 성지 순례를 계율로 정하고 있다.
- ④ (나)는 대표적인 민족 종교로 카스트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 ⑤ (가), (나) 모두 유럽 국가의 식민지 지배를 통해 동남아시아로 확산되었다.

23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A~D 종교별 신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힌두교 중 하나임.)



- ① A는 보편 종교, B는 민족 종교로 분류된다.
- ② C는 하나의 신만을 믿는 유일신교이다.
- ③ D의 최대 성지에는 모스크와 카바 신전이 있다.
- ④ C와 D의 발상지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한다.
- ⑤ 전 세계 신자 수는 A > B > C > D 순으로 많다.

9. 세계의 인구 변천과 인구 이주

세계의 인구는 산업화 이전에는 매우 느린 속도로 증가하다가 산업 혁명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의학 기술의 발달과 공공 위생 시설의 개선에 따른 사망률의 감소,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인구 부양 능력의 향상과 관련 있다.

세계 인구 변화는 **인구 변천 모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인구 변천 모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에 따라 인구 성장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으로, 국가별 경제 발전 수준에 따른 인구 성장 과정을 파악하는 데 이용한다. 인구 변천 모형을 보면,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시기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 인구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며, 이후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인구 증가율이 높아진다.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4단계에서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져 인구 증가율이 다시 낮아지고, 5단계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난다.

세계는 국가별, 지역별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인구 변천 과정이 다르게 나타난다. 개발 도상국의 비중이 높은 아프리카는 1950년대 이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는 1950년대에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았지만, 이후 경제 발전 및 산아 제한 정책 등이 시행되면서 출생률이 감소하여 인구의 자연 증가율도 낮아졌다.

선진국이 많은 유럽, 앵글로아메리카 등은 출생률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낮게 나타난다. 특히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아 인구의 자연적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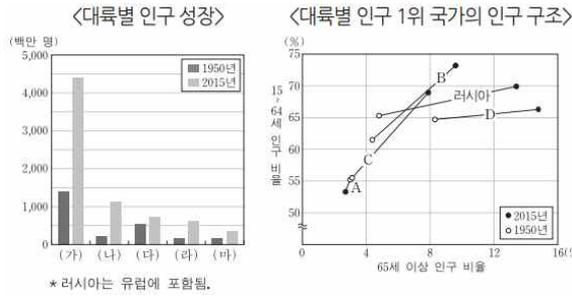
인구 이주의 유형은 이주 동기에 따라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스스로 이동하는 **자발적 이주**와 전쟁이나 정치적 억압을 피해 발생하는 **강제적 이주**로 구분하고, 이주 기간에 따라 **일시적 이주**와 **영구적 이주**로 구분한다.

이주 원인에 따라서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종교)적, 환경적 이주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이주**는 소득 수준이 낮고 고용 기회가 적은 개발 도상국에서 소득 수준이 높고 고용 기회가 많은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멕시코인의 미국으로의 이동이 대표적이다. **종교적 이주**는 종교적 자유를 찾아 이동하거나 성지 순례를 위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적 이주**는 기후 변화나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피해 이동하는 것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투발루 난민의 이동 등이 있다.

최근 교통·통신의 발달과 경제 세계화의 확대로 인구의 국제 이주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요인에 따른 국제 이주가 활발하다.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출생률이 낮아 노동력이 부족한데, 이를 해외에서 이주해 온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내전, 테러 등이 발생하거나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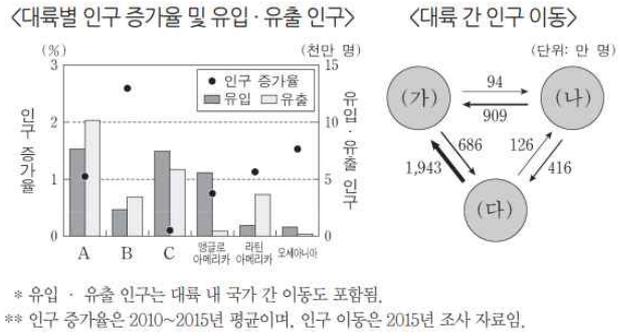
2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마)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앵글로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 하나임.)



- < 보 기 >
- ㄱ. 2015년 인구 부양비(총부양비)가 가장 낮은 국가는 A, 가장 높은 국가는 B이다.
  - ㄴ. 1950년 대비 2015년 유소년 인구 부양비 감소 폭은 C가 러시아보다 크다.
  - ㄷ. 2015년 중위 연령은 (다) 대륙이 (라) 대륙보다 낮다.
  - ㄹ. A 국가는 (나) 대륙에, D 국가는 (마) 대륙에 속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가)~(다) 중 하나임.)



- ① A는 유출 인구가 많아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 ② C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이다.
- ③ B에서 A로 이동한 인구는 B에서 C로 이동한 인구보다 많다.
- ④ 유입 인구에서 유출 인구를 뺀 값은 유럽이 앵글로아메리카보다 크다.
- ⑤ (나)는 (다)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다.

10. 세계의 도시화와 세계 도시 체계

도시화는 현대인의 중요한 생활 공간이자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중심지인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화는 도시의 수가 늘어나거나, 촌락에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는 현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계의 도시화 수준은 산업 및 경제 발달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선진국은 산업 혁명 이후 점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나, 개발 도상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산업화와 함께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세계 도시**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는 대도시를 의미한다. 즉, 전 세계의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다.

세계 도시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세계 자본이 집중·축적되는 중심지이며, 세계의 다양한 정보·문화가 생산되고 전달되는 핵심적인 결절지이다.

세계 도시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세계적인 경제 활동, 연구·개발, 문화 교류, 정보 교류, 접근성, 거주 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런던, 뉴욕, 도쿄, 파리 등이 대표적인 세계 도시에 해당한다. 이처럼 세계 도시를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계 도시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순위가 다르게 나타난다.

세계 도시에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 및 관련 업무 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며, 고도의 정보 통신 네트워크와 최선의 교통 체계가 발달해 있다. 또한 세계 도시는 세계의 여러 분쟁을 조정·통제하는 다양한 국제기구의 본부가 입지하여 국제회의 및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등 국제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세계 도시에서는 전 세계적인 관리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 법률, 컨설팅, 광고, 정보 제공 및 처리 서비스업 등과 같은 고차의 **생산자 서비스업**이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고차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 의식업, 레저 및 문화 산업 등과 같은 고급 소비자 서비스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도시형 첨단 산업도 발달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도시는 새로운 고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 중산층의 성장이 둔화하거나 해체되고, 새로운 성장 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전문 관리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단순 서비스업과 영세 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개발 도상국 출신의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의 구성비가 커지면서 사회 계층 간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 도시 체계**는 국제 금융 영향력, 다국적 기업 본사의 수, 생산자 서비스업 부문의 집중도, 국제기구 본부의 수, 국제 항공 승객의 수, 인구 규모, 주요 교통·통신의 결절 등을 기준으로 계층을 나눈 것이다. 세계 도시의 계층 체계는 도시 간에 생산품 및 인구의 이동, 정보와 자본의 흐름 등과 같은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세계 도시들이 일정한 계층 체계를 이루는 것으로,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계층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런던, 뉴욕, 도쿄 등의 최상위 세계 도시들은 주로 선진국에 위치하며,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입지하여 국제적 사업 서비스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하위 세계 도시들은 다국적 기업의 업무 기능과 국제 은행의 지사들이 주로 입지하며, 지역이나 국내에서 저차의 도시를 포섭하고 있다.

26. 다음 글의 (가) 도시에 대한 (나) 도시의 상대적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2016년 하계 올림픽 개최 도시인 **(가)**은/는 일찍이 조성된 동남쪽 해안 지구에 부와 물자가 집중된 반면, 북부 내륙 지구에는 빈곤이 만연해 있다. 해변에서도 보이는 산비탈의 파벨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 빈민촌 중 하나이다.
- 미국 5대호 연안의 최대 도시인 **(나)**에 형성된 불량 주택 지구는 최근 들어 중심 업무 지구(CBD)에서 일하는 중산층에게 매력적인 주거지로 바뀌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통근할 때 혼잡한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대중교통 이용 시 환승하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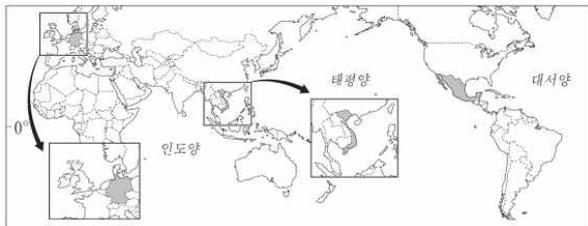
- ㄱ. 세계 도시 체계에서 계층이 높다.
- ㄴ. 비공식 부문의 종사자 비율이 낮다.
- ㄷ. 과도시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 ㄹ. 도시 경관에 식민 지배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7.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도시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가)	(나)	(다)
도시 인구(백만 명)	99.8	63.1	31.6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	1.8	0.3	3.2
도시화율(%)	79.3	77.2	33.8

\* 도시 인구와 도시화율은 2015년,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은 2010~2015년 기준임.



- ① (가)는 도시화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다.
- ② (나)는 중주 도시화 현상이 가장 뚜렷하다.
- ③ (다)는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낮다.
- ④ (가)는 (나)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많다.
- ⑤ (나)는 (다)보다 촌락 인구가 적다.

11. 주요 식량 자원과 국제 이동

세계적인 농업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대표적인 식량 작물에는 쌀, 밀, 옥수수 등이 있다. **쌀**은 성장기에 고온 다습하고 수확기에 건조한 기후 환경이 재배에 유리하며, 동아시아의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과 동남 및 남부 아시아의 열대 몬순 기후 지역의 총적 평야에서 주로 재배된다. 쌀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아 인구 부양력이 높기 때문에 전통적인 벼농사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나며, 생산지인 전통적인 벼농사 지역에서 주로 소비되기 때문에 밀과 옥수수보다 국제 이동량이 적다.

**밀**은 비교적 기온이 낮고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재배된다. 밀의 재배지 중에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기계화된 영농 방식으로 밀을 대량 생산하여 수출한다.

**옥수수**는 기후 적응력이 뛰어나 다양한 기후 지역에서 재배된다. 옥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축의 사료로 많이 사용되며, 최근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 이용되면서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세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옥류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등의 목축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축산물의 국제 이동량 또한 늘어나고 있다.

**소**는 고기를 비롯하여 우유, 치즈, 버터 등과 같은 유제품을 제공해 준다. **양**은 고기와 젖을 제공해 주며, 양털의 수요가 증가하여 공업 원료로서의 가치도 높아졌다. 미국,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데, 강수량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에서는 주로 소를 사육하고, 강수량이 적은 건조 기후 지역에서는 양을 기르는 경우가 많다. **돼지**는 번식력이 강한 동물이어서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사육하지만,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이슬람교 신자의 비중이 높은 서남아시아에서는 거의 사육하지 않는다.

세계 인구는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으며, 식량 생산은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환경과 경제 발전 수준, 사회 조건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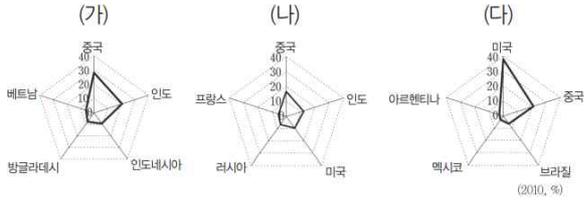
아시아, 아프리카는 인구 규모에 비해 식량 생산 비중이 낮고,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는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지역별 식량 생산 및 수요의 차이로 인해 식량 자원의 국제 이동이 발생한다.

세계화와 자유 무역의 확대로 식량 자원의 국가 간 교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 곡물 수출량은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곡물 생산량의 10% 이상이 국제적으로 이동한다.

대표적인 곡물 수출국으로는 미국, 프랑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있으며, 주요 곡물 수입국으로는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사료용으로 옥수수 등을 많이 수입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은 주식 작물로 밀과 쌀 등을 많이 수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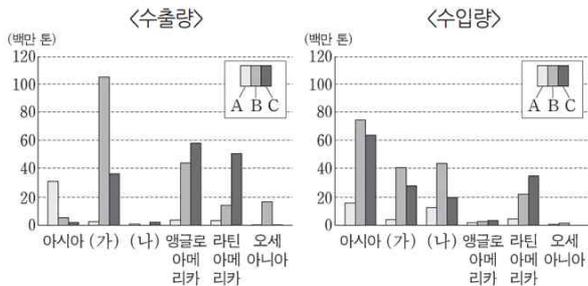
세계 곡물 시장은 곡물 생산량이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특징을 지녔으며, 최근에는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세계 곡물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식량 시장을 투기화하는 등의 불안정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은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8. 그래프는 주요 식량 자원의 생산량 비중 상위 5개국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식량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전통적으로 이동식 경작 방식에 의해 재배된다.
- ② (나)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여 국제 이동량이 적은 편이다.
- ③ (다)는 육류 소비의 증대로 사료용으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④ (가)는 (나)보다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에서 주로 재배된다.
- ⑤ (가)~(다) 중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나)가 가장 많다.

29. 그래프는 세계 3대 식량 작물의 수출·수입량을 대륙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출·수입량에는 대륙 내 국가 간 수출·수입량도 포함됨. (2016)

- ① A의 최대 생산 국가는 아시아에 위치한다.
- ② B의 수출량과 수입량의 합이 가장 많은 대륙은 (가)이다.
- ③ C의 원산지는 (나)에 위치한다.
- ④ A는 C보다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 이용되는 비중이 낮다.
- ⑤ B는 A보다 내한성과 내건성이 우수하다.

12. 주요 에너지 자원과 국제이동

에너지 자원은 인간 생활과 경제 활동에 필요한 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와 수력,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있다.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 비중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순으로 높으며, 이들 화석 에너지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소비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석유 가격 상승과 자원 민족주의 등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졌으며, 신·재생 에너지의 소비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은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주로 매장되어 국가와 지역에 따라 에너지 자원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다르게 나타난다. 오늘날에는 중국, 미국, 인도 등을 포함한 화석 에너지 소비 상위 5개국이 전 세계 화석 에너지 소비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에너지 소비의 지역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개발 도상국은 화석 에너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지만, 선진국은 화석 에너지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다. 이처럼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 화석 에너지 자원의 소비량이 다르게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석유 생산량이 많은 서남아시아가 화석 에너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고, 인구가 많고 공업이 발달하고 있는 중국, 인도, 일본 등이 위치한 동아시아는 자원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다.

이와 같은 국가별, 지역별 화석 에너지의 생산량과 소비량 차이로 인해 자원의 국제 이동이 발생하며, 주로 자원 생산량이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경제 발전 수준이 높거나 공업이 발달한 선진국으로의 자원 이동이 이루어진다.

한편 최근에는 에너지 자원의 이동과 관련해 자원 수송로 확보 및 수송관 설치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석유**는 19세기에 내연 기관이 발명되고 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수요가 급증하였다. 석유는 신세대 제3기층의 **배사 구조**에 주로 매장되어 있으며, 전 세계 매장량의 절반 정도가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만 연안에 분포한다.

석유는 수송용 및 화학 공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며,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석유는 다른 자원보다 매장 지역의 **편재성**이 크고, 경제 발전 수준이 높거나 공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이 많은 편이다. 서남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 에미리트 등에서 수출량이 많고,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주로 수입한다.

**석탄**은 18세기 산업 혁명 시기에 증기 기관의 연료로 사용되면서 대량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최근까지 화력 발전의 연료로 많이 이용되었으며, 제철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석탄은 중국의 푸순 지방,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레이트디바이딩산맥, 미국의 애플래치아산맥 등 주로 고기 조산대 주변에 매장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생산량이 많다. 석탄은 비교적 세계 여러 지역에 고르게 매장되어 있어 석유에 비해 국제 이동량이 적은 편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출이 많고, 중국, 인도,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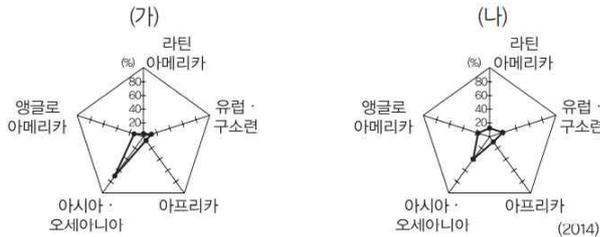
우리나라 등에서 주로 수입한다.

천연가스는 냉동 액화 기술의 개발과 대형 수송관 건설, 사용의 편리성 등으로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열효율이 높고, 연소 시 석탄이나 석유보다 대기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한다.

천연가스는 석유가 매장된 지역에서 산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 러시아, 이란 등에서 생산량이 많다. 수출량은 러시아와 카타르 등에서 많은데, 육상 구간에서는 주로 송유관을, 해상 구간에서는 주로 액화 가스 수송선을 활용하여 일본, 독일 등 공업이 발달한 선진국으로 이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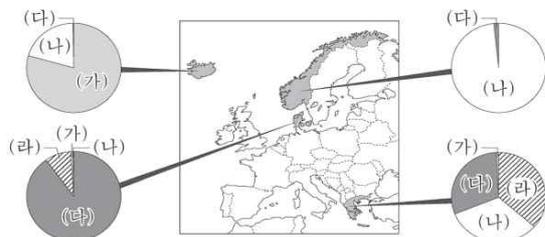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으로, 현재와 같은 소비 추세라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화석 에너지는 생산과 이동 및 소비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킨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

30. 그래프는 주요 화석 에너지 (가), (나)의 대륙별 생산량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화석 에너지 중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가장 적다.
- ② (나)는 산업 혁명 시기의 주요 에너지 자원이었다.
- ③ (가)는 (나)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늦다.
- ④ (가)는 (나)보다 운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비중이 높다.
- ⑤ (나)는 (가)보다 세계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31.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에너지원별 공급량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수력, 지열, 태양광(열), 풍력 중 하나임.)



\* 에너지원별 공급량 비중은 (가)~(라)만 포함하여 산출함. (2016)

- ① (가)는 낙차가 크고 수량이 풍부한 지역이 생산에 유리하다.
- ② (나)는 연간 일조량이 많은 지역이 생산에 유리하다.
- ③ (다)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많이 부는 지역이 생산에 유리하다.
- ④ (라)는 해평이 위치한 곳에서 이용이 활발하다.
- ⑤ 세계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라) 중 (다)가 가장 크다.

13. 자연환경에 적응한 생활모습

몬순 아시아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의 남부 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몬순 아시아의 계절풍은 다른 대륙보다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넓고, 계절에 따라 풍향과 강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몬순 아시아는 여름에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남풍 계열의 계절풍이 불고, 겨울에는 반대로 대륙에서 해양으로 북풍 계열의 계절풍이 분다. 몬순 아시아는 이러한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여름에는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는 대부분 한랭 건조하다. 특히, 여름 계절풍은 많은 비를 동반하여 몬순 아시아에서는 여름에 홍수가 자주 발생하며, 풍부한 강수량과 비옥한 토양을 이용하여 **벼농사**가 발달하였다.

몬순 아시아는 공통적으로 계절풍의 영향을 받지만, 산맥, 고원, 하천, 평야, 사막 등 다양한 지형의 영향으로 주민 생활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몬순 아시아에는 해발 고도가 높은 **산맥**과 **고원**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의 접경 지대에는 대규모 습곡 작용으로 형성된 히말라야산맥과 티베트고원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지형은 문물 교류에 장애물로 작용하여 문화권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지각판 경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등지에서는 화산과 지진 활동이 빈번하며 다양한 **화산 지형**이 나타난다. 이 지역은 화산 폭발 위험에도 불구하고 화산재가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몬순 아시아는 강수량이 많아 유량이 풍부한 **대하천**이 발달한다. 갠지스강, 메콩강, 창장강 등의 대하천 유역에서는 여름철 홍수로 하천이 자주 범람하여 **충적 평야**가 발달하였으며, 토양이 비옥하여 곡창 지대를 이룬다. 한편, 몬순 아시아 대륙 내부의 타클라마칸(타클라마칸) 사막, 고비 사막, 몽골의 초원 지대 등에서는 건조 지형이 나타난다.

몬순 아시아의 농업적 토지 이용은 기후, 지형, 토양 등의 자연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 강수량이 풍부한 곳에서는 주로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밀농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강수량이 부족한 중국 내륙 지역과 몽골 등의 건조 기후 지역에서는 유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 일본 등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 년에 한 번 **쌀**을 생산하지만,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 남부 아시아에서는 일 년에 두세 번 쌀을 생산하기도 한다. 쌀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아 **인구 부양력**이 높은 작물로, 경작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몬순 아시아는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몬순 아시아에서는 다양한 **기호 작물**도 재배되고 있다. 중국의 창장강 이남, 인도의 북동부, 스리랑카에서는 **차**가, 인도의 데칸고원에서는 **목화**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커피**가 생산되고 있다.

몬순 아시아는 쌀로 만든 음식 문화가 발달하였다. 하지만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주곡 작물이 달라지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밀이나 잡곡으로 만든 음식을 먹기도 한다.

몬순 아시아의 의복 문화와 가옥 구조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아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전통적인

의복과 가옥의 재료는 주변 환경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기후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옷의 형태와 가옥 구조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몬순 아시아는 계절에 따라 옷차림이 달라지는데, 더운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추운 겨울에는 보온이 잘되는 두꺼운 옷을 입는다. 이러한 의복은 사회적·경제적 조건의 영향과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변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여성 전통 의복인 아오자이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기온이 높은 환경에 맞추어 실용적이고도 맵시 있게 변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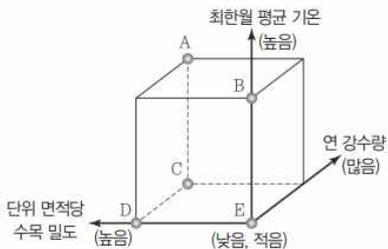
전통 가옥의 경우 고위도 지역에서는 추위를 막기 위해 폐쇄적인 구조가, 저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개방적인 구조가 나타난다. 동남아시아의 전통 가옥은 고온 다습한 기후에 대비하여 급경사의 지붕을 얹고, 창문을 크게 만든다. 반면에 냉·온대 기후 지역은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크기 때문에 더위와 추위에 대비한 시설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32. 다음 자료는 두 지역의 음식을 설명한 것이다. (가) 지역에 대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E에서 고른 것은?

(가) nasi lemak은 코코넛 밀크를 넣고 지은 쌀밥이다. 삼발 소스(고추, 양파, 소금, 설탕 등으로 만드는 매운 양념)나 고기 등을 넣어 뭉쳐 먹는데 바나나 잎으로 싸서 팔기도 한다.



(나) 참파는 보리, 완두, 귀리 등의 곡물 가루를 야크 버터와 차(茶)에 섞어 먹는 음식이다. 빨감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4. 주요 자원의 분포 및 이동과 산업 구조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석탄, 철광석, 천연가스 등의 주요 지하자원이 생산된다. 석탄은 중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주로 산업용 연료로 사용되므로 공업이 발달한 국가에서 수요가 많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생산된 석탄은 동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 중국은 석탄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국내 사용량이 많아서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철광석은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인도 등지에서 생산되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생산된 철광석은 제철·기계·조선 등의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중국, 일본, 대한민국 등지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천연가스는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생산되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곡물, 기호 작물, 소고기, 유제품 등 각종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식량 자원인 쌀은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몬순 아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지에서 주로 소비하므로 국제적 이동량은 적은 편이다. 밀은 인도, 중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밀은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몬순 아시아에서는 커피, 사탕수수 등의 각종 기호 작물이 생산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는 양모, 소고기, 유제품 등을 생산하여 동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는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의 차이로 인해 상호 보완성이 크고,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교류가 활발하다. 특히, 두 지역은 지하자원의 종류와 산업 구조의 차이가 커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몬순 아시아는 오세아니아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주로 수입하여 공업을 발달시키고 이를 통해 생산한 각종 공산품을 오세아니아로 수출하고 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몬순 아시아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농업과 공업이 발달하였다.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개방 정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산업을 육성하였다. 동부 해안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였으며,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공업국으로 성장하였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과 일본은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제철·기계·조선 등의 중화학 공업이 발달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중화학 공업의 원료인 석탄, 철광석 등을 지리적으로 가까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으로 노동 집약형 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점차 과학 기술과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벵갈루루, 뭄바이 등지에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였다.

동남아시아의 타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여 최근 2차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생산공장이 잇따라 입지하면서 신흥 공업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건조한 내륙 지역에서는 찬정을 이용하여 기업적 농목업이 발달하며 육류, 양모, 유제품, 밀, 보리 등을 수출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는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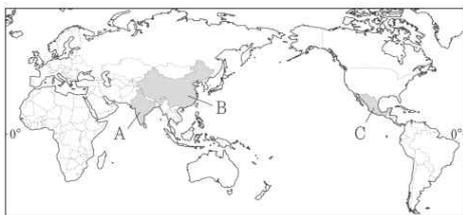
석탄, 금, 구리, 철광석, 보크사이트 등을 수출하는 세계적인 자원 부국이기도 하다.

문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는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각종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으로 나타난 변화이다.

일본은 막강한 자본력과 최첨단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부품·소재 산업, 로봇 산업 등을 육성하고 있다. 인도는 영어를 사용하는 인력이 풍부하여 다국적 기업의 콜센터가 들어서 있다. 최근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필리핀에 전 세계의 콜센터가 집중되면서 **BPO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금융 서비스업과 정보 통신 기술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정보 통신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자의 이민을 확대하고 있다.

33. 다음 글의 (가), (나) 지역이 속한 국가를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 (가) 지역에는 수많은 정보 통신 관련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첨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지역 내에 공과 대학 및 과학원이 있고, 영어가 공용어인 관계로 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고급 기술 인력이 풍부하다. 이로 인하여 미국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이 가능해졌다.
- (나) 지역은 개혁·개방 정책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이 나라의 수도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대학 및 연구 기관, 정보 통신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클러스터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또한, 각종 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 상가도 함께 형성되어 있다.



- |     |     |     |     |     |     |
|-----|-----|-----|-----|-----|-----|
| (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 ① A | B   | ② A | C   | ③ B | A   |
| ④ C | A   | ⑤ C | B   |     |     |

15. 민족(인종) 및 종교적 차이

문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민족(인종)과 종교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는 광대한 대륙과 많은 도서 지역에서 수많은 민족의 이동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남부 아시아에는 오래전부터 **드라비다족**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아리안족**의 침입 이후 남부에는 드라비다족이, 중부와 북부에는 아리안족이 주로 분포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타밀족, 안드라족 등 700개 이상의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동남 아시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상 교통의 요지로서 다른 지역과 오랫동안 교류해 오면서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게 되었다. 특히, 이 지역은 중국·인도·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중국은 인구의 93%를 차지하는 **한족**과 55개의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수 민족의 전통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구를 설정하여 각 민족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있다.

오세아니아에는 유럽인이 이주하기 전부터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애버리지니**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이 대표적인 원주민이며, 태평양 여러 섬에도 파푸아인, 멜라네시안인 등의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유럽계 백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나,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다양한 민족이 이주하여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였으며, 점차 아시아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남부 아시아의 인도는 브라만교에서 시작된 **힌두교**를 주로 신봉하며,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를, 스리랑카는 불교를 주로 신봉한다.

동남아시아의 타이, 라오스, 미얀마 등지에서는 인도에서 전파된 **불교**를 주로 신봉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의 도서 지역에는 아랍 상인과의 교류를 통해 **이슬람교**가 전파되었으며, 필리핀은 과거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 영향으로 **크리스트교**를 주로 신봉한다.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은 전통적으로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남부 및 동남아시아 지역보다 특정 종교의 지배적인 영향력은 적다. 오세아니아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유럽인이 이주하면서 주로 크리스트교를 신봉한다.

민족과 종교가 다양한 문순 아시아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남부 아시아의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인도의 힌두교도와 파키스탄의 이슬람 교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스리랑카**에서는 힌두교도인 타밀족과 불교도인 신할리족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인도네시아는 영토가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문화가 나타나며, **아체** 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이권을 둘러싸고 정부와 반군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크리스트교가 다수를 이루는 필리핀도 소수 이슬람교도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민다나오섬**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인 모로족은 정부의 차별에 대항하며 오랫동안 무장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은 한족과 소수 민족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티베트족이 거주하는 **시짱 자치구**와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신장웨이우얼 자치구**는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오세아니아는 유럽인이 유입되면서 원주민과의 갈등을 빚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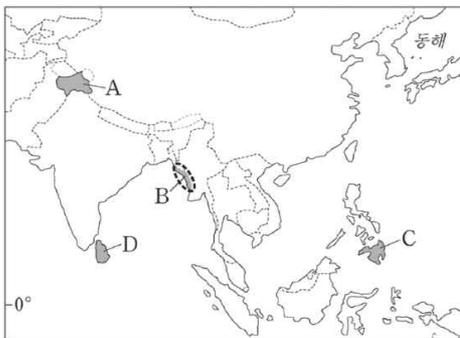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인 애버리지니는 과거 자신이 살던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가해졌던 학대에 관한 배상도 요구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도 한때 유럽계 이주민을 대상으로 토지 반환을 요구하며 갈등을 겪었다.

민족과 종교의 다양성은 여러 가지 분쟁의 원인이 되지만, 문화 발전의 토양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각 국가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며, 새로운 문화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부 아시아의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의 평화를 위해 양자 간 회담을 마련하여 대화를 이어 가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는 국가적으로 ‘통일 속의 다양성’을 내세우며 문화와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문화의 공존을 위해 다양한 종교 축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였으며, **싱가포르**는 중국어, 타밀어, 말레이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여러 민족과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민다나오섬의 모로족도 정부와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동아시아의 중국은 소수 민족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하여, 이들의 언어와 관습을 존중하며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애버리지니에 대한 총리의 사과가 오랜 노력 끝에 이루어졌으며,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을 일부 인정하는 등의 화해 시도를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의 토지 반환 요구에 합의하였으며, 공용어로 마오리어를 채택하는 등 원주민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34 지도의 A~D 지역에서 나타나는 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 지역 분쟁은 주변국 간의 지하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원인이다.
- ② B 지역 분쟁은 불교와 크리스트교 간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다.
- ③ C 지역 분쟁은 필리핀과 베트남 간의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원인이다.
- ④ D 지역 분쟁은 종교가 다른 민족 간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다.
- ⑤ B, D 지역 분쟁의 당사국에는 모두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

16. 자연환경에 적응한 생활 모습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는 대부분 **건조 기후**에 속한다. 이 지역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으며 일교차가 커서 인간이 거주하기에 불리하지만,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북부 아프리카 일대를 비롯하여 아라비아반도, 이란고원, 중앙아시아 등지는 연 강수량이 매우 적어 **사막 기후**가 넓게 분포한다. 아라비아반도와 북부 아프리카의 사막 주변 지역, 터키와 이란의 고원 지대, 중앙아시아의 북쪽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등지의 사막 주변에는 비가 내리는 시기에 짧은 풀이 자라는 **스텝 기후**가 나타난다.

지중해와 흑해 연안 지역에는 여름은 고온 건조하고 겨울은 온난 습윤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에는 아틀라스산맥, 아나톨리아 고원, 이란고원, 파미르고원, 알타이·텐산산맥 등의 높고 험준한 산지가 분포한다. 이들 산지는 지각이 불안정하고 지진이 잦으며, 구릉지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대산맥의 남쪽에는 대규모 하천과 그 유역에 형성된 충적 평야가 펼쳐져 있다. **나일강** 하구에는 주기적인 범람으로 비옥한 삼각주 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중·하류에는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분포한다. 나일강과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등의 대하천 유역에는 농경지가 발달하여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북부 아프리카의 중·남부와 서남아시아의 아라비아반도 일대에는 사막이 넓게 분포하며, 지중해와 접한 해안 지역이나 북쪽의 흑해 연안에는 부분적으로 **해안 평야**가 발달해 있다.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건조 기후는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주민들은 험령하게 늘어지는 천으로 온몸을 감싸는 형태의 옷을 입는다. 이러한 의복은 통풍이 잘되면서도 보온 기능이 뛰어나 일교차가 큰 환경에 적합하다. 주민들이 주로 먹는 대표적인 전통 음식으로는 밀로 만든 빵과 가축에게서 얻은 고기, 유제품 등이 있다.

사막 기후 지역에서는 나무를 구하기 어려워 주민들은 흙을 이용하여 집을 짓는데, 그들이 생기도록 집들을 촘촘하게 붙여서 짓는다. **흙집**은 극심한 일교차, 강한 일사와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창문이 작고 벽이 두껍다. 사막 주변 초원 지역의 주민은 한곳에 정착하지 않고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식 천막**에서 생활한다.

강수량이 적은 사막 기후 지역의 주민은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외래 하천**이나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고 대추야자, 밀, 보리 등을 재배하였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로 지하수를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는 **관개 농업**을 하였다.

사막 주변의 초원 지대에서는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유목**이 이루어졌다. 유목민들은 양, 낙타 등의 가축을 길러 털과 가죽을 얻었으며, 젖과 고기를 식량으로 이용하였다. 최근에는 도시가 발달하고 국경선이 획정되면서 전통적인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편, 건조 지역에서는 생활 필수품을 구하기 어려워 **대상**(隊商)을 통해 필요한 상품을 거래하였다. 대상은 여러 지역의 소식을 알려 주고 상품을 거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서로 교류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35. 다음 자료의 (가)에 해당하는 국가로 옳은 것은?

(가) 여행의 세 가지 테마

사막 마라톤 관람 폭염 속에서 최소한의 물과 식량만으로 약 250km를 달리는 사막 마라톤 관람	스키 체험 사계절이 모두 있는 나라. 아틀라스산맥에 내리는 폭설을 이용한 자연설 스키 체험	시티 투어 흰색 가옥이 많아 도시 이름이 '하얀 집'을 뜻하는 카사블랑카(Casablanca) 투어
--	---	--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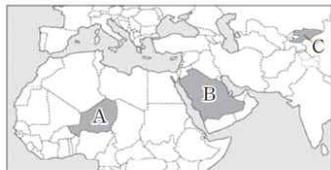
③

④

⑤

36. 다음 자료의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가)	(나)	(다)
이슬람교 최대 성지가 있는 나라의 국기로, 쿠란 구절을 포함한 문구가 아랍어로 쓰여 있다.	사하라 사막 남부에 위치한 나라의 국기로, 국기 위쪽의 주황색이 사막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유목이 발달한 나라의 국기로, 이동식 가옥인 '유르트'를 형상화한 문양이 그려져 있다.



- |   | (가) | (나) | (다) |
|---|-----|-----|-----|
| ① | A   | B   | C   |
| ② | B   | A   | C   |
| ③ | B   | C   | A   |
| ④ | C   | A   | B   |
| ⑤ | C   | B   | A   |

17. 주요 자원의 분포 및 이동과 산업 구조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세계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많다. 특히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절반 이상이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세계 총 석유 생산량의 30%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와 리비아의 석유 매장량이 많으며, **카스피해 연안도**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해 제2의 페르시아만으로 불린다.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유전은 지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생산비가 저렴하며, 유전의 규모가 크고 품질이 우수하여 개발에 유리하다.

페르시아만 연안에서 생산된 석유는 대부분 거대한 **송유관**을 통해 페르시아만 주변 지역과 홍해 및 지중해 연안으로 이동하여 유럽과 동아시아 등으로 수출된다. 카스피해 연안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송유관을 통해 유럽과 중국으로 이동한다.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는 풍부한 석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과 기술 등이 부족하여 초기에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다국적 석유 기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이후 이 지역의 산유국은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 **자원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석유 수출국 기구(OPEC)**를 결성하여 석유의 생산량과 가격을 통제하면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석유가 개발되면서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는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많은 국가가 석유 수출을 통해 축적한 막대한 부(富)를 이용하여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였으며, 대규모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등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등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커지고, 개발로 발생한 이익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 부족한 노동력과 기술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소비재, 사치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외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또한 석유를 둘러싼 각종 이권 다툼으로 지역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 등은 석유 수출로 얻은 자본을 화학 및 소재 관련 제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도시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은 대규모 유전 개발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석유 화학 산업, 에너지 산업 등을 육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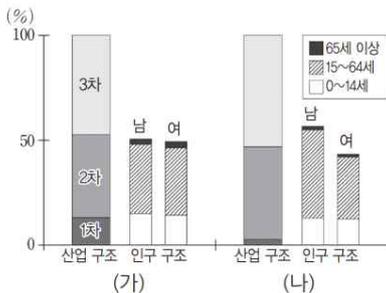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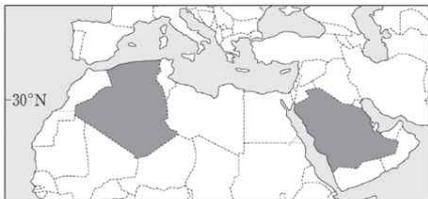
자원 매장량이 부족한 국가는 농업 부문의 비중이 높지만, 최근 경제 발전을 위해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집트와 터키는 자원 매장량이 적어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국가 수입의 많은 부분을 관광 산업을 통해 얻고 있다. 최근 이집트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생산되면서 경제가 성장하였으며 주로 원유와 석유 정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터키는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 자동차 등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목화, 과일 등의 농산물 생산도 많은 편이다.

화석 에너지 자원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 국가들의 원유 수요 감소, 셰일 오일을 비롯한 **비전통 석유**의 생산 증가, 전기차 상용화, 각종 신·재생 에너지 활용 확대 등과 같은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로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최근 이 지역의 석유 생산 국가들은 석유 생산 이외의 다른 경제 부문에서의 성장을 유도하여 정부 재정 수입원을 다변화하고, 사회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협력 회의** 산유국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여 석유 화학 산업 단지를 비롯한 발전소, 해수 담수화 시설과 항만, 공항, 도로, 철도 등 각종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신기술을 반영한 획기적인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7.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국가의 산업 구조와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산업 구조는 생산액 기준임.  
\*\* 산업은 2017년, 인구는 2018년 기준임.

< 보 기 >

- ㄱ. (가)는 (나)보다 석유 생산량이 많다.
- ㄴ. (가)는 (나)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많다.
- ㄷ. (나)는 (가)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유입이 많다.
- ㄹ. (가)는 아프리카, (나)는 아시아 국가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사막화의 진행

사막화는 건조 또는 반건조 지역에서 자연적·인위적 요인에 의해 식생이 감소하고 토양이 황폐화되는 현상이다. 사막화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으로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어 발생한다. 그러나 사막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무분별한 벌목, 경작지와 방목지의 확대, 지나친 관개로 인한 토지의 염도 상승 등의 인위적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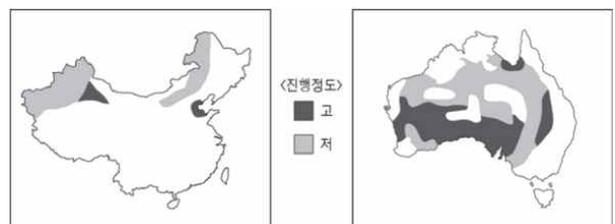
스텝 또는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사헬 지대**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가축의 과도한 방목, 땀감을 얻기 위한 삼림 벌채 등으로 토양이 침식되고 초원이 황폐해져 심각한 사막화가 진행 중이다. 중앙아시아의 **아랄해 연안**은 과도한 관개 농업 및 수자원의 남용으로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호수 주변의 토양이 황폐해졌다.

삼림과 초원이 훼손되고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물 종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토양 침식이 가속화되어 황무지로 변하면서 큰 모래 먼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거대한 모래 먼지는 기류를 타고 주변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 확산하여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사막화로 경작지가 황폐화되면서 토양의 식량 생산 능력이 떨어져 기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식량 확보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거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어 이웃 국가로 몰려들면서 지역민과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사헬 지대의 경우 대규모 기근과 정치적 불안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 전염병까지 퍼지면서 많은 사람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의료 시설도 부족하여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사막화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방목과 경작을 막고 초지와 숲을 조성하며, 국제 협력을 통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 연합은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도모하는 **사막화 방지 협약(UNCCD)**을 맺고, 사막화 방지와 사막화가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사막화가 진행 중인 지역의 주민들을 도와주는 한편, 사막화 지역에 나무를 심는 등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8. 지도에 나타난 환경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극지방과 고산 지대 빙하 쇠퇴의 주원인이다.
- ② 과도한 방목 및 삼림 벌채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 ③ 호수의 산성화 및 건물 부식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 ④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다.
- ⑤ 국제 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했다.

19. 주요 공업 지역의 형성과 최근 변화

산업 혁명의 발상지인 서부 유럽은 석탄, 철광석 등 주요 자원 매장지를 중심으로 공업 지역이 형성되었다. 석탄은 제철 공업과 발전을 위한 연료로 활용되었으며, 영국의 랭커셔·요크셔 지방, 독일의 루르 지방 등의 주요 탄전 지대를 중심으로 공장이 입지하였다. 철광석이 풍부한 프랑스의 로렌 지방은 인접한 독일 자르 지방의 석탄을 이용하여 제철 공업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오랜 채굴에 따른 석탄 및 철광석의 고갈, 채광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채굴 비용 상승, 값싼 해외 자원의 수입량 증가, 석유·천연가스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 자원 이용 등의 영향으로 탄전을 중심으로 한 서부 유럽의 전통적인 공업 지역은 점차 쇠퇴하였다.

북부 아메리카에서 가장 먼저 공업이 발달한 지역은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뉴잉글랜드 지방이다. 이곳은 산업 혁명이 시작된 유럽과의 지리적 인접성, 이민자들의 저렴한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공업이 발달하였다. 이후 오대호 연안 지역의 원료 산지를 중심으로 중화학 공업이 발달하였는데, 철강 공업이 발달한 시카고와 피츠버그,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디트로이트와 캐나다의 토론토 등이 대표적이다. 오대호 연안 공업 지역은 메사비 광산의 철광석과 애플래치아 탄전의 석탄, 오대호의 편리한 수운,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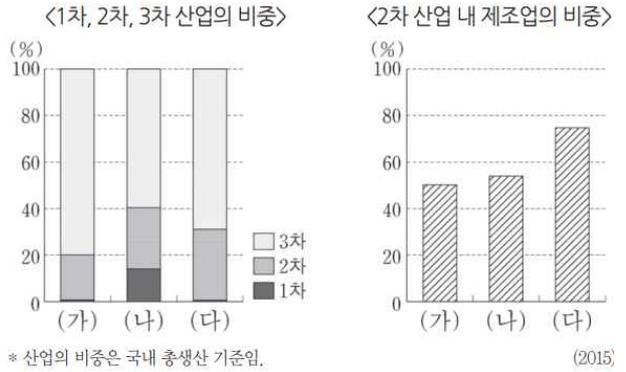
그러나 오랜 채굴에 따라 고품질의 철광석이 고갈되면서 해외 자원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공업의 지나친 집적으로 인해 환경 오염과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동아시아 신흥 공업 국가들의 성장으로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미국의 대표 공업 지역인 오대호 연안 공업 지역은 러스트벨트로 전락하였다.

석유가 공업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해외의 값싼 철광석 수입이 증가하면서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입지 지역이나 내륙 수로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업 지역이 형성되었다. 영국의 카디프와 미들즈 브러, 프랑스의 뤼케르크,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등의 공업 지역과 라인강을 따라 입지한 라인-쉬네 공업 지역 등이 대표적이다.

1960년대 이후에는 고부가 가치의 첨단 산업 지역이 성장하고 있는데, 영국의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프랑스의 소피아 안티폴리스,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핀란드의 오울루 테크노폴리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근접 입지하여 협력하는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였으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 창출을 통해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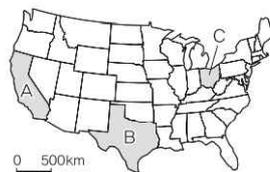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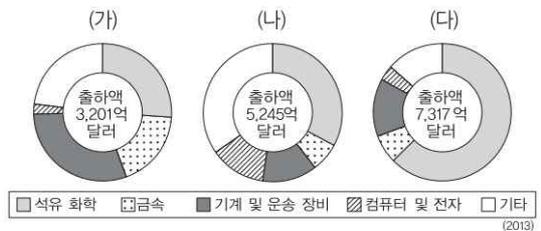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신흥 공업 국가들이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공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화학, 철강 산업의 공업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러스트벨트라 불리는 오대호 중심의 미국 북동부 중화학 공업 지역은 점차 쇠퇴하였고, 미국 남부 및 남서부의 선벨트(Sun Belt) 중심으로 기술 집약적 첨단 산업이 성장하였다. 첨단 산업의 중심 실리콘벨리가 위치한 태평양 연안 공업 지역, 전자 및 항공·우주 산업이 발달한 멕시코만 연안 공업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39. 그래프의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가)	(나)	(다)
①	A	B	C
②	A	C	B
③	B	A	C
④	B	C	A
⑤	C	A	B

40. 그래프는 미국 세 주(州)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주(州)를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가)	(나)	(다)
①	A	B	C
②	A	C	B
③	B	A	C
④	C	A	B
⑤	C	B	A

20. 현대 도시의 내부 구조와 특징

일찍부터 공업이 발달한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에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간의 상호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런던, 뉴욕 등과 같은 세계 도시가 형성되었다. 전 세계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 세계 도시에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 국제 금융 시장, 국제 기구 등이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다.

세계 도시는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공간적 상호 작용이 증가하면서 성장하였다. 이는 자유 무역이 확대되고 국가 간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고 교류가 활발했던 기존 대도시들이 세계 곳곳에 분산된 다양한 기능을 연계하고 통합할 수 있는 중심지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중심 산업이 제조업에서 정보 통신, 금융, 첨단 산업 등으로 변화하면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었다.

영국의 런던은 17세기 인도에 설치한 동인도 회사를 통한 독점 무역으로 성장하였고, 18세기 이후에는 산업 혁명의 중심지가 되었다. 현재 런던은 항공 교통의 중심지이자 금융의 중심지로서, 국제 자본의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파리는 19세기 이후 산업화를 통해 크게 성장하였고 파리 개조 사업을 통해 근대적 도시로 발돋움 하였다. 역사적인 건축물과 유명한 미술품이 많아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불린다.

미국의 뉴욕은 오대호의 운하가 개통됨에 따라 내륙 농산물의 유럽 수출항으로 성장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월가(Wall Street)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으며, 국제 연합 본부가 설치되면서 정치적 영향력도 커졌다.

미국의 시카고는 오대호와 미시시피강을 연결하는 거점 도시이다. 수상 및 내륙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미국 동부와 서부 지역을 연결하며, 무역, 금융,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등의 서비스업이 발달하였다.

도시의 내부 구조는 교통 발달에 따른 도시의 성장을 반영한다. 도시 성장 초기에는 여러 기능들이 혼재되어 나타나지만,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러한 기능이 서로 경쟁하며 다른 장소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시 내부 구조의 공간 분화가 이루어진다.

도시에서 지대와 접근성이 가장 높은 도심에는 중심 업무 지구(CBD)가 나타난다. 도심은 업무용 고층 빌딩이 밀집되어 있고 상주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중심 업무 지구의 외곽에는 저급 주택 지구와 공업 기능 등이 섞여 있는 중간 지대가 나타난다. 이 지역은 원래 중산층이 거주 하던 곳이었으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발달로 교외화가 이루어지면서 저소득층의 거주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지식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도심과 중간 지대는 새로운 업무용 건물을 짓기 위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부 도시에서는 낙후된 도심 지역을 주거, 여가·문화 공간으로 재개발하면서, 고소득층 인구가 유입하여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도심 재활성화(gentrification)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유럽의 도시들은 북부 아메리카의 도시에 비해 시가지의 범

위가 좁고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다. 역사적 건축물이 많은 도심의 핵심 지역에는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며, 그 바깥쪽으로 저소득층 이민자 거주 지역인 중간지대가 분포한다.

도심 인근 지역은 최근 도심 재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비즈니스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는데, 런던의 카나리 워프, 파리의 라 데팡스가 대표적이다. 중간 지대의 바깥으로는 공업 지역과 교외 주거 지역이 분포한다.

북부 아메리카 도시들은 도로 교통의 발달에 따라 교외화가 진전되면서 일찍부터 도시 외곽에 주거 지역이 형성되었다. 일부 도시에서는 도심이 쇠락하였으나, 도심 재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주거 환경과 도시 기능이 개선되고 있다.

최근에는 교통이 편리한 교외 지역에 인구가 집중하고 오피스 빌딩과 쇼핑센터 등이 건설되면서 새로운 중심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을 에지시티(edge city)라고 한다.

41.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수행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도시 특징 조사]

3학년 ○반 이름 : △△△

◎ 사례1 : (가)은/는 도로 교통의 발달에 따라 ①교외화가 진전되면서 일찍부터 도시 외곽에 주거 지역이 형성되었다. 일부 도심이 쇠락하였으나, ②도심 재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주거 환경과 도시 기능이 개선되고 있다. 최근 교통이 편리한 교외 지역은 인구가 집중되고, 새로운 중심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 사례2 : (나)은/는 역사적 건축물이 많은 ③도심의 핵심 지역에 고소득층이 거주하며, 그 바깥쪽으로 저소득층 이민자 거주 지역인 중간 지대가 분포한다. 도심 인근 지역은 최근 도심 재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비즈니스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중간지대 바깥으로는 공업 지역과 ④교외 주거 지역이 분포한다.



- ① ①의 영향으로 도시 외곽에 고소득층의 주거 지역이 나타난다.
② ②으로 인해 도심에 외국인과 저소득층의 거주지가 형성된다.
③ ③은 접근성과 지대가 도시 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④ ④은 ③보다 금융, 법률 등의 생산자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
⑤ (가)는 (나)보다 도시의 역사가 짧다.

21. 지역의 통합과 분리 운동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경제 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CSC)가 결성되었다. 이후 1967년 유럽의 공동 시장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 공동체(EC)가 설립되면서 동맹국 간 관세가 철폐되고 공동 대외 관세 정책이 시행되었다. 유럽 공동체를 통해 경제 통합의 성과를 이루어 낸 유럽은 단일 통화권을 형성함과 동시에 정치적 통합까지 실현하기 위해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였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탄생한 **유럽 연합(EU)**은 유럽 중앙은행을 설립하였으며, 유로(Euro)라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 의회를 구성하는 등 유럽의 경제 및 정치적 통합을 추구하였다. 유럽 연합은 독자적인 법령 체계와 입법, 사법, 행정 체계를 갖추고 경제적으로 통상, 산업 등에 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며 정치·사회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동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회원국 국민은 '유럽 연합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셴겐 조약**에 따라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가입한 동부 유럽 지역 국가와 기존 서부 유럽 지역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 남부 유럽의 재정 적자 문제 등은 유럽 연합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 체결된 이후 미국은 긴 경기 침체를 겪었지만, 유럽은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을 창설하고 유럽 공동체를 결성하면서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경제권이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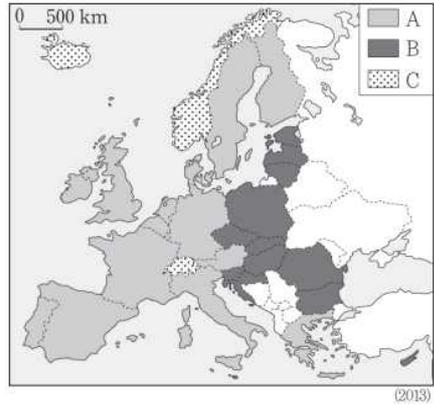
이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1992년 시장 단일화를 목적으로 **북아메리카 자유 무역 협정(NAFTA)**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으로 3개국간 관세와 투자 장벽이 철폐되었으며,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본과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되어 국제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연내 무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도 성장하였다.

그러나 미국 제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 멕시코 생산 공장 주변의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였다.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는 각각 유럽 연합, 북아메리카 자유 무역 협정 등 국가 간 통합 노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의 흐름과는 달리 국가 내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현재 국가의 국경선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독자적인 종교, 민족, 언어 등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정체성이 확립된 곳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스파냐의 **카탈루냐**, **바스크** 등의 지역은 분리 독립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역**과 캐나다의 **퀘벡주** 등은 언어의 차이가 분리 운동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지역 분리 운동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가 내에서 다른 지역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이 소속 국가로부터의 분리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탈리아의 **파다니아**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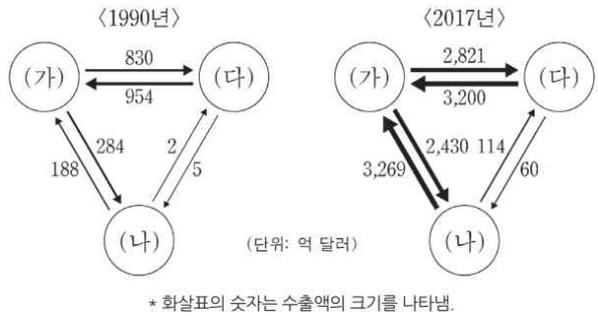
42. 지도의 A~C 국가군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A는 B보다 유럽 연합에 먼저 가입한 국가들이다.
  - ㄴ. B는 유럽 연합에 가입한 이후, 이전에 비해 A로의 노동력 이동 증가가 나타났다.
  - ㄷ. C는 유럽 연합 출범 시기부터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ㄹ. A와 C의 모든 국가들은 국가 단일 통화로서 유로화를 사용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3. 그래프는 (가)~(다) 국가 간 수출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 하나임.)



- < 보 기 >
- ㄱ. (다)는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해 조립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마킬라도라'가 발달하였다.
  - ㄴ. (가)와 (다)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 ㄷ. (나)는 (가)에 비해 항공·우주 산업이 발달하였다.
  - ㄹ. 2017년 캐나다의 대(對)미국 수출액이 미국의 대(對)캐나다 수출액보다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 도시 구조에 나타난 도시화 과정의 특징

중·남부 아메리카는 오래전부터 마야·아스테카·잉카 문명 등 찬란한 고대 문화가 발달했던 지역으로 라틴계 유럽인이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라틴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라틴계 유럽인은 이곳의 원주민 문명을 파괴하고 자원을 수탈했으며,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많은 노예를 이주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원주민, 유럽인, 아프리카계 간의 혼혈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원주민 문화와 외래문화가 혼합되어 다양성이 공존하는 중·남부 아메리카 특유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한편,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식민지 지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도시를 파괴·변형하여 새롭게 식민 도시를 건설하였다. 식민 도시는 각국의 거점 도시로서 남부 유럽의 영향을 받아 넓은 도로, 광장, 성당 등이 나타난다.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 인구 비율은 약 80%로 경제 발전 수준보다 높은편인데, 이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도시화와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도시화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중·남부 아메리카는 1900년대 이후 경제 발전에 따른 사망률 감소, 유럽계 백인의 도시 유입, 대규모 이촌향도의 영향으로 도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각 나라의 수도, 식민 도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각종 기능이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농촌 지역은 경제 성장의 흐름에서 소외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농촌 인구가 대도시로 이주하였으며, 소수의 대도시가 빠르게 성장하여 공간적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후 도시 내 인구의 자연적 증가로 도시화율은 더욱 높아졌고, 도시 면적도 확장되었다.

현재 중·남부 아메리카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급속한 도시화로 소수의 대도시가 과도하게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1,0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이 다른 대륙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는 중·남부 아메리카 주요 도시의 형성과 내부 구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에스파냐는 식민 지배를 하는 동안 도시 건설의 세세한 부분까지 법률로 정하여, 비슷한 구조의 도시들을 곳곳에 건설하였다.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는 식민 도시를 토대로 발전한 형태가 많으며,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가 불안정하게 나타난다. 유럽인은 도시 중심부에 광장을 만들었으며, 광장 주변에 격자망 도로를 건설하고 성당과 관공서, 상업 시설 등을 배치하였다. 이로 인해 중·남부 아메리카 주요 도시에서는 중심부에 상업 지구와 통치 핵심 기능이 위치하게 되었으며, 고용 기회도 중심부에 집중되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중심부 주변에 거주하게 되었다.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에서는 고소득층을 이루는 유럽계 백인이 주로 도심부와 도시 발전 축을 따라 확장된 고급 주택 지구에 거주한다. 그리고 중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저소득층을 이루는 원주민이나 아프리카계가 거주하는 저급 주택 지구가 분포하는 형태를 이룬다. 따라서 선진국 도시의 도심 주변에 분포하는 슬럼이나 저급 주택 지구가 중·남부 아메리카에서는 도시 외곽 지역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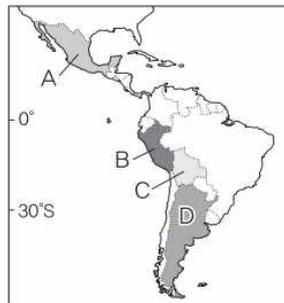
중·남부 아메리카는 급속한 도시화를 거치는 동안 소수의 대도시에 모든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과도도시화와 중추 도시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에서는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였다.

도시로 이주한 농민은 대부분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였고, 도시 내 공유지나 도시 외곽에 불량 주택 지구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불량 주택 지구는 지속적인 농촌 인구의 유입과 도시 빈민의 높은 자연적 인구 증가로 더욱 확장되었다. 또한 불량 주택 지구는 도시 중심부의 고급 주택 지구보다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사회적 혜택이 부족하여 주거 환경의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남부 아메리카 대도시들은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취약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 자동차 수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위생 및 공공 서비스의 부족, 심각한 환경 오염 등의 다양한 도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기반 시설 보완, 빈부 격차 해소, 도시 재생 사업, 국토 균형 발전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44. 다음 글의 (가)~(다)에서 설명하는 국가를 지도의 A~D에서 고른 것은?

- (가) 원주민 전통이 많이 남아 있는 나라이지만, 유럽의 영향을 받아 도시의 중심에는 성당과 광장이 위치한다. 이 나라의 수도는 전 세계 국가의 수도 중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로는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다.
- (나) 아스테카 문명이 발달했던 나라로 원주민과 백인의 혼혈인 메스티소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나, 아메리카 원주민의 수도 적지 않다. 원주민은 경제적 혜택에서 소외된 남부 지역에 많이 모여 산다.
- (다) 유럽인이 집중적으로 이주하여 백인 인구 비율이 매우 높다. 에스파냐 춤곡과 아프리카의 음악이 혼합되어 탱고라는 음악과 춤이 만들어 졌다.



	(가)	(나)	(다)
①	A	B	C
②	B	A	D
③	B	D	C
④	C	A	D
⑤	C	B	D

23. 다양한 지역 분쟁과 저개발 문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15세기 이후 유럽인이 진출하면서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유럽인은 아프리카 진출 초기에 서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금, 상아, 각종 농산물 등을 대규모로 반출하였고, 신대륙 발견 이후에는 노예 삼각 무역을 통해 많은 아프리카계를 아메리카 지역의 플랜테이션 농장의 노예로 이용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는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이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수많은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서구 열강으로부터 대부분 독립하였으며, 이후 제3세계의 한 축을 이루었다. 하지만 독립 이후에도 많은 나라가 식민지 경험에 따른 정치적 불안과 분쟁,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여전히 내전, 빈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아프리카계의 비중이 높아 '검은 아프리카'로도 불린다. 이 지역 주민은 열대 우림과 사막 등 척박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혈연 중심의 소집단으로 오랜 기간 고립된 생활을 해 왔다. 부족 중심의 독특한 원시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부족 간 종교와 언어, 생활 양식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열굴 형태 및 피부색, 신장 등에 따라 썬족, 햄족, 반투족, 코이산족, 피그미족, 말레이족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유럽인의 이주로 백인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다양한 종교가 나타난다. 서남아시아 지역과 인접한 소말리아, 수단 등은 이슬람교를 주로 신봉하며, 차드, 카메룬 등지에도 이슬람교도가 많다. 그리스도교는 유럽인의 식민지 개척 과정에서 아프리카 남부 지역으로 넓게 전파되었다. 이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토속 신앙은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등 외래 종교의 전파로 인해 비중이 작아지기는 했지만, 부족의 일상생활에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은 부족 중심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생활해 왔다. 하지만 식민 지배 과정에서 유럽 열강이 부족의 생활 공동체를 무시한 채 임의대로 국경선을 확정함에 따라 부족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독립 국가 상당수가 국가 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다양한 언어와 종교, 지역적으로 편중된 자원, 일부 지도자들의 독재와 부정부패 등도 국가 통합의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겉으로는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 있지만 안으로는 여전히 부족 중심의 생활 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국가 내 민족과 종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에라리온, 수단, 나이지리아, 르완다 등지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분쟁으로 이어져 많은 인명 피해와 정치적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백인 비중이 높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때 아프리카계 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시행하여 국제적으로 큰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유럽 열강은 아프리카를 식민 통치하는 동안 각종 지하자원 채굴과 플랜테이션 작물 생산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 이후에도 농산물과 광물 위주의 수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여 국가 경쟁력이 취약하다.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만성적인 빈곤, 기아에 시달리고 있

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는 천연자원과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민 총소득이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경제 발전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아프리카 연합(AU)을 설립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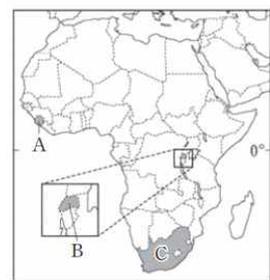
45. 다음 자료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단과 이집트 사이의 ㉠ 국경선은 직선으로 나타난다. 옛 수단은 ㉡ 두 종교의 접이 지대여 위치하여 내전을 겪은 후 남수단과 수단으로 분리되었으며, 여전히 ㉢ 두 국가의 접경 지역에서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과거 ㉣ 아파르트헤이트를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금, 석탄,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공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남부의 ㉤ 드라켄즈버그산맥 일대에서 주로 채굴되는 석탄은 아프리카에서 수출량이 가장 많다.

- ① ㉠ - 하천 유로를 따라 국경이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 ② ㉡ -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이다.
- ③ ㉢ - 석유 생산과 수송을 둘러싼 다툼이 원인 중 하나이다.
- ④ ㉣ - 유럽계가 아프리카계 주민 등을 차별한 정책이다.
- ⑤ ㉤ - 고기 습곡 산지이다.

46. 다음 영화 소개 글에 등장하는 (가), (나) 국가를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제목 : ◇◇◇ 다이아몬드	제목 : 파워 ○○○
1990년대 서아프리카의 (가) 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려는 정부군과 인접국 라이베리아의 지원을 받은 반군 사이의 내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다. 비인간적인 소년병 실태와 분쟁 지역에서의 불법적 다이아몬드 유통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나) 에서 태어나 성장한 백인 소년의 사례를 통해 흑인의 인권과 정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영화의 주 무대가 된 곳은 요하네스버그로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철폐될 때까지 인종 차별이 극심했던 지역이다.



- |   |     |     |
|---|-----|-----|
|   | (가) | (나) |
| ① | A   | B   |
| ② | A   | C   |
| ③ | B   | A   |
| ④ | B   | C   |
| ⑤ | C   | A   |

24. 자원 개발을 둘러싼 과제

중·남부 아메리카는 석유, 천연가스, 구리, 주석, 철광석, 보크사이트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에콰도르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산유국이다. 브라질은 철광석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멕시코는 세계 최대의 은 생산국이다. 칠레는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국으로 국내 총생산의 20%, 수출액의 60%를 구리가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볼리비아에는 주석과 천연가스가, 자메이카와 가이아나 일대에는 보크사이트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

자원은 보유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자원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부를 둘러싸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 들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국유화하여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자원은 석유, 석탄, 금, 다이아몬드, 구리, 코발트 등이며, 에너지 자원보다 광물 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기니만 연안의 나이지리아는 세계적인 산유국으로 수출의 90% 이상을 석유가 차지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다. 아프리카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석탄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금, 다이아몬드, 망간, 크롬 등의 자원도 풍부하다. 구리와 코발트는 아프리카 중·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데 잠비아에서 콩고 민주 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구리와 코발트가 풍부하여 '코퍼 벨트'라 불린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미국, 인도 등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산업 인프라를 제공하고 각종 개발 기금을 지원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자원 채굴 권을 확보하고 있다.

자원 개발은 각국의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지만, 개발 과정에서 환경 오염, 사회적 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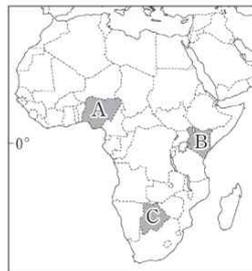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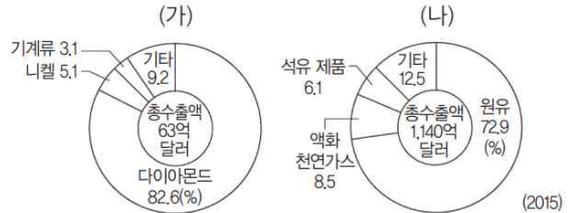
중·남부 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공통적인 환경 문제는 자원 개발에 따른 열대림 파괴이다. 무분별한 벌채와 과도한 경지 개간, 광산 개발 등으로 열대림이 사라지면서 생물 종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아마존의 열대림 훼손은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생활 터전마저 사라지게 하고 있다. 또한 석유 개발은 시추 시설과 파이프라인 건설로 삼림을 훼손하고, 탐사·생산·운송 중 발생하는 석유와 폐수의 유출로 환경 오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페루, 에콰도르 등의 아마존 서부 지역은 석유 개발로 강과 토양이 오염되었으며, 나이지리아의 나이저강 삼각주에서는 석유 유출로 환경 오염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농·어업 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 개발을 진행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 최근 브라질은 아마존 파괴를 우려하는 정치권과 환경 단체, 종교계 등의 강력한 요구로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의 광산 개발 계획을 공식 철회하였다.

중·남부 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초기 자원 개발은 대부분 선진국에 의해 이루어져 개발에 따라 발생한 많은 이윤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부가

가가 낮은 원석 상태로 자원을 수출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정부의 부정부패, 광산 이권을 둘러싼 내전, 다국적 기업의 자원 개발 등으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 문제와 빈부 격차가 커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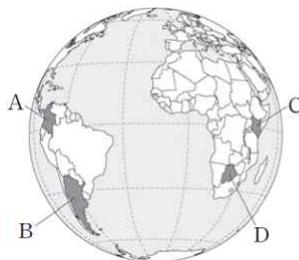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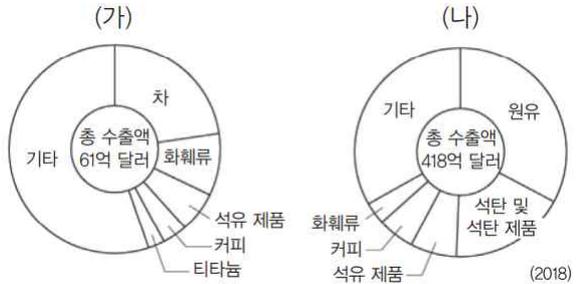
중·남부 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천연자원의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등 자원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원 개발에 따른 부의 정의로운 분배와 국민의 생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개발에 힘쓰는 국가들도 나타나고 있다.

47. 그래프는 아프리카 (가), (나) 국가의 상품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두 국가를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가)	(나)
①	A	B
②	B	A
③	B	C
④	C	A
⑤	C	B

48. 그래프는 두 국가의 상품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의 A~D에서 고른 것은?



	(가)	(나)
①	A	C
②	B	A
③	B	D
④	C	A
⑤	C	D

25. 경제 세계화에 대응한 경제 블록의 형성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국가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전 세계는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성이 커지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경제 세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무역 기구(WTO)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가 설립되었다.

경제 세계화의 확대에 따라 세계를 무대로 하여 판매 및 생산 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노동, 기술, 경영 등 생산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의 관리, 연구, 생산 기능을 분리 배치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이를 공간적 분업이라고 한다.

경제 세계화의 영향으로 세계 여러 국가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지역 및 국가끼리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여 무역 장벽을 낮추는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자유 무역의 확대로 소비자들은 전 세계의 값싸고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업은 국제 시장에서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 세계화에 따른 자유 무역의 확대로 국가 간 빈부 격차가 커지기도 한다. 국가 간 무역에서 선진국은 주로 고부가 가치의 첨단 산업과 금융 서비스 등 생산자 서비스를 담당하고 개발 도상국은 주로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제조업과 농업 부문을 담당하면서, 이들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또한 자유 무역 협정은 역외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인해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개발 도상국의 경우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은 고용이 줄고 생산량이 감소하기도 한다. 이에 선진국에 경제적으로 예측될 우려가 있는 개발 도상국에서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 조치 등을 취하기도 한다.

세계의 여러 나라는 자연적, 사회적·경제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는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었다.

한편 경제 세계화와는 별도로 경제적 또는 지리적으로 밀접한 국가 간에 지역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선진국 또는 지역 내 신흥 성장 국가를 중심으로 공동의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경제 블록이 형성되고 있다.

세계의 주요 경제 블록에는 유럽 연합(EU),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북아메리카 자유 무역 협정(NAFIA), 남아메리카 공동 시장(MERCOSUR) 등이 있다.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해관계에 놓인 지역 내 국가들은 대체로 관세와 수입 제한을 철폐하고 자본·노동력·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지만, 역외국에는 이와 다른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경제 블록화의 확대로 지역 내 국가 간 교역량이 증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역 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등의 긍정적 영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윤을 중시하는 가운데 경제 세계화의 흐름에서 소외된 국가와 지역은 경제력이 오히려 약화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49. 다음 자료는 세계 지리 수행 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 (나)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행 평가 보고서

○학년 ○반 이름 : ◇◇◇◇

- 경제 활동의 세계화와 관련한 신문 기사 조사하기 -

주제 1 :  미국의 휴대 전화 생산 기업인 A사의 제품에는 '디자인은 캘리포니아에서, 조립은 중국에서'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개발은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품의 조립은 B사의 중국 공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후략) ...

- △△신문 2017년 ○○월 ○○일 -

주제 2 :  미국 북동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제조업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고용 인구와 생산액 비중이 줄었다. 현재는 이 지역을 공장 설비에 녹(rust)이 슬었다는 의미로 '러스트 벨트'라고 부른다. ... (후략) ...

- □□일보 2017년 ○○월 ○○일 -

- |   | (가)       | (나)     |
|---|-----------|---------|
| ① | 공정 무역     | 유통의 세계화 |
| ② | 공간적 분업    | 공정 무역   |
| ③ | 공간적 분업    | 산업 공동화  |
| ④ | 기업의 인수·합병 | 산업 공동화  |
| ⑤ | 기업의 인수·합병 | 유통의 세계화 |

26.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과 대처

인류는 산업 혁명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환경의 수용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전을 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화석 연료의 사용 증가에 따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였으며, 이상 기후의 출현이 잦아지고, 과도한 방목 또는 삼림 벌채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공장이나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 빗물에 섞여 내리는 **산성비**는 식물과 호수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생물 종 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진 **열대림**이 벌목과 농경지 확대로 인해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환경 문제는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피해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어 지구촌 전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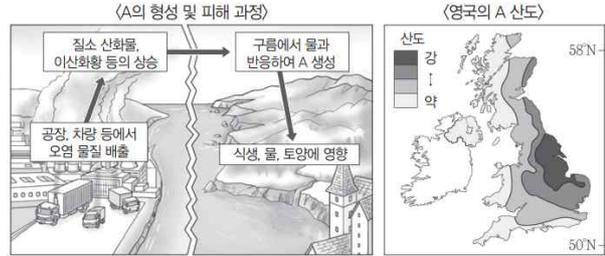
환경 문제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인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 사막화 등과 같은 지구적 환경 문제에 관한 다양한 협약을 맺고 현재는 물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린피스, 세계 자연 보호 기금, 지구의 벗과 같은 국제 비정부 기구(NGO)도 지구적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최근에 마련된 **생태 수용력**, **생태 발자국**, **가뭄 지수** 등과 같은 환경 지표는 수치적 목표를 점검할 수 있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지구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추구하는 실효적 정책을 도입하고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특히 지구 온난화와 같은 지구촌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자국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에너지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 마크 제도**, 쓰레기 종량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해야 한다.

지구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은 생활 속에서 작은 행동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냉난방기 사용을 조절하여 전기를 아끼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또한 재활용 분리수거, 환경친화적 제품 사용을 일상화하려는 실천 의지를 갖고, 지구적 환경 문제의 해결은 나부터라는 마음가짐도 지녀야 한다.

50. 다음 자료에 제시된 A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기 >
- ㄱ. A는 건축물이나 문화 유적을 부식시키기도 한다.
  - ㄴ. A 문제는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이 주요 원인이다.
  - ㄷ. 영국에서 A를 유발하는 오염 물질은 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
  - ㄹ. 생물종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A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방지 대책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1. 다음 글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80년대 후반에 세계 여러 나라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하여 ㉠ 오존층 파괴 물질의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그 결과, 2015년에 측정한 ㉡ 오존홀(구멍)은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해 대폭 축소되었다.

○ 산업 혁명 이후 화석 연료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 온실 가스의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온실 효과가 강화되면서 ㉣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 북극해의 해빙(海水) 면적 감소, 고산 지대의 만년설 감소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① ㉠의 주요 원인 물질은 염화플루오르화탄소(CFCs)이다.
- ② ㉡은 남극 상공에서 관측되었다.
- ③ ㉢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람사르 협약이 체결되었다.
- ④ ㉣로 인해 고산 식물의 평균 분포 고도가 높아지고 있다.
- ⑤ ㉤으로 인해 연중 북극 항로의 항해 가능 일수가 증가하였다.

27.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 지구촌의 노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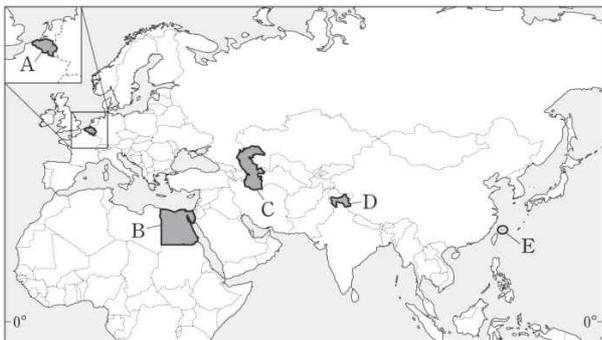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영역·자원·민족이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잦은 전쟁과 내전으로 일부 국가는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당사국 국민은 **난민**의 처지에서 정치적·경제적 불안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기아 문제**를 겪기도 한다. 따라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역 분쟁은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협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촌은 세계 평화를 위한 초국가적 협의체인 **국제 연합(UN)**을 창설하였다. 제1, 2차 세계 대전을 교훈 삼아 조직된 국제 연합은 국가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추구한다. 국제 연합은 산하에 국제 사법 재판소, 평화 유지군, 유엔 난민 기구 등을 두어 사법 분쟁, 무력 분쟁 및 갈등, 난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류의 존엄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비정부 기구(NGO)**를 조직하여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엠네스티 등은 환경 보호, 인도주의 의료 구호, 인권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비정부 기구이다. 이들 단체는 다양한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여러 곳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류가 맞닥뜨린 문제들이 국경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시민은 지구촌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실천 의지를 지녀야 한다. 또한 국제 평화를 추구하고 보편적인 인권 존중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국제 사회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고민하며, 이를 지역적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계 시민의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52. 지도는 갈등 및 분쟁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A~E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간에 갈등이 있다.
- ② B- 수자원을 둘러싸고 하천 상류에 위치한 국가와 갈등이 있다.
- ③ C- 갈등 당사국에는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다.
- ④ D-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갈등이 있다.
- ⑤ E-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필리핀 간의 갈등이 있다.

2023학년도 수능 대비 모의고사 주요 문항 정답

1	③	2	④	3	⑤	4	①	5	④
6	⑤	7	⑤	8	⑤	9	②	10	①
11	⑤	12	④	13	⑤	14	②	15	①
16	②	17	⑤	18	④	19	③	20	④
21	③	22	②	23	⑤	24	④	25	⑤
26	⑤	27	⑤	28	③	29	③	30	⑤
31	③	32	⑤	33	①	34	④	35	①
36	②	37	⑤	38	②	39	②	40	④
41	②	42	①	43	④	44	④	45	①
46	②	47	④	48	④	49	③	50	①
51	③	52	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2015학년도 교육과정 탐구영역 배경지식

# 국어 영역 (동아시아사)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역사가의 의무는 진실과 허위, 확실과 불확실,  
의문과 부인을 분명히 구별하는 일이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배점은 2점 또는 3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1 교시

국어 영역

1. 동아시아의 자연환경과 생업

동아시아 지역은 히말라야산맥을 경계로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와 구분된다. 동아시아는 서쪽에 평균 해발 고도4,500m 이상의 티베트고원이 있으며, 동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점차 낮아진다. 중국 동부 지역에는 큰 강을 따라 낮은 평원 지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랴오허강과 황허강 유역의 동베이평원(만주), 황허강 유역의 화베이평원, 창장강 유역의 양후평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반도 서쪽 해안에는 평야가 발달해 있으며, 북동부 지역으로 갈수록 높은 산지가 나타난다.

대륙의 동쪽에는 일본 열도와 타이완 등 여러 섬이 있다. 이 지역은 평야가 적고 산지가 많은 편이며,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여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고산 기후 등 다양한 기후가 분포한다. 또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여름철에는 바람이 바다에서 대륙을 향해 불어 비가 많이 내리며 덥고 습한 날씨가 나타난다. 반면에 겨울철에는 바람이 대륙에서 바다를 향해 불어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 대륙 내부로 갈수록 건조하고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뚜렷해진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기온과 강수량 등 기후 조건에 따라 식생과 생업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국 동부, 한반도 남부, 일본 서부 지역은 기온이 온화하고 강수량이 풍부한 활엽수림 지대로, 일찍부터 농경 문화가 발달하였다. 그 북쪽에 있는 한반도 북부, 만주,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은 침엽수림 지대로 내륙에서는 밭농사와 수렵이, 연해에서는 고기잡이가 주로 이루어졌다.

만주의 일부 지역과 몽골, 티베트고원 일대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어 농경이 어렵다. 이 지역에는 초지가 널리 분포하여 계절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오가며 가축을 기르는 유목이 발달하였다.

기온과 강수량 등의 기후는 작물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연 강수량이 400mm가 넘는 지역에서는 농경 생활이 이루어졌다. 농경 지역은 다시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논농사 지역과 밭농사 지역으로 나뉘었다.

중국의 화중·화남 지역과 산둥반도의 해안가, 한반도의 남서부, 일본의 혼슈와 규슈 지역에서는 주로 논농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중국의 화남, 일본의 규슈 남부 등지에서는 1년에 벼를 두 번 재배하는 이기작이 가능하였다. 이곳보다 강수량이 적은 화북 지역, 만주, 한반도 북부 등지에서는 주로 밭농사가 이루어졌다.

밭농사는 기원전 8000년경에 황허강 유역의 황토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밭농사는 작물의 생육 기간이 짧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조·수수·기장·콩 등의 잡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벼농사는 기원전 6000년경에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풍부하며 늘지가 많은 창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벼는 다른 작물에 비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았다.

농경민은 계절에 맞추어 씨를 뿌리고 곡물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또 불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사업 등 공동 노동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 정착 생활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국가 조직이 만들어졌다.

연 강수량이 400mm 이하이고 기온이 낮아 곡물 재배가 어려운 내륙의 고원 및 초원 지대에서는 주로 목축이 이루어졌다. 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계절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정기적으로 오가며 가축을 기르는 유목 생활을 하였다.

유목민은 양, 염소, 말, 소, 낙타 등을 길렀으며 수렵을 통해 생계를 보조하였다. 이들은 가축에게 먹일 물과 풀을 찾아 생활 터전을 옮겨 다니며 살았으며, 삶에 필요한 생필품을 가축으로부터 얻었다. 가축의 젖과 고기, 젖을 가공하여 만든 유제품을 먹고, 가죽과 털을 이용하여 의복이나 게르 등을 만들었다. 또 가축의 뼈와 뽕을 이용하여 각종 물건을 만들었고, 배설물을 말렸다가 연료로 이용하였다.

유목민은 평소 부족 단위로 생활하였으며 부족장의 권한이 강하였다. 이들은 뛰어난 기마 능력과 전투 능력을 바탕으로 흩어진 부족을 통합하고 강력한 유목 국가를 건설하기도 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유목 국가를 세운 것은 흉노였다. 흉노는 진·한 대에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초원 지대를 장악하여 북방의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흉노 이후에도 돌궐, 위구르, 몽골 등이 유목 국가를 세웠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북방 민족이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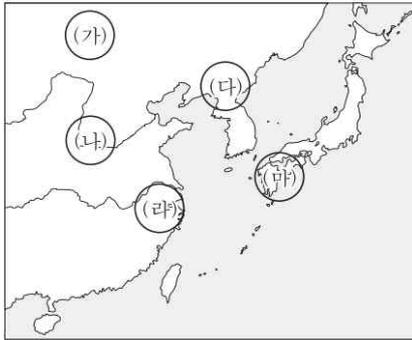
유목민은 가죽·모피·말 등을 농경 지역의 곡물·차·황금·비단·무명·누룩 등과 바꾸는 형태로 교역하였다. 때로는 농경민이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유목민의 목초지 주변을 침략하기도 하였다. 유목민 역시 곡식, 채소와 같은 물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때 농경 지역을 약탈하기도 하였다. 유목민에게 약탈은 물자를 손쉽게 얻는 방법이었지만 일회성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농경 사회를 정복하는 일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유목민은 농경민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여 정기적인 공납을 수취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후 변화로 농경 지역과 유목 지역의 경계가 이동하면서 생활 근거지가 변하기도 하였다. 이때에는 농경민과 유목민이 생활 근거지를 놓고 충돌하였다.

역사 속에서 농경민과 유목민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얕잡아 보기도 하였다. 농경민은 유목민을 약탈을 일삼고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야만인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유목민은 농경민을 땅에 엮매여 사는 부자유스러운 존재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농경과 유목은 문화의 우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연환경에 맞춰 오랜 시간 적응한 결과 나타난 생활 모습이다.

1.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기원전 60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볍씨와 벼의 모습이 새겨진 토기 등이 발견되어, 벼농사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고온 다습하여 벼농사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고 있는데, 11세기 이후에는 점성도(占城稻)라고 불리는 조생종 벼가 새로 보급되면서 생산력이 더욱 발전하였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2.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들은 농경민과는 달리 물과 풀을 따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생활하였다. 따라서 모든 것은 운반할 수 있어야 하고, 한 곳에 펼쳐 놓았다가 다음 이동 때 다시 챙겨 싣고 갈 만큼 가벼워야 했다. 이들에게 있어서 단순성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 ① 이동식 가옥에서 주로 거주하였다.
- ② 대부분의 생필품을 가죽으로부터 얻었다.
- ③ 계절에 따라 숙영지를 이동하며 생활하였다.
- ④ 농경 사회로부터 곡식과 비단 등을 충당하였다.
- ⑤ 창장강 유역의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주로 생활하였다.

2. 동아시아의 선사 문화

중국 남서부의 위안머우에서 약 170만 년 전에 살았던 인류의 치아 화석이 발견되었다. 베이징에서는 50만 년 전쯤에 출현한 좀 더 발달한 인류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불과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뿐 아니라 몽골, 한반도 지역에서도 인류 화석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 뒤를 이어 일본 열도와 시베리아 등지에서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나타났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현생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약 4만 년 전에 출현하였다.

구석기인은 오랜 시간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때로는 도전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 갔다. 이들은 불을 사용하여 추위를 이겨 내고 맹수를 쫓아냈으며, 음식을 익혀 먹었다. 또 언어를 사용하여 무리 안에서 의사소통하고, 다른 무리와 문화를 공유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다른 무리에 전해 주었다.

구석기인은 찍개, 주먹도끼 등의 편석기와 뼈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것으로 동물을 사냥하고 열매를 채집하거나 어로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고 사냥감을 따라 이동하며 생활하였다.

구석기인은 작은 무리를 이루어 공동생활을 하였고, 경험이 많거나 지혜로운 자가 무리를 이끌었다. 또한 사냥의 성공과 자신의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동굴 벽이나 바위에 사냥감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였다.

기원전 1만 년경 빙하기가 끝나면서 기온이 오르고 해수면이 높아져 동아시아에 오늘날과 같은 해안선이 형성되었다. 따뜻한 기후 속에 매머드 등 대형 동물이 줄어들고, 사슴이나 멧돼지 등 작고 빠른 동물이 번성하였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스페르드개와 같이 나무나 뼈에 쫓아 쓰는 이음 도구를 만들고, 작은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활을 사용하였다. 이후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좀 더 정교한 석기인 간석기를 만들었다.

신석기인은 돌을 갈아 돌화살, 갈돌과 갈판 등 다양한 간석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감과 그물을 만들었고 토기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토기는 처음에는 음식을 조리하는 도구로 만들어졌으나, 이후 저장용 도구나 의례용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신석기인은 수렵과 채집 외에도 농경과 목축 생활을 시작하였다. 강가나 구릉 지대에서 조·수수·밀·보리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양·소·돼지 등의 가축을 길렀다.

농경을 시작하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신석기인의 주거 모습도 달라졌다. 신석기인은 큰 강이나 해안가를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주로 움집을 짓고 살았는데, 움집은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땅을 파고 돌레에 기둥을 세워 만든 반지하 가옥이었다. 한편 창장강 이남 지역에서는 나무 기둥으로 기초를 세우고, 집의 바닥을 지면에서 띄운 고상 가옥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농경과 목축의 발전은 인구 증가와 사회적 분업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늘어났고, 갈등을 조정하고 증재하는 부족장의 권한이 조금씩 강해졌다. 한편 신석기인은 자연 현상이나 조상신을 모시는 공동의 제사의식을 거행하기도 하였다.

기원전 2000년경 동아시아에서 청동기가 사용되기 시작하였

다. 그러나 청동기를 만드는 재료인 구리와 주석이 함께 생산되는 곳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청동기는 주로 지배층의 장신구나 무기, 제사용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농사 기술이 발달하고 반달 돌칼 등의 도구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고 사유 재산제가 확산되면서 빈부 차이와 계급의 분화가 확대되어 갔다.

청동기를 먼저 보유한 집단이 주변의 약한 집단을 정복하거나 통합하면서 지배자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지배자가 주변 집단을 통합하면서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국가도 출현하였다.

황허강 유역의 룡산 문화는 기원전 2000년경 얼리터우 문화로 발전하였다. 얼리터우에서 대규모 궁전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여기에서 청동으로 만든 도구와 무기, 제사 용기 등이 발견되었다. 궁전과 성벽을 갖춘 이 유적은 초기 도시 국가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기록상의 하 왕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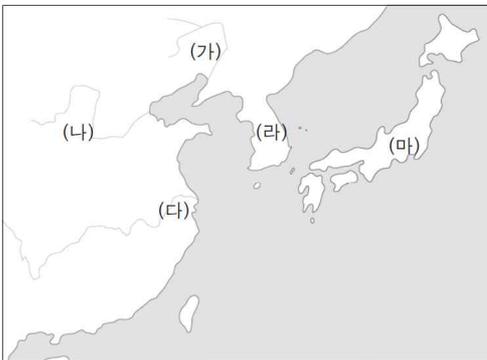
몽골 초원 지대에서는 기원전 1700년경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단검 등과 같은 청동 무기, 재갈 등의 기마 도구, 사슴돌, 판석묘, 거대한 돌무지 제사 유적 등이 만들어졌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1500년경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로 대표되는 청동기 문화가 나타났다. 또한 청동 방울·청동 거울 등의 제기 및 장신구, 무늬 토기 등이 제작되었다.

일본 열도에는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로부터 청동기와 벼농사 기술이 전해졌으며, 동시에 철기도 전해졌다. 그리하여 농경에 바탕을 둔 야요이 시대가 시작되었다.

3. 밑줄 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 지역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새끼줄을 누르거나 굴러서 무늬를 새긴 토기에 이어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화려하고 정교한 장식의 토기가 나타났다. 신석기 시대가 끝나고 성립된 야요이 시대에는 무늬 없는 토기가 확산되어 갔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3. 국가의 성립과 발전

문헌에 따르면 기원전 2000년경 황허강 중류 지역에 하 왕조가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하에 이어 기원전 1600년경에는 상이 세워졌다. 상은 실재가 확인된 중원 지역 최초의 왕조이다.

상은 여러 도시가 연맹하여 만든 나라였다. 상의 유적지에서 다량의 갑골문이 발굴되었는데, 갑골문은 상의 왕들이 제사장을 겸하며 종교적 권위에 의지하여 국가를 통치하였음을 보여 준다. 상은 기원전 11세기 주에 멸망하였다.

주는 도읍 부근을 왕이 직접 통치하고 나머지 영토를 친족과 공신에게 나누어 주어 통치하게 하는 봉건제를 시행하였다. 주의 봉건제는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운영한 중법적 봉건제였다. 주 왕은 자신을 하늘의 명을 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천자라 부르고, 백성을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덕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의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기원전 8세기 건융족이 서북쪽에서 침략하자 주는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다. 이때부터 춘추 시대라 하는데, 주 왕실은 제후를 통제할 힘을 상실하고 유력 제후들이 왕을 받든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를 주도하였다. 기원전 5세기에는 전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전국 시대는 제후들이 스스로 왕이라 칭하면서 주변의 소국을 병합하고, 신하가 제후의 자리를 빼앗는 등 하극상과 전쟁이 계속된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우경과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어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대되었고, 제후들은 앞다투어 부국강병을 추진하면서 철제 무기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제후국은 봉건제를 대신하여 중앙 집권적인 군현제로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각국의 제후가 부국강병을 위해 능력 있는 인재를 경쟁적으로 모집하면서 제자백가가 등장하였다.

전국 7웅 중 하나였던 진은 법가 사상이인 상앙을 등용하여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진은 이를 바탕으로 전국을 통일하였다 (기원전 221).

전국을 통일한 진왕은 스스로 시황제라 칭하고 3공 9경의 관료로 두었다.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군현제를 시행하였고, 도량형·화폐·문자를 통일하였다. 또한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분서갱유를 일으켰다. 그러나 시황제가 죽은 후 진은 급속히 쇠퇴하였고, 대규모 토목 공사와 엄격한 법치에 대한 불만으로 농민들의 봉기가 잇따라 일어났다.

진이 혼란에 빠지자 유방과 항우가 군사를 일으켜 다투었는데, 유방이 세운 한이 중국을 재통일하였다. 한 고조(유방)는 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하여 군국제를 시행하였다. 그 후 한은 차츰 제후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무제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영토를 크게 넓혔다. 그러나 잦은 전쟁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상공업을 통제하고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시행하였다. 1세기 초에 외척인 왕망이 정권을 잡아 신을 세우고 한을 멸망시켰으나, 호족의 후원을 받은 광무제가 한을 다시 세웠다(후한).

진이 중원을 통일할 무렵, 북방의 초원 지대에서 흉노가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흉노는 진의 공격을 받아 근거지를

상실하고 큰 타격을 입었으나, 이러한 위기 상황은 오히려 기마술과 기동성을 갖춘 흉노 사회의 군사화를 촉진하였다. 초원 지대에 흩어져 살던 흉노는 짧은 시간에 걸쳐 동아시아 최초의 유목 제국을 건설하였다.

흉노 제국은 초원 지대에 흩어져 있던 여러 부족을 통합한 연맹체 국가였다. 제국의 최고 군주는 '선우'라고 불렸다. 선우의 부인은 '연지'라고 불렸으며 황후에 해당한다. 선우는 특정 씨족 집단에서 배출되었으며, 그들과 혼인을 맺었던 몇 개의 인척 씨족이 있었다. 이렇게 혼인으로 결합한 군주와 인척의 씨족이 흉노의 핵심 지배층을 이루었다.

기원전 209년 목푼 선우가 즉위하면서 흉노는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는 동쪽으로 동호를 공격하여 복속시켰으며, 서쪽으로는 월지를 몰아냈다. 또한 남쪽 오르도스 지방과 북쪽 바이칼호 방면의 여러 세력을 정복하였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남으로 중국의 한을 압박하여 한 고조를 굴복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흉노는 한 무제의 공격을 받아 세력이 약해졌고, 후한 대에 선우 자리 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남북으로 분열되었다. 서역과의 중계 무역 이익을 둘러싸고 후한과 다투던 북흉노는 2세기 중반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남흉노는 후한의 일부로 자리 잡고 국가 조직을 유지해 갔다.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성립한 최초의 국가였다. 고조선은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고 중원의 여러 나라와 교류하거나 대립하면서 성장하였다.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과 준왕이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상·대부·장군 등의 관직이 설치되고 국가 체제가 정비되었다. 또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8조법」을 제정하였다.

「8조법」은 고조선 사회가 개인의 생명과 노동력, 사유 재산을 중시하였으며, 형벌과 노비가 존재한 계급 사회였음을 보여 준다.

한 건국 초기의 혼란을 피해 위만이 연으로부터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들어왔다. 위만은 고조선의 변경 일을 담당하면서 세력을 키워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기원전 194). 이 무렵부터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변의 소국을 정복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또한 한과 한반도 남부 지역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주도하였다.

만주와 한반도 전 지역에 철기가 보급되면서 여러 나라가 등장하였다. 만주 송화강 일대에는 예맥족이 세운 부여가 성장하여 연맹 국가로 발전하였다. 부여의 왕은 중앙을 통치하였으며, 큰 종족적 기반을 가진 대가들이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마한, 진한, 변한 등의 삼한이 성장하였다. 삼한은 수십 개의 소국이 형성한 연맹체로 농경이 발달하고 제정이 분리된 사회였다.

일본 열도에서는 야요이 문화를 기반으로 여러 정치체가 등장하였다. 3세기경에는 일본 열도에 30여 개의 소국이 존재하였는데, 이 중 히미코 여왕이 다스리는 야마타이국이 가장 강성하였다. 히미코 여왕은 소국들 사이의 전쟁을 수습하고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나라를 다스렸다고 전해진다.

기원전 3세기 후반 진시황제는 장군 몽염에게 대군을 주어 흉노를 공격하게 하였다. 진은 흉노를 북방 초원 지대로 몰아

내고 오르도스 지방을 차지하였다. 그 후 흉노의 재침입을 막기 위해 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가 쌓은 장성을 연결하여 만리장성을 건설하였다.

유방이 중원을 통일한 직후 흉노의 목푼 선우는 만리장성을 넘어 한을 공격하였다. 한과 흉노의 대군이 평성에서 부딪혔는데, 한 고조는 흉노에 포위되었다가 가까스로 포위망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한 고조는 흉노에 비단 등의 공물을 바치고 황실의 여자를 선우에게 시집보내는 등 굴욕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다. 한동안 흉노는 한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으면서 서역과 한 사이의 중계 무역에서 큰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한 무제가 즉위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달라졌다. 한 무제는 기원전 133년경부터 흉노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하였다. 한은 흉노에 대항하기 위해 기마병을 육성하였고, 위청과 광기병 등 유능한 장수의 활약으로 흉노에 승리를 거두었다. 흉노는 고비 사막을 넘어 후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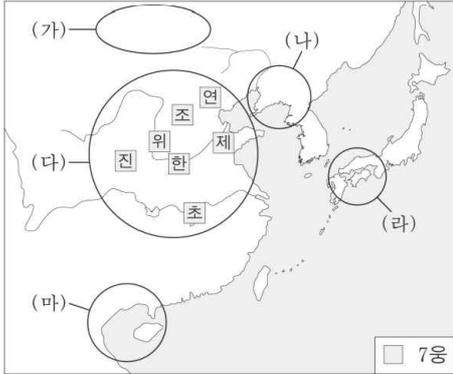
고조선은 기원전 7세기경 산동반도에 있던 제나라와 교역하였다. 기원전 4세기 이후에는 전국 7웅 중 하나였던 연나라와 대립하였으나, 결국 연의 공격을 받아 서쪽의 영토를 빼앗겼다. 위만의 손자 우거왕은 한반도 남부 세력과 한의 교역을 막아 중계 무역의 이익을 독점하려 하였다. 이에 팽창 정책을 추진하던 한 무제는 수군과 육군을 보내 고조선을 공격하였다. 고조선은 1년 동안 적극적으로 맞섰으나 지배 세력의 분열로 왕검성이 함락되어 멸망하였다(기원전 108). 한무제는 고조선의 옛 땅에 4개의 군을 설치하였다.

부여는 중원의 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다. 부여는 한으로부터 옥갑과 청동 거울 등을 수입하고, 말·옥·구슬·담비 가죽 등을 수출하였다. 부여의 유적에서 북방 계통의 동물무늬 장신구 등이 발굴되었는데, 이를 통해 부여가 북방의 여러 민족과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한 지역의 소국들은 낙랑을 비롯한 한 군현과 교역하면서 중원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삼한 중 진한과 변한에서는 덩이쇠를 만들어 화폐처럼 사용하였으며 이를 낙랑, 대방 등과 일본 열도에 수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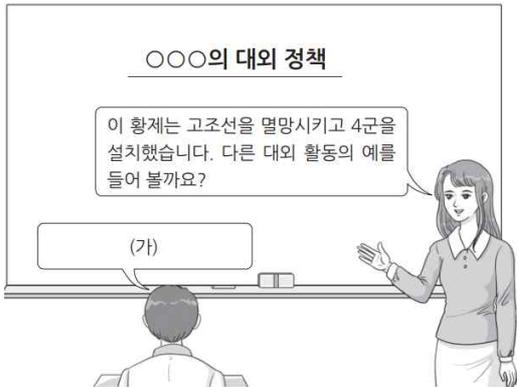
1세기경 일본 열도의 소국 중 하나는 후한 광무제에게 조공하여 '한위노국왕'이라는 금 도장을 받았다. 야마타이국의 여왕 히미코는 후한이 멸망한 후 위에 조공하였고, 위는 히미코에게 '친위왜왕'이라는 칭호와 거울 등을 하사하였다.

4 지도에 나타난 시기에 (가)~(마)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가)-위구르가 초원 지대의 패자로 등장하였다.
- ② (나)-위만이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망명하였다.
- ③ (다)-철제 무기가 보급되면서 정복 전쟁이 격화되었다.
- ④ (라)-야마타이국 중심의 연맹체가 형성되었다.
- ⑤ (마)-남월(남비엣)이 중원 세력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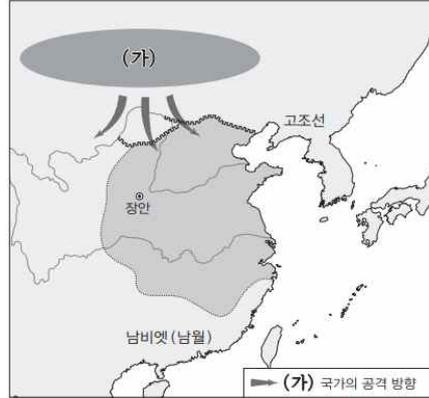
5 (가)에 들어갈 대담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남비엣(남월)을 정복했어요.
  - ㄴ. 호라즘 왕국을 무너뜨렸어요.
  - ㄷ. 흉노 견제를 위해 장건을 파견했어요.
  - ㄹ. 월지를 중앙아시아 방향으로 몰아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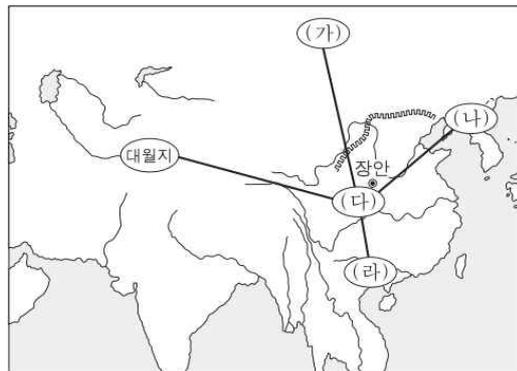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조선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 ② 불교를 받아들여 국교로 삼았다.
- ③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 ④ 동아시아 최초의 유목 국가였다.
- ⑤ 주변 국가에 화번공주를 보냈다.

7 지도는 기원전 2세기 중엽 동아시아의 정세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는 여러 부족을 통합한 연맹체적 국가의 성격을 지녔다.
- ② (나)의 지배자가 (다)에 맞서 왕이라 칭하기 시작하였다.
- ③ (다)는 (라)가 강성하여 많은 공물을 바치고 화친을 맺었다.
- ④ (라)는 장건의 원정을 계기로 중국과 교통하였다.
- ⑤ (나), (라)의 주민은 계절에 따라 이동 생활을 하였다.

## 4. 인구 이동과 정치·사회 변동

기원 전후 동아시아 일대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났다. 이 시기 중국과 만주, 한반도 지역에서 북으로부터 남으로 인구가 이동하였다. 특히 중국 북부 초원 지대에서 화북평원으로, 만주에서 한반도 북부와 중부로, 그리고 한반도에서 다시 일본 열도로 향하는 연쇄적인 인구 이동이 발생하였다.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로 나타난 생활 환경의 변화, 인구 증가, 정치적 혼란, 부족 간 갈등과 전쟁 등이 인구 이동을 자극하였다. 또 교류의 활성화도 인구 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새로운 문화와 접하면서 더 나은 생활 여건을 동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중국 일대의 인구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정치적 혼란이었다. 2세기 중엽 이후 혼란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변경의 방어가 소홀해지자, 북방 민족이 화북 지방으로 유입되었다. 한반도 일대에서는 부족 내 정치적 갈등이 인구 이동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주민의 유입은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새로운 정권이 세워졌다. 또한 새로운 인구의 유입으로 생산력이 발달하고, 지역 간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때로는 토지와 하천 등을 둘러싸고 이주민과 토착민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 새로운 인구 이동이 촉발되기도 하였다.

기원전 1세기 무렵 만주 북부의 송화강 지역에 살던 부여족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자, 주몽 집단이 압록강 중류의 졸본 지역으로 남하하여 고구려를 건국하였다(기원전 37). 고구려는 남하한 부여족과 토착 세력인 맥족이 연합하여 세운 나라였다. 주몽 집단은 점차 세력을 강화하여 토착 세력을 누르고 나라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한 후 고구려의 국력은 더욱 신장하였다.

고구려가 성장하면서 그 내부에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자, 지배층 일부가 한반도 중부로 남하하였다.

남하한 이들은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함께 백제를 건국하였다(기원전 18). 이후 백제는 마한 세력을 통합하며 점차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세력을 넓혀 갔다.

한편 기원전 2세기 말 고조선이 멸망한 후 유민 일부가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남하하였다. 이들은 경주 지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하여 신라 건국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신라는 진한의 소국 가운데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하여 주변에 있는 소국을 병합하면서 진한의 주도 세력으로 발전하였다.

4세기에 고구려가 한 4군의 하나인 낙랑군을 멸망시키자, 낙랑군의 유민 일부가 한반도 남부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백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북방 민족의 활동 영역은 후한 중엽까지만 해도 초원 지대를 벗어나지 않았다. 진시황제 때 건설된 만리장성은 북방의 유목민 거주지와 남방의 농경민 거주지를 구분하는 경계 역할을 하였다. 기원전 3세기 흉노가 초원 지대에 대제국을 건설하였을 때에도 그 영역은 만리장성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2세기 들어 후한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지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후한의 지배자들은 북방 민족을 끌어들이어 군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였다. 또한 변경의 방어가 느슨해지자 흉노, 선비 등 북방 민족이 북중국 일대로 들어와 화북 지방을 장악하였다.

북방 민족이 남하하자, 이들의 지배를 피하여 화북 지방의 한족이 대거 강남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남중국 일대의 개발이 진척되기 시작하였다. 원래 창장강 하류 지역은 저습지가 많아 농경과 정착 생활에 불리하였다. 그런데 이주민의 유입으로 노동력이 늘어나고 선진 토목 기술이 도입되면서 강남 지방의 농업 생산력이 서서히 증대되었다.

한반도의 여러 나라가 각축을 벌이면서 주민 일부가 일본 열도로 건너갔다. 중국 남북조 시기에는 창장강 유역에 살던 한족 가운데 일본 열도로 이주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이렇게 일본 열도로 건너간 사람들을 ‘도왜인’이라 부른다. 도왜인은 새로운 토기 제조법이나 옷감 짜는 법 등 각종 선진 기술을 일본에 전해 주었다. 나아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유학·불교 등을 전함으로써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이주한 사람들은 왜와 활발하게 인적·물적 교류 관계를 맺고 있던 백제와 가야 출신이 많았다. 고구려와 신라의 세력 확대, 그리고 삼국 통일을 전후한 시기의 전쟁 등으로 백제인과 가야인의 일본 열도 이주가 증가하였다.

4세기 이후 일본에서는 세토내해를 중심으로 규슈와 기나이 지방 사이에 활발한 인구 이동이 일어났다. 그 후 야마토 정권이 안정되어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해 감에 따라 일본 열도의 거주민은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인구 이동과 함께 일본 열도 동부 지역의 개발도 진척되어 갔다.

3세기 초에 후한이 멸망하고 이어 위·촉·오로 나뉘어 경쟁하는 삼국 시대로 접어들었다. 삼국의 분열은 진(서진)에 의해 통일되었다. 이 무렵 화북으로 유입된 북방 민족은 점차 세력을 형성하였다. 특히 3세기 말 진이 내분으로 급속히 쇠퇴하자 북방 민족은 화북 지방에 여러 국가를 세웠다(5호 16국 시대). 이러한 혼란은 선비족의 탁발부가 세운 북위가 화북 일대를 통일할 때까지 계속되었다(439).

화북 지방을 장악한 북방 민족은 한족을 통치하기 위해 한족의 통치 체제를 수용하였다. 특히 화북 일대를 통일한 북위는 효문제 때 적극적인 중국화(한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효문제는 수도를 남쪽의 뤼양으로 옮기고 한족의 언어와 풍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선비족의 성씨를 한족의 성으로 바꾸고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하였다. 이로 인해 화북의 한족 사이에도 북방 민족의 습속이 전파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화북 일대에서 유목 문화와 한족 문화가 점차 융합되었다.

한편 북방 민족이 화북 지방을 장악하자, 한족은 창장강 이남으로 이동하여 동진을 세웠다. 동진은 이후 송·제·양·진으로 이어지며, 북위 및 그 뒤를 이은 중원 왕조와 대립하였다. 이렇게 중국이 남북으로 나뉜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부른다.

북방 민족이 세운 북조와 한족의 남조가 대립하고 있던 시기,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쟁하였다. 삼국은 서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는 한편, 주변 나라와 활발하게 외교 활동을 벌였다.

삼국 중 고구려가 먼저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5세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 고구려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서쪽으로 요동을 차지하고 남으로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의 남조 및 북조와 다각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다.

백제는 4세기에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대외 정복 전쟁을 펼쳤다. 하지만 5세기 후반 고구려의 장수왕에게 한강 유역을 잃고 수도를 웅진(공주)으로 옮겼다. 백제는 중국의 남조 및 왜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왜에 불교와 한자를 전하였으며, 기술자들이 왜로 건너가 많은 사찰을 건립하였다.

신라는 6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발전의 기반을 다져 나갔다. 특히 진흥왕은 대대적인 대외 팽창을 통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이어 함경도 지방까지 진출하였다. 남으로는 대가야를 정복함으로써 낙동강 유역을 모두 장악하였다. 이후 한강 유역을 발판으로 황해를 거쳐 중국과 직접 교류하였다.

일본 열도에서는 4세기경 유력 호족이 연합하여 야마토 정권을 세웠다. 야마토 정권은 각지의 호족을 중앙 정치 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해 씨성 제도를 시행하였다. 동시에 한반도와 중원에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며 점차 발전하여 5세기경에는 일본 열도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였고, 점차 전국으로 세력을 확대하여 일본 열도를 통일하여 갔다. 야마토 정권의 지배자들은 거대한 무덤(전방후원분)을 만들어 권력을 과시하였다.

6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동아시아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몇 세기 동안 계속된 인구 이동과 그에 따른 새로운 국가 건설, 각국 사이의 전쟁 등이 마무리되면서 각 지역에 통일 정권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수는 남북조를 통일한 이후 주변 지역에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먼저 북방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중원을 압박하던 돌궐을 여러 차례 공격하였다. 이어 고구려를 복속시키고자 세 차례에 걸쳐 침공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수는 고구려 원정의 실패가 주요 원인이 되어 멸망하였다.

수의 뒤를 이어 들어선 당 또한 동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고자 하였다. 당은 돌궐을 제압하고 서역을 정벌한 다음 고구려를 침공할 기회를 엿보았다. 이때 삼국 사이의 전쟁에서 수 세에 몰린 신라가 당과의 동맹을 추진하였다. 신라와 당에 맞서 고구려와 백제는 나·당 연합군에 맞서 싸웠으나 패하고 결국 멸망하였다. 백제 멸망 후 백제의 옛 땅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자, 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백강 전투에서 당과 신라군에 패하였다.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은 각지로 흩어졌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자 신라와 당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었다. 당은 신라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고자 하였으나 신라는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 결국 양측의 대립은 전쟁으로 발전하였고, 신라는 고구려 유민과 함께 당 세력을 축출하고 통일을 완성하였다(676). 이후 신라는 한반도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또 당은 동아시아의 패자로 발전하여 당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형성하였다.

고구려의 옛 영토에는 발해가 건국되었다(698).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중심으로 세운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하고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당 및 일본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한반도에는 통일 신라와 발해가 병존하는 남북국 시대가 펼쳐졌다.

일본 열도의 야마토 정권은 7세기 이후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였다. 특히 7세기 중반 다이카 개신은 국가 체제의 확

립에 큰 계기가 되었다. 이후 '천황'이라는 칭호와 '왜'를 대신하여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견당사와 견신라사를 활발하게 파견하였다.

8세기에는 당의 수도 장안을 본떠 헤이도쿄를, 이어 헤이안쿄를 차례로 건설하였다. 헤이조쿄와 헤이안쿄에 수도를 두었던 시기를 각각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라고 부른다. 나라 시대에 일본은 당, 한반도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점차 주변 나라와 교류를 줄여 8세기 말 견신라사를 폐지하고 이어 9세기 말에는 견당사의 파견을 중지하였다.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 정치적으로는 율령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문화적으로는 궁정 귀족을 중심으로 일본 고유의 국풍 문화가 발달하였다.

8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인구 이동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원에서 흉노를 비롯한 5호가 난리를 일으킨 이래 백성들이 회수와 창장강을 건너 남쪽으로 이주하였다. 조정에서는 남하한 이주민들이 머무는 지역에 새로이 지방관을 두었다. 이후 전진(前秦)이 다시 침입하자 남쪽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

- ① 일본과 감합 무역이 이루어졌다.
- ② 상품 경제가 발달하여 마제운이 통용되었다.
- ③ 대외 무역을 관리하는 시박사가 설치되었다.
- ④ 강남 지역이 개발되어 농업 생산이 늘어났다.
- ⑤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장건이 서역에 파견되었다.

9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가 초기의 형세>

- ① (가)는 두 차례 일본 원정을 단행하였다.
- ② (나)는 연운 16주를 획득하였다.
- ③ (가)는 신라와 연합하여 (나)를 침략하였다.
- ④ (가)는 (나)의 침입에 대비해 만리장성을 축조하였다.
- ⑤ (나)는 건국 초기에 (가)의 산둥반도를 공격하였다.

## 5. 국제 관계의 다원화

무제 이후 한이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대외 관계에 조공과 책봉의 형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조공은 주변국이 중원 왕조에 예물을 바치며 형식적인 존중을 표명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책봉은 중원 왕조가 주변국의 군주에게 그 지배권을 선언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조공·책봉 관계는 직접적인 지배나 실제적인 간섭과 관련이 없는 형식적인 외교의 틀에 불과하였다. 한은 책봉이라는 명분에 집착한 반면, 주변국은 조공을 통해 한과 교류하며 문화적·경제적 실리를 취하였다.

역대 중원 왕조는 군사적인 정복이 가능한 경우 적극적으로 원정을 감행하였다. 반면 조공·책봉 관계는 상대국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각국의 대외외교적 필요에 따라 조공이나 책봉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았다. 흉노나 서역의 국가들은 책봉없이 교역이 필요할 때에만 사절을 파견하기도 하였는데, 한은 이를 조공이라 편의적으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조공·책봉 관계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의례적인 관계일 뿐이었다.

조공·책봉 관계는 중원 왕조와 주변국 사이의 역학 관계에 따라 많은 굴절을 겪었다. 중원의 통일 왕조가 붕괴하거나, 혹은 초원 지대에 국가가 세워질 때는 북방 민족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3세기 초 후한이 멸망한 후 동아시아에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중원의 통일 왕조가 붕괴하자 강대국 중심의 외교 관계 대신, 상호 우호를 확인하기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다원적인 외교가 국제 질서의 주된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고구려는 5호 16국 시대 화북의 여러 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특히 소수림왕 때에는 처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장수왕 때에는 북조의 북위와 남조의 송에 모두 조공하였다.

백제는 주로 남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하며 불교와 유학, 건축 기술 등을 수용하였다. 신라는 6세기에 백제의 중개로 남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아마도 정권의 왜는 5세기에 남조와 책봉 관계를 맺었으며, 백제 및 신라와도 사절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외교 관계는 6세기 중엽 초원 지대에 돌궐이 성장하면서 변화하였다. 북조는 돌궐과 친선을 맺기 위해 여러 차례 사절을 파견하였다. 북주와 북제로 분열된 다음 두 나라는 돌궐의 공주를 황후로 맞으려고 경쟁하였다. 북조의 뒤를 이은 수와 당도 초기에는 돌궐에 신하를 자처하며 조공 사절을 파견하였다.

6세기 말 수가 분열된 남북조를 통일한 후 동아시아 외교 질서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초기에 수는 돌궐에 수세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이윽고 돌궐을 복속시켰다. 그리고 주변국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자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 하였다. 고구려가 이에 저항하자 수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공하였지만 실패하고, 결국 멸망하였다.

당도 자국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를 주변국에 요구하고, 주변국이 저항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군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이 돌궐을 대대적으로 공격하여 일시 복속시켰던 것이지만, 고구려를 침공하였던 것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한반도의 신라와 발해 등은 정권을 안정시키고 당의 선진 문물을 도입하기 위해 당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를 받아들였다. 당의 지원을 통해 국내 통합을 유지하고, 대외적인 군사 위협에 대처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한반도의 각국은 수·당의 침략이나 간섭에는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일본은 수가 건국된 직후 건수사를 파견하고, 당이 세워진 뒤에는 활발하게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신라와 발해에도 사신을 파견하였다. 하지만 8세기 말 헤이안 시대에 접어들어 이후 점차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교류를 단절하였다.

북방 민족은 당 중심의 외교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돌궐과 위구르, 토번 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의 책봉을 거부하였다. 돌궐은 6세기 중엽 국가를 건설한 이후 국력을 떨쳐 한때 당이 신하를 자처하였다. 이후 돌궐은 당에 멸망하였으나, 7세기 말 당의 간섭을 물리치고 국가를 부흥하였다.

위구르와 토번은 당에 복속되지 않은 채 경제 교류를 위한 조공 관계만을 원하였다. 이들은 당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격하기도 하였다. 8세기 이후 국력이 쇠퇴한 당은 이들의 군사적 공격을 막기 위해 화번 공주를 보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국가는 주변과 교류하며 자국 중심의 질서를 적용하려 하였다. 고구려는 4세기 말 이후 천손 국가라 여기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지니고 신라와 백제를 복속국처럼 여겼다. 신라는 형식상 당에 조공하면서도 당을 한반도 바깥으로 몰아냈다. 또한 발해에 대해서도 자국을 상위에 놓는 외교 질서를 주장하였다.

발해는 건국 초 당과 책봉 관계를 맺었지만, 한때 당을 공격하는 등 당 중심의 국제 질서에 편입되기를 거부하였다. 또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돌궐과 연대하고 일본과 교류하였다. 이후 당과 친선 관계를 맺었으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등 주체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일본은 중원 왕조 중심의 조공 질서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고, 대국을 자처하며 신라와 발해보다 상대적 우위를 주장하여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외교적 마찰로 8세기 말 신라와 일본의 외교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10세기 이후 동아시아에 또다시 새로운 국제 질서가 나타났다. 이전까지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하던 중원의 당이 쇠퇴하고 주변 민족이 발흥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나라가 다각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다원적 국제 관계가 형성되었다.

중원에서는 당이 멸망하고 5대 10국의 분열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혼란을 피해 화북의 주민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들을 따라 선진 문화가 전파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문물의 유입은 북방 민족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10세기 초 거란족이 랴오허강 상류에서 국가를 수립하고 세력을 넓혀 갔다. 11세기 초에는 탕구트족이 서하를 수립하였고, 12세기 초에는 만주의 여진족이 금을 세웠다. 이러한 북방 민족의 국가는 10세기 중반 중원을 통일한 송과 각축을 벌이며 다각적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한반도에서는 918년에 고려가 건국되어 후삼국의 분열을 수습하였다. 일본 열도에서는 12세기 말 헤이안 시대가 끝나고 무사 정권이 들어섰다.

중원이 5대 10국의 혼란에 빠져 있던 시기, 북방의 초원 지

대에서는 돌궐과 위구르가 쇠퇴하고 라오허강 상류 일대에 거주하던 거란족이 발흥하였다. 916년 야율아보기는 부족을 통일하고 거란을 건국하였다. 이후 거란은 동쪽으로 발해를 멸망시키고 남쪽으로는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를 차지하였다. 11세기 초에는 송을 공격하여 매년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은을 받는 조건으로 맹약(전연의 맹)을 체결하였다.

거란은 국호를 '요'로 바꾸고 유목민에게는 고유의 관습을, 농경민에게는 중국적인 지배 방식을 적용하는 이원적 지배 체제를 채택하였다. 이를 북면관계와 남면관계라고 부른다. 또한 거란 문자를 제정하여 고유의 전통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불교를 숭상하였다.

11세기 초 티베트 계통의 탕구트족이 서하를 세웠다. 서하는 비단길의 동부를 장악하고 동서 교역을 중계하며 발전하였다. 과거제 등 중국식 제도로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독자적인 문자를 제정하여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려 하였다. 송은 서하를 제압하기 위해 대군을 파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결국 맹약을 맺어 독립을 인정하고, 매년 막대한 물자를 제공하였다(1044).

12세기 초 만주 일대에서는 여진족이 발흥하여 아구다가 부족을 통합하고 금을 세웠다(1115). 금은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키고, 이어 송의 수도 카이펑까지 함락하였다. 송은 화북 지방을 금에 빼앗기고 강남만을 지배하게 되었다. 금은 송(남송)을 굴복시켜 맹약을 체결하고 매년 막대한 물자를 받았다. 또한 금은 송에 신하를 칭하도록 하였으며, 고려와 서하도 압박하여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금은 요의 이원적 지배 체제를 계승하여 유목민은 맹안·모국제를 적용하고, 한족 등의 농경민은 중국식 제도로 다스렸다. 금은 독자적 문자를 제정하고 여진족 고유의 풍습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점차 중원 문화에 동화되어 갔다.

조광윤(태조)이 세운 송은 5대 10국의 분열을 통일하였다. 송 태조는 무인파 절도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문치주의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과거제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황제권이 강화되고 문신 관료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문치주의는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송은 거란(요), 서하, 금 등에 군사적인 열세를 보였다.

11세기 중엽 왕안석이 등장하여 재정 수입을 늘리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법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쟁이 일어나고 국론이 분열되었다. 이후 송은 금의 침공을 받아 강남으로 이주하였다.

한편 10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송을 중심으로 한 해상 교역이 크게 발달하였다. 조선술의 발달과 나침반의 이용 등으로 원거리 항해의 안정성도 높아졌다. 송은 명주, 취안저우, 광저우 등의 주요 항구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관할하게 하였다. 송의 무역 상대국은 동아시아를 넘어 동남아시아와 아라비아까지 확대되었다.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적대 정책을 취하였다. 이에 거란은 고려를 침공하였다. 1차 침입 때는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송과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고려는 이후에도 계속된 거란의 침공을 막아 냈으나, 실리 확보를 위해 거란과 친선 관계를 맺고 조공하였다.

12세기 초 여진족이 성장하자 고려는 윤관을 파견하여 정벌에 나섰다.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나가 여진을 물리치고 동

북 지방에 9성을 쌓았으나 1년여 만에 돌려주었다. 이후 여진은 금을 세우고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고려에 조공을 요구하였고, 고려 조정은 결국 금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 한편 고려는 거란, 금에 조공하면서도 송과 계속 교류하며 송의 문물을 수용하였다.

일본은 10세기 이후 주변국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축소해 나갔다. 그러나 송과 활발히 무역하며 많은 양의 동전을 들여오는 등 주변국과 교역을 지속하였다. 송의 동전은 일본 열도에서 점차 보편적 통화로 사용되었다. 일본은 불교 승려를 통해 송과 교류하였고, 쓰시마를 통해 고려와 교류하였다.

12세기 말에 헤이안 귀족들의 힘이 약해지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 막부를 수립하였다. 가마쿠라 막부는 요리토모 사후 호조씨에게 실권이 넘어갔다. 가마쿠라 막부도 주변국과 외교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민간 교류까지 억제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송과 활발하게 해상 교역을 하였으며, 많은 수의 승려가 송에 건너가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왔다.

13세기 초 몽골 초원에 테무친이 등장하여 몽골계 부족을 통합하고 몽골 제국을 건설하였다(1206). 그는 쿠빌라이에서 칭기즈 칸으로 추대된 다음, 친위대를 조직하고 천호제를 제편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초원 지역 유목민의 역량을 결집한 몽골의 군사력은 사방으로 뻗어 나갔다. 먼저 서하와 금을 공격하여 굴복시키고, 이어 중앙아시아의 호라즘을 정벌하여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칭기즈 칸 사후 몽골 제국은 동으로는 금을 멸망시키고, 서로는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와 동유럽까지 정복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대제국으로 발전하였다.

쿠빌라이 칸 시기에는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대도(오늘날의 베이징)로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바꾸었다(1271). 쿠빌라이 칸은 중국식 연호와 관료제를 수용하였다. 또 남송을 멸망시키고 일본과 베트남, 자와 등지에 원정군을 파견하였다.

원은 지방에 행성을 설치하고 각지에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정치를 감독하였다. 또한 주민을 몽골인, 주로 이슬람교를 믿던 서역계 색목인, 한인, 남인으로 분류하여 다스렸다. 몽골인은 정치와 군사를 맡고, 색목인은 재정을 담당하며 지배층으로 군림하였다. 반면에 한인과 남인은 피지배층이었다. 특히 남중국인은 남인이라 불리며 다른 계층보다 훨씬 무거운 부담을 져야 했다.

몽골은 고려에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다 몽골 사신의 피살 사건을 빌미로 고려에 침입하였다.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천도하여 장기전을 벌였고, 내륙에서는 백성이 치열하게 저항하였다. 최씨 무인 정권이 붕괴한 후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하고 개경으로 환도하였다(1270). 이후에도 삼별초를 중심으로 항전이 계속되었지만, 곧 진압되었다.

베트남은 세 차례에 걸쳐 몽골의 침공을 받았다. 전 왕조는 수도인 탕롱(오늘날의 하노이)이 함락되는 등 위기를 맞았으나, 쩌롱다오의 활약으로 몽골군을 격퇴하였다. 이후 전 왕조는 몽골의 압박을 피하고자 조공을 바치고 강화하였다.

몽골군은 고려를 복속시킨 다음 일본에 조공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고려·몽골 연합군을 편성하여 일본 정벌에 나섰다. 하지만 가마쿠라 막부의 저항과 폭풍우로 원정에 실패하고 말았다. 남송을 점령한 다음에도 일본에 더 많은 수의 원정군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규슈에 제대로 상륙하지도 못한 채

폭풍우를 만나 실패하고말았다.

몽골의 침입은 동아시아 각국에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에서는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이 편찬되어 단군을 시조로 하는 역사관이 자리 잡았다. 베트남에서는 항전 과정에서 『허월사기』가 편찬되었으며, 항전의 승리로 민족적 자부심이 높아졌다. 일본에서는 ‘신의 특별한 가호를 받는다.’라는 신국 의식이 널리 퍼졌다.

몽골 제국은 광대한 영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수도에서 각지에 이르는 도로망을 정비하였다. 주요 도로에는 일정 간격으로 역참을 설치하였다. 도로와 역참은 관료 및 군대의 왕래를 위한 것이었으나, 여행자나 상인 등 일반인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었다. 통행증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역참에서 숙소와 식사, 말 등을 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였다.

제국이 안정되자 유라시아 대륙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초원길과 사막길(비단길), 바닷길을 따라 수많은 상인과 여행자가 오갔다. 이러한 동서 교류를 통해 서아시아의 천문학·역법·수학·지도학 등이 동아시아에 전해졌으며, 중국의 인쇄술·나침반 등이 서아시아와 유럽에 전파되었다. 또한 몽골 제국에서는 개방적인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가 상당한 교세를 얻었다.

해상 교역도 활발하여 항저우, 취안저우, 광저우 등의 항구가 무역으로 번성하였다. 몽골 조정은 이들 도시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으로 나가는 무역선을 관리하였다. 13세기에는 항저우와 취안저우를 중심으로 고려, 일본, 베트남, 동남아시아를 잇는 동아시아 교역망이 형성되었다.

고려 또한 몽골 제국 중심의 유라시아 교역권에 포함되었다. 고려의 무역항인 벽란도에는 각지의 상인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고려 상인도 취안저우 등지로 나가 교역하였다. 이러한 교역에 따라 원의 교초가 고려에 유입되었으며, 고려에서는 상당량의 은이 유통되기도 하였다. 일본은 원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맺지 않았으나 활발하게 교역을 지속하였으며, 고려와도 교역하였다.

14세기 중엽 원이 쇠퇴하자 흥건적 출신의 주원장이 일어나 난징에 도읍하고 명을 건국하였다(1368). 이어 대도를 점령하고 몽골 세력을 초원 지역으로 내쫓았다. 명 태조(홍무제)는 한족 문화의 회복에 노력하여 몽골 풍습을 금지하고 성리학을 중시하였다. 또한 육유를 제정하여 유교적 통치를 시행하였으며, 제상제를 폐지하여 6부를 황제에게 직할시킴으로써 황제권을 강화하였다.

영락제는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채택하여 북으로는 수차례에 걸쳐 몽골을 원정하고 남으로는 한때 대월을 점령하였다. 또한 자금성을 세워 베이징(대도)으로 천도하였다.

명의 건국과 비슷한 시기에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였다. 고려 말 군사력을 장악한 이성계는 혁명과 신진 사대부의 지원을 받아 조선을 건국하였다(1392). 조선은 교통과 군사적 요지인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으며,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삼고 명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북방 진출을 도모하였다. 세종 때 여진족을 토벌하고 4군과 6진을 설치함으로써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영토를 확보하였다.

가마쿠라 막부는 두 차례에 걸친 몽골의 침략을 격퇴하였으나 이후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전쟁과 혼란으로 궁핍해진

무사들은 막부에 불만을 품고 천황의 명에 따라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렸다. 이후 천황 권력에 반발한 무사들의 지지를 받은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교토에 무로마치 막부를 세웠으나(1336), 곧이어 천황이 둘로 나뉘어 대립하는 남북조의 분열기가 14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무로마치 막부는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쓰에 이르러 비로소 일본 열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그는 남북조의 분열을 종식하고 명의 책봉을 받아 국교를 수립하였다. 또한 명의 요구에 따라 왜구를 단속하였다.

명은 건국 이후 주변국에 조공·책봉 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에서는 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여기에는 조선, 류큐, 여진뿐 아니라 한동안 중원 왕조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있던 일본도 포함되었다. 심지어 정화의 원정 이후에는 동남아시아도 명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였다.

하지만 명과 맺어진 조공·책봉 관계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서로 달랐으며, 한 나라 안에서도 시대 상황에 따라 명과의 관계가 변하였다. 조선은 건국 직후 요동 정벌을 추진하면서 명과 대립하는 자세를 취하였으나, 태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명과 안정적인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일본은 영락제 때에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사절을 파견하여 무역을 요청하였다. 이후 무로마치 막부는 명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10.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가) 황제가 병사를 거느리고 흉노를 격파하기 위해 평성에 도착하였다. 목탁 선우의 군대가 백등산을 에워싸니 황제가 포위되는 치욕을 겪었다. 목탁이 군사를 이끌고 돌아간 다음 황제가 사신을 보내 화친 조약을 맺었다.
- (나) 황제가 왜의 남쪽에 있는 노국 사신에게 금을 하사한 해에 남흉노에서 새로운 선우가 즉위하였다. 그리고 2년 후, 북흉노 가운데 일부 무리가 황제에게 항복하였다.

- ① 남월(남비엣)이 정복되었다.
- ② 고구려가 낙랑군을 몰아냈다.
- ③ 진시황제가 분서갱유를 단행하였다.
- ④ 한족이 강남으로 이동하여 동진을 세웠다.
- ⑤ 히미코가 야마타이국의 왕으로 추대되었다.

11. 다음 자료를 이용한 탐구 활동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장수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니, 황제가 그를 도독요해제군사 정동장군 영호동이중랑장 요동군개국공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였다.  
- 『위서』 -

○ 고구려의 장수왕이 사신을 보내와 공물을 바쳤다. 고구려와 남제 사이에는 바다를 건너는 사신의 왕래가 줄곧 있었다. 고구려는 북위에도 따로 사신을 보냈는데, 그 세력이 강성하였으므로 이를 막을 수 없었다.  
- 『남제서』 -

- ① 다원적 국제 질서와 문물 교류
- ② 북위의 한화 정책과 호한 융합
- ③ 조공 · 책봉 관계의 형식과 실상
- ④ 장수왕 시기 고구려의 실리 외교
- ⑤ 남북조 시대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12. 지도에 나타난 시기의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가) - 고구려와 조공 · 책봉 관계를 맺었다.  
 ㄴ. (가) - 황제가 포로로 잡힌 토목(보)의 변이 일어났다.  
 ㄷ. (나) - 남조의 하나인 송과 교류하였다.  
 ㄹ. (나) - 부산포의 왜관을 통해 한반도와 교역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가) 왕조 시기의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개경에서 궁궐을 둘러보는 중국 사신  
 ㄴ. 예도에서 가부기를 관람하는 무사  
 ㄷ. 취안저우에서 향료를 파는 아라비아 상인  
 ㄹ. 베이징에서 서적을 구입하는 연행사 일행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대 쇼군인 그는 명 황제에게 사신단을 파견하여 조공을 바쳤다. 황제는 그들을 후하게 예우한 뒤 무로마치로 돌려보내며, 무역을 할 수 있는 감함과 일본 국왕임을 인정하는 금인을 하사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중국과 감합 무역을 시작하였다.

- ①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 ② 백등산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 ③ 남북조의 혼란을 수습하였다.
- ④ 가마쿠라에 막부를 수립하였다.
- ⑤ 다케다 가쓰요리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 6. 유학과 불교

율령은 동아시아 국가가 백성을 다스리는 주요 수단이었다. 율령에는 국가의 통치 조직, 관리의 복무 사항, 백성의 조세와 노역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처음에는 형벌 위주의 법률(율)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행정 법률(령)의 조항이 늘어났다. 율령은 많은 사람과 다양한 지역, 복잡한 사회를 다스리기 위한 통일적인 기준 역할을 하였다.

전국 시대에 상앙과 한비 등의 법가 사상이 활약하였는데, 법가 사상은 율령의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진은 상앙을 등용하여 부국강병책을 실시하고 중앙 집권화에 성공하여 전국 시대 최강의 나라가 되었다. 한비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하다.'라는 순자의 견해를 수용하여 백성을 법률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가 사상가들은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공자의 덕치주의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중국을 통일한 진의 시황제는 법가 사상가인 이사를 중용하여 엄격한 법치에 입각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진이 멸망한 이후에도 진의 법률은 한에 계승되었고 법치주의는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법가 사상에 기반을 두어 나라를 다스린 진이 멸망하자,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유교가 새로운 국가 통치 이념으로 떠올랐다. '덕이 있는 자가 하늘의 명령으로 군주가 된다.'라는 유교의 천명사상은 황제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권위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효'와 '인', '예'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은 향촌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의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한 무제는 동중서의 사상을 받아들여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고자 하였다. 무제는 국가 기관으로 오경박사를 두어 오경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지방에서 추천을 받은 유교 지식인을 비롯해 유교 도덕에 충실한 인물을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 결과 유학의 교양과 덕목을 익힌 자가 관리가 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작용하면서 법률에도 유교 사상이 반영되었다. 그렇지만 법가 사상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무제 역시 겉으로는 유교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법치를 통해 나라를 다스렸다. 그 결과 한 대에 법가 사상과 유가 사상이 결합하여 통치 이념을 제공하였고, 이는 율령에 반영되었다.

한 대 이후 각 왕조가 율령을 제정하고 정비하면서 이를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는 수·당에 이르러 율령 체제의 완성으로 이어졌다.

수·당 대의 율은 이전 시대와 달리 신체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완화하여 매로 다스리는 태형과 장형, 노역을 시키는 도형, 유배를 보내는 유형, 목숨을 끊는 사형이란 5가지 형벌로 간소화하였다. 율은 사회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었고, 유교 윤리를 반영하여 불효에 해당하는 부자 사이의 범죄가 엄격히 처벌되었다. 영은 관리 선발, 행정 기구, 세금 징수 등 국가를 운영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각종 제도와 규범에 대한 법령이다.

수·당은 이전부터 존재하던 율령 이외에, 율령을 추가 보완한 '격', 율·령·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명시한 '식'을 새로 도입하였다. 이로써 율·령·격·식의 율

령 체제가 완성되었다.

율령 체제를 완성한 당은 백성을 균전제, 조용조제, 부병제를 통해 지배하였다. 균전제는 일정한 기준 아래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제도로, 토지를 받은 농민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조용조라는 조세를 바쳤다. 또 부병이 되어 변경 수비, 도성 방어 등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율령 체제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도 전파되어 이들 지역에서 통일 국가가 성립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한반도의 삼국도 율령을 반포하여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특히 신라는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당의 율령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골품제와 같이 관직 체계에서 고유성을 유지하였다. 신라는 세금 징수와 균역 및 요역 징발을 위해 백성의 호구와 재산을 파악한 신라 촌락 문서를 작성하였다.

발해는 당과 마찬가지로 중앙 관제로 3성 6부제를 도입하고 지방에 주현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3성 6부의 명칭과 관직 체계를 당과 달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일본은 수·당의 율령을 받아들이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다. 일본은 국가가 토지와 백성을 소유하고 백성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념을 내세워, 백성에게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주는 반전수수제를 시행하였다. 701년에는 율과 령을 모두 갖춘 다이호 율령이 법전으로 완성되었다. 중앙에는 2관 8성을 두고 지방에는 국·군·리를 두어 당과 같은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씨족제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 수·당의 율령이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 대에 유교가 국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면서 중앙 교육 기관으로 태학이 설립되었다. 당 이후에는 율령 제도가 확립되어 행정 업무가 많아지자 한자로 이루어진 문서를 해독하고 작성할 수 있는 관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유교적 지식과 교양을 갖춘 관료가 늘어났다.

한반도에서도 한문을 능숙하게 해석하고 유교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관이 세워졌다. 고구려는 중앙에 태학을, 백제는 오경박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통일 후 신라는 국학을 설립하여 오경 등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그리고 국학의 학생들을 경전의 이해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고 관리로 임용하는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이는 하급 관료를 충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위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 과거제를 시행한 중국과 달랐다.

일본 열도에서도 한자는 중국 및 한반도와 교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백제를 통해 유교 경전을 수용하였고, 오경 등을 가르쳤다.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서 브라만교에 반대하는 새로운 종교 운동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석가모니가 창시한 불교는 평등을 강조하며 평민과 도시의 상공업자 사이에 널리 퍼졌다. 얼마 후 불교는 교리상의 대립으로 여러 부파로 나뉘었다.

기원전 1세기경이 되자 불교에 새로운 움직임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스스로 대승 불교라 부르면서 종래의 불교(상좌부 불교)를 소승이라고 불렀다. 대승 불교는 출가 수행자가 아닌 일반 신도의 깨달음을 중시하였다. 또 부처를 신격화하고, 부처의 자비로 대중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상좌부 불교는 주로 동남아시아로, 대승 불교는 북인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에 전해졌다.

대승 불교는 1세기경 사막길을 통해 중국에 전해졌다. 이후 후한 말기를 지나 3세기 무렵 중국 사회에 점차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남북조 시대에는 국가 권력의 후원을 받아 더욱 세력이 확대되었다. 특히 북조의 황제들은 ‘황제가 곧 부처’라는 사상에 근거하여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였다.

불교가 사회에 뿌리내리면서 사원과 불상이 많이 만들어졌다. 북중국의 원강우릉먼 석굴 사원이 대표적인 유적이다. 남조에서도 불교가 크게 융성하였는데, 북조에 비하여 국가 권력과 거리를 두며 독자성을 유지하려 하였다.

4세기경 한반도에도 불교가 전해졌다. 5호 16국의 하나인 북중국의 진진이 고구려에, 남중국의 동진이 백제에 불교를 전하였다.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다. 삼국은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지배층에 불교를 장려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지방 세력을 중앙에 포섭 하였다.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큰 무리 없이 불교가 수용되었으나, 신라에서는 귀족들의 반발로 6세기 법흥왕 때에 이르러서야 불교가 공인되었다. 삼국 통일 이후에는 불교가 일반 민중에게까지 널리 퍼졌다.

일본 열도에는 6세기경 백제를 통해 불교가 전해졌다. 일본에서도 불교는 외래 종교라는 이유로 토착 호족 세력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쇼토쿠 태자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점차 불교가 확산하였다. 수도인 아스카 일대에는 백제의 영향을 받은 사찰이 많이 세워졌고 불교문화가 융성하였다. 일본에서도 불교는 국가 권력을 강조하거나 체제를 정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동아시아의 불교는 개인의 해탈에 치중한 인도와 달리 호국 불교의 성격이 강하였다. 불교는 국가 권력을 장악한 황제나 왕을 중심으로 수용되어 군주의 권한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반도 삼국에서도 불교는 국가를 안정시키고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6세기 중엽 신라 진흥왕은 내란과 외환을 막고 국가의 평안을 빌기 위해 대규모 법회를 자주 열었다. 호국 사찰인 황룡사도 이 시기에 세워졌다.

일본 열도에서도 불교는 국가의 후원을 받아 융성하였다. 8세기 중엽에는 국가를 지키는 사찰인 도다이사를 짓고 여기에 모든 재난을 막아 주는 힘을 지닌 대불을 조성하였다. 왕족 중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불교는 지배층뿐 아니라 일반 민중에게도 전파되었다. 귀족과 민중 사이에서는 염불을 통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정도 사상이 널리 유행하였다. 통일 신라의 원효와 가마쿠라 시대의 신란 등은 정도 사상의 체계화와 확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불교는 동아시아 지역에 확산하면서 토착 신앙이나 전통 사상과 결합하였다. 조상 숭배와 결부되어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불교 신앙이 나타났고, 중국에서는 유교 윤리를 수용하여 효를 강조하는 『부모은중경』이라는 경전도 만들어졌다. 한반도에서는 불교가 발전하면서 칠성, 산신 등의 토착 신을 포용하였다. 이에 따라 사찰에 산신각, 칠성각 등이 세워졌다. 일본 열도에서는 불교가 일본 고유의 신앙인 신도와 결합하여 신불습합 사상이 출현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다양한 불교 종파가 발전하였다. 그중 하나

가 직관적 깨달음과 참선을 중시한 선종이다. 6세기 초 남인도 출신 말타가 선종을 세웠다. 한반도에서는 신라 말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른 지방 호족의 지원 아래 선종이 널리 퍼졌다.

일본 열도에서는 가마쿠라 시대 무사들 사이에 선종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가마쿠라의 무사 정권이 선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선종은 문학, 다도, 정원 등 일본 문화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불교가 동아시아에서 보편적 종교로 자리 잡으면서 각국 사이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중원에서 발달한 새로운 불교문화는 육로와 해로를 따라 동아시아 각지로 전파되었다.

남북조와 수·당을 거치며 중원에서는 천태종, 화엄종, 정토종을 비롯하여 선종 등의 다양한 종파가 발전하였다. 이러한 종파는 대부분 유학승을 통해 한반도와 일본에 전파되어 많은 영향을 끼쳤다. 불교 미술도 동아시아 각지로 전파되었다. 불상과 탑, 회화 등이 한반도의 삼국에 영향을 주었고, 주로 백제를 통해 다시 일본 열도로 전해졌다. 일본 호류사의 백제 관음상과 고류사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이러한 교류 상황을 잘 보여 준다.

중원의 사원 건축 양식도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해졌다. 한반도와 일본에서는 사원의 거대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바닥에 커다란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붉은색으로 칠한 붉은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건물 지붕은 기와로 덮었다. 이러한 건축 기술은 이후 궁궐 등의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데도 이용되었다.

불경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쇄술도 발달하였다. 8세기에 신라에서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일본에서는 『백만담다라니경』이 간행되었다. 송·요·금도 대장경을 간행하였으며, 고려도 여러 차례 대장경을 만들었다.

수와 당은 외래문화에 개방적인 세계 제국이었다. 특히 당의 수도 장안은 전성기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많은 나라가 당과 교류하고자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당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찾아들었다. 이 밖에 상인, 예술가 등 다양한 외국인이 장안에 체류하였다. 이에 따라 당의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각국의 종교와 문화가 교류되었다.

신라는 7세기 중엽부터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신라인의 왕래가 잦아지며 산둥반도를 비롯해 당의 해안 지역에 신라방이 세워졌다. 발해도 당에 많은 학생과 승려를 파견하였다. 당은 산둥반도에 발해 사신을 접대하는 발해관을 설치하였다. 일본은 7세기 이후 활발하게 건당사를 파견하여 당의 문물을 도입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한동안 중국 문화가 ‘당풍’이란 이름으로 유행하였다.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인물이 나타났다. 신라의 최치원은 당의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주도하였다. 이 밖에도 한반도와 일본 열도 출신의 많은 유학생과 유학승이 중원 지방에서 활동하였다.

이렇게 활발한 문화 교류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세계가 형성되었다. 중국과 한반도, 일본 열도, 베트남 등지는 한자를 매개로 하여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 체제, 불교 등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를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같은 문화 요소라 해도 모두 자국의 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수용하

였다.

동아시아 각국의 승려들은 새로운 교리를 배우기 위해 험난한 여행도 마다치 않았다. 때로는 불교의 성지를 찾아 순례에 나서기도 하였으며, 불교 경전을 구하기 위해 머나먼 인도까지 다녀왔다. 또 자기 나라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이웃 나라에 불법을 전하며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인도에 갔던 당의 현장은 『대당서역기』라는 여행기를 남겼다. 현장은 인도 날란다 사원에서 불교 연구에 힘썼으며, 귀국할 때 많은 경전을 가지고 왔다. 이 경전을 번역하는 일에 신라 승려 원측이 참여하였다.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된 후 신라 승려들의 중국 유학이 활발해졌다. 호국 대사찰인 경주 황룡사 구층 목탑의 장건을 건의한 자장, 화엄종을 배워 한국 불교의 토대를 쌓은 의상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혜초는 인도의 다섯 나라와 그 이웃 나라들을 순례하고 그 경험을 적은 여행기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고구려 승려 담징은 일본 열도에 종이 및 먹의 제조법과 채색법을 알려주었으며, 백제 승려 관록은 역법과 천문 지리학 서적을 전해 주었다.

당 출신 승려 감진도 일본 불교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감진은 일본 건당사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배가 난파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일본으로 건너갔다. 당시 정식으로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수계를 받아야 하였는데, 감진은 도다이사에 계단원을 세워 수계하는 방식을 일본에 가르쳐 주었다.

헤이안 시대 건당사를 따라 당에 들어간 사이초와 구카이는 각각 천태종과 밀교를 배워 일본 불교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이초의 제자인 엔닌도 당에 들어가 새로운 불교를 배웠다. 엔닌이 쓴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신라인 장보고의 활약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엔닌은 장보고의 도움으로 적산 법화원에 머무르다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송 대에는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거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황제 중심의 문신 관료 체제가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세습적인 귀족이 몰락하고 글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 관료가 되어 사대부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되었다.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된 사대부들은 보통 지주 출신이 많았다. 이들은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유교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였다.

사대부가 지배층이 되자 유학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한 대 이후 유학에서는 경전의 자구를 해석하는 데 치중한 훈고학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수·당 대를 거치며 불교와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북송 시기에 우주 원리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신유학이 대두하였다.

남송의 주희는 신유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그는 만물의 근본 원리인 '이(理)'를 중시하였다. 특히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본질인 '성(性)'이야말로 모든 인간과 자연의 본질인 '이'와 같은 것이라 이해하여 '성즉리(性即理)'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인간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수양 방법으로 '거경궁리'와 '격물치지'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희의 학문을 주자학 또는 성리학이라고 한다.

주희는 유학의 경전으로 중시되던 오경보다 사서인 『대학』, 『중용』, 『논어』, 『맹자』를 더 높이 평가하고 여기에 주석

을 달았다. 주희가 주석을 붙인 『사서집주』는 이후 유학자에게 절대적 권위를 지닌 책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주희는 가정에서의 예절을 모아 엮은 『주자가례』를 저술하였고, 그의 지시에 따라 어린아이를 위해 성리학의 기본 개념, 수행 방법과 예절을 담은 『소학』이 편찬되었다.

한편 성리학이 등장할 무렵 송은 요와 금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이에 한족의 민족의식이 높아지면서 성리학에서는 다른 민족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을 바탕으로한 화이관,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대의명분이 강조되었다.

남송 이후 전국적으로 서원과 향약이 보급되었다. 성리학자들은 서원을 기반으로 지역 여론을 주도하고, 향약을 통해 성리학적 윤리를 백성에게 전하였다.

명은 성리학을 관학으로 삼아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영락대전』을 편찬하였다. 이 책들은 교육과 과거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으나, 성리학의 해석이 경직되는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명은 과거제를 재정비하면서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과거 응시 자격을 주었다. 이들과 함께 과거 응시 자격이 있거나 과거에 합격한 자, 그리고 관직 경력자들을 신사라고 불렀다. 신사층은 유력자로서 요역을 면제받으면서 지방관 못지않은 세력을 가지고 명·청 대 향촌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명 대 성리학이 과거 합격만을 위한 학문으로 여겨지고, 사회 모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명학이 발전하였다. 남송 때 육구연은 '이'는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심즉리'를 주장하며 성리학의 '성즉리'를 비판하였는데, 육구연의 영향을 받은 명 대의 왕수인이 양명학을 집대성하였다. 왕수인은 '심즉리'와 함께 굳이 배우지 않아도 타고난 도덕적 자각인 '양지(良知)'를 통해 사물을 바로게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천을 중시하여 '지행합일'을 주장하였다.

양명학은 일본에서는 추상적 지식보다 구체적 행동을 중시하는 무사에게 영향을 주었다. 조선에서 양명학은 성리학자에게 이단으로 배척당했지만, 소수의 학자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고려는 13세기 말 원으로부터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성리학의 수용에는 안향의 역할이 컸다. 고려 후기에 등장한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 사회 개혁을 추진하였다. 신진 사대부는 당시 지배층이었던 권문세족의 횡포와 불교 사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과 힘을 합쳐 조선을 건국하였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성리학은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되었다.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양반 관료가 중심이 되어 국가를 운영하였다. 이들은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경제적 부를 축적하면서 점차 세습적인 특권층으로 자리 잡았다.

16세기 들어 조선 사회가 점차 안정되면서 지방을 기반으로 사림 세력이 성장하였다. 사림 세력은 지방에 서원을 세워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썼다. 또 향약 보급에도 힘써 향촌 사회에 성리학적 사회 질서가 점차 자리 잡았다.

성리학에 대한 학문적 이해도 더욱 깊어졌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우주론과 인간의 심성 문제 등을 토론·논쟁하며 성리학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학자를 중심으로 학설

이 계승되면서 학과가 형성되었고, 학과는 이후 봉당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이황과 이이가 학과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황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였는데, 그의 사상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전해져에도 시대의 성리학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이이는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취 제도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명과 조선에서는 성리학이 보급됨에 따라 『주자가례』에 따른 유교적 관혼상제의 의례가 확산되고 성리학적 윤리가 강조되었다. 조선 중기까지 혼인 후 남자가 처가에서 사는 풍습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성리학적 윤리가 확산되면서 여자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곧바로 남자 집에 가서 시집살이하는 결혼 풍습이 널리 보급되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관직에서 물러나 삼년상을 지내야 했다. 또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 집 안에 가묘나 사당을 세우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자손이 돌아가면서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풍습도 장자 중심의 제사로 바뀌었다. 이와 더불어 재산 상속도 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들이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관념이 강해지면서 아들이 없으면 동족 중에서 양자를 들이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일본의 무사는 헤이안 시대 후기 이래 점차 세력을 키워 나갔다. 마침내 12세기 말에는 가마쿠라에서 무사들의 독자성을 반영한 정치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로써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되었다. 막부는 무사 정부를 가리키는 말로, 그 최고 수장을 쇼군(장군)이라 불렀다. 가마쿠라 막부는 쇼군과 주종 관계를 맺은 유력 무사를 슈고와 지토로 지방에 파견하여 전국을 통제하였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슈고가 점차 무사와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여 봉건 영주(다이묘)로 성장하였다. 16세기 말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농 분리 정책을 실시하여 무사층이 점차 신분적으로 고정되어 나갔다. 이후 무사는 일반 백성 위에 군림하는 지배층의 성격이 뚜렷해졌다.

에도 시대의 무사는 막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놓였다. 또 오랫동안 평화가 계승되면서 이전 시기의 무사와 달리 전투에서 점차 멀어졌다. 그 대신 ‘문’의 담당자를 자처하며 관료와 지식인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편 막부가 지배하던 시기에도 교토에 천황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채 종교 의식이나 학문, 예술 등에 관여하였다.

가마쿠라 막부 후기 무사가 지배하던 일본에도 성리학이 전해졌지만, 사회 전반에까지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성리학은 무로마치 시대 한문 지식을 바탕으로 대외 관계를 담당하던 일부 선종 승려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승려였던 후지와라 세이카는 정유재란 때 일본에 혼루루 잡혀 온 조선의 강항을 만난 후 유학자로 변모하였다. 그는 강항의 도움을 받아 일본 최초로 사서오경 주석본인 『사서오경왜훈』을 간행하였다.

그의 제자 하야시 라잔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등용되어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 데 공헌하였다. 야마자키 안사이는 일본 성리학을 집대성하면서도 신토와 유교의 결합을 추구하였다.

에도 막부는 성리학을 관학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다. 이는 사농공상의 신분적 차별을 인정한 성리학이 무사 중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와 신토의 영향력이 컸던 일본 사회에서 성리학은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유교적 가묘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문묘로 유시마 성당이 세워졌으나 국가적 제도로는 자리 잡지 못하였다. 관혼상제를 비롯한 각종 의례도 신토나 불교에 따라 이루어졌다.

15.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을 이끌되 법과 형벌로써 하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움을 모를 것이다. 백성들을 다스리되 덕과 예로써 하면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알아 장차 선에 이를 것이다.”
- 동중서는 황제께 아뢰었다. “제왕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행해야 합니다. 덕과 교화의 힘을 빌려 다스릴 뿐 형벌의 힘을 빌려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 < 보 기 >
- ㄱ. 윤희전생을 교리로 삼았다.
  - ㄴ. 율령 체계의 정립에 영향을 미쳤다.
  - ㄷ. 인재 양성과 관리 선발에 기여하였다.
  - ㄹ. 개인적 해탈보다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 제도를 실시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덕 7년에 율령을 제정하였다. 토지는 구분전과 영업전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 (중략) ... 성인 남자는 국가에 매년 곡물로 조(租)를 낸다. 조(調)는 비단이나 삼베로 낸다. 성인 남자는 매년 20일의 노역에 종사해야 한다. 노역을 하지 않을 경우 대신 비단이나 삼베를 내도록 한다. 이를 용(庸)이라 한다.

- ① 연행사를 파견하였다.
- ② 카이평을 수도로 삼았다.
- ③ 2관 8성제를 실시하였다.
- ④ 구품중정제를 시행하였다.
- ⑤ 안남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17. 밑줄 친 '이들'이 믿는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들은 출가하여 군신의 의리를 저버리고, 부자의 인연을 끊어 버리며, 자식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들은 안으로 인륜을 떠나기는 하지만 효도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 밖으로 임금을 받들지는 않지만 공경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① 백제를 거쳐 일본으로 전래졌다.
- ② 고구려에 4세기 무렵 전래되었다.
- ③ 일본에서 신토(신도)와 결합하였다.
- ④ 북조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다.
- ⑤ 천명사상으로 황제 통치를 뒷받침하였다.

18.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번역이 잘못된 경전이 많다고 여겨 정관 초기에 구법 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에 각 지역의 자연과 풍속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 (가) 이/가 정관 19년에 귀국하자 당 태종은 기뻐하여 그에게 경전을 번역하도록 하였다. 그와 관련 깊은 대안탑이 지금 시안에 남아 있다.

- ①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왔다.
- ②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 ③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 ④ 유학 과정에서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다.
- ⑤ 신라에서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여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19. 다음 가상 편지에서 (가) 국가의 통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께  
 최근 교역을 위해 [가]에 다녀왔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면서 물품을 검사받고, 수도의 주작대로 동쪽에 있는 좌경의 동시에서 물품을 거래하였습니다. 거래를 끝내고 머물던 중 몇 년 전에 계율을 전하러 온 승려 감진을 도다이사에서 만났습니다. 귀국할 때에도 이 나라의 법령에 따라 물품을 검사받았습니다. 그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만나 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올림

- ① 문하성이 정책을 심의하였다.
- ② 신기관이 제사를 담당하였다.
- ③ 복면관이 유목민 통치 업무를 맡았다.
- ④ 좌현왕과 우현왕이 각각의 영지를 다스렸다.
- ⑤ 행성(행중서성)이 설치되고 다루가치가 파견되었다.

20.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는 먼저 『대학』을 읽어 그 규모를 정하고, 다음에 『논어』를 읽어 그 근본을 세우며, 다음에 『맹자』를 읽어 그 뛰어난 점을 보고, 다음에 『중용』을 읽어 옛사람의 미묘한 것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예기』에 포함되었던 『대학』과 『중용』을 독립된 경전으로 만들고 독자적인 주석서를 저술하였다.

- ① 변법자강 운동을 추진하였다.
- ② 중화와 이민족을 구분하는 화이론을 중시하였다.
- ③ 청의 친진 문물을 수용하여 상공업을 진흥하자고 주장하였다.
- ④ 사물의 이치 탐구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지행합일을 강조하였다.
- ⑤ 고사기를 비롯한 고전을 연구하여 자국 문화의 우월성을 내세웠다.

21.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유교의 의례를 비롯하여 성리학을 깊게 이해하였으며, 경전에 해석을 단 『사서오경왜훈』을 집필하였다. 쇼군 앞에서 유교에 대해 강론한 이후 일본 성리학의 원조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그의 제자인 하야시 라잔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막부의 의례를 정비하였다.

- ① 사서집주를 저술하였다.
- ② 다이카 개신을 추진하였다.
- ③ 강항과 학문적으로 교류하였다.
- ④ 해체신서 간행 작업에 참여하였다.
- ⑤ 북벌론과 대명의리론을 주장하였다.

22.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헤이안 시대 말기에 다이랴 씨가 천하를 어지럽히자 (가) 이/가 병란(兵亂)을 진압하여 상하가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가) 은/는 조정의 승인을 받아 슈고와 지토를 임명하고, 정이대장군(쇼군)에 올랐다. 이로부터 쇼군을 수장으로 하는 무사 정권 시대가 도래하였다.

- ① 삼별초의 항쟁을 진압하였다.
- ② 천호·백호제를 토대로 대외 원정에 나섰다.
- ③ 토지를 매개로 고케인과 주종 관계를 맺었다.
- ④ 산킨코타이 제도를 통해 다이묘를 통제하였다.
- ⑤ 무기 물수령을 통해 무사와 농민의 신분을 분리하였다.

7.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명은 건국 후 주변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주도하였다. 하지만 15세기 중반 북쪽의 몽골이 남하하여 명의 황제를 포로로 잡았고, 16세기 중반에는 만리장성을 넘어 수도인 베이징을 포위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무렵에는 왜구가 중국의 동남 해안 지방을 자주 침입하였다. 무로마치 막부의 힘이 약해지면서 중앙의 통제가 느슨해지자 왜구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진 것이다. 이 시기의 왜구를 후기 왜구라고 하는데, 전기 왜구와 달리 동중국해와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약탈을 일삼고 밀무역에 간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명은 북쪽의 몽골과 동남쪽의 왜구, 이른바 '북로남왜'에 시달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명은 내부적으로도 부패한 환관과 당쟁으로 정국이 불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용된 장거정은 국정을 쇄신하고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밖으로는 몽골 세력과 강화를 맺고, 안으로는 환관 세력을 억제하였다. 행정 개혁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고 일조편법을 시행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장거정 사후 관료와 신사층이 개혁에 반기를 들고 환관 세력이 다시 대두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국력은 점차 쇠퇴하였다.

조선은 건국 이후 사대교린을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명과는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사대 외교를 펼쳤으며, 일본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나라와는 교린의 입장 속에서 외교 관계를 맺었다. 조선은 고려 말 이후 계속된 왜구의 침략을 근절하기 위해 세종 때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공격하여 왜구의 힘을 약화시켰다. 이와 함께 일본과 계해약조를 맺고 제한된 교역을 허용하였다. 이처럼 건국 초부터 지속한 교린 외교의 결과 고려 말, 조선 초에 극성을 떨쳤던 왜구는 점차 잠잠해졌다.

하지만 교린 외교로 안정된 조선의 대외 관계는 16세기 이후 점차 악화하였다. 쓰시마의 무역 요구가 늘어남에 대해 조선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자, 왜인들이 난을 일으켜 두 나라의 무역이 일시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에서는 성종 이후 지방에서 성장한 사림 세력이 중앙 정치 무대에 새롭게 등장하여 정권을 잡고 있던 훈구 세력과 충돌하였다. 16세기 후반 훈구 세력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은 사림 세력은 봉당을 형성하여 서로 대립하였다.

이렇게 정쟁이 계속되면서 조선은 주변의 정세 변화와 대외적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건국 이래 오랫동안 평화가 계속되고, 군역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폐단이 나타나면서 국방력이 약해졌다.

15세기 중엽 무로마치 막부 쇼군의 후계자 선정을 둘러싸고 오닌의 난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막부와 쇼군의 권위가 실추되고, 각지에서 자신의 영지를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센고쿠 다이묘가 출현하였다. 센고쿠 다이묘는 계속된 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국강병책을 모색하였고, 대외 교역에도 관심을 보였다.

센고쿠 다이묘들의 치열한 각축 속에서 16세기 중엽 오다 노부나가 두각을 나타냈다. 오다 노부나는 새로운 무기인 조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적대 세력을 물리쳤다. 오다 노부나가 죽자 그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100여 년에 걸친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현지에 직접 관리를 파견하여 토지를 조사하고 토지의 단위와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또 농민의 무기 소유를 금지하여 농민이 무사 신분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센고쿠 시대를 풍미한 하극상 풍조가 사라지고 신분 이동이 제한되었다.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의 근거지인 오사카에 대규모 성을 쌓고 무사들을 이주시켰다. 이처럼 무사와 농민의 거주 지역을 신분에 따라 구분하는 병농 분리 정책은 에도 막부로 이어졌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였지만, 각지에 있는 강력한 다이묘의 군사력은 그의 정권에 위협이 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이묘의 군사력을 약화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영토 확장과 무역 확대를 위해 임진왜란(임진 전쟁)을 일으켰다(1592).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부산진 전투에서 첫 승리를 거둔 후 20여 일 만에 한성을 함락하고 평양과 함경도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은 남해안에서 일본 수군에 연전연승하면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였다.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도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임진왜란 발발 소식을 접한 명은 조선이 일본과 연합하여 명을 침공하는 안내자 역할을 할지 모른다고 의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본에 맞선 조선의 저항이 분명하고 일본의 명 침공 가능성이 확인되자, 명은 요동을 방어하고 수도인 베이징을 지키기 위해 참전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삼국 간의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명은 국내의 정세 불안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는 어려웠다. 광산 개벌과 상업세 징수를 위해 파견된 환관의 수탈로 전국에서 저항이 잇따라 일어났고, 세력을 키운 여진족의 침공도 우려되었다. 이에 명은 조선에 지원군을 보냈지만, 동시에 외교적 교섭을 함께 추진하였다.

명의 지원군과 함께 반격에 나선 조선군은 평양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러 전세를 역전시켰다. 이후 일본군은 경상도 해안 지방까지 밀려났고, 철수를 위해 명과 교섭에 나섰다.

명과 일본은 조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화를 추진하였다. 일본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항복한다는 문서를 만들어 명에 보냈다. 1596년 명은 일본에 사신을 보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왕에 책봉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명 공주를 천황 후궁으로 출가, 조선 남부 4도 할양, 명과의 무역 재개' 등의 요구 조건을 내세웠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명과의 강화를 거부하고 정유재란(정유 전쟁)을 일으켰다(1597). 그러나 일본군은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이끈 조선 수군에게, 육지에서는 조·명 연합군에게 대패하여 궁지에 몰렸다.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일본군은 철수하였고 전쟁은 끝이 났다.

7년 동안 전쟁터가 된 조선은 인구가 크게 줄고 재정이 궁핍해졌다. 또한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명은 재정 악화에 따른 무리한 세금 징수로 농민 봉기가 잇따르며 점차 쇠퇴하였다. 반면에 만주의 누르하치는 명의 지배에서 벗어나 점차 세력을 키워 후금을 세우고 여진족을 통일하였다(1616).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추종 세력을 물리치고 에도 막부를 세웠다(1603).

임진왜란 전후 누르하치는 모피와 인삼 등의 특산물을 명과 교역하면서 경제력을 축적하였다. 그리고 팔기제를 시행하여 사회·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만주 사회가 정비되자 누르하치는 후금을 세우고 명과 대결하였다.

명은 후금을 공략하기 위해 조선에 파병을 요구하였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적 태도를 보이던 광해군은 명의 압력과 대신들의 독촉으로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조선군을 파병하였다. 그러나 조선군이 사르후 전투에서 후금에 투항한 이후 광해군은 명의 추가 파병 요구를 거절하였다. 후금에는 파병의 불가피함을 내세워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에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에 불만을 품고 인조반정을 일으켰다(1623).

명은 인조반정을 묵인하는 대가로 조선에 주둔하던 명의 장수 모문룡과 연합하여 후금을 공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조는 반정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명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모문룡이 후금 정벌과 요동 수복을 천명하자 후금은 1627년 조선을 침공하였다(정묘호란, 정묘 전쟁). 하지만 후금은 후방에 있는 명을 염려하여 조선과 형제 관계를 맺고 세폐를 받는 조건으로 2개월 만에 철수하였다.

1636년 후금의 홍타이지는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청'으로 고쳤다. 그리고 이 사실을 조선에 통보하고 신하의 예를 갖추도록 요구하였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홍타이지는 직접 조선을 침공하였다(병자호란, 병자 전쟁). 인조는 청군의 침입에 맞서 남한산성에서 저항하였으나 결국 삼전도에서 항복하여 청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명과의 관계를 끊고 청과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을 씻어야 한다며 효종 대에 북벌을 준비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못하였다.

청의 성장으로 명과 청의 패권 다툼이 격화되었다. 그러나 이자성의 농민 반란으로 1644년 명이 멸망한 직후, 청은 산하 이관을 지키던 명의 장수 오삼계에게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베이징을 점령한 청은 중국 각지를 정복한 후 삼번의 난을 진압하고 반청 세력의 근거지인 타이완을 복속하였다. 또한 주변 국가와 조공·책봉 관계를 계승하여 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확립하였다.

조선은 매년 조공 사절단으로 연행사를 보내 청과의 외교 관계를 지속하였다. 연행사는 황제나 황후의 생일 축하, 새해 인사, 왕의 사망이나 즉위 통보 등 여러 목적으로 청에 파견되었다. 일본은 조선과 국교를 재개하였지만 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지 않았다.

명·청 교체 이후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사상적 변화가 나타났다. 청은 만주족의 중국 정복을 합리화하기 위해, 인의나 오륜 등의 유교적 가치를 지키면 어느 민족이나 중화가 될 수 있다는 문화적 화이론을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만주족의 청은 명을 계승한 새로운 중화를 자처하였다.

조선에서도 '조선이 중화의 문명을 계승하였다.'라는 조선 중화주의가 등장하였다. 이 역시 지리적, 종족적 요소를 배제한 문화적 화이론이었다. 일본의 에도 막부에서는 무력을 중시하는 사상과 함께 만세일계의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이야말로 가장 우월한 나라라는 자국 중심 사상이 나타났다.

일본은 임진왜란·정유재란 당시 조선에서 성리학자와 도공

등 약 10만여 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 또 서적과 금속 활자 등을 비롯한 각종 문화재를 약탈하였다. 이렇게 끌려간 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약탈당한 문화재는 에도 시대에 일본의 학문과 도자기, 인쇄술이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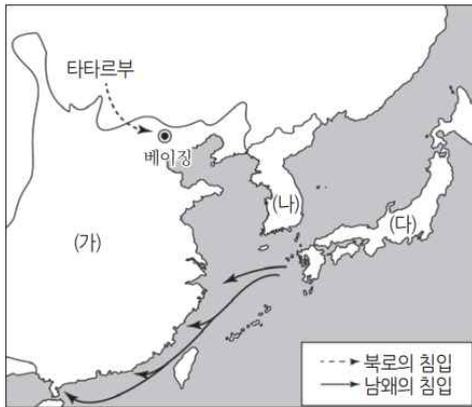
한편 일본 장수였던 사야카 (김충선) 를 비롯하여 전쟁 중 조선에 투항한 일본인도 1만 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조선에 조총 제작과 사격 기술을 전해 주었다.

일본의 에도 막부는 명과 외교 관계를 개선하려 하였으나 명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조선에도 국교를 요청하였다. 조선은 북방에서 시시히 세력을 강화해 가는 여진을 의식하여 에도 막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에도 막부의 요청에 따라 사절단으로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에도 막부는 통신사를 문화 교류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 이용하였다.

정묘·병자호란으로 1000만 명가량의 조선인 중 50만 명가량이 후금 (청) 에 잡혀갔다. 청에 잡혀간 조선인 후손 가운데 일부는 청의 문화계에서 유력 인사로 활동하거나 조선과 청 사이에 발생하는 외교상의 마찰을 줄이는 데 공헌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유재란 당시 관우를 섬기는 중국인의 신앙이 조선에 유입되었다. 중국인의 조선 이주도 활발하였는데 명의 멸망 즈음에는 이여송, 진린 등과 같은 명의 무장 후손이나 호안국, 문천상과 같은 송 대 저명 관료의 후손 등 많은 중국인이 조선으로 이주하였다.

23 지도의 상황이 전개되던 시기에 (가)~(다)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 경극을 관람하는 신사
- ② (가) - 태평천국 운동에 가담하는 농민
- ③ (나) - 연행사로 파견되는 관리
- ④ (다) - 해체신서를 연구하는 의원
- ⑤ (다) - 조총의 위력을 시험하는 무사

24 다음 전쟁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기유약조가 체결되었다.
- ② 몽골족이 베이징을 공격하였다.
- ③ 모문룡이 가도를 근거지로 삼았다.
- ④ 강홍립이 사르후 전투에서 투항하였다.
- ⑤ 일본이 조선 남부 4도 할양 등을 요구하였다.

25 (가), (나) 사이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왜군은 명의 이여송이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한양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권윤이 이 소문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한양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왜군은 한강을 건넌 뒤였다.

(나) 용골대 등이 단 아래에 북쪽을 향해 마련된 자리로 왕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청나라 사람을 시켜 큰 소리로 외치게 하였다. 이에 왕이 황제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였다.

- ① 한국 - 기유약조가 체결되었다.
- ② 중국 - 명이 멸망하였다.
- ③ 중국 - 토목보의 변이 발생하였다.
- ④ 일본 - 오닌의 난이 일어났다.
- ⑤ 베트남 - 레(후기) 왕조가 수립되었다.

## 8.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명이 건국된 후 명과 조선, 일본, 류큐 사이에 조공 무역이 이루어졌다. 명 초 영락제 때부터 시작된 정화의 원정으로 동남아시아는 물론 멀리 아프리카 일부 국가가 명에 조공하기도 하였다. 조공 무역을 통해 명은 주변국을 통제하려고 하였으며, 주변국은 명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명은 조공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 바다를 통한 사무역을 봉쇄하였다. 이러한 명의 해금 정책으로 자유 무역이 불가능해지자, 동남 연해 지방에서 무역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밀무역에 뛰어들었다. 상인은 물론, 신사층을 비롯한 지방의 유력자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왜구와 밀무역에 나섰다. 이후 명은 군사력으로 왜구를 소탕하고 해금 정책을 일부 완화하였다.

조선은 명과 조공 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사절은 명에 인삼·종이·붓·화문석 등을 공물로 바치고, 생사·비단·약재·서적 등을 답례품으로 가지고 왔다. 사절단을 수행한 역관은 적극적으로 밀무역에 참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명에 바치던 공물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고 중국에서 비단을 비롯한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하였다.

한편 조선은 남해안의 포구 세 곳에 왜관을 설치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본인 의무역을 허락하였다. 조선은 식량·옷감·서적 등을 수출하고, 구리·유황·물감·향료·약재 등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무역에 반발한 일본인이 삼포왜란(1510)을 일으킨 후 무역은 점차 쇠퇴하였다.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도 명과 조공(감함) 무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공 무역만으로 일본은 명의 동전·도자기·비단 등을 충분히 얻기 어려웠고, 명도 일본의 구리·유황·은을 얻기 어려웠다. 16세기 중반 센고쿠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무로마치 막부가 주도하던 감함 무역이 중단되고 밀무역이 더욱 성행하였다.

명의 해금 정책으로 중국 상인의 활동이 위축되자 류큐의 중계 무역이 활발해졌다. 류큐는 지리적으로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중계 무역에 적합하였다. 류큐는 명에 부채·종이·해산물 등을 수출하고, 생사와 도자기를 수입하여 이를 주로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판매하였다. 또한 일본의 칼·구리, 동남아시아의 상아·후추·침향 등을 명과 조선에 판매하였다. 류큐는 조선에서 저포·마포·면포 등을 수입하고, 불경·유교 경전·법종 등도 조선에서 가져갔다.

14세기 이후 동남아시아는 유럽과 인도, 동아시아를 잇는 무역의 요충지로 떠올랐다. 유럽인은 향신료를 얻기 위해 아시아에 진출하였다. 특히 말레이반도에 있는 므라카는 해상 교통로의 요충지였다. 포르투갈은 1511년에 이곳을 점령하고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였다. 명의 상인도 이곳으로 건너와 비단, 도자기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교역망이 형성되었다.

에스파냐인도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15기년에 필리핀을 점령하고 무역 기지를 건설하였는데, 그중 마닐라는 갈래운 무역의 중심지였다. 이곳에서 에스파냐인은 멕시코의 아카풀코에서 가져온 은으로 명의 비단과 도자기 등을 사들였다.

16세기 말 이후에는 네덜란드인이 점차 무역의 주도권을 장

악하였다. 이들은 1624년 타이완을 점령하였고, 17세기 중엽에는 바타비아(오늘날의 자카르타)를 주무대로 삼아 활동하였다. 네덜란드인은 중국의 생사·비단·도자기와 동남아시아의 향신료를 구매하고 유럽의 은화로 값을 지불하는 중계 무역을 주도하였다. 또 포르투갈인을 제치고 일본과 유럽 간의 무역을 장악하였다.

한편 명의 부분적인 해금 완화 조치 이후 중국인이 동남아시아에 활발하게 진출하였다. 이들이 화교의 한 갈래를 형성하였다. 중국 상인은 자국산 비단과 도자기 등을 싣고 베트남의 호이안으로 가서 그곳의 소금·계피·금 등과 바꾸었다. 17세기 초에는 1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필리핀의 루손섬으로 건너갔다. 이들은 중국산 생사·비단·칠기 등을 에스파냐인에게 팔고 멕시코에서 건너온 은을 대가로 받았다.

명 초에는 동전과 지폐인 보초가 화폐로 사용되었다. 대체로 보초는 고액 화폐로, 동전은 소액 화폐로 유통되었다. 그런데 명 조정 이 보초를 남발하여 그 가치가 하락하자, 민간에 보초를 대신할 새로운 고액 화폐가 필요해졌다. 이에 새로운 고액 화폐로 등장한 것이 은이었다. 은은 실물 화폐였으므로 가치가 하락할 위험성이 적었다. 상업이 발달한 창장강 하류 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은이 고액 화폐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명과 청이 각각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는 일조편법과 지정은제를 시행하자,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동전을 사용하던 농민들은 해마다 세금을 내기 위해 동전을 은으로 바꾸어야 했다. 그러나 은과 동전의 교환 비율은 늘 변했기 때문에 은값이 폭등하면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명·청 대에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면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자 은의 수요가 더욱 늘어났다. 그러나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은만으로는 은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었다. 그 수요를 메운 것이 아메리카 대륙과 일본의 은이었다. 아메리카 대륙과 일본에서 생산된 은이 비단과 도자기로 대표되는 명·청의 상품과 교환되는 형태로 중국에 계속 수입되었다.

16세기 이전 조선은 은을 화폐로 이용하지 않아 은 수요가 적고 은광 개발에도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명에서 생산된 비단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대금으로 지불하는 은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조선은 일본에 인삼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은을 명에 비단 값으로 지불하였다. 이리하여 은은 동아시아 세계 내부의 국제 교역을 뒷받침하는 화폐로 널리 사용되었다.

17세기 중반 이후 조선은 청에 끌려간 사람들을 데려 오기 위한 몸값으로 은이 필요하였다. 또 청과의 교역이 늘어나자 은의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조선은 단전을 비롯하여 각지의 은광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였다. 17세기 말에는 70여 곳의 은광이 개발되었고,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채굴하는 잠채도 행해졌다.

일본은 16세기 초 조선에서 들여온 회취법을 활용하여 은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였다. 특히 이와미 은광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은광 개발 시대가 열렸다. 센고쿠 다이묘들은 경쟁적으로 은광 개발에 나섰다. 16세기 말에는 전 세계 은 산출량의 3분의 1을 일본산 은이 차지할 정도였다.

일본의 은은 생사·비단·약재의 대금으로 쓰이면서 중국으로 유출되었다. 조선의 인삼을 구입하기 위한 은 유출도 많았

다. 인삼 대금으로 지불된 일본 은은 교토에서 출발하여 오사카와 쓰시마를 거쳐 부산으로 건너와 한양에 유입된 후 조선의 대청 무역 대금으로 지불되었다. 이로써 교토를 출발지로 하고 한양을 중계지로, 베이징을 종착지로 하는 동아시아 은의 국제 유통로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초 점차 은이 고갈되자 에도 막부는 인삼을 자체적으로 재배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은의 유출을 줄였다.

청은 동남 연해에서 반청 활동을 하던 정성공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천계령을 시행하여 푸젠·광둥 등지의 연해 지역 주민을 내륙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1683년 타이완을 정복하여 반청 세력을 진압한 청은 천계령을 해제하고, 광저우 등 4개 항을 외국 상인에게 개방하였다.

그러나 청은 서양인과 한인이 결탁하여 반청 운동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1757년에 3개 항구를 폐쇄하고 대외 무역항을 광저우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공행을 설치하여 대외 무역을 독점하게 하였다. 공행은 청의 관원을 대신하여 서양 상인을 감독하였으며, 관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였다. 이러한 광둥 무역 체제는 난징 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서양 각국은 청이 무역항을 광저우로 한정하고 자국 상인의 활동에 제약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영국은 메카트니 사절단 등을 보내 자유 무역을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무역 수치 적자가 심해지자 영국은 삼각 무역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서양 세력은 청의 이러한 무역 통제에 불만을 품고 19세기 중엽부터 군사적 침략을 시도하였다.

조선은 공무역인 개시와 사무역인 후시를 통해 청과 교역하였다. 주로 중강이 나책문등지에서 교역이 이루어졌는데, 조선은 금·은·인삼·종이·소가죽·모시 등을 수출하고, 비단·약재·문방구·보석 등을 수입하였다. 개성의 송상과 의주의 만상 등이 청 상인과의 교역에 참여하였다.

1678년에는 일본과 무역이 이루어지던 왜관을 부산 초량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조선과 일본의 무역은 쓰시마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선은 공무역으로 쓰시마에서 구리·주석·단풍·은 등을 수입하고, 질 좋은 목면이나 쌀을 대가로 주었다. 조선의 상인과 쓰시마의 사신이나 관리, 상인 간에 사무역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본 은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18세기 말부터 사무역은 쇠퇴하였다.

에도 막부는 17세기 초에 슈인장을 발급하여 해외 무역을 제한적으로 허락하였다. 이후 크리스티교가 확산하자, 에도 막부는 크리스티교 포교를 금지하고 해외 무역을 통제하기 위해 쇄국 정책을 실시하였다. 대신 나가사키를 지정하여 서양 국가 중 네덜란드와의 무역만을 공식적으로 허락하였다. 나가사키의 데지마는 서양과의 문물 교류 창구로 활용되었다.

한편 청에서 천계령이 해제된 후 청 상인이 나가사키에 와서 무역에 종사하였다. 나가사키에 중국인 거주지가 지정되었으며, 이들이 청과 일본의 무역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청 상인을 통해 은 유출이 급증하자 막부는 무역 허가증인 신패를 발행하여 청 상선의 입항을 통제하였다.

16세기 말 이후 서양 선교사들은 크리스티교를 포교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로 건너왔다. 명 대 최초의 선교사는 1582년 마카오에 도착한 예수회 출신의 마테오 리치였다. 그는 세계 지도인 「곤여만국전도」를 제작하였으며, 지구의·

해 시계·프리즘·자명종 등 서양의 과학 기구를 명에 소개하였다. 또한 유클리드의 『기하원본』을 명의 고관이자 크리스티교도가 된 서광계와 함께 중국어로 번역하였고, 『천주실의』를 한문으로 저술하였다.

선교사들은 천문과 역법을 포함한 과학 지식이나 화포 제작 등의 군사 기술, 그리고 음악과 미술 등의 예술 방면에도 조예가 깊었다. 명 말에 중국으로 건너온 아담 샬은 서양 역법을 소개하고 조총의 제작법을 전해 주었다. 그는 청 대에 천문과 역법을 관장하는 흠천감의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명 대의 대통령을 시헌력으로 개정하였다. 청 대에 페르비스트는 세계 지도인 「곤여전도」를 제작하고, 카스틸리오네는 건물제 시절에 원명원의 서양식 건물을 설계하고 많은 서양화를 남겼다.

강희제 통치 시기에 조상 제사나 공자 숭배 등을 둘러싼 전례 문제로 크리스티교의 포교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선교사들은 천문과 역법·의학·예술 방면에서 궁정에 봉사하는 조건으로 계속 중국에서 활동하였다.

조선은 1627년 네덜란드인 벨테브레이(박연)가 제주도에 표착한 것을 계기로 서양인과 처음 접촉하였다. 벨테브레이는 훈련도감에서 서양식 총포 제작에 참여하였다. 1653년에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선원이었던 하멜과 그 일행이 제주도에 표류하였다. 하멜은 1666년에 일본으로 탈출하여 두 해 뒤 본국에 도착하였고, 『하멜 표류기』로 알려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서양 문물의 접촉과 도입은 주로 베이징을 다녀온 사절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두원은 사절단의 일원으로 명에 갔다가 예수회 선교사에게서 서양 과학책과 자명종, 천리경 등을 받아와 소개하였다. 또한 새로운 화약 제조법도 전하였다. 홍대용은 연행 사절단을 따라 베이징으로 가서 흠천감을 방문하였다. 그는 천문 관측기구를 관람하고 서양인 선교사로부터 서양의 천문 관측 기법을 배웠다. 또 지구 자전설과 지구 구형설을 담은 『의산문답』도 저술하였다. 연행 사절단이 전해 준 서양 문물은 조선의 지식인에게 학문적 자극을 주었다. 18세기 북학과 실학자들은 서양 문물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다.

한편 청에서 귀국한 소헌 세자는 아담 샬로부터 지구의와 크리스티교 교리서를 받아 왔다. 아담 샬의 시헌력은 조선에도 들어와 19세기 말 태양력을 도입하기 전까지 시행되었다. 또한 세계 지도인 「곤여만국전도」와 지리서인 「직방외기」가 유입되면서 지리 관념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및 오늘날의 오세아니아까지 확장되었다. 이리하여 조선 지식인이 지닌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변화하였다. 하지만 성리학적 세계관에 있어 있던 대부분의 지식인은 서양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일본에 가장 먼저 선교사로 온 사람은 에스파냐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프랜시스코 하비에르였다. 그는 16세기 중엽 일본 규슈 지역에 크리스티교를 포교하였다. 크리스티교는 빠르게 확산하여 지방의 다이묘와 가신들 가운데 크리스티교를 수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포르투갈은 일본과 15기년부터 무역을 시작하였다. 포르투갈인은 중국산 비단이나 생사를 일본은과 교역하면서 마카오와 나가사키를 왕래하는 중계 무역에 종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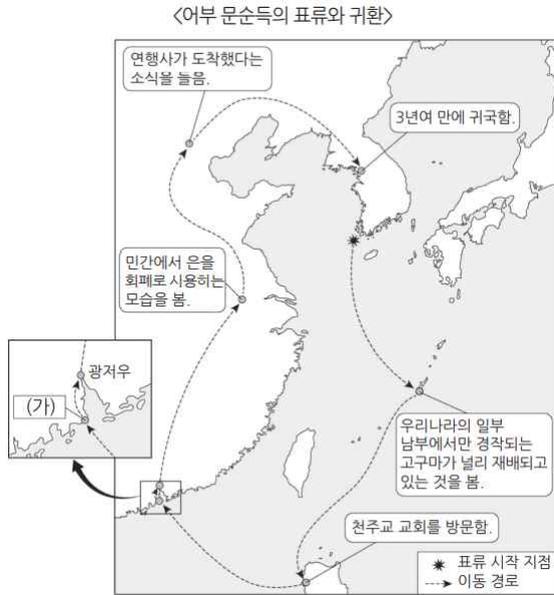
그러나 서양 세력의 일본 진출을 염려한 에도 막부는 크리스티교 금교령을 내리고 많은 신자를 처형하였다. 또한 에스파

나와 포르투갈의 선박이 일본으로 오는 것을 통제하고, 네덜란드 선박만 대외 무역 창구인 나가사키의 데지마에 올 수 있게 하였다.

서양 문물이 동아시아로 전해짐과 동시에 동아시아 문물도 유럽으로 전해졌다. 선교사들은 중국의 정치와 문화, 사회 사정 등을 유럽에 소개하였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견문록』을 써서 중국의 사정을 상세하게 유럽에 전하였다. 『논어』와 같은 중국 고전은 볼테르 등의 계몽사상가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명과 청의 비단·도자기·차 등은 서양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히 차 마시는 풍습이 크게 유행하였다. 17세기 중반 이후 일본의 아리타 자기가 서양으로 수출되었고, 에도 시대의 미술은 서양의 인상파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26. 다음 자료의 인물이 (가) 지역에서 목격했을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역을 위해 입항하는 포르투갈 선박
- ② 고국으로 돌아가는 마르코 폴로 일행
- ③ 조공하러 가는 베트남 리 왕조의 사절단
- ④ 국제 무역항인 벵골로 향하는 아라비아 상인
- ⑤ 도다이사 대불 개안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항하는 승려

27. 밑줄 친 ㉠, ㉡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귀국이 크리스티고 포교를 금지한 데 이어 쇄국령을 내려 교역을 제한했음에도, 지금까지 200여 년간 ㉡ 본국과의 교역은 허락해 주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래 영국이 중국에 군대를 보내 전쟁을 한 결과는 우리 나라의 상선을 통해서 이미 알려 드렸습니다. …(중략)… 증기선이 만들어진 이래 서로 멀었던 나라들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혼자서 문 닫고 세계와 교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① ㉠ - 초량 왜관을 통해 인삼을 수출하였다.
- ② ㉠ - 시박사를 두어 해상 무역을 권장하였다.
- ③ ㉡ - 바타비아를 교역 거점으로 삼았다.
- ④ ㉡ - 마닐라를 건설하고 갈레온 무역을 전개하였다.
- ⑤ ㉡ -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를 ㉠에 파견하였다.

28. 밑줄 친 ㉠이 실시된 이후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인구가 증가하여 호구를 조사하기가 어려워지자 장정 수를 속여 탈세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토지가 없는 가난한 장정이 늘어 인두세인 정세를 징수하기도 곤란하였다. 이에 조정은 장정에게 매기는 정세의 총액을 고정하였다. 이후 정세를 토지세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 새로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 ① 한국 - 일본과 기유약조를 체결하였다.
- ② 중국 - 천계령으로 해외 출항을 금지하였다.
- ③ 중국 - 장거정의 주도로 제정 개혁을 실시하였다.
- ④ 일본 - 슈인장을 발급하여 무역을 통제하였다.
- ⑤ 일본 - 덴메이 연간에 재해로 기근이 발생하였다.

9. 사회 변동과 서민 문화

17세기 이후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곡물의 품종 개량, 수리 시설 정비, 시비법, 모내기법을 비롯한 농업 기술이 발달하였다. 또한 집약 농업의 확대와 개간에 따른 경지 면적의 증가로 곡물 생산량이 늘어났다.

명 때에는 '창장강 유역의 후광 지역에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하다.'라는 말처럼 후난과 후베이성 지역이, 청 때에는 쓰촨성 지역이 곡창 지대가 되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창장강과 운하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었다. 강남 지역에서는 직물업을 위한 뽕나무나 면화를 재배하여 수입을 올리는 농가도 늘어났다.

조선에서도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쌀·면화·채소·담배·인삼 등의 재배가 확대되었다. 일본에서는 다이묘들이 개간을 장려하면서 경지 면적이 늘어났으며, 다양한 농기구가 개발되었다.

한편 신흥로를 개척한 유럽인과의 교역을 통해 아시아에도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새로운 작물들이 들어왔다.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의 신작물은 구황 작물의 역할을 하며 식량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다. 고추나 담배 등도 상품 작물로 재배되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17세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는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고 새로운 구황 작물이 도입되어 인구가 증가하였다. 중국에서는 종두가 발명되었으며, 그 기술이 전국으로 퍼져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웠다. 또한 명의 『본초강목』이나 조선의 『동의보감』과 같은 의학 서적이 발간되는 등 의료 기술이 향상되어 사망률이 낮아졌다.

북송 시대에 1억 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인구는 1850년경에 4억 3000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청 대 후기에 인구가 급증하여 경작지가 부족해지자 생활 여건이 악화하여 사회 불안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도 두 차례의 전쟁을 겪고 난 후 18세기 들어 사회가 안정되면서 인구가 늘어났다. 일본도 에도 시대에 들어 꾸준히 인구가 늘어났으나, 18세기 들어 자연재해에 따른 대기근 등으로 인구가 정체되기도 하였다.

명·청 때에는 민영 수공업이 더욱발전하였다. 강남각 지역의 도시와 농촌에서 견직물, 면직물, 제철, 도자기 등의 수공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특히 강남의 쑤저우, 항저우, 난징, 징더전 등지에서 도시 수공업이 발달하였는데 쑤저우의 견직물과 징더전의 도자기는 매우 유명하였다.

민영 수공업의 발전과 함께 은의 대량 유입, 운하와 각지로 연결된 도로 등을 통해 상업도 번성하였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각 지역에서 조달되는 물품 교역으로 상품 유통망은 더욱 확산되었다.

조선에서도 농촌 경제의 성장, 수공업의 발전을 통해 상업이 발달하였다. 연해 지역과 육상의 교통망이 정비되면서 교통의 요지와 포구에 물자가 집결되었고, 전국적으로 장시가 성장하면서 상품 유통이 활발해졌다.

곡물을 토산물 대신 쌀이나 포, 동전으로 납부하는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성장하고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정부는 일부 독점 상인의 특권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

였다. 상업의 발전에 따라 상평통보가 발행되어 유통되었다.

일본에서도 금, 은 채굴과 제련 기술의 발달로 광업과 수공업이 성장하고 고급 견직물을 비롯해 도자기, 술 등 각지의 특산품이 생산되어 판매되었다. 에도 막부가 연안 항로의 정비에 힘쓰면서 해상 교통로가 정비되고 육상 교통과 연결되는 교통 체계가 확립되어 쌀 시장과 같은 전국 단위의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었다.

상업이 발전함에 따라자본을축적한대상이 등장하였다. 명·청 때에는 전국적 유통망을 갖추고 활동한 산시 상인과 휘저우 상인이 유명하였다. 이들은 전국적인 상권을 장악하고 창장강 중하류 등지에서 소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였으며, 면화·쌀·목재·차·생사·견 직물·면제품 등을 유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또한 각 지역에 회관을 건립하여 이를 거점으로 삼아 구성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관료와 돈독한 관계를 맺어 상업 활동의 입지를 넓히려 하였다.

조선에서도 송상이나 경강 상인과 같은 대상인 집단이 등장하였다. 특히 송상은 주요 지역에 송방을 설치하여 전국적 유통망을 가지고 상업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어음과 같은 신용 화폐를 이용하였으며, 청·일본과의 무역에도 개입하였다. 의주의 만상이나 동래의 내상도 청이나 일본 상인과의 교역을 주도하였다.

경강 상인은 서남해 연안과 한강을 오가며 쌀·소금·목재·어물 등을 판매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이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권력의 비호 아래 상품을 매점하고 한양에서 출하 시기를 조절하면서 이득을 얻었다.

일본에서는 17세기 후반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번성하면서 조닌이 성장하였다. 조닌은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주도하였다. 조닌의 부가 축적되어 사치 풍조가 심해지자 막부가 사치 금지령을 내릴 정도였다.

인구 증가, 상공업의 발전에 따라 도시가 성장하였다. 농촌에서 토지를 잃은 농민들과 재해로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었고, 상공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도 도시로 이주하였다.

명 중기 이후 수로 교통이 편리했던 창장강 유역의 강남에서는 시진이 급격히 늘어났다. 시진은 거미줄처럼 연결된 수로를 통해 유통망을 형성하였다.

조선에서도 18세기 들어 장시가 성장하였다. 상업의 발달에 따라 강경, 원산, 대구 등지가 상업의 요충지로 성장하였다. 한양은 대표적인 소비 도시로 18세기 후반 인구가 약 30만 명이 넘었다. 그러나 조선은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보다 도시의 성장이 더딘 편이었다.

일본 역시 에도 시대에 들어와 도시가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 조카마치는 군사적 방어 목적으로 무사들을 거주하게 한 도시로 조성되었으나 점차 제조, 무역, 상업 도시로 발전하였다.

바다와 육지가 접하는 위치에서 물산이 집결되는 오사카, 직물·염색·공예 등의 전통 산업이 발달했던 교토, 그리고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소비 도시인 에도는 '3도'라 불리며 번성하였다.

특히 산킨코타이 제도에 따라 다이묘와 가족, 하급 무사, 도시 노동자에게 필요한 물품이 에도로 운송되었다. 도시의 성장

과 상인의 활동으로 소비를 위한 부의 축적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신분 질서의 중요 현상이 점차 심해졌다.

명·청 대 재력을 지닌 상공인층이 성장하면서 서민 문화가 발전하였다. 도시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유흥과 오락이 활성화되고 도시는 문화 활동이 벌어지는 공간이 되었다. 특히 도시 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문화의 소비층을 확대하였다.

서민층의 흥미를 자극한 통속 소설이 유행하여 명 대에는 『수호전』, 『삼국지연의』, 『서유기』, 『금병매』가 널리 읽혔다. 청 대에도 애정 소설이라 할 수 있는 『홍루몽』이나 관료 사회를 풍자한 유림외사 등의 소설이 출간되었다. 이러한 소설의 유행은 지식인이 민간 문학에 참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서민의 문화적 욕구가 늘어난 것에 기인하지만, 당시 인쇄술과 출판업의 발달도 배경이 되었다. 도시에서는 상업적 출판사들이 값싸게 출판한 다양한 책이 유통되었다.

소설과 더불어 서민들은 연극도 즐겼다. 청 대에 베이징 일대에서는 경극이 유행하였다. 배우들은 자신의 조합을 만들고 여러 극장을 옮겨 다니며 공연을 하였다. 베이징에만 수십 개의 대중 극장이 있었고 정부와 상인들도 극단을 지원하였다. 황제와 관리들은 유명 배우를 초청하여 공연을 보았으며, 유력한 상인들은 개인 극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지방에서는 토속적 음악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구성에 통속적인 가사와 대화로 이루어진 지방회가 서민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서당 교육이 확대되고 서민 의식이 성장하는 가운데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소설의 지은이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설은 적당한 몸짓과 표정을 섞어 가며 읽어 주는 낭독이나, 돈을 주고 소설책을 빌려 읽는 세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유행하였다. 민간에서 나무판에 글씨를 새겨 인쇄한 방각본도 만들어졌는데, 이는 소설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데 이바지하였다. 『춘향전』, 『심청전』과 같은 소설이 방각본으로 많이 출판되었다. 소설과 함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서민의 감정이나 현실 비판적인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한 사실시조도 등장하였다.

공연 예술인 판소리도 유행하였다. 판소리는 전용 극장이나 무대 장치 없이 소리꾼이 장터에서 사람들을 모아 놀이판을 벌이거나 부잣집으로 초청을 받아 공연되었다. 「춘향가」, 「홍부가」, 「심청가」 등이 많이 불렸는데, 이는 낡은 전통적 규범에 대한 반발심을 지닌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 주었다.

판소리와 함께 지역마다 특징적인 탈춤도 유행하였다. 춤과 노래, 사실로 서민들의 애환과 감정을 잘 드러낸 탈춤은 양반층의 위선이나 사회의 문제점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내 인기가 많았다. 특히 상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탈춤 공연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림에서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는데, 서민의 일상생활을 소탈하게 그리거나 양반이나 부녀자의 유흥 등을 있는 그대로 그린 풍속화와 다양한 소재의 민화가 유행하였다.

에도 시대에는 장기간에 걸쳐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무사로부터 조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교육과 문화 활동이 활발해졌다. 초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라코야가 전국에서 문을 열었다. 특히 상공업의 발전으로 조난의 영향력이 향상되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자 이들이 누리는 조난 문화가 발달하였다. 현실과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고 소비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묘사한 소설이 유행하고, 인쇄술의 발달

로 출판문화가 발전하였다.

공연 예술로는 분라쿠(닌교조루리)와 가부키가 유행하였다. 가부키는 시각적으로 화려한 의상과 복잡한 무대 장치, 그리고 고도로 양식화된 배우의 연기, 노래, 춤을 통해 흥행하였다. 에도에는 막부의 허가를 받은 영업용 극장이 다수 있었다. 무사의 복수를 다룬 「주신구라」를 비롯해 통속적인 이야기와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내용 등이 가부키의 주요 소재가 되었다. 한편 회화에서는 다양한 인물, 경치, 풍속 등을 그린 우키요에가 유행하였다.

명 말에 서양 학문이 들어오고 상공업이 발달하여 농학, 지리학, 역법 등의 실용적 학문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특히 고염무, 황중희, 왕부지 등이 경제치용의 입장에서 유교 경전과 지리서·역사서 등의 고전을 연구함으로써 정치 개혁 성격을 띤 학문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실사구시적 학문은 청이 안정기에 들어간 후 억압을 받기도 하였지만, 고종학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18세기 들어 실증적인 방법으로 문헌을 연구하는 고증학이 발전하였는데, 고증학의 실사구시적 학문 태도를 기반으로 『강회자전』, 『고금도서집성』, 『사고전서』 등 대규모 편찬 사업이 벌어졌다.

한편 청 말에는 『춘추공양전』을 연구하여 정치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로써 현실 개혁적인 공양학이 성립되었다. 공양학자 위원이 저술한 『해국도지』는 조선의 지식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서양 세력의 침입과 농민 봉기로 사회가 어려워지자 공양학은 정치 개혁의 사상적 근거를 제시하여, 캉유웨이 등이 주도한 변법자강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17~18세기 조선의 일부 학자는 사회·경제의 변화 속에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바로 보고 그 해결을 위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성리학의 고조화를 비판하면서 중국과 서양의 새로운 학문적 성과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관료제의 효율적 운용, 인제의 차별 없는 등용, 노비제 혁파, 서얼 차별 해소 등을 주장하고 토지 제도와 수취 제도의 개혁, 상공업 진흥과 기술 개혁 등을 제기하였다.

이익, 정약용 등은 농촌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토지 개혁을 통해 농민 생활의 안정을 주장하였다. 박지원과 박제가 등은 상공업 진흥과 청의 문물 수용을 주장하였다. 특히 박제가는 소비를 통해 생산을 진흥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일부 학자는 역사, 지리, 언어 분야의 연구에도 힘써 이후 근대 학문과 교육에도 영향을 주었다. 한편 중국에 갔던 사신들을 통해 서양 학문과 함께 크리스티교가 전해졌다. 처음에 크리스티교는 학문적 관심으로 수용되어 서학으로 불렸으나 점차 신앙으로서 널리 퍼졌다. 크리스티교의 평등사상과 제사의식 거부는 성리학적 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조선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에도 막부는 성리학을 관학으로 우대하였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에도 사회가 성숙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성립된 고학은 이기론과 같은 형이상학적 관념론보다 실용적 학문을 중시하고, 성리학을 극복하기 위한 논리로 공자·맹자 시대 유학으로의 복귀를 주장하였다. 이토 진사이는 주자가 성인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오규 소라이는 중국 고대 성인의 도를 명확히 하는 것을

학문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고대 유교 경전인 육경을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언어, 문학, 민속, 신화 등의 고대 문화가 강조되면서 국학이 발전하였다. 국학자들은 유교, 불교 등의 외래 사상에서 탈피하여 일본 고대의 참모습을 추구하였다. 특히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1사기』 연구에 집중하여 일본 고대의 마음·언어·제도 등을 고도(古道)라 칭하며, 고도의 창시자는 중국 고대의 성인과 다른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비롯한 일본 고대의 신들이라 하며 일본 절대 우월주의로 나아갔다. 그의 사상은 이후 존왕 운동과 결부되어 국가 신토의 수립에도 영향을 주었다.

에도 시대에는 나가사키를 통해 들어온 서양의 학문을 바탕으로 난학이 발전하였다. 난학은 어학·의학·지리학·역학 등에 관한 관심에서 시작하였는데, 특히 『해체신서』의 번역은 난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난학은 일본의 지식인이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탈피하고 학문 연구에서 경험주의, 실증적 방법론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9. 밑줄 친 '이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왕조에서는 강희제·옹정제·건륭제 3대의 치세 아래 평화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옥수수와 고구마 등 구황 작물이 널리 보급되었다. 인구는 17세기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18세기 말에 약 3억 명이 되었다. 인구가 크게 늘면서 물가 상승, 환경 파괴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 ①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 ② 조카마치가 발달하였다.
- ③ 사고전서가 편찬되었다.
- ④ 슈고가 치안을 담당하였다.
- ⑤ 일조편법이 처음 시행되었다.

30. 밑줄 친 '막부'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이묘님께

지금 ○○번(藩)은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심지어 농민들이 봉기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습니다. 다이묘께서는 막부가 정한 산킨코타이 제도로 인하여 에도를 떠나 실 수 없는 상황이니 ○○번(藩)에 남아있는 저희들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올림

- ① 한국 -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 ② 중국 - 강남 지역에 시진이 발달하였다.
- ③ 중국 - 산시 상인과 휘저우 상인이 활약하였다.
- ④ 일본 - 중국과 감합 무역을 실시하였다.
- ⑤ 일본 - 오사카에 전국의 쌀이 집산되었다.

31.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국 - 조로아스터교가 전래되어 성행하였다.
- ② 일본 - 견당사가 파견되어 외국 문물이 도입되었다.
- ③ 베트남 - 민족의식이 높아져 대월사기가 저술되었다.
- ④ 한국 - 왕이 곧 부처라는 왕즉불 사상이 확산되었다.
- ⑤ 한국 - 서민들의 생활상을 묘사한 풍속화가 유행하였다.

32. 밑줄 친 '이 책'이 편찬된 막부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실제 해부 장면을 보며 서양의 의학서가 동양의 의학서보다 훨씬 정확하다는 것에 놀라 네덜란드 의학서의 번역에 착수하였다. 초고를 여러 차례 고친 끝에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해체'라는 말을 넣어 이 책의 제목으로 삼았다. 이로부터 난학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 ① 한국 -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 ② 한국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편찬되었다.
- ③ 중국 - 성리대전이 완성되었다.
- ④ 일본 - 호류사 5층 목탑이 건립되었다.
- ⑤ 베트남 - 대월사기가 집필되었다.

## 10. 새로운 국제 질서와 근대화 운동

19세기 중반 청은 영국에서 밀수출하는 아편이 급증하면서 여러 문제에 부딪혔다. 아편 중독자가 많이 늘어 사회 문제가 되었으며, 아편 구매 비용으로 은이 대량으로 유출되어 국가 재정도 어려워졌다. 이에 청 정부는 임칙서를 광저우에 보내 아편을 몰수하고 아편 무역 단속을 강화하였다.

영국은 청 정부의 아편 단속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켰다(제1차 아편 전쟁, 1840). 근대 무기로 무장한 영국군이 난징으로 진격하자 청은 영국과 난징 조약을 체결하였다(1842). 난징 조약은 광저우를 비롯한 5개 항구 개항, 홍콩 할양, 공행 폐지, 영사 재판권과 최혜국 대우 등을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공행이 폐지되었음에도 청과의 무역량이 기대만큼 늘지 않아, 영국은 프랑스와 연합하여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1856). 그 결과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어 청은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고 크리스토퍼의 선교를 인정하였으며, 서양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를 허용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베이징 조약을 증정한 대가로 연해주를 차지하였다.

에도 막부는 네덜란드를 제외한 서양 국가와 통상하지 않는 쇄국 정책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아편 전쟁에서 청이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에도 막부는 서양 선박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려는 방향으로 쇄국 정책을 완화하는 한편, 서양의 침략에 대비하여 해안 방위 태세를 강화하였다.

이 무렵 미국은 일본을 태평양 항로의 중간 기착지로 삼고자 페리 제독을 파견하여 개항을 요구하였다. 미국 함대의 무력시위에 굴복한 막부는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여 2개 항구를 개항하였다(1854). 그 후 미국이 계속 통상을 요구하자 일본은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고 미국의 영사 재판권을 인정하였다(1858). 일본이 미국과 맺은 조약도 불평등 조약이었다.

19세기 조선 연안에도 서양 선박이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였다. 당시 정치적 실권을 잡고 있던 흥선 대원군은 강력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다. 이에 프랑스와 미국이 조선을 침략하기도 하였다.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자 일부 관료가 서양과 교류하자는 통상 개화론을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조선에 개항을 요구하였다. 결국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을 체결하여 문호를 개방하였다(1876).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부산을 포함해 3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의 해안 측량권, 영사 재판권 등을 허용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서양 열강이 무력을 앞세워 동아시아 각국에 불평등한 조약 체결을 강요하면서 동아시아에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일본은 청·일 수호 조규(1871)를 체결하여 개항 이후 가장 먼저 외교 관계의 재조정에 나섰다. 이 조약의 체결로 일본은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청과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조선에서도 전통적인 조공·책봉 관계에서 벗어나 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서양 열강과 조약 체결에 나서 조·러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청은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현실은 청의 영향력 축소로 나타났다. 일본이 청과 일본 사이에서 이중적 외교를 펴던 류큐를 1870년대에 자국에 완전 병합하면서 청은 류큐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청은 프랑스와 벌인 전쟁에서도 패배하여 베트남에 대한 주권도 포기해야만 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조공·책봉 관계에 토대를 둔 중국 중심의 전통적 질서가 무너지고, 개항 이후 각국이 체결한 국제 조약을 토대로 한 근대적 조약 체제로 바뀌어 갔다.

제1차 아편 전쟁 이후 청에서는 외세의 경제 침탈, 막대한 전쟁 비용과 배상금 지급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었고 이에 조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농민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 무렵 홍수전은 청 왕조 타도와 평등 사회 건설, 토지 균분 등을 주장하며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켰다. 하지만 태평천국 운동은 10여년 만에 진압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은 중국변과 이홍장 등의 한인 관료를 중용하여 양무운동을 전개하였다. 양무운동은 '중체서용'을 내세워 중국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군사력과 과학 기술을 수용하여 자강을 이루려는 근대화 운동이었다. 양무운동은 근대적 군수 공장 설립, 서양식 해군 창설, 근대적 기업 설립 등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의식이나 제도 개혁 등이 뒷받침되지 못해 중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청·일 전쟁의 패배로 양무운동의 한계가 드러나자 Kangyue이와 량치차오 등은 청의 낡은 제도가 패배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변법자강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모든 분야에서 근대 개혁을 추진하여 과거제 폐지와 신교육 실시, 상공업 진흥, 입헌 군주제 도입 등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개혁은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의 반발에 부딪쳐 10여 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개항을 전후하여 막부의 개혁 방침에 반발하는 세력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막부가 천황의 허락 없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것을 문제 삼아 '존왕양이'를 내세우며 막부에 저항하였다. 하지만 막부의 탄압을 받고 서양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패하면서 서양 세력을 쫓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서양 문물 수용과 막부 타도로 방침을 바꾸었다. 결국 이들 반막부 세력은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신정부를 수립하여 변혁을 추진하였다(메이지 유신, 1868).

메이지 정부는 수도를 도쿄로 옮기고 폐번치현을 단행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였다. 징병제를 시행하여 근대적 군사 제도를 마련하고,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근대적인 토지세 제도를 확립하여 재정을 안정시켰다. 또한 철도를 부설하고 근대적 공장을 세워 상공업을 진흥하는 식산흥업 정책을 추진하였다. 신분제를 개혁하여 사민평등의 실현을 표방하였으며, 소학교를 의무 교육으로 하고 대학을 설립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이와쿠라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에 파견하였다.

이러한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봉건적 특권을 빼앗긴 사층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농민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에 메이지 정부의 일부 인사는 대외 침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한론을 내세웠으나, 내정 개혁을 중시하는 반대 세력에 의해 무마되었다. 하지만 1870년대 중반 메이지 정부는 타이완을 침공하고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는 등 대외 팽창에 나섰다.

다.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 일본에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을, 청에 영선사를 파견하여 근대 시설을 돌아보고 근대 문물 수용에 나섰다. 또 근대적 행정 기구인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별기군을 창설하여 신식 군대를 양성하였다. 하지만 개화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보수적 유생들의 위정척사 운동과 구식 군인과 도시 빈민이 일으킨 임오군란 등이 대표적이었다.

조선 정부는 청의 양무운동을 본받아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근대화를 추진하려 하였다. 하지만 김옥균, 박영효 등의 급진 개화 세력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서양의 과학 기술은 물론 근대 사상과 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급진 개화파는 청의 내정 간섭으로 개혁이 더디게 진행되자 일본의 지원을 받아 갑신정변을 일으켰다(1884). 그리고 개혁 정당 14개조를 발표하여 청에 대한 사대 관계 폐지, 신분제 폐지, 조세 제도 개혁 등의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갑신정변은 청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이후 조선의 근대화 정책이 위축되고 청의 내정 간섭은 더욱 심해졌다.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자 청과 일본은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였다. 이후 일본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였고 새 내각을 구성하게 하고 개혁을 강요하였다. 새 내각은 왕실과 정부의 분리, 신분제 폐지, 각종 폐습 타파, 태양력과 단발령 시행 등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갑오·을미개혁).

하지만 개혁이 추진되는 도중, 개혁의 급진성에 대한불만이 커졌고 일본이 내정 간섭에 반발하는 명성 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이에 많은 유생이 의병을 일으켜 저항하였고 고종이 혼란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야관 파천을 단행하면서 개혁은 중단되었다.

열강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청 정부는 '신정(新政)'을 실시하여 중단되었던 개혁을 다시 추진하였다. 신정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구화·근대화를 도모하는 일련의 개혁이었다. 청 정부는 많은 유학생과 관리를 일본에 파견하여 근대화의 경험을 배우게 하였고, 신식 군대 창설과 과거제 폐지 등을 단행하였다.

한편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의 지식인들은 입헌파와 혁명파로 나뉘었다. 입헌파는 입헌 군주제의 시행을 주장한 반면, 혁명파는 민주 공화제의 국가 수립을 주장하며 무장봉기를 추진하였다. 이 무렵 청 정부는 일본과 서양 각국을 시찰하고 입헌 준비에 나서 「홍정헌법대강」을 반포하고(1908) 의회 설립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내각이 황족을 중심으로 구성되자 입헌파는 청 정부의 입헌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청 정부의 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1911년 후베이성 우창에서 혁명파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신군이 봉기하였다(신해혁명). 이에 호응한 각 성이 봉기하여 청의 지배를 거부하고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하는 중화민국을 수립하였다(1912). 하지만 쑨원을 비롯한 혁명파는 군사 및 재정 면에서 열세였기 때문에, 공화제 시행을 조건으로 군사적 실권을 가지고 있던 위안스카이에게 임시 대총통 자리를 넘겨주었다.

메이지 정부가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나타났다. 정부의 개혁으로 부담이 늘어난 농민은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켰으며, 봉건적 특권을 빼앗긴 옛 무사 계층인 사족층의 반란도 잇따랐다. 또한 정부의 전체 정치를 비판하고 서양식 입헌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자유 민권 운동이 일어났다.

1870년대부터 시작된 자유 민권 운동은 서양식 의회 설치와 헌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메이지 정부는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점진적으로 서양식 입헌 체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헌법 제정과 의회 설치 등을 추진하였지만 동시에 자유 민권 운동을 탄압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1889년에 「대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을 제정하고 이듬해에 중의원 선거를 시행하여 제국 의회를 설립하는 등 입헌 제도의 틀을 완성하였다. 「대일본 제국 헌법」의 제정으로 일본은 입헌 군주제에 바탕을 둔 근대 국가의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대일본 제국 헌법」은 천황을 신성 불가침한 존재로 규정하고 군 통수권과 입법권 등 막강한 권한을 천황에게 부여하였다. 1890년에는 충효를 강조하는 '교육 칙어'를 공포하여 천황제를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조선의 일부 지식인은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 협회를 창립하였다(1896). 독립 협회는 문명 개화와 자주독립 사상을 선전하는 민중 계몽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만민 공동회라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에 제정 개혁과 인민의 기본권 보호, 의회 설립 등을 요구하였다. 특히 개혁적 관리와 학생, 시민이 함께 참석한 만민 공동회에서 「헌의 6조」가 결의되어 고종의 재가를 받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수세에 몰린 수구 세력은 고종을 움직여 보수 내각을 조직하고, 독립 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제를 추진한다고 모함하여 독립 협회를 강제 해산시켰다(1898).

1897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실추된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대한 제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독립 협회 해산 후 고종은 황제 중심의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해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대한 제국의 정치 체제가 전제 군주제임을 확고히 하였다(1899).

대한 제국은 일련의 개혁(광무개혁)을 통해 근대 국가를 건설하려고 노력하였다. 식산흥업 정책을 추진하여 상공업을 진흥하고 서양의 기술과 기계를 도입하여 근대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민간 자본에 의한 공장과 회사 설립도 장려하였다. 또 인재 양성을 위해 근대 학교 설립에 힘썼으며,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33. (가), (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 제2조 시모다, 하코다테 이외에 추가로 4개 장소를 개항한다.
  - 제4조 일본의 모든 수출입품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일본 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 (나)
- 제5조 프랑스인들은 다낭, 바랏, 광옌의 세 항구에서 자유로이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 베트남의 영토 할양에 관한 사안은 프랑스 황제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 ① (가) - 랴오둥반도 할양을 규정하였다.
- ② (가) - 미국의 영사 재판권을 인정하였다.
- ③ (가) - 일본의 주력함 보유 비율을 제한하였다.
- ④ (나) - 포츠머스에서 조인되었다.
- ⑤ (나) -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34. 밑줄 친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대한 영토를 가진 큰 나라가 몇 년이 지나도록 작은 나라를 물리치지 못하고 강남이 거의 함락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 전체가 이토록 떠들썩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작은 나라는 아편을 피우지도 못하게 하면서 큰 나라에 아편의 화(禍)를 전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황제께서 아편을 금지하는 엄하고 냉혹한 법을 내리니 그들의 원망이 점차 깊어져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 ① 영국과 일본의 동맹에 영향을 받았다.
- ② 청이 관세 자주권을 상실하는 원인이 되었다.
- ③ 러시아가 뤄순과 다롄을 조차하는 결과를 낳았다.
- ④ 일본이 중국에 타이완을 반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독일이 일본에 산둥 이권을 빼앗기는 배경이 되었다.

35. 다음 주장에 따라 추진된 개혁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서학을 채용하려고 한다면 광둥·상하이에 각기 번역 공소를 설치하고, 가까운 지역의 15세 이하 총명한 학생을 골라 각국의 언어와 문자를 배우게 하고, 내지의 명사를 초빙하여 경전과 사기 등을 배우게 하되 산학(算學)을 겸하여 익히도록 한다. ...(중략)... 만약 중국의 유교적 가치를 근본으로 삼고, 서양의 기술을 가지고 이를 보강한다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 ① 량치차오가 주도하였다.
- ②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 ③ 만주족의 지배에 반기를 들었다.
- ④ 조선의 온건 개화파에 영향을 주었다.
- ⑤ 일본의 존왕양이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36. 밑줄 친 '신정부'의 대외 정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천황이 참석한 가운데 페번치현\*의 조서를 읽고 있는 모습이 다. 이를 계기로 신정부는 막번 체제를 해체하였다. 나아가 지조개정을 통해 근대적 토지세 제도를 확립하여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 집권적 근대 국민 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다.

\* 페번치현 :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다.

- ① 류큐를 병합하였다.
- ② 공행을 설치하였다.
- ③ 영선사를 파견하였다.
- ④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였다.
- ⑤ 제1차 사이공 조약을 체결하였다.

11.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 운동

1880년대 들어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청은 조선에서 일어난 임오군란을 진압한 후 조선 내정에 직접 개입하였다. 일본은 갑신정변을 지원하고 청과의 전쟁에 대비해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났다. 1894년 전봉준 등이 이끄는 동학 농민군은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을 내세우며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였다. 동학 농민군 진압에 실패한 조선 정부는 청에 파병을 요청하였고, 청이 출병하자 일본도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내세워 조선에 파병하였다. 청·일 양국 군대의 개입에 위기감을 느낀 동학 농민군은 조선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한 후 전라도 일대에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전주 화약으로 청·일 양군은 더 이상 조선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졌다. 하지만 일본은 조선의 내정 개혁을 명분으로 철군을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하여 조선에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였다. 이에 동학 농민군은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봉기하였지만 우세한 화력을 앞세운 일본군과 조선 정부군에 패하고 말았다. 이후 전봉준 등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동학 농민 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은 아산만의 풍도 앞바다에서 청의 군함을 공격하였다(청·일 전쟁, 1894). 일본군은 평양 전투와 황해 해전에서 청군을 격파하고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 일부를 점령하였다.

일본의 압도적 우위로 전쟁이 끝나면서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였다(1895). 청은 조선에 대한 주권 포기, 타이완과 랴오둥반도 할양, 거액의 전쟁 배상금 지급 등을 약속하였다.

한편 청·일 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 질서가 해체되고 국제법에 따른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었다. 대한 제국과 청은 대등한 입장에서 한·청 수호 통상 조약(1899)을 체결하여 새로운 외교 관계를 형성하였고, 일본은 청을 제치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떠올랐다.

19세기는 월등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운 서양 열강이 식민지 건설을 위해 대외 팽창을 시도한 제국주의 시대였다. 일본도 청·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러시아가 일본의 세력 팽창을 견제하고 나섰다.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와 함께 랴오둥반도를 청에 반환하도록 일본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일본은 이에 굴복하였다(삼국간섭, 1895). 이를 계기로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대립하였다.

청은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일본에 지급할 배상금을 서구 열강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마련하였다. 서구 열강은 차관을 제공하는 대신 청에 여러 이권을 요구하였다. 청의 각 항구에 wh차지를 설정하고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등을 차지하였다. 일본도 서구 열강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세력권을 넓혀나갔다. 그 결과 청은 영토 주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서구 열강과 일본의 이권 침탈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크리스토프에 대한 중국인의 반감을 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 왕조를 도와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는 의화단 운동이 일어

났다. 의화단은 교회와 철도를 파괴하고 외국 공사관까지 공격하였다. 청 정부도 ‘부정명양’을 내세운 의화단을 이용하여 서구 열강에 대항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서구 열강과 일본은 연합군을 조직하여 의화단 진압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베이징을 점령하였다. 청 정부는 연합군과 신축 조약(베이징 의정서)을 체결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고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였다(1901).

삼국 간섭 이후 한반도와 만주 지배를 두고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러시아는 청으로부터 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고 뤼순과 다롄을 조차하였으며, 조선에 친러 정권이 수립되도록 지원하였다.

러시아가 의화단 운동을 계기로 만주에 군대를 주둔하고, 일본이 영국과 동맹(제1차 영·일 동맹)을 맺어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두 나라의 갈등은 증폭되었다. 결국 1904년 일본 함대가 제물포와 뤼순에서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봉천 전투와 동해 해전의 승리로 전쟁은 일본에 유리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일본은 러시아가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끌고 갈 힘이 없었다. 러시아도 국내 혁명으로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웠다. 결국 두 나라는 미국의 중재로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1905).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조선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뤼순과 다롄의 조차권과 창춘 이남의 철도 부설권도 넘겨받았다. 또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섬도 차지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한반도의 지배권과 만주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국주의 열강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일본은 러·일 전쟁 도발과 함께 대한 제국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였다. 일본군이 대한 제국에서 임의로 군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우일 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였고(1904), 곧이어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여 재정과 외교 고문을 파견해 대한 제국의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였다. 1905년에는 독도를 불법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하고,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 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대한 제국은 일본의 침략에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하였다. 지식인은 애국 계몽 운동을 벌였고, 양반 유생과 농민은 의병을 일으켰다. 고종도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일본의 침략상과 조약의 불법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대한 제국 군대를 해산시킨 후 1910년 대한 제국의 국권을 빼앗았다. 이로써 대한 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독일에 선전 포고를 하고 참전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유럽 전선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고 주로 동아시아에서 독일이 갖고 있던 이권을 빼앗는 데 집중하였다. 독일의 조차지였던 칭다오 일대를 점령하여 독일의 이권을 넘겨받고 적도 부근의 독일령 섬들도 점령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조차지를 중국에 반환한 대가로 중국에 ‘21개조 요구’를 제출하였다.

중국인들은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21개조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서양 열강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일본은 열강이 반대한 일부 조항을 제외한 요구서를 다시 제

시하고 베이징 정부를 위협하여 이를 받아들여도록 강요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 회의가 개최되자 중국은 일본에 넘어간 각종 이권을 되찾으려 하였다. 중국은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21개조 요구'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산둥반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서양 열강은 사전에 일본과 비밀 협정을 맺고,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이 독일로부터 빼앗은 각종 이권도 함께 인정하여 일본의 권익을 보장하였다. 한편 일본은 러시아 내전을 이용하여 시베리아에 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민족 자결주의가 대두하였다. 한국의 민족 운동가들은 민족 자결주의에 기대를 걸고 각지에서 독립 선언을 준비하였다.

도쿄에서는 한국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을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는 종교계 인사들과 학생들이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고 독립 만세 시위를 벌였다 (3.1 운동).

3.1 운동은 중소 도시와 농촌으로 확산하여 3개월 동안 약 200여만 명이 참가하였고, 중국, 러시아, 미국 등 해외까지 확산하였다.

일본은 군대와 헌병 경찰을 동원하여 만세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3.1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다양한 민족 운동으로 이어졌다. 민중도 3.1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사회 운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게 되었다.

신해혁명 이후 중국에서는 위안스카이가 독재 권력을 강화하면서 공화제는 형식만 남게 되었다. 이에 반발한 천두슈 등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유교를 비판하고 서양 과학과 민주주의 수용을 주장하는 신문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무렵 파리 강화 회의에서 독일이 갖고 있던 산둥 지방의 이권이 일본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인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었다. 또 한국에서 일어난 3.1 운동도 중국인의 민족의식을 자극하였다. 이에 베이징의 학생들이 텐안먼 광장에 모여 '강화 조약 조인을 거부하라.', '반드시 산둥의 이권을 회수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 (5.4 운동).

베이징 정부의 탄압에도 시위는 전국으로 퍼졌고, 상인과 노동자 등도 가담하였다. 이에 베이징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다.

5.4 운동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민중이 참여하여 그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한 움직임이었다. 또한 '밖으로는 국권을 쟁취하고 안으로는 국적(國賊)을 몰아내자.'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반제·반봉건의 이념을 내세운 사건이었다.

베르사유 조약의 체결로 국제 정세는 일시적인 안정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 대표단이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함으로써 동아시아 문제는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였다. 또 일본과 서양 열강이 해군력을 강화하여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쟁을 벌였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

열강들은 워싱턴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열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군의 군비를 축소하였다. 이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국제 관계를 워싱턴 체제라고 한다. 이 회의에 따

라 일본은 산둥반도의 이권을 중국에 반환하고 해군력 증강에 제한을 받았다. 중국은 주권과 독립은 보장받았지만 관세 자주권 회복, 조차지 반환, 치외법권 철폐 등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였다.

한편 워싱턴 체제에 대하여 소련은 극동 인민 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다 (1922). 당시 여러 약소민족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지원을 기대하며 이 대회에 참가하였고, 이를 계기로 동아시아에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퍼졌다.

192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크게 확산하였다.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것을 시작으로 일본과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조직되었다. 이 무렵 중국 국민당의 쑨원은 중국의 통일과 주권의 보호를 위해 소련의 지원을 받아들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과의 연합 전선을 제기하고 공산당원이 개인적으로 국민당에 입당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제1차 국·공 합작이 성립되었다(1924). 이후 1925년에 일어난 5.30 사건을 계기로 외세와 결탁한 군벌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이를 배경으로 쑨원이 사망한 후 실권을 장악한 장제스는 군벌을 타도하고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 북벌을 시작하였다 (1926).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 혁명군은 광저우에서 출발하여 북상하였다. 그러나 북벌 과정에서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 급기야 장제스는 1927년 4월 공산당 세력을 탄압하고 난징에 국민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로써 제1차 국·공 합작은 붕괴하였다.

국민 혁명군이 상하이를 점령하자 일본은 거류민 보호를 내세워 제 1차 산둥 침략을 감행하였다. 하지만 장제스는 북벌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일본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한 채 반공 체제를 정비한 후 북벌을 재개하였다. 마침내 국민 혁명군이 베이징을 점령함으로써 북벌을 완성하였다(1928).

국민 정부는 중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이후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의 개정에 나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국민당의 공격에 밀린 중국 공산당은 산악 지대로 이동하여 혁명 근거지를 마련하고 국민 정부에 저항하였다. 하지만 국민 정부의 탄압이 계속되자 마오쩌둥은 대장정을 감행하였다 (1934).

3.1 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공화주의를 표방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비밀 행정 조직을 갖추었다. 또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고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는 등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만주에서는 무장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많은 독립군 부대가 조직되었고,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에 큰 승리를 거두었다.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은 일본의 고위 관리를 처단하고 식민 통치 기구를 파괴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의거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 3.1 운동 이후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민족 운동 세력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었다. 민족주의 진영은 주로 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민족의 힘을 키우려는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였다. 반면에 사회주의 진영은 농민·노동자를 조직화하여 농민·노동 운동을 전개하였다.

중국에서 제1차 국·공 합작이 이루어지자 한국에서도 민족 운동의 분열을 극복하고자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단결과 기회주의 배격 등을 강령으로 내세운 신간회가 결성되어(1927) 민족 운동의 통합을 도모하였다. 신간회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국내의 민족 운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주의 진영이 민족주의 진영과의 협동 전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해소되었다. 이후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은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일본은 대공황으로 경제 불황을 맞았고 중국 국민 혁명의 확산에 따라 만주에서의 세력 약화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른 위기감으로 군부와 우익 세력이 일본의 정치 전면에 등장하였다. 이들은 정당 정치를 무너뜨리고 군사 행동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였다. 1931년 일본 관동군은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 일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푸이를 내세워 만주국을 수립하였다(1932). 국제 연맹은 만주를 점령한 일본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국제 연맹을 탈퇴하고 점령 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력행사를 계속하였다.

1937년 일본은 베이징 근처에서 일어난 루거우차오 사건을 빌미로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였다(중·일 전쟁). 3개월만에 상하이로 점령한 일본군은 수도인 난징을 비롯해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장악해 나갔다. 특히 난징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중국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난징 대학살). 일본은 중국 각지에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죽이고, 약탈하는 이른바 ‘삼광 작전’을 펼쳐 점령지를 철저히 파괴하였다.

한편 중국 국민 정부는 항일전을 위해 중국 공산당과 내전을 중단하고 제2차 국·공 합작을 이루었다(1937). 국민당 군대와 공산당 군대는 서로 협력하여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일본의 중국 점령 지역이 확대되고 미국과 영국이 중국의 항일 전쟁을 지원하면서 중·일 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1939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고 추축국의 일원이 되어 동남아시아를 침략하였다. 일본은 중·일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고자 베트남을 침공하였다. 미국은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저지하기 위해 철강, 석유 등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고 영국과 함께 중국의 항일전을 지원하였다. 이에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였다.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내세워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지역과 남태평양 일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미국, 영국, 중국 등이 연합 작전을 개시하고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 미국은 태평양의 여러 섬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일본 본토까지 공격하였다. 마침내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고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면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였다.

일본은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기 위해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식민지에 적용하였다. 또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여 황국 신민 서사 암송,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일본은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을 조직하고 징용과 징병제를 실시하여 많은 한국인을 탄광과 군수 공장에 강제 동원하고 전쟁터로 끌고 갔다. 타이완에서도 황민봉공회라는 동

원 조직을 만들고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여성 역시 강제 동원되어 군수 공장의 노동자나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또한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고자 쌀과 금속의 공출제를 실시하고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의 배급제를 시행하여 식민지 주민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였다.

일본의 침략 전쟁은 자국민에게도 큰 고통을 안겼다. 일본 정부는 여성과 학생들을 강제로 군수 공장에 보내고 징병 명령을 확대하여 많은 청·장년을 전쟁터에 보냈다. 많은 민간인이 전쟁으로 희생되었는데, 특히 전쟁 막바지에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에게 집단 자결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만주 사변을 계기로 만주의 한인 독립군과 중국군은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고 서로 연합하여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남만주의 조선 혁명군은 중국군과 위의 내용에 합의하고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고,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도 중국군과 연합 작전을 벌였다. 한국과 중국의 사회주의자들도 동북인민 혁명군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중국 관내에서는 한인 애국단 소속의 윤봉길이 일으킨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의거를 계기로 한·중 연대가 활발해졌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한국의 독립운동이 중국의 주권 수호와 직결된다고 인식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1932년에 조직된 한·중 민족 항일 동맹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인사들과 중국 국민당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기도 하였다.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김원봉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국 관내에서 조선 의용대를 조직하여 중국군과 함께 항일전을 전개하였다(1938). 이들 중 일부는 화북 지역으로 이동해 조선 의용군으로 재편되어 대일 항전을 계속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도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1940), 화북 지방으로 이동하지 않은 조선 의용대 병력을 흡수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한국 광복군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고, 미국 전략 정보처(OSS)와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서구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과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제국주의와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반제·반전 사상이 대두하였다. 러·일 전쟁 무렵 고토쿠 슈스이는 군국주의를 비판하며 전쟁에 반대하였다. 1907년에는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한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 연대 조직인 아주 화친회가 도쿄에서 창립되었다. 아주 화친회는 아시아 각 민족의 독립을 위해 상호 원조와 협력을 표방하며 반제국주의 세력의 연합을 추구하였다. 아주 화친회는 창립을 주도한 장병권을 비롯하여 고토쿠 슈스이, 조소앙, 판보이쩌우 등 동아시아 각국의 지도자와 유학생 등이 참가하여 국제 연대를 이루었다. 안중근도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여 일본의 한국 침략 포기과 한·중·일의 상호 협력 등을 주장하여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였다.

1910년 이후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한 한국인은 중국인과 다양한 연대 조직을 마련하였다. 신규식, 조소앙, 천치메이, 천리푸 등은 아시아 민족 반일 대동당을 조직하여 항일 연대 활동을 벌였다. 동아시아 무정부주의자들도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 항일 구국 연맹 등을 창설하였다.

일본에서도 한국인 유학생들이 일본인 반전 운동가들과 연대 활동을 벌였는데,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함께 벌인 반제·반전 운동이 대표적이다. 변호사였던 후세 다쓰지는 기소된 한국인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는 등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침략 전쟁이 길어지면서 중국 내 일본인의 반전 연대 활동도 전개되었다. 하세가와 데루는 상하이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매일 방송을 하였고, 일본 병사 반전 동맹은 일본군에 투항과 탈영을 호소하였다.

37. 밑줄 친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전쟁은 일본 해군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평양 전투에서 승리한 후 랴오둥반도의 뤼순을 공격하였다. 뤼순을 함락한 일본군은 부녀자와 노인을 비롯한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다. 웨이하이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미국의 중재로 강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교전국인 양국의 대표단은 일본에서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거액의 배상금을 받았고, 이후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강화되었다.

- ① 투거우차오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다.
- ② 발트 함대가 동해 해전에서 패배하였다.
- ③ 청이 일본에 타이완을 할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워싱턴 회의가 열려 일본의 군함 보유량이 제한되었다.
- ⑤ 일본이 청다오를 점령하고 산둥의 권익을 요구하였다.

38. 다음 주장을 제기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릇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을 때 우리가 희망하고 경축한 것은 세계에 정의가 있고 공리가 있다고 한 것이 어찌 아니었겠습니까? 청다오를 돌려주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밀약이나 군사 협정뿐만 아니라 기타 불평등 조약까지 취소하는 것이 바로 공리이고 정의입니다. 우리를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 같은 패전국 대열로 치부하는 것은 공리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 ① 일본의 21개조 요구 철회를 주장하였다.
- ② 학생들이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 ③ 한국에서 일어난 3·1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 ④ 중국에서 신해 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베이징의 군벌 정부가 파리 강화 회의의 결정을 거부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39.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는 신해혁명 27주년 기념일인 10월 10일 후베이성의 한커우에서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중국의 항일전쟁이 삼민주의에 입각한 신중국을 건설하는 과정이며, 조선 민족의 독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중국군과 함께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 ① 구성원의 일부가 조선 의용군 결성에 참여하였다.
- ② 양세봉의 지휘 아래 중국군과 작전을 전개하였다.
- ③ 판보이쩌우가 신해혁명의 영향을 받아 조직하였다.
- ④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연합하여 만들었다.
- ⑤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창설하였다.

40. 밑줄 친 '사건'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국제 연맹의 조사단은 5월 5일 푸이 집정을 방문해 한 시간 정도 회담을 나누었다. 조사단은 작년 9월 18일 관동군이 일으킨 사건의 진상을 물었다. 이에 대해 푸이는 즉답을 회피하며 집정에 취임한 사정과 건국의 유래를 설명하였다.

▲ 리튼 조사단 일행을 접견하는 푸이 집정

- ① 일본의 주력함 비율이 제한되었다.
- ② 독립군 부대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③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 ④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철회하라는 시위가 일어났다.
- ⑤ 조선 혁명군이 중국군과 함께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12. 서양 문물의 수용

19세기에 전래한 만국 공법은 동아시아 각국 정부로부터 주목을 끌었다. 만국 공법은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 질서와 달리 주권 국가 사이의 대등한 관계를 원칙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의 법적 근간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청과 일본, 조선은 만국 공법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청은 기존의 하이관을 유지한 채 만국 공법을 서구 열강과의 외교 실무에 이용하는 데 그쳤다. 반면에 일본은 만국 공법을 근거로 청·일 수호 조규에서 청과의 대등한 관계를 규정하였다. 또한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이 자주국임을 규정하여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하였다. 조선은 만국 공법에 규정된 상호 주권 보장 조항을 활용하여 국권을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만국 공법은 명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힘에 좌우되는 것이 제국주의 시대 국제 관계의 현실이었다. 서구 열강은 주권 평등의 원칙을 서구 국가 간에만 적용하고 비서구 국가를 비문명국, 야만국으로 간주하며 불평등한 통상 조약 체결을 합리화하였다.

사회 진화론은 19세기 동아시아에 들어온 서구 사상 중 하나로, 동아시아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회 진화론은 경쟁으로 말미암은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약자에 대한 강자의 지배를 당연시하였다. 동아시아 각국은 이러한 사회 진화론을 '우리도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자강 운동의 근거로 변형하여 수용하였다. 서구와 같은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애국심과 민족정신을 갖도록 국민을 계몽·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회 진화론은 동아시아 근대 민족주의 태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일본에서는 서양 지식인들에 의해 사회 진화론 관련 서적이 다수 번역되었다. 청에서는 중국 최초의 영국 유학생이었던 헨푸가 청·일 전쟁의 패배에 충격을 받고 사회 진화론을 소개하면서 구국의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후 사회 진화론은 량치차오에게 영향을 끼쳤다. 조선에서는 유길준과 윤치호가 사회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선 사회가 서구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회 진화론은 강대국의 약소국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논리에 이용되었다. 사회 진화론에 기반을 둔 자강론은 제국주의 비판에 소홀하였고, 오히려 제국주의 열강을 선망하면서 그 일원이 되고자 하는 소망의 근거가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일부 자유 민권론자가 천부 인권설을 버리고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자유 민권 운동을 망상이라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개인은 애국심을 갖고 천황과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 진화론은 국가주의와 결합하여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외세의 압력으로 문호를 개방한 동아시아 각국은 부국강병을 이룩하기 위해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전통 시대와 달리 교육의 기회균등 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았고, 서구의 근대 학문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각국은 서양 문물의 수용을 위해 외국어 교육 기관을 설립하였다. 청은 1862년 베이징에 동문관을 세웠다. 이를 모델로 조선은 1883년과 1886년에 각각 동문학과 육영 공원을 설립하였다. 일본에서는 게이오 의숙이 영어 교육을 담당하였다.

근대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학교 제도도 마련되었다. 일본은 1872년 소학교-중학교-대학교로 연결되는 근대 학제를 공포하였다. 1890년에는 국민의 충성심과 효심이 국체의 정화이자 교육의 근원임을 규정한 '교육 칙어'를 발표하였다. 이후 소학교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하였고, 도쿄 제국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 설립에도 힘을 기울였다. 청과 조선도 일본의 근대 학제를 본뜬 근대 교육 제도의 틀을 갖추고 학교를 설립하였다. 조선에서는 근대 학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1895년에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하였다. 청에서는 신정이 시행되면서 과거제를 폐지하는 등 각종 교육 제도를 개혁하였다. 그 밖에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학교도 근대 교육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한편 각국 정부는 인재 양성을 위해 관비 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하였다. 자비로 해외에 나간 유학생도 많았다. 일본에서는 주로 미국,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고, 청과 대한 제국에서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해외 유학생은 귀국 후 근대화 정책의 추진과 근대 문물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근대 신문은 세상 소식을 전하고 국민을 계몽하여 여론을 주도하였다. 또한 다양한 광고를 실어 소비자 확보에 영향을 끼치며 유행을 선도하였고 연재소설, 시사만화를 실어 독자를 끌어들이었다. 각국 정부는 발행 허가제, 사전 검열제 등으로 신문을 통제하고 관리하였다.

청과 일본에서는 조계지의 외국인이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소통하기 위해 신문을 발행하였다. 영국 상인이 '상하이 신보'를 발간한 이후 이를 모델로 중국어·일본어 신문이 창간되었다. 청 정부는 자국민의 신문 발행을 승인하지 않다가 20세기 초에 신문 발행을 허용하였다.

일본에서는 1870년 최초의 일간지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 발간되었다. 이후 여러 신문이 발행되었는데, 그중 반정부적인 성향을 보이는 신문은 정부의 압력으로 폐간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는 1883년에 최초로 『한성순보』가 발간되었고, 1896년에는 민간 신문이자 순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이 발간되었다. 이후 여러 민간 신문이 잇따라 창간되어 신문물과 지식을 소개하고, 국권 수호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는 등 국민 계몽과 민족 운동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여러 단체·학회 등이 다양한 잡지를 발행하였다. 잡지는 신문과 함께 사회·문화 운동, 국민 계몽 운동의 중요한 도구였으며, 학문의 연구와 전파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결성된 일본의 민간 학술 단체 메이로쿠샤가 발행한 『메이로쿠(明六) 잡지』, 청의 저명한 출판사인 상무인서관이 창간한 『동방잡지』, 대한 제국의 애국 계몽 운동 단체들이 발행한 『기호홍학회 월보』, 『대한자강회월보』 등이 대표적이다.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국민으로 키워야 한다며 여성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에서 설립한 여학교는 여성 교육의 산실이었다.

일본은 1872년 근대 학제 공포 후 여성도 초등·중등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청과 대한 제국의 여성 교육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여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점차 자국민이 세운 사립 학교가 늘었고, 정부도 여학교를 설립하면서 여성 교육이 확대되었다.

여성은 여성 단체를 만들어 여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활

동을 벌였다. 일본에서는 부인 교동회가 조직되어 일부다처와 매춘의 금지를 주장하는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중혼 금지가 법제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한 제국에서는 서울의 양반 부인들이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 교육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여권통문'을 발표하였다(1898). 또한 찬양회를 조직하고 정부에 여학교 설립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일부 보수파의 반대로 학교 설립이 거부되자 회비를 거둬 직접 순성 여학교를 설립하였다. 중국에서는 신문화 운동 이후 전통적 가족 제도의 변화, 여성 교육과 인권 문제 등이 개혁 과제로 논의되었다. 이와 같이 여성 권리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각국에서는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 연애와 결혼 등을 주장하는 '신여성'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철도는 상품 유통 촉진, 여행 문화 확산, 기술 발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서구 열강이 동아시아에 철도를 부설한 이유는 그들의 군사 침략과 경제 침탈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부국강병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 철도 건설에 나섰다. 1872년에 일본 최초로 도쿄~요코하마 간 철도가 개통되었다. 이후 각지에서 철도 회사가 생겨 노선이 확대되었다.

청에서는 1876년에 처음 철도가 부설되었다. 처음에는 열강의 군사적·경제적 침략과 풍수 문제 등으로 반대가 많았지만, 철도 부설의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을 벌인 끝에 1889년에 철도 부설을 기본 정책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철도 기술을 배워 오도록 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철도 기술자 양성 학교를 세웠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1901년 신축 조약 체결을 계기로 중국 철도는 대부분 열강의 손으로 넘어갔다.

대한 제국의 철도는 일본의 경제적·군사적 침탈에 이용되었다. 철도 용지 부근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의 땅을 철도 용지로 할양에 수용당하고 수시로 노동력과 식량 등을 제공해야 했다. 때문에 곳곳에서 일본의 강제 동원과 가혹 행위에 대한 저항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전통 사회 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어나 논밭을 갈고 해가 지면 들어와 잠을 자며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살았다. 그러나 개항 후 크고 작은 시계들이 서양 문물과 함께 들어오면서 동아시아 사람들은 시와 분을 세밀하게 구분한 근대적 시간에 접하게 되었다. 일본은 1873년, 조선은 1896년, 중국은 1912년부터 태양력을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하루를 24시간, 일주일을 7일로 하는 전국 공통의 시간을 만들었다.

동아시아 사람들이 기차를 이용하면서 근대적 시간에 맞추어 생활하는 경향이 점차 확산되었다. 열차의 출발·도착 시간을 분 단위로 표시한 기차 시간표를 보면서 시간을 분, 초까지 나누어 인식하게 되었다. 철도가 외진 마을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철길 주변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는 기차를 시간을 재는 수단으로 삼기도 하였다. 국가의 표준 시각에 따라 운행되는 철도의 영향으로 철길 주변의 지방 주민까지 시간관념을 갖게 되었다.

학교도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학생들이 생활하도록 통제하여 근대적 시간관념의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 학생들은 시간에 맞추어 등교하고 수업을 들었다. 학교 규칙과 교과서에 시간

개념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시간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는 벌을 주었다.

개항으로 국제 무역과 금융이 확대되면서 근대 도시가 성장하였다. 개항 도시에는 외국인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었고, 전신·전화·우편·신문·전차 등 근대적 통신·교통 시설이 들어섰다. 그러나 외국인이 거주하는 조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국 거주민이 강제로 밀려나는 일도 발생하였다. 또한 일 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이주해 온 이들은 신문물을 누리지 못하고 도시의 빈민층으로 어렵게 생활하였다.

청에서는 상하이, 톈진 등 개항 도시가 상거래와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하였다. 개항 도시에는 서구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과 외국 상관, 금융 기관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면서 인구도 급증하였다. 특히 상하이는 지식인과 언론인·출판인들이 대거 이주하여 활동하면서 경제·문화 중심지로도 부상하였다.

일본은 미·일 수호 통상 조약에 따라 요코하마 등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였다. 개항 도시들은 전국의 상인이 모이는 무역항으로 성장하였고 이곳을 통해 신문, 공원, 음식 등 서구 문화가 들어왔다. 한편 메이지 정부는 1872년 수도인 도쿄의 긴자에 대화제가 일어나자 긴자의 도로를 확장하고 벽돌 건축으로 서양식 거리를 만들었다.

조선에는 개항 이후 부산, 인천 등 개항장에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되었다. 그 후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성에 외국 공사관이 들어서고,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게 되었다. 대한 제국 정부가 황성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성도 점차 근대 도시의 모습을 갖추었다.

#### 41.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유라는 것, 평등이라는 것은 이상가들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천부적인 권리가 아니다. ... (중략) ... 세계에는 강자의 권리만 있을 따름이다. 강자가 늘 약자를 다스릴 뿐 다른 힘이 라는 것은 따로 없다. 그것이 진화의 가장 보편적인 원칙이다.

- ① 중국에서 변법자강 운동의 논거로 활용되었다.
- ② 한국에서 애국 계몽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 ③ 일본에서 강력한 민족 국가 수립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 ④ 베트남에서 근대 교육 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 ⑤ 동아시아에서 반전 연대 활동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42. (가), (나) 도시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1872년 청의 항구 도시인 (가) 의 조계에서 영국 상인에 의해 신보가 발간되었다. 신보는 청·프 전쟁의 현장에 특과원을 파견하여 취재하였다. 또한 다양한 광고를 실어 독자들 사이에 새로운 유행을 낳기도 하였다.
- 1872년 영국의 제정 원조를 받아 건설한 철도 개통식이 열렸다. 도쿄 신바시를 출발한 열차는 한 시간 정도를 달려 종착지인 (나) 에 도착하였다. 이날의 개통식은 서양 선진 문물의 위력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 보 기 >

ㄱ. (가) - 경사 대학당이 설립되었다.  
 ㄴ. (가) -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ㄷ. (나) - 일본 최초의 일간지가 발행되었다.  
 ㄹ. (나) - 청·일 전쟁의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3. (가)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영국이 할양받은 곳이다.
- ② 경사대학당이 건립된 곳이다.
- ③ 무로마치 막부가 세워진 곳이다.
- ④ 일본 최초로 철도가 부설된 곳이다.
- ⑤ 영국 상인에 의해 신보(申報)가 창간된 곳이다.

13.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처리와 냉전 체제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연합국은 여러 차례 회담을 열어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다. 1943년 미국·영국·중국의 수뇌부는 일본의 항복을 받아 내기 위한 군사 행동을 지속하고 일본이 탈취·점령한 지역을 되돌려 준다는 내용을 담은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였다. 1945년 2월에는 미국·영국·소련의 수뇌부가 얄타에서 회담을 열고 전후 독일의 처리 문제와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합의하였다. 5월에 독일이 연합국에 항복하자, 미국·영국·중국의 수뇌부는 포츠담 선언을 통해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강조하였다.

1945년 8월 초 일본 열도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얄타 회담에 따라 소련이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며 만주와 한반도로 진입하였다. 이에 일본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였다. 일본이 항복한 후,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각각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1948년 8월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9월 북한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선포되어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한편 연합국이 전쟁 중에 발표한 대서양 헌장에 따라 1945년 10월 국제 연합(UN)이 출범하였다. 일본을 점령한 미군은 일본의 비군사화·민주화를 목표로 군정을 실시하였다.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GHQ)는 일본의 군대를 해체하고 군국주의자를 공직에서 추방하였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의 전쟁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도쿄 재판 을 열었다.

이어서 연합국은 전후 개혁에 착수하였다. 정치 부문에서는 선거 나이를 20세로 낮추고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였으며, 지방 자치제를 도입하였다. 경제 부문에서는 전쟁 중 군수 산업으로 큰 이익을 얻은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의 부활을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였다.

지주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 개혁을 단행한 결과 자작농이 많이 늘어났으며,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을 늘려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데 성공하였다. 교육 부문에서는 전쟁을 미화하는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다(1946). 신 헌법은 신격화되었던 천황을 '주권 재민, 평화주의, 인권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일본의 상징적인 존재로만 규정하였다. 그리고 국민 주권과 기본적 인권 보장, 군사력 보유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쟁 포기를 명시하여 신헌법은 '평화 헌법'이라 불렀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소련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각 진영의 중심이 되어 체제와 이념을 둘러싸고 전개된 전후 국제 질서를 냉전 체제라고 한다. 냉전 시기 두 진영의 대립은 핵 군비 경쟁으로 이어졌다. 미국과 소련은 원자 폭탄보다 파괴력이 강한 수소 폭탄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더 많이 보유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유럽에서 본격화된 냉전은 동아시아 정세에도 영향을 주었다. 미국과 소련은 한국과 중국에서 자기 진영에 유리한 정부가 수립되도록 각각 자본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을 지원하

였다. 미국은 중국의 국민당을 지원하는 한편, 일본이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소련을 봉쇄하여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공산화되자, 미국은 공산주의가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일 정책을 변경하여 일본을 동아시아의 반공 기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앞서 시행된 민주화 정책과 상반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과거 군국주의 세력을 정계에 복귀시켰다. 또한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 재무장을 위해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였다. 당시 일본의 신문들은 비군사화·민주화에 역행하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역코스'라고 하였다.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협력하여 일본과 싸웠으나,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다시 대립하였다. 내전 위기가 고조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민당과 공산당 지도부가 평화 교섭을 벌였다. 미국은 평화 교섭을 중재하였으나 실패하고, 결국 1946년 전면적인 내전이 발발하였다.

내전 초기에는 병력과 장비 면에서 우세한 국민당군이 전쟁을 주도하였다. 국민당군은 1947년 공산당 본부가 있던 옌안을 점령하고, 만주·화북의 주요 도시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내전이 길어지면서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통화가 남발되어 물가가 폭등하였다. 게다가 관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해 점차 민심을 잃어 갔다.

반면에 공산당은 점령지에서 친일·악질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경작자가 토지를 소유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토지 개혁을 시행하여 농민의 지지를 얻었다. 또한 소련이 일본군으로부터 노획한 무기를 받아 공산당군의 화력을 강화하였다.

1947년 중반 총반격에 나선 공산당군은 1949년 초 베이징을 장악하였다. 뒤이어 국민당 정부의 수도 난징을 점령하는 등 중국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였다. 마침내 공산당은 베이징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1949. 10. 1.).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이동하였다.

1948년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남북의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동아시아를 둘러싼 냉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한반도 무력 통일을 위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애치슨 라인 발표로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이 참전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소련·중국의 동의와 지원을 받아 1950년 6월 전면 남침을 감행하였다.

전쟁 초기에는 북한이 우세하였으나 미국의 주도로 조직된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 그러나 중국군이 개입하여 북한을 지원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전선이 38도선 부근에서 교착되자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정전 협상을 시작하였고, 오랜 협상 끝에 1953년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한반도에서는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 분단이 굳어졌고, 남북 간의 이념 대결과 군비 경쟁이 심화하였다.

한편 미국은 6.25 전쟁을 계기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이끌어 내고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였다. 뒤이어 한국 및 타이완과도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유엔군에 군수 물자를 공급하면서 경제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미국의 승인 아래 무기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재무장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중국은 6.25 전쟁 참전으로 타이완 통일의 기회를 잃었다. 그러나 전쟁을 구실 삼아 공산당에 불만을

가진 세력을 숙청하였고, 사회주의 진영 안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호찌민은 하노이에서 공산주의 정부인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1945). 그러나 프랑스는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인정하는 소련·중국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미국의 대립 관계가 심화하였다.

1954년 프랑스가 허엔비엔푸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뒤이어 열린 제네바 회담으로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그리고 회담에 모인 나라들은 북위 17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삼아 베트남을 남과 북으로 분할하되, 2년 이내에 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시행하자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부의 반공 정권은 총선거를 거부하고, 남베트남만의 단독 선거를 통해 베트남 공화국을 수립하였다(1955).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을 결성하여 게릴라전을 벌이며 저항하였고, 호찌민이 이끄는 북베트남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1965년 북베트남을 폭격하고 남베트남에 전투 부대를 파견하였다. 한국도 미국 동맹국의 일원으로 전투 부대를 파병하였다. 이에 맞서 중국과 북한, 소련이 북베트남을 지원하였다.

미국이 많은 병력과 화력을 쏟아부었으나 북베트남이 격렬하게 저항함에 따라 전쟁은 장기화하였다. 더욱이 전쟁의 참혹함이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지자 미국 내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반전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결국 반전 운동과 막대한 재정 부담, 인명 피해 등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은 철군 방침을 정하여 파리 평화 협정(베트남 평화 협정)을 체결하였다(1973). 베트남 전쟁이 종결되면서 남북으로 갈라졌던 베트남은 통일되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1976).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중화민국(타이완)과 일본이 화·일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 가장 먼저 국교를 회복하였다(1952). 한국과 일본도 1952년부터 국교 수립을 위한 회담을 시작하였지만,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회담은 계속 결렬되었다.

1960년대 들어 미국은 한·일 수교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북한, 소련,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동맹의 구축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지지를 얻고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일본도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국교 정상화 논의가 이루어지자 한국과 일본에서 강한 반발

이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 없는 수교는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높았다. 일본에서는 한·미·일 삼각의 관계 강화가 결국 군사 동맹으로 이어져 평화 헌법을 위협할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반대하였다.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는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교를 수립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냉전 체제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국은 냉전 체제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군비 확장과 대외 원조, 베트남 전쟁 비용 등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

과 반전 시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던 1969년,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 닉슨이 취임하였다.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대외 정책의 원칙을 밝혔다. 이후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군대를 단계적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미국은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중지하고 군비를 줄이는 등 긴장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1969년에 핵 확산 방지 조약을 비준하였다. 1972년에는 전략 무기 제한 협정(SALT)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된 최초의 군비 제한 조약으로 데탕트(평화 공존)의 상징이 되었다.

중국은 스탈린이 죽은 뒤 자본주의 세계와 평화 공존 정책을 추진해 온 소련과 대립하였다. 1960년에 소련이 일방적으로 원조를 끊자, 중국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1969년에는 중·소 국경 지대에서 양국 군대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다.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는 한편, 경제 건설을 위하여 미국·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다. 미국도 베트남 철군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71년 국제 연합은 중화 인민 공화국을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으로 받아들였다. 동시에 타이완 정부는 중국의 합법적 정부 대표권을 상실하여 국제 연합을 탈퇴하였다. 1972년에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미·중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때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타이완이 중국 일부임을 인정하였다. 이후 양국은 1979년에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계기로 일본도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에 나섰다. 1972년에 양국 정부가 중·일 공동 성명에 조인함으로써 양국간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중·일 공동 성명에서 일본은 중·일 전쟁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표명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국가 차원의 대일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1978년 양국은 정식으로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맺었다.

한편 1972년에 일본이 중화 인민 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자, 타이완 정부는 즉각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 중국의 유엔 가입이라는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1980년대 초 비공식적으로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83년 '중국 민항기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경제 무역 관계에 국한되었던 한·중 관계가 정치·외교 관계로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90년 노태우 정부가 북방 정책을 내세워 소련과 수교하자, 이에 자극받은 중국이 한국과 민간 무역 사무소를 서로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1992년 두 나라는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였다. 6·25 전쟁 이후 적대 관계에 있던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큰 변화를 의미하였다. 반면에 40여 년간 이어져 왔던 한국과 타이완의 국교는 단절되었다. 하지만 경제·통상 등 민간 차원의 교류는 곧 재개하였다.

44. (가), (나) 성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성명이 공포된 날로부터 일본국과 중화 인민 공화국 사이의 지금까지의 비정상적 상태가 종식되었음을 선포한다.</li> <li>○ 양국 정부는 1972년 9월 29일부터 외교 관계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중략)… 1992년 8월 24일자로 상호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하였다.</li> <li>○ 양국 정부는 …(중략)… 평화 공존의 원칙에 따라 항구적인 선린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한다.</li> </ul>

- ① (가) - 동·서독 통일 및 소련 해체 후 발표되었다.
- ② (가) -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 ③ (나) - 한국에 경제 협력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④ (나) - 중국의 유엔(국제 연합) 가입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 ⑤ (가), (나) - 타이완과의 국교가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45.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일본은 타이완 및 평후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일본은 쿠릴 열도 및 일본이 1905년 9월 5일의 포츠머스 조약의 결과로써 주권을 획득한 사할란의 일부 및 이에 근접하는 여러 섬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① 일본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 ② 미·일 군사 동맹 관계를 규정하였다.
- ③ 한국과 중국이 조약 체결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 ④ 6·25 전쟁의 발발이 조약 체결에 영향을 끼쳤다.
- ⑤ 대다수 연합국이 배상 청구권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46.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외몽골이 독립을 선언했어요.
- ② 베트남 독립 동맹이 결정되었어요.
- ③ 한국에서는 건국 준비 위원회가 조직되었어요.
- ④ 소련이 국민당에 중심을 둔 대 중국 정책을 실시했어요.
- ⑤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국제 사회에 복귀했어요.

47. 밑줄 친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반도에서 발발한 이 전쟁에 참전한 미국은 군수 물자를 대량으로 일본에 발주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하기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호황에 편승하여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평균 10%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 ① 루거우차오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다.
- ②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개입하였다.
- ③ 일본이 평화 헌법을 제정하는 배경이 되었다.
- ④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
- ⑤ 중화 인민 공화국이 수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4.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뒤 경제 정책의 혼선과 물자 부족으로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이후 미·소 중심의 냉전 질서가 형성되면서,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삼고자 하는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다시 도약할 기회를 얻었다. 특히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군수 물자 공급 기지로서 산업 생산량을 늘려 전쟁 특수를 누렸다.

일본은 1955년부터 1973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이 시기의 고도성장으로 일본은 미국 다음가는 ‘경제 대국’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1951년에 미·일 안보 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 내부에서는 안보와 재무장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보수 정당들은 평화 헌법을 개정하여 군대를 창설하고 미국과의 안보 조약을 강화하려 하였다. 이러한 보수 정당의 안보 강화 시도에 맞서 1955년 사회당의 좌·우파가 통합하자, 보수 정당인 민주당과 자유당도 통합하여 자유 민주당(이하 자민당)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보수적인 자민당과 진보적인 사회당 양당이 정치를 주도하는 이른바 ‘55년 체제’가 성립하였다.

1973년과 1979년 석유 파동으로 일본 경제는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경영 합리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을 늘려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 1980년대 미국과 무역 마찰을 겪고 엔화가 폭등하자, 일본 정부는 수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를 대폭 낮추었다. 이에 일본 국민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과열되어 거품 경제를 유발하였다. 결국 1990년대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하면서 일본은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다.

한편 1970년대에 자민당과 관련하여 정경 유착에 따른 부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다. 1990년대에는 거품 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 불황으로 자민당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냉전 질서 해체 속에 사회당의 지지 기반도 약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된 1993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함으로써 비 자민당 연립 정권이 들어서 ‘55년 체제’가 막을 내렸다. 그리고 2009년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승리하여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잇따른 경제 정책 실패 등으로 정치 기반이 약해졌으며 국민의 불만도 높아졌다. 이에 자민당이 2012년 총선거에서 압승하여 정권을 되찾았다. 자민당은 이후 국가 주의를 바탕으로 두고 평화 헌법 개정 시도, 자위대 지위 강화 등 우경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아베 정부는 주변국과 다수 일본 국민의 반발에도 평화 헌법 9조의 ‘해석’을 바꿔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였다.

한국은 남북 분단과 6·25 전쟁으로 경제 혼란이 계속되었다. 특히 전쟁으로 산업 생산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어 큰 타격을 입었다. 이승만 정부는 전쟁 이전에 단행하였던 농지 개혁을 이어서 추진하는 한편, 미국의 원조 물자에 의존하여 제분·제당·섬유 등의 소비재 공업을 발전시켰다.

한편 이승만 정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장기 집권을 시도하였다. 이에 맞서 학생을 비롯한 국민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내걸고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렸다(4·19 혁명). 그러나 4·19 혁명으로 수립된 장면 정부의

민주당 정권은 국민의 통일과 민주화 여망을 실현해 보지도 못한 채 5.16 군사 정변(1961)으로 무너졌다.

군사 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연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 국내의 값싼 노동력에 기반을 둔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이었다.

1970년대에는 국가 정책에 따라 철강·조선·기계 등의 중화학 공업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중화학 공업에 대한 지나친 투자와 제2차 석유 파동으로 1970년대 말 한국 경제는 다시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을 명분으로 3선 개헌을 단행하여 장기 집권을 시도하였다. 이어 1972년 10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한 뒤,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여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킨 유신 헌법을 공포하였다.

이에 맞서 재야인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긴급 조치 철회와 박정희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창원 등지에서 유신 체제에 저항하는 학생과 시민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부·마 민주 항쟁).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권 내부의 갈등으로 10월 26일, 박정희가 살해되었다.

이로써 유신 체제가 무너지고 국민 사이에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확산하였다. 유신 체제가 무너진 후 신군부가 1979년 12월 병력을 동원하여 군사권을 장악하였다(12.12 사태). 이에 맞서 학생들과 시민은 '유신 헌법 폐지,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철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민간 정부 수립' 등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체의 정치 활동을 중지시켰다. 그러자 5월 18일 광주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비상계엄 확대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시민군을 조직하였다(5.18 민주화 운동). 계엄군은 무력으로 시민군을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고조되었다. 이에 1980년대 중반부터 학생뿐 아니라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과 학생들은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6월 민주 항쟁을 벌였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성취하였다.

한편 1980년대 한국 경제는 저유가·저달러·저금리라는 3저 호황에 힘입어 성장하였다. 이러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한국은 1990년대에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에 가입하였고, 기업은 투자 확대와 사업 확장에 몰두하였다. 이후 경상수지 적자 누적과 외채의 증가로 1997년에 외환 위기가 발생하고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과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입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는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경제 성장으로 한국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2000년대 후반 금융 위기를 겪으며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하고 타이완으로 건너간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은 1949년 이후 계속 계엄 통치를 시행하면서 경제 개발에 힘을 쏟았다. 1950년대 초반에는 통화 개혁과 함께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였다. 나아가 수출에 의한 외형적 발전보다는 국내 시장 개발과 경공업 중심으로 수입 대체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민생 안정과 장기적 경제 발전을 위해 농업 부문의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농지 개혁을 통해 토지를 얻은 농민의 생산 의욕을 높였다. 그 결과 타이완은 공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타이완은 경제 건설 4개년 계획을 차례로 시행하면서 전력·비료·방직·제강·제당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였다. 1965년 미국의 경제 원조가 중단된 이후에는 수출 촉진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 그 결과 1960년대에 타이완의 연간 실질 수출 성장률은 18.2%에 이를 정도였다. 이후 타이완은 '아시아의 작은 용'이라 불리며 신흥 경제국으로 부상하였다. 미·중 수교 이후 타이완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었지만, 정부의 투자 장려책과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갔다.

경제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타이완 국민은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비판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민당 정부가 1987년 계엄령을 해제하고 이어서 총통 직선제와 다당제를 시행함으로써 위로부터의 민주화를 원만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함께 타이완 내부에서는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과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는 국민당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그리하여 타이완에서는 경제 정책의 실패와 맞물려 양당 사이에 정권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랜 항일전과 내전으로 중국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후 중국 정부는 농업의 낙후성, 공업의 후진성,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중국 정부는 토지 개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농민 대부분을 합작사에 가입시켜 농업의 집단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주요 기업을 국유화하고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제창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의 개조를 추진하였다.

1950년대 후반에는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였다. 농업 부분에서는 대규모 수리 관개 사업 시행 등에 중점을 두고,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추구하였다. 또한 공동 생산을 위한 인민공사를 전국적으로 조직하여 전체 농가의 99%를 가입시켰다. 공업 부분에서는 재래식 용광로를 광범위하게 보급하여 철강의 증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약진 운동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농민의 생산 의욕 저하, 연속된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굶주림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류사오치 등은 집단화의 점진적 추진과 사회주의 경제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요구를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추종이라고 비난하면서 홍위병을 동원하여 반대 세력을 제거하였다(문화 대혁명).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 실패로 약해진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문화 대혁명을 이용하였다.

중국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1970년대 석유 파동을 맞으면서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냈다. 생산재 수입을 위한 외화를 제때에 획득할 수 없었고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로 대규모 국영 기업의 낭비와 부패, 비효율성이 날로 커졌다.

이에 1976년 50만여 명의 노동자가 저우언라이 추도를 명분으로 톈안먼 광장에 모여 마오쩌둥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다. 곧이어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문화 대혁명은 중단되었다. 1981년 중국 공산당은 문화 대혁명이 당, 국가, 인민에게 커다란 재난을 초래했고, 마오쩌둥이 오류를 범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새 지도자가 된 덩샤오핑은 1978년 '4대 현대화 노선'을 확정하여 이른바 '개혁·개방' 정책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에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선진 등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이후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개혁·개방의 진전에 따라 정치 개혁의 목소리도 점차 커졌다. 1989년에는 학생, 시민, 노동자 등이 대규모로 모여 민주화를 요구하였다(톈안먼 사건). 중국 정부는 이를 '폭력적 난동'으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덩샤오핑은 1992년 선전·상하이 등 남쪽 지방을 시찰하면서 시장 경제 도입과 개혁을 촉구하였다(남순강화). 이에 따라 중국은 개혁·개방에 다시 박차를 가하였다.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대대적으로 전후 복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농업 집단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개인 상공업을 없애고 사유 재산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북한은 중공업 중심의 경제 건설과 급진적인 사회주의 개조 정책에 중점을 두고 복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농공 간의 성장 불균형이 심해지자 연안과가 이를 비판하였다. 이에 김일성은 이들을 중과 분자로 몰아 제거하고 반대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다(8월 중과 사건). 이는 당내 비판 세력의 소멸을 의미하는 동시에, 김일성의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의 채택으로 이어져 농업과 경공업의 회생을 초래하였다. 나아가 김일성은 소련 등의 원조가 삭감되고 자본·물자·기술 등이 부족해지자 집단적 증산 운동이라 할 '천리마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북한은 제 1차 7개년 계획(1961~1967)을 수립하는 한편,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1972년에는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여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가 더욱 강화되었다. 1994년 김일성 사후에는 김정일이 국방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군부를 앞세워 선군 정치를 펼쳤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자 김정은이 대를 이어 권력을 장악하여 3대 세습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은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식량마저 부족해졌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몰락하자, 경제적·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놓였다. 1990년대 중반에는 흉작과 수해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다.

북한은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0년대에 남북 대화와 함께 남한과의 경제 교류에 나섰다. 금강산 개발과 개성 공단 사업 등은 대표적인 남북 교류 사업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체제 유지에 중점을 두고 핵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로 인해 남한과의 경제 교류가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도 심해지고 있다.

베트남은 오랜 전쟁으로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

다. 베트남 정부는 남부에서 토지 개혁과 농업의 집단화를 단행하면서 중공업을 우선시하는 소련 모델의 사회주의 공업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농민의 반발로 농업 생산은 오히려 저하되었다. 그 결과 집단 농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공업화 재원으로 활용하려한 계획이 실패하였다. 더구나 캄보디아 점령 및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따른 과도한 재정 지출, 미국의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1980년대 들어 중국,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베트남 정부도 1986년부터 '도이머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채택하여 시장 경제 체제의 일부를 도입하였다. 쇄신의 핵심은 국유제를 국유와 협동조합 소유, 그리고 사유의 혼합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었다.

베트남 정부는 농업의 집단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의 생산 의욕을 고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은 1989년에 이르러 만성적인 식량난에서 벗어나 식량 자급자족을 이루었다. 그뿐 아니라 1997년에는 타이,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쌀 수출국이 되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공업 부문의 발전을 위해 일본, 한국 등 자본주의 국가와 교역을 확대하고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재 부문을 중심으로 공업 생산이 증가하여 국민 생활이 향상되었다.

48. (가), (나) 사이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가) 마오쩌둥이 사망한 지 약 한 달 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4인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당권을 빼앗을 음모를 꾸며 반사회주의적인 죄를 저질렀으므로 체포한다." 이날 바로 4인방이 모두 체포되면서 문화 대혁명은 막을 내렸다.
- (나) 후야오방 사망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은 톈안먼 광장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관료는 부패하고 민주 인사들은 해외로 망명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탱크를 앞세워 시위를 진압하였다.

- ① 한국 -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 ② 중국 - 제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 ③ 일본 - 55년 체제가 붕괴되었다.
- ④ 베트남 -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 ⑤ 타이완 - 천수이볜이 총통에 당선되었다.

49. (가), (나) 문서가 작성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올해 1월 일본과 미국 사이에 재차 조인된 안보 조약에 따라 일본 영토에 장기간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군사 기지를 둘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약은 소련 및 중화 인민 공화국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소련 정부 각서 -

(나) 올해 6월 반공 투쟁을 지원해 달라는 베트남 정부의 전투 부대 파병 요청에 의거하여, 국군 1개 사단 및 필요한 지원 부대를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기간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기간까지 베트남에 파견한다.  
- 국군 부대 파병에 관한 동의안 -

- ①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 ②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 ③ 중국이 제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 ④ 타이완이 일본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였다.
- ⑤ 일·소 공동 선언에서 배상 청구권 문제가 합의되었다.

50. (가), (나) 문서가 발표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나)
<p>며칠 전 일본은 미국과 맺은 기존의 안전 보장 조약을 개정하여 상호 방위 등에 관한 안전 보장 조약을 새롭게 조인하였다. …(중략)… 이 조약은 사실상 일본의 독립을 상실시켜 외국 군대가 계속 일본에 주둔하게 한 것이다. 이에 쿠릴 열도 남부의 2개 섬을 일본에 넘기겠다는 우리 소련의 약속은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다.</p>	<p>일본과 미국 두 나라는 오키나와를 3년 뒤 일본에 반환하는 것에 관하여 기본적인 합의를 하였다. …(중략)…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중요성에 관하여 일본과 미국 양측의 입장은 일치하고 있으며,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평화 유지 기능은 앞으로도 유효하게 유지되어야만 한다.</p>

- ①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 ②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 ③ 일본에서 록히드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④ 소련이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 ⑤ 한국에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다.

15. 갈등과 화해

동아시아의 해양 영토 분쟁은 대표적으로 러·일 간의 남쿠릴 열도 (북방 도서) 분쟁, 중·일 간의 센카쿠 (중국명 다오위다오) 분쟁, 그리고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관련된 시사 (파라셀) 군도 및 난사 (스프레틀리) 군도 분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영유권 분쟁은 영토의 귀속과 배분에 대한 분쟁으로, 식민지 지배의 처리 과정이나 전후 점령지의 처리 과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영유권 분쟁은 근대 이후의 역사 문제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UNCLOS)」에 근거하여 설정된 배타적 경제 수역 (EEZ) 도 각국 간의 분쟁을 더욱 촉진하였다. 특히 근래에 해당 도서 주변 해역에 천연가스 및 석유가 대규모 매장되어 있음이 알려지면서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많은 기록에서 확인된다. 신라의 이사부가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 있던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 이곳 주민이 신라에 토산물을 바쳤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이후 여러 기록에서 독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대한 제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였다. 독도는 이미 1900년 대한 제국 정부가 반포한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삼아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 전후 영역을 무책임하게 획정한 것도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로 만들려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영향을 끼쳤다.

일본의 이러한 시도는 영유권을 둘러싼 국제법상의 분쟁을 넘어,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과 이후 전후 처리를 둘러싼 역사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본이 침탈의 과거사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때 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침략 전쟁 중 식민지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였다.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한국 여성의 수는 최대 28만 명으로 추산될 뿐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전쟁 중에 희생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귀국한 사람도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외국에 잔류한 사람도 있다. 귀국한 사람 중 상당수는 전쟁 중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불행한 삶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모집이 민간업자가 한 일로 정부나 군은 관계없다고 주장하였다. 1991년에 한국의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증언하면서 일본 국내외에서 강한 비판 여론이 일고 국제 사회의 압박이 계속되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통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은 직접 배상 등 책임 있는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 나아가 아베 정부가

일본 정부의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발언을 되풀이하여 이 문제는 한·일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메이지 유신 이후 내전 과정에서 죽은 군인 및 군속을 추앙하기 위해 건립된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의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다. 1985년 나카소네 총리가 처음으로 공식 참배한 뒤 여러 총리와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국내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교과서가 개정될 때마다 문제가 되었다. 일본 보수 세력이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역사관을 자국민에게 심으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 세력은 침략 전쟁을 반성하는 역사관을 자학 사관이라 비판하면서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은 역사 교과서를 제작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왜곡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일부 교과서에는 고대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기술되어 있거나, 일제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왜곡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에 한국과 중국은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역사 왜곡 저지 운동, 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전개하였다.

중국의 동북공정 역시 한·중 간에 역사 분쟁을 일으켰다. 동북공정의 의도는 한반도 정세 변화, 탈북자 문제에 대처하는 동시에, 소수 민족의 동요를 방지하고, 중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현재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그 영토 안에 있었던 고조선사, 부여사, 고구려사, 발해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였다. 나아가 학술적 차원뿐 아니라 유적지와 교과서, 박물관 안내문 등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일반 중국인의 인식까지 바꾸고자 하였다.

역사 대화는 지난날의 역사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삼아야 가능하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일본 정부는 약소민족에 대한 침략 전쟁을 반성하고, 일본군'위안부' 등 전쟁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전개 과정을 주제적·개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의 특성과 과제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서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국사 외에 이웃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 현존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상호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교통 및 통신의 발달,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은 동아시아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었다. 또 동아시아 국가 간에 많이 증가한 관광객은 상호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있으며, 교류의 확대는 상호 문화에 대한 공유와 이해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각국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가 폭넓게 교류되면서 상대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주최를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 간 스포츠 교류는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계 문화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이나 청소년 캠프 등을 통해 교류하면서, 역사 문제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 국민 국가 건설과 일제의 침략 속에서 배타성이 강화되었다. 현재 각국은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나, 각국 간에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외교적 문제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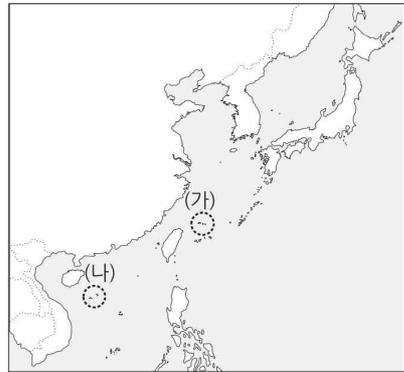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구를 넘어서 시민 사회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공동의 가치라고 할 평화·환경·상생 등을 목표로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시민 단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공동으로 노력하였으며, 태평양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도 자주 열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응하여 연대 활동을 지속해서 벌이고 있다. 각국의 학자, 교사들이 공동으로 다양한 역사 교재를 편찬함으로써 상대방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각국의 시민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동아시아 협력체를 구축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정치·외교뿐 아니라, 경제·사회·환경·문화등 전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에 대한 논의는 냉전 체제가 해체된 후 지역 공동체 구상으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동아시아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동아시아 각국 간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하나의 균형자로서, 다자간 협력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상승효과를 이끌어내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1. 영토 분쟁 지역인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 ㄱ. (가) -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ㄴ. (가) - 주변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일 간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 ㄷ. (나) -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 ㄹ. (나) - 쿠릴 열도의 섬들로, 일본이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23학년도 수능 대비 모의고사 주요 문항 정답

1	④	2	⑤	3	⑤	4	③	5	②
6	④	7	①	8	④	9	③	10	①
11	②	12	②	13	②	14	③	15	③
16	⑤	17	⑤	18	①	19	②	20	②
21	③	22	③	23	⑤	24	⑤	25	①
26	①	27	③	28	⑤	29	③	30	④
31	⑤	32	①	33	②	34	②	35	④
36	①	37	③	38	④	39	①	40	⑤
41	⑤	42	③	43	⑤	44	⑤	45	②
46	⑤	47	④	48	①	49	①	50	⑤
51	③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2015학년도 교육과정 탐구영역 배경지식

# 국어 영역 (세계사)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배점은 2점 또는 3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1 교시

국어 영역

1.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

인류가 처음 출현했던 시기부터 약 1만 년 전까지를 구석기 시대라고 한다. 이 시기에 인류는 식물의 열매와 뿌리를 채집하거나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아 식량으로 삼았다. 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 자주 이동하였기 때문에 동굴이나 막집에서 생활하였으며, 주먹도끼, 찍개, 자르개 등의 뎀석기를 사용하였다.

구석기 시대 인류는 예술 활동을 하였다. 알타미라 동굴과 라스코 동굴 등에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와 같은 조각상을 만들기도 하였다.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기온이 올라가자 숲이 늘고 동식물의 분포가 달라졌다. 새로운 자연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인류가 여러 가지 용도의 간석기를 만들면서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변화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인류는 농경을 위해 움집을 지어 정착 생활을 하고, 곡식을 저장하는 토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신석기 시대의 사회 변화를 **신석기 혁명**이라 하는데, 이는 인류가 수렵 채집 단계에서 식량 생산 단계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한다.

신석기 시대에는 돌낫, 돌괘이 등 다양한 농기구가 만들어지고,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인구도 증가하였다. 또한 벼를 파는 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다.

신석기 혁명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같이 비옥한 토양과 온난한 기후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농경이 더욱 발달하였고, 북아메리카 일부 지역처럼 땅이 척박하고 기후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수렵 채집 사회가 지속되었다.

신석기 시대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촌락이 형성되었다. 촌락의 주민들은 혈연 중심의 씨족 사회를 이루어 함께 농경과 목축에 종사하였으며, 생산물을 공평하게 분배하였다.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 농경이 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신석기인들 사이에 원시적인 형태의 종교 의식이 생겨났다. 물과 수목 등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무당을 숭배하는 사머니즘,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영혼 숭배 등이 나타났다. 신석기 시대 후기에는 거석을 숭배하기도 하였는데, 영국의 스톤헨지가 대표적인 거석 문화 유적이다.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최초의 문명이 탄생하였다. 이후 나일강, 인더스강, 황허강 유역에서도 문명이 등장하였다.

큰 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생한 것은 **농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인구 부양을 위해서는 넓은 농토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에서 물을 끌어들이어 새로운 농토를 만들었다. 또한 홍수로 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거나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관개 수로를 만드는 등 대규모 치수 사업을 전개하였다. 사업에 동원된 많은 인력을 통솔할 수 있는 지배자가 등장하였고, 농경지가 확대되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도시가 발생하였다. 도시의 지배층은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벌이며 세력을 확대하였고, 주변 지역을 통합하면서 **국가**를 성립하였다.

생산력의 발달로 **사유 재산**이 발생하였고, **정농기**의 등장으로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계급 분화가 촉진되었다. 지배 계급은 신에게 제사 지내고 조세를 징수하였으며, 이를 기록하기 위해 **문자**를 발명함으로써 인류는 역사 시대에 접어들었다.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인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르, 라가시 등의 도시 국가를 세우고 문명을 일으켰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불규칙하게 강이 범람하여 물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였다. 왕은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치수 관개 사업을 총괄하면서 신의 대리자로서 신권 정치를 행하였다. 전사와 신관은 지배층을 형성하였고 평민과 노예는 피지배층으로서 부역과 공납의 의무를 져야 했다. 잦은 홍수와 외침을 겪으면서 수메르인은 내세보다는 현세의 문제를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내세관은 『길가메시 서사시』에 잘 나타나 있다. 수메르인은 다신교를 믿어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세우고 도시 국가마다 다른 수호신을 섬겼다. 또한 천체를 관측하는 과정에서 점성술과 천문학이 발전하고 태음력과 60진법이 고안되었다. 켈기 문자로 기록을 남겼는데, 이 문자는 서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아카드인이 수메르인의 국가를 정복하였고 이어서 아무르인이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하였다. 민족은 달랐지만, 수메르인의 문화는 아카드인과 아무르인에 의해 계승·발전되었다. 특히 아무르인이 세운 바빌로니아 왕국은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왕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하고, 수메르의 옛 법을 집대성하여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는 등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국도 기원전 1500년경 히타이트인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였다.

기원전 3000년경 나일강 유역에서 이집트 문명이 발생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농경에 필요한 대규모 치수와 관개를 위해 강력한 공동체가 필요해지면서 통일 왕국이 성립되었다.

이집트인의 종교는 다신교로, 특히 태양신을 숭배하였다. 왕인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자, 살아 있는 최고신으로 여겨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신권 정치를 행하였다. 제사장과 관료들이 지배층을 형성하였고, 백성들은 대부분 예속적 농민으로서 공납을 바쳤으며 피라미드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집트는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에 정복될 때까지 이민족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아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이어지는 통일 국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안정 속에서 이집트인은 사후 세계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인간의 생사 또한 반복된다는 **영혼 불멸 사상**을 낳았다. 이에 이집트인은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사후 세계에 대한 안내서인 「사자의 서」와 함께 무덤 속에 넣었다.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으로 인하여 땅이 비옥해졌기 때문에 헤로도토스는 이집트 문명을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였다.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기 위해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태양력이 만들어졌고, 범람 후 경작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측량술과 기하학이 발전하였다. 수학이 발달하여 10진법이 사용되었고,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학도 발달하였다. 또한 파피루스에

상형 문자로 기록을 남겼다.

소아시아에 나라를 세운 **히타이트**는 기원전 16세기 말부터 철제 무기와 전차를 앞세워 주변 지역을 정복하였다. 기원전 1500년경 바빌로니아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집트와 주도권 다툼을 하는 등 세력을 확대하면서 철기 문화를 서아시아에 전파하였다.

히타이트 세력이 약화되자 기원전 12세기경 **페니키아인**과 **헤브라이인**이 활약하였다. 페니키아인은 지중해와 흑해를 무대로 해상 무역을 주도하면서 카르타고 등 많은 식민 도시를 세웠다. 페니키아인의 해상 활동으로 서아시아 지역의 문명이 유럽에 전파되었으며 이들이 상업용으로 고안한 표음 문자는 그리스에 전해져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

헤브라이인이 기원전 11세기에 세운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왕 때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그의 사후 이스라엘과 유대로 갈라져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유대는 신바빌로니아에 각각 멸망하였다. 헤브라이인은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믿는 유대교를 창시하였으며, 이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성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기원전 2500년경 인더스강 상류 펀자브 지방의 비옥한 평야 지대에서 인더스 문명이 발생하였다. 인더스 문명의 대표 유적인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는 드라비다인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도시는 벽돌로 쌓은 성벽을 두르고 포장도로와 배수 시설, 공중목욕탕, 창고 등을 갖춘 계획도시였다. 왕궁이나 신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규모가 큰 목욕탕이 곡물 창고, 회의장 건물과 함께 도시 중심부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주민들은 청동기와 그림 문자를 사용하였고 밀과 보리를 재배하였으며 물소, 염소 등을 길렀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는 서로 물길로 연결되어 왕래하였고, 메소포타미아 지방과도 교역이 이루어졌다.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1800년경부터 홍수, 수로의 변경 등으로 인해 서서히 쇠퇴하였다.

기원전 1500년경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아리아인은 힌두쿠시산맥을 넘어 북인도로 남하하였다. 이들은 펀자브 지방을 정복한 후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여 기원전 1000년경에는 갠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하였고,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여 토지를 개간하고 곡식을 재배하면서 점차 국가의 형태를 갖추어 갔다.

정복 전쟁이 잦아지면서 사제나 무사 신분이 농업, 상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큰 힘을 갖게 되었고, 정복당한 원주민들은 노예가 되었다. 이러한 정복 과정을 거치면서 아리아인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구분되는 엄격한 신분 제도인 **카스트제**를 확립하였다. 카스트제에서는 타고난 혈통으로 결정된 신분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이 정해지고 세습되었다. 브라만은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태양, 물, 불과 같은 자연 현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브라만교**를 성립시켰다. 또한 자연신에 관한 찬양과 제사 의식을 정리하여 베다를 만들었는데, 이는 브라만교의 경전이 되었다.

중국의 황허강 유역은 비옥한 황토로 덮여 있어 농경에 유리하였다. 일찍부터 신석기 문화가 발전하였던 황허강 유역의 황토 지대를 중심으로 기원전 2500년경 청동기와 문자를 사용하며 성을 쌓고 정치 조직을 갖춘 초기 국가가 나타났다. 중국 기록상에 나타난 최초의 왕조인 하 왕조는 이 시기에 세워

진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1600년경 **상**(은) 왕조는 하를 멸망시키고 은허를 중심으로 황허강 일대를 통치하였다. 청동으로 된 무기와 제사 도구를 만들고, 돌과 나무로 농기구를 제작하였다. 또한 태운력을 제작하여 제사와 농경에 이용하였다. 상은 **계정일치**의 신정 국가로, 국가의 중요한 일은 정인이라는 점술가가 점을 쳐서 신의 뜻을 물어 결정하였다. 점의 내용과 결과는 **갑골**에 새겨 기록하였는데, 이것이 한자의 원형이 되었다.

상은 지배층인 귀족과 피지배층인 평민과 노예로 구성되었으며, 평민은 대개 농민으로 국가에 공물과 요역의 의무를 졌다. 또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같이 매장하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기원전 1100년경 상을 멸망시킨 주는 호경에 도읍하고 황허강 유역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다. 창장강 일대까지 세력을 확대한 주는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왕은 직할지를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친족과 공신들을 제후로 봉하여 다스리게 하는 **봉건제**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제후는 분봉 받은 토지에서 왕과 같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대신, 왕에게 공납의 의무와 군사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주의 봉건제는 종법제와 천명사상으로 뒷받침되었다. 종법제는 직계 적장자를 중심으로 한 친족 사이의 규범으로, 봉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천명사상은 왕이 하늘의 명으로 천하를 다스린다는 사상으로, 정복 전쟁을 합리화하고 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나아가 덕이 있는 자가 천명을 받아 나라를 다스린다는 덕치주의가 강조되어 도덕과 학문에 의한 정치 체제가 발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주의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는 정전제와 함께 이상적인 통치 방식으로 인식되어 이후 중국 왕조의 통치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왕과 제후의 혈연관계가 멀어지면서 제후는 점차 왕의 통제에서 벗어났고, 그에 따라 주 왕실의 권위도 약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는 건융족의 침입을 받아 튀양으로 천도하여 동주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는 봉건제가 사실상 무너졌다.

### 1. 밑줄 친 '이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길가메시 조각상

이 문명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은 **쌌기** 문자로 쓰인 **‘길가메시 서사시’**이다. 이 서사시는 우루크의 왕 길가메시가 여러 모험을 통해서 현세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① 지구라트를 축조하였다.
- ② 마누 법전을 편찬하였다.
- ③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하였다.
- ④ 나일강 유역에서 발달하였다.
- 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를 건설하였다.

2.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미라, 한국에 오다**

○○박물관 특별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라와 관, 파라오의 화려한 부장품 등으로 구성된 이번 특별전을 통해 여러분은 나일강이 선사한 고대 **(가)** 문명의 세계와 한층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 기간 : 2017.△△.△△. ~ 2017.△△.△△.  
• 장소 : 기획 전시실



- < 보 기 >
- ㄱ. 피라미드를 건축하였다.
  - ㄴ. 사자의 서를 제작하였다.
  - ㄷ.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겼다.
  - ㄹ.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문화유산을 남긴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화유산은 카노푸스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미라를 제작할 때 몸속 장기들을 따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테베(룩소르)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① 지구라트를 건립하였다.
- ② 피라미드를 축조하였다.
- ③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하였다.
- ④ 갑골에 점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 ⑤ 모헨조다로에 계획도시를 건설하였다.

2.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기원전 8세기 건융족의 침입으로 주가 수도를 호경에서 낙읍으로 옮긴 이후 (동주), 제후들이 각지에서 득세하면서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춘추 시대에는 5패가 존왕양이를 명분으로 각축을 벌였으며, 전국 시대에는 7웅이 각기 왕을 칭하며 약육강식의 경쟁을 벌였다.

춘추 전국 시대의 **철기 보급**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고 우경이 시작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이를 배경으로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하였으며, 도진·포진 등 화폐가 유통되었다. 또한 철제 무기의 사용으로 전쟁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전쟁의 양상이 기병과 보병 중심으로 바뀌면서, 전쟁에 참여한 일반 백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관료제가 등장하고 사(士) 계층이 성장하여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풍조가 나타났다. 전국 시대 군주들은 부국강병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변법**을 실시하였다. 변법 가운데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진(秦)의 상앙이 실시한 변법이었다. 상앙은 군현제를 실시하고 호적제와 조세 제도를 확립하여 재정을 확충하였으며, 귀족의 특권을 제한하였다.

춘추 전국 시대의 제후국들은 부국강병을 위해 개인의 국적과 신분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관료로 등용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사상가와 학파가 등장하였는데, 이를 **제자백가**라고 한다.

공자의 유가는 인과 예를 중심으로 도덕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효도와 우애의 가족 윤리를 강조하였다. 공자의 사상은 맹자와 순자에게 계승되어 맹자는 성선설을,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노자와 장자의 도가는 인위적인 제도를 배제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무위자연을 주장하였다.

묵자의 묵가는 차별 없는 사랑(겸애)과 평화주의를 강조하였으며, 타고난 신분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였다. 한비자가 집대성한 법가는 군주의 권위를 강조하고 법을 제정하여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가는 당시 군주들의 환영을 받았고, 특히 진에서 변법을 추진하는 데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그 외 명가, 병가, 종횡가, 음양가 등 다양한 학파가 있었다.

춘추 전국 시대의 분열은 진에 의해 통일되었다. 진은 서쪽 변방에 위치하였지만,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국력을 기른 후 나머지 여섯 나라를 정복하고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수립하였다.

진의 왕 정은 왕의 칭호를 '황제'로 바꾸고 자신을 스스로 **시황제**라고 칭하였다. 진시황은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어 관리를 파견하는 **군현제**를 실시하고, 수도와 지

방을 잇는 도로망을 건설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그는 오랜 분열기를 거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화폐·도량형·문자를 통일하였으며, 분서갱유를 단행하여 법가 이외의 사상을 탄압하고 사상의 통일을 꾀하였다. 국가 체제를 정비한 진은 북쪽으로 흉노를 밀어내고 만리장성을 쌓았으며,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 남쪽으로는 베트남 북부까지 영토를 넓혔다.

그러나 진은 법가 사상에 따른 가혹한 형벌 집행과 만리장성, 아방궁 등의 대규모 토목 공사로 백성의 불만을 샀다. 진

시황 사후 진승·오광의 난을 비롯한 반란이 각지에서 일어나 진은 결국 멸망하였다.

진 멸망 후 항우를 물리치고 한을 세운 유방(고조)은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군국제**를 시행하여 전국을 안정시키려 하였으며, 북방의 흉노에게 물자를 제공하고 평화를 유지하였다. 이후 무제 때 제후 세력을 제압하고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동중서의 건의를 수용하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였다. 한편 무제는 대외 정책에 힘써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남월과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북으로는 흉노를 공격하고 서역의 대월지에 **장군**을 파견하여 흉노를 저지할 동맹군을 얻으려 하였다.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사막길(비단길)이 개척되어 교통로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무제는 잦은 대외 원정으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시행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군수법과 평준법을 실시하여 물가를 조절하였다. 또한 오수전을 주조하여 전국에 유통하였다.

한 무제 사후 외척과 환관의 권력 다툼으로 쇠퇴한 한(전한)은 외척 왕망에 의해 멸망하였다. 왕망은 신 왕조를 세우고(8) 대토지 소유 제한, 노비 매매 금지 등 급진적인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곧이어 광무제가 한을 다시 세우고 위양에 도움을 정하였다(후한, 25). 광무제는 한 왕조의 부흥을 꾀하고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 정책을 폈으며, 유교를 장려하였다. 그러나 후한 말기 환관과 외척의 발호에 정치가 문란해지고 호족의 대토지 소유로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이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결국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멸망하였다(220).

한 대에는 철제 농기구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농업 기술이 발달하여 농업 생산력이 매우 증가하였다. 그러나 토지 사유화의 진전으로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지방의 유력 세력인 **호족**이 등장하였다. 호족은 농민을 예속민으로 삼아 대토지를 경영하여 지역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고, 향거리선제를 통해 관료로 진출하여 중앙 정치를 주도하였다.

무제는 유교를 이용하여 황제의 권위를 강화하였다.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유교의 화이사상을 적용하여, 중국을 황제국, 주변국을 제후국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책봉 및 조공 관계를 성립시켰다. 또한 무제는 유교의 보급을 위해 교육 기관인 태학을 설치하고 오경박사를 두어 유학을 가르쳤다. 한 대의 유학은 진시황의 분서갱유로 없어진 유교 경전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경전의 자구 해석을 중시하는 훈고학이 발전하였다.

역사학에서는 기전체 방식의 사서가 등장하였는데, 전한 때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 후한 때 반고가 저술한 『한서』가 대표적인 사서이다. 후한 초 환관 채륜이 개량한 제지술로 종이 널리 보급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학문과 사상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한편 후한 초 사막길을 따라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었으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한은 400년 넘게 통일 제국을 유지하면서 춘추 전국 시대 이래 발전한 문화를 융합하여 중국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오늘날 한자, 한족과 같이 중국을 지칭하는 ‘한’이라는 글자는 모두 한에서 유래한 것이다.

후한 멸망 이후 중국은 위·촉·오의 삼국으로 분열되었다. 위를 계승한 진이 중국을 다시 통일하였으나, 황실의 내분으로

혼란이 계속되었다. 이때 북방의 다섯 민족인 5호(흉노, 갈, 선비, 저, 강)가 화북 지역으로 내려와 여러 왕조를 세우면서 5호 16국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5호에 의해 수도를 점령당한 진은 강남으로 이주하여 동진을 건국하였다. 강남 지역에서 동진에 이어 송이 건립되고,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화북 지역을 통일하면서 남북조 시대가 열렸다.

북위는 초기에 선비족의 기풍을 중시하였으나 효문제 때 중국식 통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여 제도를 정비하는 **한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효문제는 수도를 북쪽의 평성(다툼)에서 한족의 기반이었던 위양으로 옮기고 한족 성씨 사용과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하였으며 선비족의 복장·언어를 금지하였다. 아울러 군전제를 실시하여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선비족의 반발을 샀고, 효문제 사후 내분이 일어나 동위와 서위로 분열되었다. 이 시기 북방 민족이 화북 지방에서 한족과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호한 융합이 이루어졌고 이어지는 수·당 문화의 토대가 되었다.

한족이 강남으로 이동하면서 강남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 보급되고, 개간이 활발히 진행되어 강남 지방의 경제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9품중정제**가 시행되었다. 9품중정제는 각 주현에 중정관을 두어 채덕과 명망에 따라 인재를 9품으로 나누어 중앙에 추천하는 제도이다. 원래 향촌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점차 중앙의 고위 관리나 지방 유력 호족이 자신의 일족을 추천하면서 능력보다 가문이 중요해졌다. 그 결과 호족을 비롯한 지배층이 높은 관직을 세습하는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었다. 문벌 귀족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중앙 고위 관직을 독점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

남북조 시대에는 불교와 도교가 발달하였다. 한 대에 전래된 불교는 북조의 여러 왕조에 본격적으로 수용되어 왕권 강화에 이용되었다. 국가적으로 불교를 지원한 북조에서는 불경을 한자로 번역하였고 원강, 룡만 등지에 거대한 석굴 사원을 만들었다. 한편 도가 사상은 신선 사상과 융합하면서 도교로 발전하였다. 도교는 이후 하나의 교단으로 체계화되어 황실에 수용되기도 하였다.

귀족 사회가 발달한 남조에서는 노장사상과 청담이 유행하였다. 위진 남북조 시대 귀족이나 지식인 가운데 혼란한 사회에 염증을 느끼고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풍조가 유행하였는데, 죽림칠현이 대표적이다.

북주의 승상이었던 양견(수 문제)은 북주를 무너뜨리고 수를 세운 후, 남조의 진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재통일하였다(589). 수 문제는 중앙 관제를 3성 6부제로, 지방 조직을 주현제로 정비하여 중앙 집권을 강화하였다. 지방의 인사권도 중앙으로 흡수하여 9품중정제를 폐지하고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문벌 귀족 세력이 약화되었다. 또한 위진 남북조 시대 각국에서 시행된 군전제, 조용조, 부병제를 새롭게 정비하여 국가 재정과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정비된 율령 체제는 당으로 이어져 많은 영향을 끼쳤다.

문제의 뒤를 이은 양제는 남과 북을 수로로 연결하는 **대운하**를 완성하였다. 대운하는 급격히 성장한 강남의 경제력을 화북 지방과 연결함으로써 남북 간 경제 통합을 촉진하였다. 하지만 토목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의 불만이 커졌고, 대규모 군

사를 동원한 고구려 공격이 실패하면서 수는 점차 쇠퇴하였다. 이후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건국된 지 37년 만에 수는 멸망하였다 (618) .

수 말기 반란이 각지로 확산되자 장군 이연 (고조) 은 장안을 수도로 삼아 당을 건국하였다 (618) . 뒤를 이은 이세민 (태종) 은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당 제국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대외 팽창에 나서 '정관의 치'라고 일컫는 태평성세를 이룩하였다.

태종은 동돌궐과 그 지배하에 있던 서북 지방의 북방 민족을 복속하여 중국과 북방 유목민의 왕을 의미하는 '천가한'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 이어 고종은 서돌궐을 예속시키고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정복하였으며,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당은 광대한 영역을 통치하기 위해 직접 지배하기 어려운 주변 민족을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기미 정책**을 실시하였다. 정복 지역의 우두머리를 도독에 임명하여 자치를 맡기고 중앙에서 도호부를 설치하여 감독하도록 하였다. 이 정책은 당 제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책봉·조공 체제를 통해 주변국과의 안정을 꾀하였다.

당은 수의 제도를 계승하여 **율령 체제**로 국가를 운영하였다. 중앙은 3성 6부의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지방은 주현제로 운영하였다. 국가는 호적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농민에게 일정한 토지를 나누어 주는 균전제를 시행하였다. 균전을 지급 받은 성인 남자는 국가에 조용조의 의무를 지고 군대에 동원되었다 (부병제) . 당은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의 시행으로 군사력과 재정을 강화할 수 있었다.

현종 대 강남에서 농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고 대외 무역이 발전하는 등 당의 번영이 절정에 달하여, 이 시기를 '개원의 치'라고 하였다. 그러나 **절도사**의 등장과 율령 체제의 붕괴로 당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당은 넓은 영토를 수비하기 위해 도호부 대신 절도사를 설치하고 용병의 모집과 훈련을 맡겼다. 덕분에 국방력은 강해졌으나 절도사 세력의 강화로 황제권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율령 체제의 붕괴는 균전제의 동요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종 대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민에게 나누어 줄 토지가 부족해지고 토지 사유화가 촉진되었다. 균전제의 붕괴로 농민들을 부병제로 징집하기 어려워지자 당은 모병제를 실시하여 직업 군인을 모집하였다. 이로 인해 군사비로 많은 재정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부담은 농민에게 전가되었다.

현종 말년에 절도사인 안녹산과 그의 부하 사사명이 일으킨 반란(안사의 난, 755)은 당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반란을 진압하면서 중앙 정부가 약화되었고, 지방에서는 절도사가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균전제가 붕괴되어 장원제로 바뀌었고 부병제는 모병제로 전환되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조용조를 대신하여 **양세법**을 시행하였다. 양세법은 각종 세금을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되 여름과 가을에 징수한 제도로, 명 대에 일조편법이 시행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황소의 난(875)을 계기로 당은 급격히 쇠퇴하였고, 결국 절도사 주전충에 의해 멸망하였다 (907). 이후 절도사들이 서로 나라를 세워 경쟁하면서 5대 10국의 분열기가 이어졌다.

당은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실시하여 7세기 중반

동서 교역로를 확보하였다. 사막길 (비단길) , 바닷길 등 교통로를 중심으로 서역 상인들의 왕래가 활발하였고, 중국의 견직물, 도자기, 금은 세공품이 세계로 수출되었다. 이에 당에서는 국제적인 문화가 발전하였다. 당은 외국인에게 개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수도 장안에는 세계 각지의 상인, 유학생, 유학승이 모여들었다. 또한 조로아스터교 (배화교) , 마니교, 네스토리우스교 (경교) 등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도 하였으며 , 이국적인 당삼채가 유행하였다.

당 대의 불교는 선종, 정토종 등 새로운 종파가 유행하였으며, 국가의 지원을 받아 호국 불교의 성격이 강하였다. 동서 교역로의 발달에 힘입어 현장, 의정과 같은 불교 승려들이 서역과 인도를 여행하고 견문을 남겼으며, 불교 경전을 들여오기도 하였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 유행하였던 도교도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더욱 발전하였다.

당은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 이에 문학에서는 귀족의 취향에 맞는 시가 발달하여 이백과 두보가 훌륭한 시를 남겼다. 그림에서는 왕유가 산수화에 뛰어났으며, 글씨에서는 구양순이 이름을 날렸다. 유학에서는 훈고학을 집대성한 『오경정의』가 편찬되었다. 당의 문화는 주변 국가의 정치·사회·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 한자·유교·율령·불교를 요소로 하는 **동아시아문화권이**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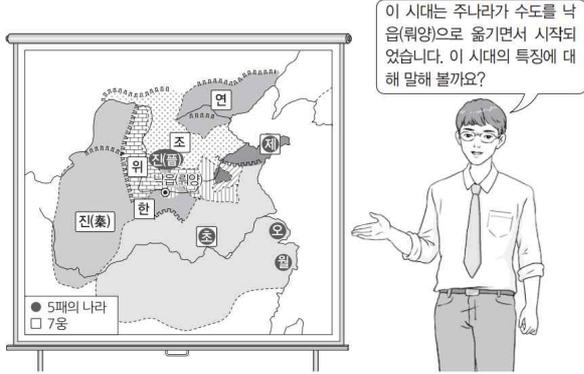
일본 열도에서는 신석기 문화의 조몬 시대를 거쳐 벼농사를 바탕으로 청동기와 철기가 사용된 야요이 시대가 전개되었다. 이후 각지에 소국들이 출현하였으며, 3세기경에는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30여 개의 소국 연합체가 형성되었다.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는 일본 최초의 통일 세력인 야마토 정권이 성립되었으며, 대형 고분이 많이 만들어진 고분 시대가 6세기까지 지속되었다. 6세기에는 한반도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으며, 이후 쇼토쿠 태자의 주도로 일본 최초의 불교문화인 **아스카 문화**가 발전하였다. 7세기 중반에는 당에 파견된 건당사를 통해 중국 문물이 수용되면서 **다이카 개신**이 일어났다. 7세기 말에는 '일본'이라는 국호와 '천황'이라는 칭호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8세기 초에는 나라 지역에 당의 장안성을 모방한 헤이조쿄 (나라) 를 세워 수도로 삼으면서 나라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율령제를 토대로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되면서 도다 이사야와 같은 대규모 사찰이 건립되었으며, 건당사와 건신라사를 통해 대륙의 문물이 활발하게 유입되었다. 또한 역사서인 『교사기』와 『일본서기』, 일본의 고전 시가를 엮은 『만엽집』이 편찬되었다.

8세기 말 수도를 헤이안쿄 (교토) 로 옮기면서 약 400년간 헤이안 시대가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는 장원을 바탕으로 귀족 세력이 성장하였다. 이 중 후지와라 집안은 대대로 황실과의 정략결혼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9세기 말 건당사의 폐지와 10세기 전반 당과 발해, 신라의 멸망이라는 정세 변화를 배경으로 외래 문물을 일본의 풍토와 기호에 맞게 소화하려는 문화가 발달하였는데, 이를 **국풍 문화**라고 한다. 한자를 간략하게 고쳐서 만든 가나가 사용되고 일본 교유의 시인 와카가 발달하였으며, 주택이나 관복 등에도 일본 교유의 특색이 나타났다.

4.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제자백가가 출현하였습니다.
  - ㄴ.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었습니다.
  - ㄷ. 맹안 모극제가 실시되었습니다.
  - ㄹ. 황제 지배 체제가 수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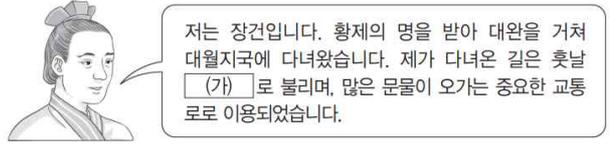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밑줄 친 '반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황제는 법가를 통치 이념으로 내세워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였다. 황제가 사망한 후에도 법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그런 가운데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 사건이 벌어졌다. 징집된 농민들이 변방 수비를 위해 목적지로 향할 때 큰 비를 만나 정해진 날짜에 도착할 수 없게 되었다. 법에 의하면, 늦게 도착해도 살 수 없고, 달아나도 살 수 없었다. 결국 이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장초(張楚)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 ① 후한 말기에 발생하였다.
- ② 진승과 오광이 주도하였다.
- ③ 원의 지배에 대항하여 봉기하였다.
- ④ 양세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5대 10국으로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6. 다음 글의 (가) 교통로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대 정화의 남해 원정로를 조사한다.
- ② 간다라 미술의 중국 전파 경로를 찾아본다.
- ③ 4세기 흉노족의 유럽 진출로를 지도에서 확인한다.
- ④ 스키타이인들의 청동기 문화 전파 경로를 알아본다.
- ⑤ 힌두교가 동남 아시아로 전파되는 경로를 조사한다.

7.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황제는 삼장제를 통해 내치를 다지고, 도읍을 뤼양으로 옮겼다. 이후 새 도읍 뤼양에서 관리들을 소집하여 엄히 질책하기를, "짐이 보건대, 부녀자의 복식이 여전히 선비족의 풍습 그대로 소매는 짧고 옷깃이 목을 조이는 모양이오. 경들은 왜 호복을 금지하라는 짐의 조칙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이오!"라고 말하였다.

- ① 균진제를 시행하였다.
- ② 천호제를 운영하였다.
- ③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였다.
- ④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
- ⑤ 황소의 난을 계기로 쇠퇴하였다.

8. 밑줄 친 '이 제도'가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조조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닦았는데, 관료가 될 만한 인물을 가문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능력의 좋고 나쁨에 따라 9품(品)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방식이 이어져 관리 임용 제도로 확립되어, 주(州)와 군(郡)의 중정(中正)이 재능을 기준으로 인재의 등급을 정하고 천거하였다. 오래지 않아 이 제도는 시행 과정에 지방 유력자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문벌 귀족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 ① 수시력을 사용하는 관리
- ② 귀거래사를 읊조리는 학자
- ③ 연극 서상기를 관람하는 마부
- ④ 절도사의 출정을 수행하는 군인
- ⑤ 시박사를 통해 대외 교역을 하는 상인

9. 밑줄 친 '건설'이 이루어진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서우승 황보의에게 명하길, 황허강 남쪽과 화이하강 북쪽에 사는 여러 군의 백성 일백여만 명을 징발하여 통제거를 건설하게 하였다. …(중략)… 화이하강 남쪽에 사는 백성 십여만 명을 징발하여 산양에서 양자에 이르러 창장강에 들어가는 한구를 건설하게 하였다. 그 옆에는 황제가 행차하는 길을 만들고 장안에서부터 강도에 이르기까지 황제가 머물 별장을 40여 곳에다 설치하였다.

-『자치통감』-

- ①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 ②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 ③ 만한 병용제를 채택하였다.
- ④ 북면관제와 남면관제를 운영하였다.
- ⑤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앙 금군을 강화하였다.

10. 밑줄 친 '반란'이 일어난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천보 4년, 양옥환은 귀비로 책봉되었다. 황제의 총애를 받은 덕분에 그녀의 친족들은 벼락출세를 하였다. 그중 재상이 된 양국충은 안녹(曠)산을 시기하여 그를 제거하려다가 안녹산의 반란을 조래하였고, 황제를 모시고 피란 가던 도중에 양귀비와 함께 죽음을 맞았다.

- ① 탈라스 전투에 참전한 군인
- ② 청명상하도를 감상하는 황제
- ③ 균전제의 실태를 조사하는 관리
- ④ 조로아스터교 사원에 가는 신도
- ⑤ 불경을 구하러 인도로 떠나는 승려

11. (가)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와카 모음집 『고킨와카슈』

(가)에는 견당사 파견이 중지되는 등 대외 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일본의 풍토와 관습에 맞는 문화가 귀족층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정형 시가인 와카(和歌)가 가나 문자로 쓰인 것이 하나의 사례이다. 훗날 국풍 문화라 불린 이 흐름은 (가)을/를 이은 막부 시대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 ① 주인공을 발급하였다.
- ② 우키요에가 성행하였다.
- ③ 헤이안쿄를 수도로 삼았다.
- ④ 이와쿠라 사절단이 파견되었다.
- ⑤ 일본서기, 고사기가 저술되었다.

## 3. 동아시아의 세계의 발전

5대 10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후주의 조광윤(태조)이 송을 건국하였다. 태조는 지방에서 실권을 행사하던 절도사의 권한을 회수하고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하여 문인의 정치적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군인 금군의 통수권을 황제가 장악하였다. 아울러 황제가 직접 과거를 주관하는 전시 제도를 시행하여 관리의 임용에도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과거제의 개편으로 가문보다 능력을 기반으로 한 사대부 계층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송의 문치주의 정책은 국방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북방 민족이 세운 요, 서하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막대한 전쟁 비용이 들었고, 이들에게 은과 비단 등을 세폐로 바쳐 재정이 악화되었다. 이에 신종은 왕안석을 등용하여 국방력 강화와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한 개혁(**신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재정적인 효과는 일부 있었으나 농민의 부담이 커졌다. 또한 이를 반대하는 구법당과 찬성하는 신법당 사이에 당쟁이 심화되었다. 요의 압박을 받던 송은 12세기 초 금과 힘을 합쳐 요를 멸망시켰으나, 곧이어 금에 화북 지역을 빼앗겨 남쪽으로 도읍을 옮겼다(남송).

10세기 초 당이 멸망하자 주변의 북방 민족이 통일 제국을 수립하고 세력을 확장하였다. 송이 문치주의 정책으로 국방력이 약화된 틈을 타 거란, 탕구트, 여진 등 북방 민족이 송을 압박하였다.

야율아보기는 거란족을 통합하여 요를 세우고(916), 발해를 멸망시켜(926) 세력을 확장하였다.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를 차지한 요는 송과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고, 송으로부터 막대한 세폐를 받았다. 요는 **이중 지배 체제**인 북면관계·남면관계를 시행하여 북방 민족과 한족을 나누어 다스렸다. 또한 거란 문자를 사용하고 『거란 대장경』을 편찬하는 등 고유한 전통문화를 유지하려 하였다.

11세기 탕구트족이 세운 서하는 동서 교역로를 장악하여 송과 대립하였다. 서하는 송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 송에 신하의 예를 취하는 대신 송으로부터 매년 많은 물품을 받았다. 서하도 **고유 문자**를 제정하여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12세기 아구다는 여진족을 통합하여 금을 건국하였다(1115). 금은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킨 후 송의 수도 카이펑을 함락하여 화북 지방을 통치하였다. 이에 송은 임안(항저우)으로 수도를 옮겼고(남송), 금에 세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었다. 금 역시 부족의 전통을 보호하기 위해 여진 문자를 사용하였고, 여진족은 맹안 모극제, 한족은 주현제를 통해 다스렸다.

송 대 화북 지역의 인구가 강남으로 이주하면서 강남 지역의 농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저습지에 제방을 두르고 그 안을 농지로 만드는 방법이 개발되는 등 개간 사업이 진행되어 농지가 많이 늘어났다. 아울러 농업 기술에도 큰 발전이 있었다. 용골차와 같은 농기구가 보급되고 인분을 사용하는 시비법이 행해졌다. 벼농사에서는 모내기법(이앙법)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베트남에서 참파 벼가 도입되었다. 참파 벼는 가뭄에 강하고 수확 시기가 빨라 강남 지방에서 한 해 두 번 수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농업 생산력의 발달로 강남 지방의 경제력이 화북 지역을 능가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인구도 매우 증가하여 처음으로 1억 명을 넘게 되었

다.

농업의 발전은 상업의 발달로 이어졌다. 상인들이 대운하를 통해 왕래하면서 다양한 생산물을 판매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시장권이 형성되었다. 또한 경제 발달과 인구 증가로 각지에 상업 도시가 성장하였다. 북송의 수도 카이펑과 남송의 수도 임안(항저우)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로 번영하였다.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화폐 사용이 증가하였다. 동전의 주조량이 늘어났으며, 교자와 회자 등의 지폐도 만들어 유통하였다. 화폐의 보급은 상업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농촌에서도 화폐가 사용되어 농산물이 상품화되는 데 이바지하였다.

송 대에는 과거제의 발달에 따라 유교적 소양을 바탕으로 관료가 된 **사대부** 계층이 성장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학문과 사상이 발전하였다. 유학에서는 남송 대 주희가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 성리학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 탐구에 집중하였으며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군신, 부자 간에 지켜야 할 도리와 대의명분을 중시하였다. 또한 북방 민족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한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화이론을 내세웠다. 이 시기에는 역사가가 대거 편찬되었는데, 특히 사마광의 『자치통감』은 시대순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편년체 역사 서술의 모범이 되었다.

송 대에는 경제 발전을 배경으로 하여 도시를 중심으로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다. 상업 활동에 대한 규제와 야간 통금 시간이 사라져 도시에는 밤낮으로 사람들이 붐볐으며, 도시 곳곳에서 서민을 상대로 한 오락 시설이 발달하였다. 카이펑이나 항저우 같은 대도시에서는 전문 공연단이 등장하여 만담·곡예·인형극·서커스 등이 성행하였다. 농촌에서도 정기 시장을 중심으로 배우들이 연극을 하였다. 맹원로가 지은 『동경몽화록』과 장택단이 그린 「청명상하도」를 통해 송 대 도시 생활의 일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13세기 초 테무친은 여러 부족이 난립하던 몽골 지역을 통합하고 쿠빌라이를 통해 **칭기즈 칸**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천호제라는 체계적인 군사·행정 조직을 바탕으로 정복 전쟁을 벌여 몽골 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칭기즈 칸 사후 여러 국가(울루스)로 분열되어 점차 독자적인 지배를 하는 느슨한 연합체로 바뀌었다. 제 2대 오고타이 칸은 금을 멸망시켰고, 뒤를 이은 칸들이 러시아와 유럽 일부 지역, 마그나드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대도(베이징)로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바꾼 후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의 전역을 장악하였다.

쿠빌라이 칸 이후 원은 황위 계승을 둘러싼 내부 분쟁에 시달려 통합력이 약화되었다. 황실이 사치를 하고,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가 유행하면서 법회를 개최하는데 국고를 소모하는 등 재정이 악화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폐인 교초를 납발하여 물가가 크게 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원은 홍건적의 난으로 쇠퇴하여 북쪽으로 밀려났다.

원은 **몽골 제일주의**에 따라 여러 민족을 구분하여 통치하였다. 몽골인은 최상층으로 국가의 중요 정책과 행정을 담당하였으며, 색목인은 대부분 상업과 회계 등 재정 관리 분야에서 활약하였다. 한인과 남인은 피지배층을 형성하였으며, 그중 남인은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다.

원은 광대한 영역을 차지하여 다양한 민족을 다스리면서 관

대한 종교 정책을 취하였다. 이에 이슬람교, 네스토리우스교(경교), 크리스티교, 라마교 등의 다양한 종교가 공존할 수 있었다. 특히 라마교는 황실의 장려에 힘입어 몽골인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라마교 승려 파스파는 몽골 문자(파스파 문자)를 만들기도 하였다. 또 이슬람 문화의 유입으로 천문학, 역법, 자연 과학 등이 발전하였다. 콰수경은 이슬람 역법의 영향을 받아 『수시력』을 제작하였고, 이슬람의 대포 제작 기술도 중국에 유입되었다.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지역을 거의 통합하여 초원길, 사막길 등 동서 교역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제국의 곳곳에 **역참**을 설치하여 중앙과 지방 각지를 연결하였다. 도로망과 역참은 원래 관리와 군대가 원활하게 왕래하기 위해 건설되었지만, 몽골 제국이 안정되면서 상인뿐만 아니라 서양의 선교사와 학자들도 이용하였다. 또한 강남의 쌀을 화북으로 운반하기 위해 대운하를 정비하여 항저우와 대도(베이징)를 연결하였다.

이 시기에는 바닷길을 통해 인도양을 거쳐 아라비아반도, 아프리카 동부에 이르는 교역이 이루어졌다. 바닷길을 통한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항저우, 취안저우 등에 설치된 시박사가 대외 무역 사무를 담당하였다. 활발한 대외 교류와 상업의 발전으로 도시가 발달하였으며 항저우와 대도가 더욱 번영하였다. 서역 상인이 자주 왕래하여 물자 교류가 활발하였으며, 화폐 사용이 늘어 교초가 널리 사용되었다.

헤이안 시대 후반에 율령제를 토대로 한 지배 체제가 쇠퇴하면서 귀족과 호족이 장원을 확대해 나갔고, 각지에서 성장한 유력자들이 무사 계급을 이루어 무사단으로 발전하였다.

12세기 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 막부를 세워 일본 최초의 **막부 정권**이 성립하였다. 천황에게서 쇼군으로 임명된 그는 무사의 토지 지배권을 보장하고 충성을 약속받음으로써 주군과 가신의 관계를 맺어 봉건제를 성립시켰다. 쇼군은 치안 유지와 장원 관리 등 그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를 가신인 무사에게 맡겼다. 가마쿠라 막부의 성립으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조정과 쇼군을 정점으로 하는 막부의 이원적 지배 체제가 형성되었다.

가마쿠라 막부는 13세기 후반 두 차례에 걸쳐 몽골의 침입을 받았다. 몽골의 침입을 막아 내면서 일시적으로 가마쿠라 막부의 지배권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전란과 전시 체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무사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이들을 기반으로 유지되던 가마쿠라 막부는 약화되었고 결국 막부 타도를 내건 천황과 유력 무사들의 봉기로 가마쿠라 막부는 붕괴되었다. 이후 천정을 실현하려는 천황과 무사 세력의 중심으로 성장한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내세운 천황이 대립하는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었다.

12. (가), (나)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서북쪽에 있던 탕구트족이 (나)을/를 세우고 황제라 칭하였다. 이 문제로 양국이 대립하면서 삼천구 전투, 호수천 전투 등을 벌인 끝에 화의를 맺었다. 주요 내용은 (나)이/가 신하의 예를 취하는 대신 (가)은/는 매년 은, 비단, 차를 주고 국경에서 교역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 ① (가) -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하였다.
- ② (가) - 부국강병을 위해 신법을 실시하였다.
- ③ (나) - 군기처를 설치하여 황제권을 강화하였다.
- ④ (나) - 인재 선발을 위해 9품중정제를 실시하였다.
- ⑤ (나) - (가)의 수도를 함락하고 화북 지역을 차지하였다.

13.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군기처가 설치되었다.
- ② 수시력이 편찬되었다.
- ③ 일조편법이 채택되었다.
- ④ 9품중정제가 실시되었다.
- ⑤ 왕안석의 신법이 시행되었다.

14. 밑줄 친 '이 제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는 이 제국의 유럽 침입을 저지하고 크리스티교를 선교할 목적으로 프란체스코회 수도사 카르피니를 사절로 파견하였다. 카르피니는 리옹을 출발하여 카라코룸 부근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이 제국의 새로운 대칸의 즉위식에 참석하였다. 그 후 교황의 복종을 요구하는 대칸의 편지를 들고 돌아왔다.

▲ 카르피니의 여행 경로

- ① 주요 도로에 역참이 설치되었다.
- ② 전례 문제로 서양 선교사가 추방되었다.
- ③ 아담 샬이 서양의 과학 지식을 소개하였다.
- ④ 마테오 리치가 곤여만국전도를 제작하였다.
- ⑤ 현장이 인도를 순례하고 불교 경전을 들여왔다.

1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일본사 다큐멘터리 제작 노트>**

제목	몽골 격퇴의 진실
촬영 일시	2015년 6월 4일
등장 인물	(가)
고증 자료 1	

- ① 물자를 납품하는 조닌
- ② 귀국 보고를 하는 건당사
- ③ 가마쿠라에 집결하는 무사
- ④ 헤이안쿄 천도를 지시하는 천황
- ⑤ 감합 무역을 위해 출항하는 상인

4.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홍건적의 난을 계기로 주원장(태조 홍무제)은 난징을 중심으로 명을 건국하였다(1368). 이어 몽골 세력을 초원 지역으로 내쫓아 한족 왕조를 부활시켰다.

홍무제는 유교 중심의 한족 문화 부흥을 추진하여 호복과 변발을 금지하는 한편, 학교를 세우고 과거제를 정비하였으며, 육유를 반포하여 백성을 교화하고자 하였다. 원 말 황폐해진 농촌을 재건하기 위해 지방의 농민을 **이갑제**로 편제하였으며, 토지 대장(어린도책)과 호적(부역황책)을 정비하여 조세와 역을 관리하였다. 또한 중서성과 재상제를 폐지하고 6부를 황제에 직속시켜 행정·군사·사법·감찰 등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되었다.

영락제는 자금성을 건설하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겨 명의 전성기를 이룩하였다. 그는 세상제 폐지를 보완하기 위해 황제를 보좌하는 내각 대학사를 설치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팽창 정책을 시행하여 몽골을 물리치고 왜구를 토벌하였으며, 베트남을 점령하였다. 또한 **정화**에게 대규모 항해를 명하여 조공 체제의 확대를 시도하였다.

영락제 사후 명의 북쪽에서는 몽골이, 남쪽에서는 왜구가 자주 침입하였고(**북로남왜**), 환관이 득세하면서 명은 쇠퇴하였다. 명 말기 이갑제가 무너지면서 내각 대학사 장거정이 일조 편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국력은 회복되지 못하였다. 임진왜란 참전, 여진족과의 전쟁 등으로 재정난이 가중되자 농민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결국 명은 이자성의 농민군이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멸망하였다(1644).

임진왜란 이후 명과 조선이 쇠퇴한 틈을 이용하여 누르하치는 팔기제를 바탕으로 여진족(만주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웠다(1616). 이후 후금은 세력을 더욱 확장하여 홍타이지(태종) 때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1636) 내몽골과 조선을 공격하였다. 순치제 때 명이 멸망하자 만리장성을 넘어 베이징을 점령하고, 이후 중국 전역을 장악하였다.

청은 강희제, 옹정제를 거쳐 건륭제 때에 전성기를 누렸다. 강희제는 삼번의 난을 진압하고 중국 지배를 공고히 하였다. 또한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제압하고, 시베리아에 진출한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 국경을 안정시켰으며 외몽골과 티베트를 복속시켰다.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하여 모든 정책의 결정권을 황제에게 집중시켰다. 뒤를 이은 건륭제는 청의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건륭제 말기부터 농지가 부족하여 백성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나타났다. 건륭제 퇴위 이후에는 백련교의 난이 일어나 청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청은 만주족·한족·몽골족 등 다양한 민족을 아우르기 위해 융합 정책을 펼쳤다. 만주족의 우위를 전제로, 군현제를 통해 한족을 직접 지배하고 티베트·몽골·신장 등 주변부와 소수 민족은 토착 지배자를 이용하는 간접 지배를 시행하였다. 만주 문자를 만들어 고유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편, 한자·몽골어·티베트어 등을 공용어로 사용하는 포용 정책을 펼쳤다. 청은 조선, 베트남 등 주변 국가와 책봉·조공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하였다.

청은 중국을 통치하며 한족에게 강압책과 회유책을 함께 썼다. 만주족의 변발을 호복을 강요하고, 만주족을 비난하거나

오랑캐로 여기는 서적을 모두 금서로 지정하는 등 가혹한 탄압(문자의 옥)을 하였다. 동시에 유교 문화를 존중하여 과거 제를 그대로 시행하고, 중요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임명하였다(만한 병용제). 또한 지배층이었던 신사층의 특권을 인정하여 사회의 안정을 꾀하였으며, 이전에 편찬된 책을 경(유학)·사(역사)·자(사상)·집(문학)으로 분류하여 『사고전서』를 간행하는 등 대규모 편찬 사업을 벌여 한족 문화를 보존하고 청 왕조 비판을 통제하려 하였다.

명·청 시대에는 **신사**가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신사는 전·현직 관리를 포함하여 주·부·현의 공립학교 학생과 졸업생 등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계층이었다. 그러나 과거 응시 자격자가 증가하면서 과거 시험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관직 진출을 포기하고 향촌 사회에서 백성 교화, 치안 유지, 공공업, 세금 징수 등에 참여하는 신사가 늘어났다.

신사는 요역 면제, 조세 감면, 가벼운 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 등의 특권을 가졌으며, 청 대에도 이러한 특권을 그대로 인정받았다. 신사는 토지를 차지하여 지주층이 되었고, 고리대와 세금 납부 대행 등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농민을 억압하기도 하였다.

한편 농업과 상공업 등의 경제 발전으로 부유한 서민층이 등장하였고, 학교 교육이 확대되어 서민층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소작료 납부 거부 운동(항조)을 일으키거나, 과도한 세금 요구에 반발하여 투쟁(적용의 변)을 벌이기도 하였다.

명·청은 농업 생산을 장려하여, 명 대에는 창장강 종류 지방, 청대에는 창장강 상류 지방인 쓰촨 지역까지 쌀 생산이 확대되어 곡창 지대로 개발되었다. 더불어 신대륙에서 고구마·감자 등의 새로운 작물이 들어와 식량 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차·면화·담배·사탕수수 등 상품 작물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재배되었다. 농업 생산량 증가에 따라 인구도 많이 증가하였다.

송 대 대표적인 쌀 생산지였던 창장강 하류 지방은 도자기를 비롯하여 면직업·견직업 등 수공업 생산의 중심지로 변모하였다.

농업과 수공업의 발전은 상업의 발달을 촉진하여 전국에 수많은 중소 도시와 정기 시장이 등장하였고, 산시 상인·취저우 상인 등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상인이 등장하였다. 상인들은 동업 조합(공소), 동향 조합(회관)을 세워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명은 국초에 사적인 해외 무역을 제한하는 해금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주변국과는 책봉·조공 관계를 유지하였다. 영락제 때 정화의 항해를 통해 조공 무역의 범위가 일시적으로 확대되어 동남아시아는 물론 멀리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가 명에 조공하기도 하였다. 명 후기에 해금 정책은 점차 완화되어 사무역이 증가하였다.

청도 초기에는 명의 부흥을 꾀하는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해금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강희제 때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평정한 후 이를 해제하였다. 상인의 해외 진출을 허용하는 한편, 유럽 상인에게는 광저우에 설치된 공행을 통해서만 교역을 허용하였다.

16세기 유럽 상인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교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당시 유럽에서 중국산 차와 도자기 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물품의 판매 대금으로 막대한 양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이로 인해 명의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화폐로서 은의 가치가 높아져 농촌에서까지 은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확대되었다. 명 말기에 잡다한 항목을 통합하여 지세와 정세를 은으로 납부하는 **일조편법**이 시행되었다. 청 대에는 세제를 더욱 단순화하여 정세를 지세에 통합하여 은으로 한꺼번에 징수하는 **지정은제**가 시행되었다. 그 결과 세제가 안정되고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명은 원 대 북방 민족의 풍습을 없애고, 한족의 전통문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성리학(주자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관학으로 정립하였다. 영락제는 『사서대전』, 『오경대전』, 『영락대전』 등의 유교 경전을 편찬하여 학교 교육과 과거 시험에 활용하였다. 명 중기 이후 왕승인은 형식화된 주자학을 비판하며 **양명학**을 제창하였다. 양명학은 마음이 곧 하늘이 부여한 이치(심즉리)라 주장하며 실천을 강조하는 지행합일을 내세웠다. 16~17세기에는 상공업 발달을 배경으로 실용과 국가 경영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장하는 실학(경제치용학)이 발전하면서 『천공개물』, 『본초강목』 등이 편찬되었다.

명 말 청 초에는 문헌에 근거한 실증적 연구에 집중하는 고증학이 발전하였다. 청은 한족 지식인을 회유하기 위해 『강희자전』, 『사고전서』 등 서적을 편찬하는 한편, 청에 대해 비판적인 사상은 철저히 탄압하였다. 이에 학자들은 현실 정치와

관련이 없는 고증학 연구에 더욱 매진하였고, 금석학·갑골학 등을 발전시켜 학문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청 중기 이후에는 고증학을 비판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현실 인식 및 개혁을 강조하는 공양학이 등장하였다. 또한 명·청 시대에는 새로운 서양 문물이 유입되어 천문학, 과학, 수학 등의 실용 학문이 발전하였다.

명·청 시대에는 상공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여 도시 인구가 늘었으며 서민 계층의 도시 생활과 소비문화가 발달하였다. 경제력을 갖춘 서민이 문화의 주 소비층으로 성장하여 이들이 즐길 수 있는 구어체 소설과 희극이 출판되었다. 인쇄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서적이 보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문화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비롯하여 『수호전』, 『홍루몽』 등이 유행하였다. 서민들이 여가를 즐기면서 대중적인 오락거리인 곡예, 잡기, 마술을 공연하는 종합 예술 연극이 큰 인기를 끌었다. 연극은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널리 유행하였으며, 특히 청 대에 베이징을 중심으로 성행한 경극은 노래·대사·춤·무예가 종합된 공연 예술이었다.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교토에 개창한 무로마치 막부는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 때 남북조를 통일하고 전국적인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왜구 단속을 약속한 대가로 **감함 무역**을 활발히 하였다.

15세기 후반에 쇼군의 후계자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 막부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100여 년에 걸친 전국(센고쿠) 시대가 전개되었다. 전국 시대에는 다이묘들이 막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패권 쟁탈전을 벌였다.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에 나섰으나 실패하였다. 그가 죽은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장악하고 에도에 막부를 열었다.

에도 막부 시기에는 쇼군이 중앙과 각지의 직할지를 지배하였으며, 지방의 다이묘들은 번이라고 불리는 영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쇼군의 막부와 다이묘의 번으로 구성된 일본의 지배 체제를 **막번 체제**라고 한다.

에도 막부는 엄격한 법규와 산킨코타이제를 통해 다이묘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한편, 천황과 귀족을 정치에서 배제하여 중앙 집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엄격한 신분제를 실시하여 무사 계급이 농민과 조닌(상공업자)을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에도 막부 시대에는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전국적인 도로망이 정비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여 각지에 도시가 발달하였다. 이에 따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력을 갖춘 조닌층이 성장하여 **조닌 문화**로 불리는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유로웠던 조닌층은 점차 문화의 주체로 성장하였고, 이들의 문화는 다른 사회 계층으로 퍼져 나갔다.

조닌 문화가 발달하면서 통속적인 주제의 문학 작품과 가부키라는 연극이 등장하여 인기를 끌었으며, 대도시에는 가부키를 공연하는 전용 극장이 들어섰다. 그림에서는 일상 생활이나 풍경 등을 묘사한 우키요에가 발달하였다. 우키요에는 목판에 새겨 대량으로 인쇄되어 서민들도 부담 없이 살 수 있었다.

한편 서양 상인들과 함께 선교사들이 들어와 크리스티교를 전파하자 에도 막부는 통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크리스티교를 금지하고 대외 무역을 통제하는 쇄국 정책을 취하였다. 다만 서양 국가 중 네덜란드에만 나가사키를 개방하여 무역을 허용하였다. 이에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 서양의 의학, 천문학, 조선술 등이 들어와 퍼졌는데, 이를 토대로 발전한 서양 학문을 **난학**이라고 한다.

16. 밑줄 친 ‘항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유대하가 말하였다. “그의 항해는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인과 백성을 희생시켰습니다. 영락제의 명령으로 항해가 처음 시작된 이래, 귀한 보물을 얻어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국가에 어떤 이익이 있었습니까! 이에 대한 기록을 폐기하여 다시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엄중간, 『수역주자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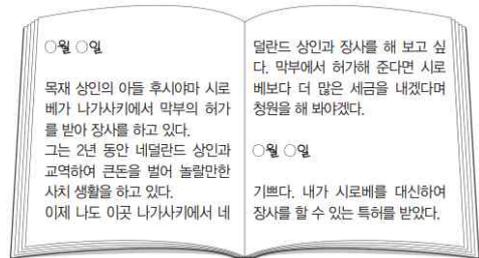
- ① 담배가 아시아에 유입되었다.
- ② 명 중심의 조공 체제가 확대되었다.
- ③ 제지술이 이슬람 세계에 전파되었다.
- ④ 이븐 바투타가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 ⑤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17. 밑줄 친 ‘우리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4한국을 세워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 ②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과 싸웠다.
- ③ 북로남왜의 침입으로 재정 곤란을 겪었다.
- ④ 몽골, 타이완, 티베트, 신장을 복속시켰다.
- ⑤ 북방 민족의 침략으로 수도를 임안(항저우)으로 옮겼다.

18. 다음 가상 일기에 나타난 시기 일본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 ① 헤이안쿄로 수도를 옮겼다.
- ② 상공업자 중심의 조닌 문화가 발달하였다.
- ③ 미국, 영국, 러시아 등에 시찰단이 파견되었다.
- ④ 일본 고유의 국풍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 ⑤ 폐번 치현의 지방 행정 제도 개편이 시작되었다.

5.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과 이슬람 세계의 형성

티그리스강 상류에서 일어난 아시리아는 기원전 7세기 전반에 철제 무기와 우수한 기마병을 이용하여 서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을 통일하였으며, 한때 이집트까지 정복하였다. 아시리아는 직할지에 총독을 파견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등 중앙 집권을 강화하였으나, 강압적인 통치에 대한 피정복 민족의 반발로 멸망하였다.

아시리아의 멸망 이후 분열된 서아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 다시 통일되었다. 다리우스 1세는 대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전국을 20여개의 속주로 나누어 총독을 파견하고, '왕의 눈', '왕의 귀'로 불린 감찰관을 보내 감시하였다. 또한 '왕의 길'로 불리는 도로를 건설하고 역참을 정비하였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피지배 민족에게 공납을 받는 대신 그들의 전통과 신앙을 존중하는 관용 정책으로 제국을 통치하였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중앙 집권적인 통치 질서와 조로아스터교를 비롯한 문화는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어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그리스 세계와 벌인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하고 총독들의 반란이 일어나 점차 쇠약해지다가 기원전 4세기 말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였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이후 서아시아 지역에는 이란 계통의 파르티아가 등장하였다. 파르티아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로마와 중국의 한, 인도의 쿠산 왕조를 연결하는 동서 무역로를 장악하여 중계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로마와의 대립으로 쇠퇴하다가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멸망하였다(226).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내건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4세기 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로마 제국과 끊임없이 대립하였으나 사막길과 바

닷길을 이용한 동서 교역의 요충지를 장악하여 중계 무역으로 번성하였다. 로마 제국의 분열 이후 비잔티움 제국과의 계속된 전쟁과 왕실 내분으로 쇠퇴하다가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 세력에 멸망하였다(651).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서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으며, 조로아스터교와 불교, 크리스트교 등 외래 종교를 융합한 마니교도 나타났다. 또한 아랍어와 췌기 문자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였다.

6세기 이전까지 아랍인은 주로 유목 생활을 하며 오랫동안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부족 단위로 생활하였다. 이 시기 아라비아반도는 동서 교역로에서 벗어난 변두리 지역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6세기경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기존의 교역로를 대신하여 아라비아해와 홍해를 지나는 새로운 교역로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에 아라비아반도의 메카, 메디나 등의 도시가 번성하였다.

이 무렵 메카의 상인인 무함마드가 유일신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교를 창시하였다. 그는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신 앞의 평등을 강조하여, 소수의 상인이 부를 독점하여 빈부 차로 고통받던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무함마드는 메카를 지배하던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메디나로 피신하였다(헤지라, 622). 메디나에서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어 세력을 키운 무함

마드는 메카를 탈환하고 아라비아반도 각지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무함마드가 사망한 후 이슬람 공동체는 정치·종교의 지도자인 칼리프를 선출하였다. 1대부터 4대까지는 칼리프가 선출되었는데, 이 시기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한다. 이 시기에 이슬람 세력은 비잔티움 제국의 군대를 물리치고 시리아와 이집트를 정복하였으며, 사산 왕조 페르시아까지 멸망시키는 등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칼리프 선출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제 4대 칼리프 알리가 살해되었다. 이후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가 칼리프가 되었으며 그의 아들이 칼리프를 계승하였다. 이로써 정통 칼리프 시대가 끝나고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의 자리를 세습하는 우마이야 왕조가 성립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이슬람 세력은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우마이야 왕조는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고 정부 활동을 계속하여 동쪽으로는 인더스강 유역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를 거쳐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로써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이 성립하였다. 이 시기에는 시리아 지역 아랍인이 중용되었는데, 이들이 중심이 된 아랍인 우월주의는 다른 아랍 세력과 비아랍인의 불만을 샀다. 결국 이러한 불만 세력과 시아파의 도움을 받아 아바스 가문이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아바스 왕조를 세웠다(750).

아바스 왕조는 새로운 수도로 바그다드를 건설하였으며, 오늘날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였다. 아바스 왕조는 비아랍인을 군인이나 관료로 등용하고 세금 제도에서도 차별을 없앴으로써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범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당과의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동서 교역로를 장악하여 경제적으로도 번영하였다.

그러나 아바스 왕조는 정치적 내분과 지방 세력의 성장 등으로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주변 이민족의 침입으로 9세기 중엽부터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결국 아바스 왕조는 정치적 실권을 잃고 칼리프의 명맥만 유지하다가, 13세기에 몽골 세력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한편 우마이야 왕조의 일족이 이베리아반도에 후우마이야 왕조를 세웠다(756). 후우마이야 왕조는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여 경제적 번영을 누렸으며, 학문과 문예를 장려하였다. 수도인 코르도바는 이베리아반도 최대의 경제적·문화적 중심 도시로 성장하였다. 이 무렵 발달한 이슬람의 학문과 과학은 에스파냐와 유럽의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후우마이야 왕조는 1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력이 쇠퇴하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무너지고, 이후 이베리아반도에는 다수의 작은 이슬람 국가들이 수립되었다.

10세기 초에는 시아파가 북아프리카에 파티마 왕조를 세우고 카이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파티마 왕조가 아바스 왕조의 권위를 부정하고 칼리프를 칭하자 후우마이야 왕조도 칼리프를 칭하면서 한동안 이슬람 세계에는 3명의 칼리프가 병립하기도 하였다.

이슬람 사회에서 『쿠란』은 종교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역할을 하였다.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부 지역에 일부다처가 허용되기도 하였으며,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식습관이 형성되었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활동

이 강조되었다.

이슬람교도는 원칙상 신 앞에 평등하지만, 이슬람 제국이 발전하면서 우마이야 왕조 때까지는 아랍인이 우대를 받았다. 그러나 아바스 왕조 때부터는 민족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이슬람교도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페르시아인, 튀르크인 등 비아랍인의 정치적·문화적 참여가 증가하였다.

이슬람교는 상업 행위를 긍정적으로 여겼으며 국가적으로도 도로망을 정비하는 등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하였다. 이에 이슬람 세계에서는 상인이 성장하고 도시가 발달하였다.

이슬람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통로에 자리하고 있어서 육로와 해로를 통한 동서 교역이 활발하였다. 육로로는 내륙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까지 왕래하였고, 해로로는 지중해는 물론 인도양을 거쳐 중국의 동부 해안까지 왕래하였다. 이들은 비단, 금·은, 향신료 등을 거래하여 막대한 이익을 차지하였다.

이슬람 세계가 아라비아반도를 넘어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면서 아랍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이집트, 그리스와 로마, 페르시아와 인도 등 동서 세계의 문화를 종합한 이슬람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랍어로 된 『쿠란』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슬람교와 아랍어를 공통 요소로 하는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쿠란』의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학이 발달하였으며, 신학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이 아랍어로 번역되었다. 문학 작품으로는 여러 지역의 설화를 모은 『아라비안나이트』가 널리 읽혔다.

건축에서는 둥근 지붕(돔)과 아치, 뾰족한 탑을 특징으로 하는 **모스크**와 함께 학교, 병원 등이 세워졌으며, 우상 숭배를 금지한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식물의 줄기와 잎을 기하학적 무늬로 배합한 **아라베스크 무늬**가 많이 사용되었다.

한편 이슬람 세계에서는 페르시아와 인도의 영향을 받아 자연 과학이 발달하였다. 특히 천문학, 화학, 의학 등의 수준이 매우 높았으며, 수학에서는 인도에서 숫자 영(0)의 개념을 도입하여 아라비아 숫자를 완성하였다. 탈라스 전투 때 잡혀온 중국의 제지 기술자들이 보급한 종이는 학문 연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이슬람 문화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국으로 퍼졌으며, 특히 유럽에 전해져 중세 유럽 문화와 르네상스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이슬람 세계가 확대되면서 중앙아시아의 튀르크인이 서아시아에 등장하였다. 이들은 처음에 이슬람 세계에서 노예나 용병으로 활동하였으나 점차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슬람 세계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11세기 중엽에는 셀주크 튀르크가 바그다드에 입성하여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술탄**이라는 칭호를 수여받고 정치적 실권을 위임받았다. 셀주크 튀르크는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후 예루살렘을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여 비잔티움 제국과 대립하였는데, 이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빌미가 되었다. 결국 셀주크 튀르크는 장기간 계속된 십자군 전쟁과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으로 약화하다가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14세기 후반에 칭기즈 칸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티무르가 중앙아시아의 여러 유목 집단을 통합하여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하는 **티무르 왕조**를 세웠다. 티무르는 남쪽으로 아프간 지방과 이란 방면으로 진출하고 인도의 델리 술탄 왕조를 침공하였으며, 서쪽으로는 오스만 제국을 **앙카라 전투**에서 제압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티무르는 이슬람 세계의 수호자로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명분과 몽골 제국의 재건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유라시아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티무르가 명을 정복하려 가던 도중에 죽은 뒤 세력이 점차 약화되다가 우즈베크인에 의해 멸망하였다. 티무르 왕조는 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동서 무역을 독점하여 번영하였으며, 페르시아 문화와 튀르크 문화를 융합하여 이슬람 문화의 발달에 이바지하였다.

티무르 왕조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여러 세력이 대립하던 중 16세기 초에 이란 지역에서 이스마일 1세가 사파비 왕조를 세웠다.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은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의 군주 칭호인 '샤'를 사용하는 등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계승을 내세웠다.

사파비 왕조의 전성기를 이룩한 아바스 1세는 수도를 이스파항으로 옮기고 각지에 도로, 다리, 상인들의 숙소를 건설하는 등 경제 부흥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파비 왕조는 왕실 내부의 갈등과 혼란, 아프간족의 침입 등으로 점차 쇠퇴하다가 멸망하였다.

셀주크 튀르크가 몽골의 침입으로 무너진 뒤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소아시아에 국가를 수립하였다(1299). 오스만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으로부터 소아시아 대부분을 빼앗았으며, 14세기 말에는 유럽에 진출하여 발칸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술탄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비록 15세기 초 티무르에게 앙카라 전투에서 패하여 타격을 받기도 하지만, 곧 체제를 정비하여 메호메트 2세 때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하고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삼았다(1453). 이 도시는 **이스탄불**로 불리었다. 이후 셀림 1세 때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키고 북아프리카까지 진출하여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 시기에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칼리프의 칭호까지 획득하여 수니파 이슬람 세계의 최고 지배자로 군림하였다.

오스만 제국은 **슬레이만 1세** 때 전성기를 누렸다. 그는 헝가리를 정복하고 오스트리아의 빈을 포위 공격하였으며, 유럽의 연합 함대를 무찔러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오스만 제국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동서 교역의 교차로에 위치하여 여러 지역의 다양한 물자와 문물이 흘러들어와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다양성을 누렸다. 이는 다른 민족과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의 영향도 컸다. 오스만 제국의 문화는 이슬람 문화의 바탕 위에 비잔티움 문화, 이란 문화, 튀르크 문화 등 동서 문화가 융합되어 발전하였다.

19.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주요 도시 이해**

파사르가다에    수사    페르세폴리스

(가)의 다리우스 1세가 건설한 페르세폴리스는 크세르크세스 1세 때 이르러 더욱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현존하는 유적의 알현실에는 박트리아, 리디아 등 당시 주변국의 사신들이 공물을 바치는 모습의 부조가 남아 있어 왕조의 번영을 엿볼 수 있다.

▲ 페르세폴리스 유적지 평면도

- ① 쿠산 왕조와 교역하였다.
- ② 밀레트 제도를 시행하였다.
- ③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④ 알렉산드로스에게 정복되었다.
- ⑤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다.

20.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계사 신문

**(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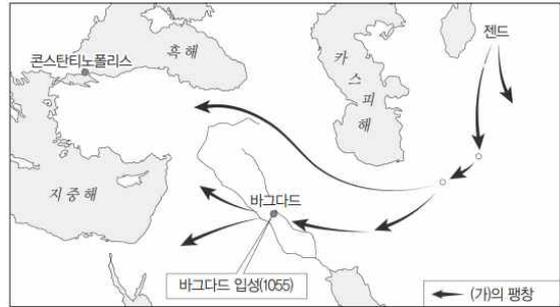
**이슬람 군대, 이베리아반도 장악**

수도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가) 이/가 이베리아반도를 장악했다. 무사 빈 누사이르가 이끄는 (가)의 군대가 서고트 왕국을 멸망시키고 피레네산맥 남쪽까지 진출한 것이다. 이제 산맥 너머 서유럽 크리스티교 세계의 중심지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정복 활동의 주역, 무사 빈 누사이르

- ① 몽골 제국 부흥을 내세웠다.
- ② 칼리프의 지위를 세습하였다.
- ③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하였다.
- ④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
- ⑤ 탈라스에서 당의 군대를 격퇴하였다.

21. (가) 민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칼리프 선출제를 시행하였다.
- ② 이베리아반도를 정복하였다.
- ③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였다.
- ④ 당과의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⑤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얻었다.

22. 밑줄 친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 메호메트 2세와 운명을 함께 하는 전우들이여! 그동안 비잔티움인들은 적대감을 드러내며 우리 제국에 악행을 일삼아 왔다. ...**(중략)**...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자. 이 도시는 금은보화로 가득 찬 보물 창고와도 같다. 알라의 보호 아래 용맹한 그대들이 세계의 중심인 이 도시를 차지할 것이다.

- ① 아랍인 우월주의를 내세워 통치하였다.
- ② 탈라스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 ③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받았다.
- ④ 이교도를 개종시켜 친위 부대인 에니체리를 창설하였다.
- ⑤ 칭기즈 칸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티무르에 의해 건국되었다.

## 6. 인도의 역사와 다양한 종교·문화의 출현

기원전 7세기 무렵 갠지스강 유역에서는 철기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고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와 군사를 담당한 크샤트리아와 생산을 담당한 바이샤 세력이 성장하였다.

이 시기에 브라만교의 형식화된 제사 의식과 브라만 사제의 횡포와 타락, 카스트제의 계급 차별을 비판하는 여러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를 배경으로 기원전 6세기경에 고타마 싯다르타와 바르다마나가 각각 불교와 자이나교를 창시하였다. 불교는 욕심을 버려야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자이나교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금욕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고 있던 인도는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드로스의 침입 이후 혼란해졌다.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이 혼란을 수습하여 마우리아 왕조를 세우고 북인도를 통일하였다.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왕** 때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 지역을 통일하여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아소카왕은 전국에 감찰관을 파견하고 칙령을 새긴 석주를 세우는 등 중앙 집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불교에 귀의하여 불경을 정리하고 산치 대탑과 같은 스투파(탑)를 세우는 등 불교를 장려하였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사절과 승려를 파견하는 등 포교에 힘써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좌부 불교**가 스리랑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전파되었다.

아소카왕이 죽은 뒤 마우리아 왕조는 내부 분열과 이민족의 침략으로 급속히 쇠퇴하고 인도는 다시 여러 세력으로 분열되었다. 1세기 중엽에 서북 인도에서 이란 계통의 쿠산 왕조가 들어서면서 북인도가 다시 통일되었다. 쿠산 왕조는 중국의 후한과 서아시아의 파르티아를 연결하는 동서 교역로를 장악하고 중계 무역으로 번영하였다. 로마와도 바닷길을 통해 교역하였다.

쿠산 왕조는 **카니슈카왕** 때 간다라 지방을 포함한 최대 영토를 확보하여 전성기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카니슈카왕 사후 점차 약화되다가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 인더스강 서쪽 지역을 상실한 채 4세기까지 펀자브 지역을 중심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다.

쿠산 왕조의 카니슈카왕 때 불교는 큰 변화를 겪었다. 독실한 불교 신도였던 카니슈카왕은 불경을 모으고 중앙아시아와 티베트, 중국 등으로의 포교를 지원하는 등 불교 전파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카니슈카왕의 노력으로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하는 **대승 불교**가 발전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인간으로서 '깨달은 자'를 의미하던 부처는 점차 초월적인 존재로 신격화되면서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에 간다라 지방에서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간다라 미술**이 발달하였다. 간다라 미술은 부처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 불상을 만들었던 대승 불교의 확산으로 널리 전파되었다.

쿠산 왕조가 쇠퇴하면서 분열되었던 서북 인도 지역은 4세기 초에 찬드라굽타 1세가 굽타 왕조를 세우면서 통일을 이루었다. 굽타 왕조는 찬드라굽타 2세 때 북인도 대부분을 차지

하고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대제국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대의 무역이 발달한 서부 인도의 항구 도시들을 장악하여 동쪽의 벵골만과 서쪽의 아라비아해에 이르는 동서 해상 무역을 독점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굽타 왕조는 에프탈의 침입과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으로 쇠퇴하다가 6세기 중엽에 멸망하였다.

굽타 왕조 시대에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불교 및 다양한 민간 신앙이 융합된 **힌두교**가 발전하였다. 힌두교도는 지역에 따라 창조신 브라흐마, 유지신 비슈누, 파괴신 시바 등 다양한 신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굽타 시대의 왕들은 권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을 비슈누에 비유하면서 힌두교를 후원하였다. 토착적 성격이 강한 힌두교는 백성들에게도 쉽게 수용되어 인도의 민족 종교로 발전함으로써 지역적·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힌두교가 발전하면서 브라만의 지위와 영향력이 높아졌고, **카스트제**가 인도 사회에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시기의 카스트제는 신분에 의한 구별(바르나)에서 직업에 의한 구별(자티)로 변화가 나타났다. 아울러 각 신분이 지켜야 할 의무를 강조하며 차별을 합리화하여 정치적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카스트제의 의무를 강조한 『마누 법전』은 힌두교도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굽타 시대에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토대로 문학, 예술, 과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인도 고전 문화의 황금기를 이룩하였다. 특히 문학, 미술 등의 분야에서 인도 고유의 색채가 강조되었다.

문학에서는 산스크리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면서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하였다. 인도의 전설과 설화를 담은 서사시인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가 오늘날의 형태로 정리되었으며, 시인이자 극작가인 칼리다사는 「샤쿤탈라」라는 희곡을 썼다.

미술에서는 인도 고유의 특색을 살린 **굽타 양식**이 나타났다. 굽타 양식의 불상과 벽화를 많이 볼 수 있는 아잔타 석굴, 불교·힌두교·자이나교 사원이 함께 조성된 엘로라 석굴 등이 대표 유적이다. 굽타 양식의 신상은 불룩 튀어나온 머리와 몸에 밀착된 얇은 옷을 통해 신체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특징으로, 중국과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의 불교 미술에 영향을 주었다.

굽타 시대에는 수학, 천문학 등 자연 과학도 발달하였다. 당시 인도인들은 10진법과 함께 숫자 영(0)의 개념을 사용하여 아라비아 숫자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아리아바타는 원주율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의 둘레를 추산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구가 둥글고 자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행성의 운행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지식은 이슬람 세계에 전해져 천문학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서아시아에서 일어난 이슬람 세력은 8세기경부터 인도에 진출하였다. 본격적인 인도 침략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튀르크족이 세운 이슬람 왕조에 의해 전개되었다.

10세기 말부터 아프가니스탄의 가즈니 왕조는 여러 차례 인도에 침입하여 펀자브 지역을 차지하였다. 12세기에는 구르 왕조가 인도를 침입하여 한때 북인도 지역의 대부분을 지배하였다. 두 왕조의 인도 침입은 이후 이슬람 세력이 인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13세기 초에 구르 왕조의 복속된 출신인 아이바크가 델리를 수도로 이슬람 왕조를 세웠다. 이후 300여 년 동안 북인도 지역에는 힌두 세력의 끈질긴 저항 속에서도 델리를 수도로 이슬람 계통의 다섯 왕조가 이어졌는데, 이를 **델리 술탄 왕조**라고 한다.

델리 술탄 왕조는 힌두교도를 탄압하고 힌두교 사원과 신상을 부수기도 하였으나 인도인에게 이슬람교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힌두교도는 지즈야(인두세)만 부담하면 자신의 종교를 믿을 수 있었다.

델리 술탄 시대에는 인도에 이슬람 문화가 널리 퍼졌다. 이슬람 학자와 예술가들에 의해 아랍과 페르시아의 학문과 예술이 전해지면서,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어우러져 독특한 문화가 성립하였다.

16세기 초에 티무르의 후손으로 알려진 바부르가 아프가니스탄 방면에서 북인도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그는 북인도 지역을 장악한 뒤 델리를 중심으로 이슬람 왕조인 무굴 제국을 수립하였다.

무굴 제국은 바부르의 손자 **아크바르 황제** 때 크게 발전하였다. 아크바르는 데칸고원 이남을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통일하였다. 그는 관료제와 지방 행정 기구를 정비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황제의 명령이 지방에까지 골고루 미치도록 하였다. 또한 힌두교도를 이슬람교도와 차별없이 관료로 임명하였으며, 다른 종교 신자에게 부과하는 지즈야(인두세)를 폐지하고, 혼인 동맹을 통해 힌두 세력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중앙 집권화 정책과 관용적인 종교 정책은 이후 무굴 제국이 크게 번영하는 토대가 되었다.

17세기 후반에 **아우랑제브 황제**는 데칸고원을 넘어 인도 남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무굴 제국 최대의 판도를 이루었다. 그러나 잦은 정복 활동으로 재정이 악화되었고, 이슬람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지즈야를 부활시키고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는 등 이교도 탄압을 강화하여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에 편자브 지방의 시크교도와 중부의 힌두교도인 마라타족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서양 여러 나라가 인도에 침투하여 세력을 확장하면서 무굴 제국은 더욱 쇠퇴하였다.

무굴 제국 시기의 인도는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하여 델리, 아그라 등 인구 2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곳곳에 등장하였다. 특히 직물 생산이 발달하여 수출품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상인들은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인도양 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쌓았다. 그러나 15세기 말부터 포르투갈인이 인도에 온 이래,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상인들이 향신료를 찾아 인도양 무역에 진출하여 세력 다툼을 벌이면서 점차 이들이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델리 술탄 왕조와 무굴 제국의 지배를 거치면서 인도에는 이슬람 문화가 널리 확산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전통적인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인도·이슬람 문화**가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은 종교나 언어, 예술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종교에서는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융합하여 성립된 **시크교**가 편자브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시크교는 우상 숭배와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을 반대하며 유일신에 대한 믿음과 인간 평등을 주장하였다.

무굴 제국 시기에 공식 문서나 외교 용어로는 페르시아어가 사용되었지만, 그 밖에는 아랍어와 인도 고유의 언어 등이 더

해진 **우르두어**가 사용되었다.

회화에서는 전통적인 인도 양식과 페르시아의 세밀화가 조화를 이룬 **무굴 회화**가 발달하였다. 건축에서는 인도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을 보여 주는 왕궁과 성, 모스크 등이 많이 만들어졌다. 아그라성과 델리의 붉은성, 타지마할 등이 유명하다.

23.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유물은 (가)의 아소카왕을 모델로 하여 중국 남북조 시대에 제작되었다. 중국에서는 아소카왕을 아육왕이라 불렀으며, 전륜성왕의 화신으로 이해하였다. 아소카왕은 부처의 가르침에 따를 것을 강조한 조칙을 새긴 석주를 만들어 각지에 세웠다.

- ① 시크교가 출현하였다.
- ② 샤쿤탈라가 저술되었다.
- ③ 타지마할이 조성되었다.
- ④ 쿠티브 미나르가 세워졌다.
- ⑤ 상좌부 불교가 발달하였다.

24.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왕조 시대의 문화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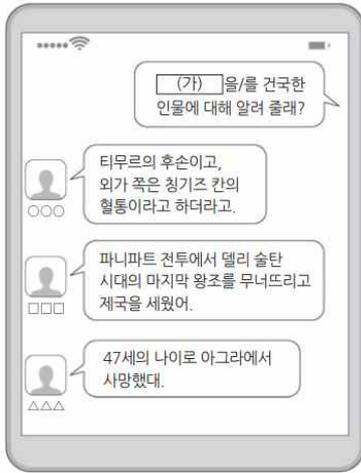
모듬별 발표 주제

- 1 모듬 - 『마누 법전』과 카스트 제도
- 2 모듬 - 산스크리트어 문학의 세계, 『라마야나』
- 3 모듬 - 0의 개념과 십진법, 이슬람 과학에 끼친 영향
- 4 모듬 - (가)



- ① 헬레니즘 문화의 유입
- ② 우르두어의 언어 체계
- ③ 아소카왕의 종교 정책
- ④ 아우랑제브 시기의 힌두교
- ⑤ 아잔타 석굴 사원과 불교 신앙

25. (가) 제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샤쿰탈라가 저술되었다.
- ② 자이나교가 출현하였다.
- ③ 우르두어가 사용되었다.
- ④ 쿠티브 미나르가 건립되었다.
- ⑤ 우파니샤드 철학이 등장하였다.

26. (가), (나)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 타지마할을 건립하였다.
- ② (가) - 티무르 제국을 창건하였다.
- ③ (나) - 지즈야를 부활시켰다.
- ④ (나) -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렸다.
- ⑤ (가), (나) - 마라타 동맹의 반란에 직면하였다.

7. 고대 지중해 세계

에게해 지역에 성립된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 파괴된 후, 그리스 세계에서는 오랫동안 암흑기가 이어졌으나, 기원전 10세기 이전부터 폴리스(도시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는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산지가 많아 오랫동안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리스인은 해안에서 가까운 평야 지대에 촌락을 형성하고 방어를 위해 높은 언덕에 성벽을 쌓고 요새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폴리스로 발전하였다. 그리스인은 폴리스 단위로 나누어 생활하였지만, 같은 언어와 종교를 공유한다는 동족 의식이 강하였다. 다른 민족과 구별하여 스스로 '헬레네스'라 불렀으며, 4년마다 올림피아 제전을 열어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다.

아테네는 처음에는 왕정이었으나, 점차 귀족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여 귀족정으로 바뀌었다. 기원전 7세기경부터 상공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부유해진 평민들이 중무장 보병으로 군대의 주력이 되면서 정치적 권리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기원전 6세기 초 솔론은 재산 정도에 따라 시민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참정권을 차등 분배하는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솔론의 개혁은 귀족과 평민 모두의 불만을 샀고, 혼란한 상황을 틈타 참주가 나타나 정권을 장악하였다.

기원전 6세기 후반 클레이스테네스는 참주를 몰아내고 다양한 개혁안을 펼쳐 민주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혈연 중심의 부족제를 거주지 중심의 부족제로 개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500인 평의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참주의 출현을 예방하기 위해 **도편 추방제**를 마련하였다.

스파르타는 도리스인이 원주민을 정복하고 세운 폴리스로, 정복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한 자는 예속 농민(헤일로타이)으로 삼았으며 종속적인 지위를 감수한 자는 반자유민(페리오이코이)으로 삼아 상공업을 맡겼다.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군사 제도에 바탕을 둔 엄격하고 폐쇄적인 사회 제도를 유지하였다. 모든 성인 남자 시민은 혹독한 군사 훈련을 받고 통제된 집단생활을 하였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지중해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그리스와 충돌하였다 (**페르시아 전쟁**, 기원전 492). 세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중심이 된 그리스는 페르시아를 물리쳤다.

전쟁 이후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강력한 해상 제국으로 발전하였으며, **페리클레스**의 지도 아래 민주 정치의 전성기를 맞았다. 이 시기의 아테네는 성인 남자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가 입법권을 가졌고 가난한 시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 수당이 지급되었다. 또한 장군과 같은 특수직을 제외한 나머지 관직과 배심원직은 추첨으로 뽑힌 시민이 공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여성, 거류 외국인, 노예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한편 델로스 동맹이 아테네의 이익을 우선하는 동맹으로 변질하자 이에 불만을 가진 폴리스들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맺고, 아테네에 맞서 전쟁을 일으켰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원전 431). 전쟁 중에 페리클레스가 병사하고 아테네의 민주 정치가 무너지면서 스파르타가 승리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테베가 스파르타를 무너뜨렸

며, 혼란에 빠진 그리스 세계는 결국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에 정복되었다.

그리스인은 폴리스를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리스인은 다신교를 믿었으며 신들도 인간의 모습과 감정을 가진 존재로 여겼다. 이러한 신들의 이야기는 문학과 예술의 소재가 되었다.

문학에서는 호메로스가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라는 서사시를 저술하였으며, 기원전 5세기에는 연극이 널리 유행하면서 아이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와 같은 비극 작가와 아리스토파네스와 같은 희극 작가가 이름을 떨쳤다. 건축과 조각에서는 조화와 균형을 갖춘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걸작이 만들어졌다. 역사에서는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역사』를 저술하여 ‘역사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다룬 『역사』를 저술하였다.

그리스인의 합리적인 태도는 철학을 발전시켰다. 처음에는 만물의 근원에 대해 연구하는 자연 철학이 발전하였으나, 기원전 5세기경에는 **소피스트**가 나타나 철학의 관심을 인간과 사회로 돌렸다. 수사학과 변론을 가르치는 소피스트는 진리의 상대성을 추구하였다. 이에 맞서 **소크라테스**는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하였다. 플라톤은 이상 국가론을 제시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가르치며 여러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를 정복한 후 페르시아 원정을 계획하던 중 암살당하였다. 뒤를 이어 즉위한 알렉산드로스는 동방 원정을 단행하여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하였다. 이어 중앙아시아와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하여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그의 원정 활동으로 지중해에서 인도에 이르는 동서 교역로가 확대되었다.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부터 헬레니즘의 전통을 계승하였던 이집트가 로마에 정복당할 때까지 약 300년간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한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통치 체제를 받아들여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면서도 피정복민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였다. 그는 정복지 여러 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여 그리스인을 이주시키고,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혼인을 장려하는 등 **동서 문화의 융합**에 힘썼다. 이후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세계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제국은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분열되었다.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지역에서 융성한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한다.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되어 나타난 문화로, 폴리스 중심의 배타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세계 시민주의적**인 성향을 띠었다.

헬레니즘 문화의 이러한 특징이 잘 반영된 분야는 철학이다. 욕망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스토아학파**와 개인의 행복을 위해 마음의 안정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에피쿠로스학파**가 유행하였다. 스토아학파는 이후 로마로 전파되어 많은 영향을 끼쳤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자연 과학도 발달하였다. 물리학에서는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였고, 수학에서는 에우클

레이데스가 기하학을 발전시켰다. 천문학에서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자오선을 측정하였고, 아리스타르코스는 태양 중심설을 주장하였다.

예술에서는 「밀로의 비너스상」, 「라오콘상」 등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조각 작품이 등장하였다. 헬레니즘 미술은 동서 교역로를 따라 북인도에 전파되어 간다라 미술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

로마는 기원전 8세기 중엽에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도시 국가에서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에트루리아 출신 왕의 지배를 받는 왕정이었으나, 기원전 6세기 말에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로마의 공화정은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는 2명의 집정관과 자문 기관인 원로원, 그리고 시민이 모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민회가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었다.

공화정 초기에는 귀족이 권력을 독점하였으나, 상공업의 발달로 부유해진 평민들이 중무장 보병으로 군대의 주력이 되면서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였다. 당시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군사력이 필요했던 로마 귀족들은 평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호민관직과 평민회를 설치하였다. 이어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리키니우스법으로 집정관 2인 중 1인은 평민 중에서 선출되었고, 호르텐시우스법으로 평민회의의 결 사항이 원로원의 동의 없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기원전 3세기에 로마의 평민은 법률상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로마는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여 기원전 3세기 전반에 이탈리아반도를 통일하였다. 이후 서부 지중해 일대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카르타고와 충돌하여 세 차례에 걸쳐 **포에니 전쟁**(기원전 264~기원전 146)이 일어났다. 로마는 카르타고 장군 한니발의 공격으로 한때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스키피오의 활약으로 이를 극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서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정복하고 오늘날의 터키 일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하는 등 지중해 대부분을 지배하게 된 로마는 새 정복지를 속주로 삼고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로마의 대외 팽창 과정에서 유력자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 (**라티펀디움**)을 경영하였다. 반면 지역 농민층은 토지를 잃고 몰락하여 빈민이 되었고, 이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로마는 사회 불안이 조성되었다.

기원전 2세기 후반 호민관이 된 **그라쿠스 형제**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농지법을 통해 유력자의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재분배하고자 하였으며,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곡물법을 통해 빈민들에게 곡물을 싼 가격으로 분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개혁은 귀족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후 로마는 귀족과 평민 사이의 권력 투쟁으로 사회 불안이 심화되었고 스파르타쿠스의 난과 같은 노예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농민층을 사병으로 거느린 군인 정치가 등장하여 정치를 주도하는 삼두 정치가 실시되었다. 1차 삼두 정치를 주도하며 정권을 장악한 카이사르는 여러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공화정이 붕괴될 것을 우려한 반대파가 그를 암살하였다. 이후 2차 삼두 정치를 이끌던 카이사르의 양

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한 안토니우스의 군대를 악티움 해전 (기원전 31) 에서 격파하여 로마의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옥타비아누스가 혼란을 수습한 이후 원로원은 그를 '존엄한 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하였다. 이때부터 옥타비아누스는 실질적인 황제가 되었고 로마의 제정이 시작되었다. 옥타비아누스는 군대와 조세 개편 등 내정을 정비하고 변방의 수비를 견고히 하여 제국 번영의 기틀을 다졌다. 이후 1세기 말부터 유능한 다섯 황제(5현제)가 연달아 집권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정치적·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누렸다. 옥타비아누스부터 5현제까지의 약 200년간을 '로마의 평화 시대(Pax Romana)'라고 한다.

그러나 2세기 말부터 정치가 혼란해지기 시작하여, 3세기에 군인 황제 시대가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상공업과 도시의 쇠퇴, 게르만족 등 이민족의 침입으로 로마는 큰 혼란에 빠졌으며, 농촌에서는 부자유 소작인(콜로누스)이 토지를 경작하는 콜로나투스가 등장하였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3세기 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전제 군주제를 확립하고 제국을 4분할하여 통치하였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크리스티교를 공인하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는 등 제국의 부흥에 힘썼다. 그러나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열되었고(395), 결국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476).

로마 제정 시기에 등장한 예수는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신의 사랑, 평등, 인간애를 설교하였다. 예수가 죽은 뒤 그의 제자인 베드로와 바울 등은 그의 가르침을 각지에 전파하였다.

다신교 국가인 로마는 처음에 크리스티교를 용인하였다. 그러나 유일신을 숭배하는 크리스티교도들이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라며 거부하자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크리스티교도들은 카타콤에서 예배를 보면서 신앙을 지속하였으며 교세는 더욱 확장되었다.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여 크리스티교를 공인하였고 (313), 이어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여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설을 정통으로 인정하였다(325).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르러 크리스티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392). 이후 크리스티교는 유럽에 뿌리를 내려 그리스·로마 문화와 함께 유럽 문화의 근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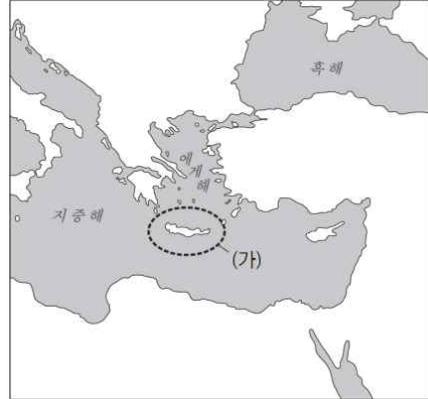
로마인은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하는 한편, 법률, 토목, 건축 등 실용적인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였다. 특히 법률이 발달하였는데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시민법으로 발전하였고, 이어 만민법으로 확대되어 로마 제국 내의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로마법은 6세기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으로 집대성되어 여러 나라의 법률에 영향을 주었다.

로마는 정복지에 도시를 세우고 물자 교류와 신속한 군사의 이동을 목적으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였다. 도시에는 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콜로세움, 판테온, 개선문, 공중목욕탕 등의 건축물을 세웠다.

문학에서는 키케로가 산문 등의 분야에서, 베르길리우스가 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철학에서는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

학파가 로마의 상류 사회에 영향을 끼쳤으며,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철학자로서 『명상록』을 남겼다. 역사학에서는 리비우스의 『로마사』,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등이 저술되었다. 한편 천문학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돈다는 천동설을 주장하였다.

27. (가) 지역에서 발달한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골 문자를 사용하였다.
- ②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다.
- ③ 크노소스 궁전을 건립하였다.
- ④ 피라미드와 �핑크스를 축조하였다.
- 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를 건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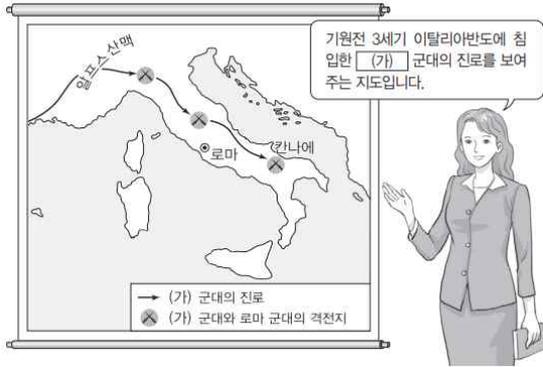
28. 다음 원정이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가)	(나)	(다)	(라)	(마)
로마 공화정 수립	마라톤 전투	펠로폰네소스 전쟁 발발	제2차 포에니 전쟁 발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개혁	로마 제정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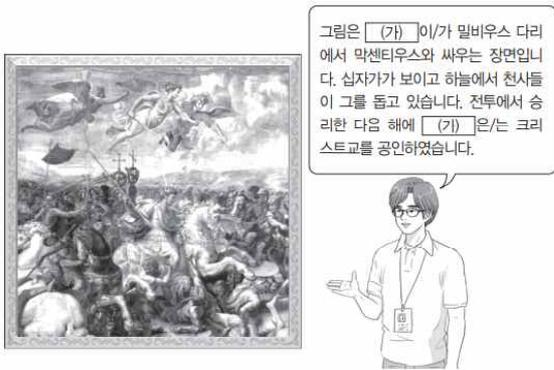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29.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델로스 동맹의 맹주였다.
- ②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 ③ 지중해를 무대로 해상 무역을 하였다.
- ④ 정복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였다.
- ⑤ 훈족의 압박을 받아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30.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카르타고를 제압하였다.
- ② 호민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 ③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 ④ 크리스티교를 국교로 삼았다.
- 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건설하였다.

8.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

게르만족은 원래 발트해 연안에서 수렵과 목축업에 종사하던 민족이었다. 점차 농경의 비중이 높아지고 인구가 증가하자, 따뜻하고 기름진 농경지를 찾아 남쪽으로 이동하여 로마 제국의 영토로 들어오게 되었다. 3세기 무렵에는 상당수의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 내에서 소작농이나 용병으로 활동하였다.

4세기 후반 유목민인 훈족이 동부 유럽으로 이동해 오자, 게르만족의 일파인 서고트족이 대규모로 로마 제국 영내로 이동하였다. 이를 계기로 게르만족의 여러 부족이 이동하여 서로마 제국 곳곳에 나라를 세웠다. 이후 서로마 제국은 쇠퇴하다가 게르만족 출신의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 멸망하였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서양 고대 사회는 종말을 맞이하고 중세 유럽 사회가 시작되었다.

게르만족이 세운 왕국 중 갈리아 지방에 자리한 **프랑크 왕국**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오랫동안 번영을 누렸다. 5세기 말 클로비스는 메로베우스 왕조를 세우고 크리스티교의 정통파인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하여 로마인과의 융합을 꾀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프랑크 왕국이 유럽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클로비스가 죽은 후 내분이 일어나 왕권이 약화된 기회를 틈타 궁재 카롤루스 마르텔이 실권을 잡았다. 그는 피레네산맥을 넘어온 이슬람군을 투르·푸아티에에서 물리쳐 크리스티교 세계를 보호하였다(732). 이후 그의 아들 피핀은 메로베우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하였다. 교황이 왕조 개창을 지지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피핀은 롬바르드족의 공격으로부터 교황을 보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얻은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하였는데, 이것이 교황령의 시초가 되었다.

피핀의 아들인 **카롤루스 대제** 때 프랑크 왕국은 전성기를 맞았다. 그는 정복 활동을 통해 옛 서로마 제국 영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곳곳에 교회로 세워 크리스티교를 전파하였다. 이에 교황 레오 3세는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황제로 대관하였다(800). 카롤루스 대제는 라틴어 문법, 논리학 등을 가르치는 궁정 학교를 세우고 수도원에서 고전을 필사하게 하는 등 문화 발전에 힘써 카롤루스 르네상스를 일으켰다. 이로써 로마 문화, 크리스티교, 게르만 문화가 융합되어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프랑크 왕국은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뒤 분할 상속에 따른 내분과 후계자들 간의 다툼으로 혼란을 겪었다. 결국 베르됭 조약(843)과 메르센 조약(870)에 의해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분열되었다. 세 왕국은 오늘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기원이 되었다.

9세기 말 서유럽 세계는 노르만족, 마자르족,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혼란에 빠졌다. 중앙 정부가 이들의 침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자 지방의 유력자들은 스스로 무장하고 나섰다. 전사 계급으로서 기사들은 자신보다 세력이 큰 왕이나 제후를 주군으로 삼아 주종 관계를 맺었으며,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대신 이들을 예속 농민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봉건제가 성립되었는데, 정치적으로는 주종제, 경제적으로는 장원제를 특징으로 하였다.

**주종제**에서 주군은 봉신에게 봉토를 수여하고 봉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으며,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군사적

봉사는 물론, 만약 주군이 포로가 되 있을 경우 몸값을 내는 등의 청제적 의무를 졌다. 주중제는 어느 한쪽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깨지는 쌍무적 계약 관계였다. 주중제는 세습되었으며, 장원 내에서 봉신은 독립적이었다. 봉신은 장원의 영주로서 자신의 봉토 안에서 주군의 간섭 없이 재판권과 징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불입권을 소유하였다.

주중 관계와 장원제를 기반으로 한 봉건제는 **지방 분권화**를 촉진하였다. 이후 서프랑크에서는 카페 왕조가, 동프랑크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이, 영국에서는 윌리엄에 의해 노르만 왕조가 세워졌다.

봉신은 주군으로부터 받은 봉토를 다스렸으며, 봉토는 촌락의 형태로 **장원**을 이루었다. 장원의 높은 곳에는 대개 영주의 성이나 영주관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농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었다. 장원의 토지는 경작지, 방목지, 삼림, 황무지 등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경작지는 영주 직영지와농민 보유지로 나뉘었다. 경작지는 **삼포제**로 경작되었으며, 공동 경작을 위해 울타리를 치지 않았다.

장원 내의 농민은 자유인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농노였다. 농노는 고대 노예와 달리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으며, 집에 딸린 작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신분으로서 영주의 허락 없이는 장원을 떠날 수 없었으며, 영주의 직영지에서 강제적 노동을 하고 (**노동 지대**), 공납을 영주에게 바쳤다. 또한 장원 내의 방앗간, 제빵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 그 사용료를 영주에게 냈다. 아울러 인두세, 혼인세, 사망세 등을 영주에게 바쳤으며, 영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7세기 이슬람 세력의 확장으로 크리스티교의 5대 교구 중에서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만이 남았다. 8세기 초 비잔티움 제국의 레오 3세가 성상 파괴령을 내리자, 게르만족에게 포교하기 위해 성상이 필요하였던 로마 교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동서 교회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후 크리스티교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를 수장으로 하는 그리스 정교회로 분열되었다(1054).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대주교, 주교, 사제에 이르는 계서제를 갖추었다. 교회는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유럽 사회를 이끌었다. 교황은 대관식을 통해 군주의 통치권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였고, 성직자들은 봉토와 신도들이 기증한 토지를 기반으로 강력한 봉건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권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부를 축적하는 등 현실 세계에서 힘을 갖게 되면서 교회의 세속화가 나타났다. 이에 10세기 초 **클뤼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1세기에 교황의 주도로 교회에 대한 세속 군주의 개입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성직 매매 금지, 성직자의 결혼 금지 등을 통해 부패 척결에 나선 한편, 성직자 **서임권**을 둘러싸고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히 4세와 대립하였다. 교황은 세속 군주의 성직자 서임을 금지하였으나 황제가 이를 무시하자 황제를 파문하였고, 제후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황제는 교황에게 굴복하였다(카노사의 굴욕, 1077). 이후에도 서임권 투쟁은 계속되었으나 보름스 협약으로 교황이 서임권을 갖게 되었다. 이후 13세기 교황 인

노켄티우스 3세 때 교황권은 절정에 달하여 교황은 해, 황제는 달에 비유되기도 하였다.

중세에는 크리스티교 중심의 문화가 발전하였다. 학문은 신학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철학은 크리스티교 신앙과 교리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보조 학문의 역할을 하였다. 중세 초기에는 아우구스티누스로 대표되는 교부 철학이 발달하였으나, 십자군 전쟁 이후 이슬람 세계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유입되면서 **스콜라 철학**이 발전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대전』에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피하여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하였다.

중세 초기에 성직자들은 교회나 수도원을 중심으로 신학, 법학, 수사학, 논리학 등을 연구하였다. 12세기 이후에는 파리나 볼로냐 등 여러 도시에 대학이 세워져 중세의 학문 발전에 기여하였는데, 파리 대학은 신학 연구로, 볼로냐 대학은 법학 연구로 유명하였다. 중세의 대학은 교회나 영주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다.

중세 문학은 봉건 기사들의 사랑과 모험담을 담은 기사도 문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롤랑의 노래』, 『니벨룽겐의 노래』, 『아서왕 이야기』 등이 유명하다.

크리스티교는 중세의 건축, 조각, 그림 등에도 영향을 끼쳐 교회와 수도원 건축이 발달하였다. 건축은 11세기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이, 12세기부터는 **고딕 양식**이 유행하였다.

비잔티움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약 1000년간 유지되었다.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서유럽과 달리 절대적 권위를 가진 황제가 교회의 수장을 겸하는 황제 교황주의가 발달하였다.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동서 교통의 중심지이자 상공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다.

비잔티움 제국은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는 서고트족이 지배하던 에스파냐 남부 지역을 공격하여 일부를 점령하였으며,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본토, 시칠리아, 코르시카 등 옛 로마 제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다. 또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였으며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성 소피아 성당을 건립하였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죽은 후 비잔티움 제국은 외침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자영농을 육성하여 군사력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8세기 무렵에는 발칸반도 남부와 소아시아 일부로 영토가 축소되었다. 이후 지방의 유력자들이 토지를 사유화하면서 둔전병제가 무너지고 황제권도 약화되었다. 11세기에는 셀주크 튀르크의 침입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빼앗기자 서유럽 세계에 구원을 요청하여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다. 이후 제4차 십자군에게 약탈당하는 등 시련을 겪다가 세력이 약화되었고, 결국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하였다.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그리스·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융합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하였으며, 그리스의 고전을 연구하고 보존하여 후대 유럽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적 특징은 건축과 미술 분야에서 잘 나타난다. 비잔티움 건축은 외부의 **웅장한 돔**과 내부의 **모자이크화**가 특징이다. 성 소피아 성당은 로마의 바실리카 양식과 페르시아의 돔 양식이 결합된 비잔티움 양식의 대표적인 성당

이다. 그 밖에 금은 세공품, 상아 세공품, 유리 제품 등을 통해 비잔티움 예술의 높은 수준을 알 수 있다.

비잔티움 문화는 슬라브족에게 전해져 러시아와 동유럽 문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유럽의 동북부에 살던 슬라브족은 비잔티움 제국 내로 들어와 살면서 비잔티움 제국 문화에 동화되었다. 이들은 키릴 문자를 사용하였으며, 키릴 문자로 번역된 성서를 바탕으로 그리스 정교로 개종하였다. 러시아의 키예프 공국은 흑해를 통해 비잔티움 제국과 교역하며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키예프에 성 소피아 대성당을 세우기도 하였다.

11세기 들어 서유럽 사회는 이민족의 침입이 줄면서 안정을 되찾았다. 삼포제가 도입되고 쟁기와 수차, 말 등이 농사에 이용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서유럽 사회는 대외 팽창에 나서게 되었다.

11세기 후반 셀주크 튀르크가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자, 비잔티움 제국 황제는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교황은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을 호소하였고, 국왕을 비롯한 제후와 기사, 상인, 농민이 종교적 열정과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 전쟁에 참가하였다.

제1차 십자군은 성지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곧 예루살렘 왕국은 무너지고 170여 년간 십자군 전쟁이 계속되었지만, 성지 탈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십자군 전쟁은 서유럽 사회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전쟁이 실패로 끝나자 교황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장기간 전쟁에 참여한 제후와 기사 계층이 몰락하여 봉건제가 흔들렸지만, 왕권은 강화되었다. 한편 전쟁 과정에서 동방과의 교역이 활발해져 상공업이 발달하고 이탈리아 도시들이 번영하였다. 또 이슬람 및 비잔티움 세계와의 문화적 접촉을 통해 서유럽 문화가 자극을 받게 되었다.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인구 증가를 배경으로 11세기경부터 서유럽 각지에 시장이 열렸다. 시장을 중심으로 교역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로마 시대의 도시나 교회의 주변, 그리고 교통의 요지에 상인과 수공업자가 모이면서 도시가 형성되었다. 특히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원거리 무역이 활발해지고 상업 거래가 확대되면서 도시는 한층 성장하였다.

베네치아와 제노바 등은 지중해 무역의 거점 도시로서 동방 무역을 통해 번영을 누렸고, 밀라노와 토리노 등에서는 직물업이 발달하였다. 북부 독일의 함부르크와 뤼베크 등은 **한자 동맹**을 결성하여 발트해와 북해의 무역을 주도하였다.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에서는 정기 시장이 형성되어 지중해와 북유럽의 두 무역권을 연결하였다.

중세 도시는 처음에는 영주의 지배를 받았으나, 점차 영주와 타협하여 도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았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특허장을 얻거나 혹은 무력으로 자치권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신분상 자유를 누렸고,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고 도시 행정을 자치적으로 운영하였다.

도시민들은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길드**를 조직하였다. 상인 길드는 상업에 관한 독점권을 확보하고 상업 활동을 규제하였으며, 자치권을 얻는 데 앞장섰다. 후에 수공업자들은 도제, 직인, 장인의 직분을 기반으로 하는 수공업자 길드를 만들어 동일 업종에 대한 생산 활동을 규제하였다.

십자군 전쟁 이후 원거리 무역과 상공업의 발달에 따라 도시가 성장하고 화폐 경제가 더욱 확산되었다. 도시는 새로운 상품과 동방의 물품으로 넘쳐났으며, 화폐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영주들은 농민에게 화폐로 지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농민들도 부역의 의무에서 벗어났으며, 곡물 가격의 상승과 화폐 가치의 하락에 따라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였다.

게다가 14세기 중엽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 이상 줄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영주들은 농민의 처우를 개선하였으며, 농노 신분에서 해방되는 사람이 늘어나 장원은 해체되어 갔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영주들이 직영지를 늘리고 농노를 더욱 속박하기도 하였다. 이에 저항하여 프랑스에서는 자크리의 난, 영국에서는 와트 타일러의 난이 일어났다.

중세 말기 교황과 봉건 영주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었다. 국왕은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권과 과세권을 확대하였다.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국왕 중심의 국가가 자신의 경제 활동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재정적으로 국왕을 지원하거나 국왕의 관리로 봉사하였다.

한편 프랑스와 영국은 플랑드르와 프랑스 내의 영국령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으며 (**백년 전쟁**), 이후 영국에서 왕위 계승 문제로 장미 전쟁이 일어났다. 두 전쟁으로 귀족 세력이 약화되고 점차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가 형성되었다.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종교적 열기가 식으면서 교황의 권위도 약화되었다. 14세기 초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대립하였으나 의회의 지지를 얻은 필리프 4세가 교황을 굴복시켰다. 이후 새로운 교황이 교황청을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기면서 약 70년간 교황은 프랑스 왕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아비뇽 유수**, 1309~1377).

이후 다시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선출되었으나 아비뇽에서도 계속 교황이 선출되면서 **교회의 대분열 시대**가 전개되었다.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은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대립하였고, 교회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위클리프와 보헤미아의 후스는 교회의 세속화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고 성서에 기반을 둔 신앙을 강조하였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8)를 소집하였다. 공의회는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후스를 화형에 처하였으며 교회의 분열을 수습하기 위해 로마와 아비뇽의 교황을 폐위하고, 새로운 단일 교황을 선출하였다. 하지만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으며, 이러한 흐름은 16세기 종교 개혁이 전개되는 배경이 되었다.

르네상스는 ‘재생’, ‘부활’을 뜻하는 말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되살려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는 문예 부흥 운동을 가리킨다.

르네상스의 근본 원리는 **인문주의**였다. 인문주의는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작품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연구하는 학문 경향을 말한다.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을 개성 있는 존재로 파악하고 인간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였다.

르네상스는 14세기 무렵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였다.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서 고전 문화의 전통이 남아있었고,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면서 많은 학자가 유입되

어 **고전 문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활발한 상업 활동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던 이탈리아 북부 도시의 부유한 상인과 군주들은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자 문예 활동을 장려하였다.

인문주의자인 페트라르카는 라틴어 문헌을 발굴하였고, 인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서정시를 남겼다. 보카치오는 『테카메론』에서 사회의 타락상과 인간의 위선을 풍자하였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저술하여 분열된 이탈리아를 통일할 강력한 군주의 출현을 열망하였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예술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미술에서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이 활동하였으며, 건축에서는 르네상스 양식이 발전하였는데,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대표적이다.

르네상스는 16세기에 알프스 이북으로 확산되었다. 이 지역의 인문주의자들은 **현실 사회와 교회를 비판**하면서 초기 크리스티안교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대표적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에서 교회의 형식화와 성직자의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에라스무스와 교류하였던 토머스 모어는 『유포피아』에서 부조리한 현실 사회를 비판하였다.

미술에서는 반에이크 형제가 유화 기법을 개발하였고, 브뤼헬은 서민 생활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독일 출신의 홀바인은 초상화를, 그리스 출신의 엘 그레코는 종교화를 주로 그렸다. 문학에서는 라틴어를 쓰는 중세 문학과는 달리 자국어를 쓰는 국민 문학이 발달하였는데, 에스파냐의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등을 저술하였다.

16세기 알프스 이북에서는 교회의 부패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의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할 비용을 마련하고자 면벌부를 판매하자, 독일의 신학 교수인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여 교황과 교회를 비판하였다(1517).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은 교황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대항하였고, 마침내 아우구스 부르크 회의에서 루터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1555).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를 계승한 칼뱅이 종교 개혁에 나섰다. 칼뱅은 성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일체의 교리와 의식을 배격하고, **예정설**을 주장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에 종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주장은 신흥 상공업자들의 환영을 받아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지로 확산되었으며, 유럽 자본주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영국의 종교 개혁은 정치적·경제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국왕 헨리 8세는 교황이 자신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수장법을 공포하여 스스로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 그는 수도원을 해산하고 교회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여 왕실 재산을 강화하였다. 그 뒤 엘리자베스 1세는 통일법을 반포하여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였다(1559).

16세기에 종교 개혁 운동이 퍼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로마 가톨릭 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 교황의 권위와 교리를 재확인하고, 교회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또한 교회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였으며, 종교 재판을 설치하고 금서 목록을 작성하였다.

에스파냐의 로울라는 **예수회**를 설립하여 유럽 각지에 수도원과 학교를 설립하고, 가톨릭 교리를 옹호하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수회는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지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다.

종교 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신교)와 가톨릭(구교)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다.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던 네덜란드에서는 신교도들이 에스파냐의 가톨릭 강화 정책에 반발하여 전쟁을 일으켰으며, 결국 독립을 달성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신교와 구교의 갈등으로 위그노 전쟁이 일어났으며, 낭트 칙령(1598)으로 위그노(신교도)에게 제한된 지역에서의 예배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한편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일어났다. 신교와 구교의 갈등에서 시작된 종교 전쟁이었으나, 유럽 주요 왕가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담하여 국제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어 제후에게 칼뱅파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졌다.

31.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카리아스 교황 성하, 현재 (가)의 공재이신 피핀께서 여쭙습니다. 실권이 없으면서 왕위에 있는 자와 왕위는 없으나 힘이 있는 자 중 누가 왕이어야 합니까?

실질적인 권력이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것이 더 낫소. 사도의 권위로 피핀이 새 왕조를 여는 것을 승인하겠소.



- ① 베르됭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② 로마 황제 대관식이 거행되었다.
- ③ 궁정 학교를 건립하는 등 문에 부흥을 일으켰다.
- ④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이슬람 군을 격퇴하였다.
- ⑤ 롬바르드 왕국으로부터 빼앗은 영토를 교황에게 기증하였다.

32.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사 인물 카드〉 **‘유럽의 아버지’**, (가)

그는 로마 황제로 불렸으나 프랑크왕이자 롬바르드왕이기도 하였다. 칭호가 말해 주듯, 롬바르드 왕국 정복 등 여러 차례의 정복 활동으로 서로마 제국 이후 처음으로 서유럽 지역 대부분을 통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복지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교 확산에 노력하는 등 로마 교회의 후원자 역할을 하였다.

- ① 카페 왕조를 개창하였다.
- ②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③ 정복지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였다.
- ④ 궁정 학교를 세워 문에 부흥에 힘썼다.
- ⑤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성 소피아 성당을 세웠다.

33. 밑줄 친 '굴욕'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황제가 교회에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렸다.
- ② 교황이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선출되었다.
- ③ 국왕이 교황과의 대립 과정에서 삼부회를 소집하였다.
- ④ 콘스탄츠 공의회를 통해 실추된 교황권이 회복되었다.
- ⑤ 교황과 황제가 성직자 서임권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34. 다음 자료의 건축물과 같은 양식이 널리 유행하였던 시기에 볼 수 있는 광경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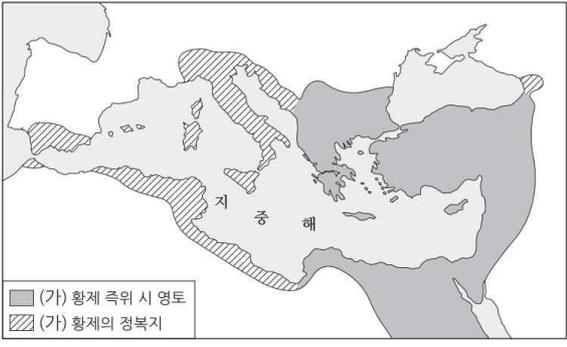
<p>솔이 안녕 ^^</p> <p>어제는 우표에 있는 성 미하엘리스 성당에 직접 가보았어. 육중한 동형의 아치 천장과 붉은 기둥들이 인상적이었지. 외벽은 거의 1m나 될 정도로 두껍더구나. 둥근 아치형 창문들이 작아서 내부는 어두웠지만 엄숙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다.</p>	<p>나중에 솔이랑 꼭 같이 보고 싶구나!</p> <p>9월 1일 ○○에서 아빠가</p>
---	---

< 보 기 >

<p>ㄱ. 북유럽 지역에서 교역하는 한자 동맹 상인들</p> <p>ㄴ. 카롤루스 황제의 장려로 고전 작품을 필사하는 수도사들</p> <p>ㄷ. 노르망디 윌리엄 공을 따라 잉글랜드를 정복하는 기사들</p> <p>ㄹ. 성직자 금혼과 성직 매매 금지 등 교회 개혁을 발표하는 교황</p>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5.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로마법을 집대성하였다.
- ② 성상 숭배 금지령을 발표하였다.
- ③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겼다.
- ④ 이탈리아 일부 지역을 교황령으로 기증하였다.
- ⑤ 전제 군주제를 확립하고 제국을 4분할 통치하였다.

36. (가) 교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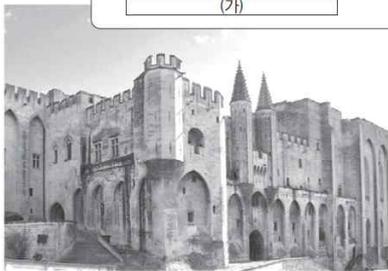
<p>ㄱ. 대규모 정기시가 상파뉴 지역에 열렸다.</p> <p>ㄴ. 향신료가 중요한 거래 품목 중 하나였다.</p> <p>ㄷ.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교역이 번성하였다.</p> <p>ㄹ. 여러 도시들이 참여해 한자 동맹을 결성하였다.</p>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7.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건물은 한때 교황청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필리프 4세의 압력을 받던 교황 클레멘스 5세는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겼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1세가 로마로 돌아가기까지의 시기를 아비뇽 유수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 유럽에서는

(가)




- ① 라틴 제국이 성립되었습니다.
- ② 백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③ 황제 레오 3세가 성상 파괴령을 내렸습니다.
- ④ 노르망디 공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하였습니다.
- ⑤ 콘스탄츠 공의회가 후스를 이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8. (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가톨릭을 지지하는 황제와 루터의 교의를 지지하는 제후들 간에 전쟁이 벌어졌다. 이 전쟁의 결과 (가) 이/가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루터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 프랑스에서 가톨릭교도와 신교도 사이에 위그노 전쟁이 발발하였다. 30여 년간 지속된 이 종교 전쟁은 앙리 4세가 발표한 (나) (으)로 종식되었다.

- ① 30년 전쟁이 발발하였다.
- ② 교회의 대분열이 종식되었다.
- ③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고안하였다.
- ④ 통일법(령)으로 영국 국교회가 확립되었다.
- ⑤ 신성 로마 제국에서 칼뱅파 신앙이 허용되었다.

9. 유럽 세계의 변화

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 이후 향신료, 비단 등 동양 상품의 수요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이 동서 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자 동양과 직접 교역하려는 욕구가 커졌다. 『동방견문록』 등으로 동양에 관한 호기심이 증가하고 천문학, 지리학, 조선술의 발달과 나침반 사용 등으로 원양 항해가 가능해지자, 유럽인은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섰다.

지중해를 통한 향신료 무역에서 소외되 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서아프리카 해안을 돌아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자 하였다.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희망봉’이라 스페냐는 서아프리카 해안을 돌아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자 하였다.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희망봉’이라 부른 아프리카 남쪽 끝에 도착하였으며, 바스쿠 다 가마는 이슬람 상인의 도움을 받아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함으로써 인도 항로를 개척하였다.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대서양 항로를 개척하여 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였다. 마젤란 일행은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횡단하고 최초로 세계를 일주하였다.

신항로 개척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에스파냐는 아스테카와 잉카 제국을 정복한 뒤 금광·은광 개발에 몰두하였는데, 아메리카에서 채굴한 많은 양의 금과 은이 유럽에 들어오면서 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가 격 혁명).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항로를 개척한 후 노예 무역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대규모 플랜테이션 작물을 재배하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노예 무역을 확대하였다. 유럽인은 총, 식물 등을 싣고 서아프리카로 향하여 흑인 노예와 교환하였으며, 흑인 노예를 태우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 농장주에게 팔았다. 그리고 노예를 판매한 대금으로 설탕, 커피, 담배 등 플랜테이션 작물을 사들여 유럽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삼각 무역을 중심으로 대서양 교역이 이루어졌다. 포르투갈은 인도 항로를 개척한 이후 고아, 므라카, 마카오 등 거점 항구를 무력으로 장악하고 무역 기지로 삼아 향신료 무역 등을 독점하였다. 뒤이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였다. 유럽인은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중국의 비단·차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많은 양의 은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대서양 무역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과 활발한 교역을 전개하면서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거리 교역을 편리하게 전개하기 위해 어음, 보험 등 금융 제도가 발전하였다. 이러한 교역망의 변화를 상업 혁명이라 하는데, 국제 교역과 금융에서 확보된 이윤과 시장은 훗날 유럽에서 산업 혁명이 일어나는 기반이 되었다.

유럽인이 침투하기 이전 아메리카 대륙에는 독자적인 정치체제와 문화를 가진 문명이 존재하였다. 농업 생산력 증대를 바탕으로 마야인은 5세기 전후 도시와 제국을 건설하고, 수학과 천문학에서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 14세기 이후에는 멕시코고원 일대에 아스테카 제국이, 안데스고원 일대에는 잉카 제국이 번영하였다. 특히 잉카 제국은 쿠스코를 중심으로 정복 활동을 전개하고 도로를 정비하여 전국적인 통치 체제를 갖추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후 아메리카 곳곳에 유럽

인들이 몰려들었다. 에스파냐의 코르테스와 피사로는 화포로 무장한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각각 아스테카와 잉카 제국을 정복하였다. 이후 그들은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수탈하고 원주민을 동원하여 사탕수수, 담배 등 **플랜테이션 농장**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유럽인이 전파한 전염병으로 원주민 노동자가 많이 감소하자,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플랜테이션 농장에 투입하였다.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는 북아메리카 동해안을 탐험하여 식민지를 건설하고 자국민의 이주를 장려하였다.

16세기부터 서유럽에서는 국왕을 중심으로 **관료제**와 **상비군**을 정비하면서 중앙 집권 통치가 강화된 절대 왕정이 등장하였다. 절대 왕정에서는 왕권을 제약해 왔던 신분제 의회가 약화하였고, 봉건 귀족은 관료제에 편입되어 국왕에게 충성하였다.

한편 절대 왕정은 시민 계급의 상업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시민 계급은 상업업과 대외 무역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국왕에게 협력하였다. 절대 왕정은 귀족과 시민 계급의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왕권신수설**은 절대 왕권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였다.

절대 왕정에서는 제정을 확충하기 위해 조세를 징수하는 한편,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시행하여 국내 상업업을 육성하고 대외 교역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더 나아가 주변국의 왕위 계승 다툼에 개입하여 영토 확장을 꾀하였으며, 교역망의 확대를 배경으로 식민지 팽탈전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절대 왕정 체제에서도 봉건적 신분제가 유지되어 귀족은 여전히 사회적 특권을 누렸으며 농민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다.

절대 왕정은 각국의 고유한 여건 속에서 다양하게 형성되어 발전하였다. 에스파냐는 이슬람 지역을 재정복하면서 왕권 강화의 기틀을 다졌다. 영국과 프랑스는 시민 계급의 성장에 바탕을 두고 절대 왕정 체제를 갖추었는데, 특히 영국은 의회의 영향력이 강한 편이었다.

**펠리페 2세**는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에 승리한 이후 아메리카, 네덜란드, 북부 이탈리아 등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다. 에스파냐는 아메리카 경영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함으로써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절대 왕정 국가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국내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여 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가톨릭 강요 정책에 반발한 네덜란드가 독립하고, 무적함대가 영국에 패하면서 국력이 급속히 쇠퇴하였다.

영국은 종교 개혁을 통해 국왕의 권위를 높였으며, 해산된 수도원의 토지를 왕실 재정으로 흡수하여 절대 왕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엘리자베스 1세**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국정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의회도 왕권에 협조적이었다. 그녀는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였으며, 화폐를 통일하고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다. 또한 빈민 구제법을 제정하는 한편,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파하여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동인도 회사의 설립 및 활동을 지원하여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국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루이 14세**는 귀족의 반란을 진압하고 귀족을 자신의 왕권 아래로 끌어들이는 한편, 시민 계급을 행정 관료로 편입시켜 절대 왕정을 확립하였다. 그는 왕권신수설을 신봉하고 태양왕을 자처하였으며, 베르사유 궁전을 지어 궁정 문화를 꽃피웠다. 또한 콜베르를 등용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고 상비군을

마련하여 절대 왕정의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낭트 칙령을 폐지하여 상업업에 종사하던 위그노가 프랑스를 떠나면서 국내 산업이 침체되었고, 무리한 전쟁을 일으키면서 국력을 낭비하여 루이 14세 사후 프랑스는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동유럽은 17세기 중엽 이후에 절대 왕정이 성립하였다. 동유럽은 서유럽과는 달리 농노제가 존속되어 귀족들의 세력이 막강하였다. 또한 도시와 상업업의 발달이 부진하여 시민 세력도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군주가 직접 개혁에 나서는 계몽 전제 정치가 나타났다.

**요제프 2세**는 서유럽의 문화와 제도를 수용하여 내정 개혁과 군비 확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오스만 제국을 압박하여 흑해 북부로 진출하였고, 청과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또한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을 통해 발트해로 진출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여 수도로 삼았다. 18세기 말 **에카테리나 2세**는 계몽 군주를 자처하며 내정 개혁을 단행하고, 폴란드 분할에 참여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오스트리아는 중앙 집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8세기 중반 **마리아 테레지아**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으로 프로이센에 쉐레지엔 지방을 잃었지만, 의회의 지지와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정책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녀의 통치 시기에 오스트리아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문화적으로 번성하였다. 마리아 테레지아와 그의 뒤를 이은 **요제프 2세**는 계몽 군주를 자처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절대 왕정을 확립하기 위해 내정 개혁을 추진하였다.

**프리드리히 2세**는 귀족을 끌어들이어 관료제와 상비군을 마련하고 절대 왕정을 확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쉐레지엔 지방을 확보하고 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였으며, 7년 전쟁 후에는 폴란드 분할에도 참여하여 영토를 확대하였다.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국가 제일의 심부름꾼'으로 자처하며 산업을 장려하고 사회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농노제를 유지하는 등 귀족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39. (가) 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중해 무역을 주도했던 베네치아는 (가)의 인도 향로 개척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휩싸였다. 베네치아 귀족 프리울리는 자신의 일기에 "산마르코의 도시가 향신료 교역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것은 신생아에게 줄 우유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기록하였다. 베네치아의 경쟁자로 부상한 (가)의 국왕 마누엘 1세는 유럽 내에서 향신료 판매를 독점하려 하였다.

- ① 잉카와 아스테카 제국을 멸망시켰다.
- ② 바스쿠 다 가마의 항해를 지원하였다.
- ③ 한자 동맹을 결성하여 북해 무역을 주도하였다.
- ④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 ⑤ 콜베르를 등용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40. 다음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럽인의 침략과 새로 유입된 전염병으로 원주민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어.

게다가 유럽인은 포토시 은광 같은 곳에서 원주민 노동력을 가혹하게 이용하여 막대한 은을 수탈하였어.

대농장에서도 많은 원주민들이 목숨을 잃어 부족해진 노동력을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노예로 충당하였지.

- ① 산업 혁명과 사회 문제의 대두
- ② 세포이 항쟁과 인도 통치 개선법
- ③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와 탄지마트
- ④ 농노 해방과 브나로드 운동의 전개
- ⑤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와 대서양 무역

41.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콜베르 경, 관료제와 상비군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스?

전하, 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

- < 보 기 >
- ㄱ. 자유방임 경제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 ㄴ. 케네 등 중농주의자들을 등용해야 합니다.
  - ㄷ. 식민지를 개척하여 해외 시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 ㄹ. 사치품 산업을 비롯한 국내 상공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헨리 8세의 딸인 이 인물은 통일법(령)을 반포하여 국내 정치를 안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국력을 크게 강화하였다. 그녀는 아메리카 식민지를 개척하였고, (가) 또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

- ① 무적함대를 격파하였다.
- ② 스코틀랜드를 합병하였다.
- ③ 백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 ④ 인도차이나 연방을 수립하였다.
- ⑤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였다.

43.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가)의 명령으로 건설된 엘레스크리알 왕립 수도원입니다. (가)은/는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고 로마 가톨릭교회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가톨릭 강요 정책으로 인해 네덜란드의 독립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 ① 콜베르를 등용하였다.
- ② 무적함대를 격파하였다.
- ③ 대륙 봉쇄령을 발표하였다.
- ④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 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았다.

10.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

르네상스 이후 유럽인은 그리스 철학과 이슬람 과학의 영향을 받아 자연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정확한 관찰과 실험을 위해 망원경, 현미경 등을 발명하였다. 그 결과 과학 혁명이라 불리는 업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천문학에서의 업적은 유럽인의 의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심의 지동설을 주장하였고, 뒤이어 케플러는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를 그리며 회전한다고 주장하였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제작하고 천체를 관측하여 지동설을 입증하였으며, 사고 실험으로 낙하 법칙을 발견하였다.

과학 혁명은 뉴턴에 의해 완성되었다. 뉴턴은 지구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원인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여 지동설을 증명하였다. 그는 자연이 거대한 기계처럼 스스로 운동하며, 인간의 이성은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기계론적 우주관을 확립하였다.

유럽 각국에서는 왕실의 후원으로 과학 연구를 위한 학회 등이 설립되었는데, 영국의 왕립학회와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가 대표적이다. 이 단체들은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에도 관심을 가져 인구·경제·무역·항해 등 많은 주제를 연구하였다.

계몽사상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낡은 관습과 미신을 타파함으로써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는 사상으로,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교육과 실천을 중요시하였다. 기계론적 우주관과 함께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 철학과 로크의 정치사상이 계몽사상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 계몽사상가들은 사회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들의 주장은 지식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었다.

볼테르는 온갖 특권을 누리던 성직자와 귀족을 비판하여 시민의 지지를 받았으며, 신앙과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몽테스키외는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을 주장하였다. 루소는 홉스, 로크의 사회 계약설을 바탕으로 전체 인민의 결집된 의사, 즉 인민 주권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한편 디드로와 달랑베르는 과학적이고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전서』를 편찬하여 계몽사상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계몽사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 경제 이론이 등장하였다. 영국의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의 농촌에서는 장원제가 무너지면서 자영 농민층과 함께 중소 지주층인 젠트리가 성장하였다. 젠트리는 토지를 매입하고 '인클로저 운동'을 주도하면서 농촌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도시에서는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상인, 제조업자, 법률가, 의사 등 시민 계급이 성장하였다. 대부분 청교도였던 젠트리와 시민 계급은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며 의회 중심의 입헌주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찰스 1세가 의회를 무시하고 청교도를 탄압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찰스 1세는 프랑스, 에스파냐와의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하였다. 이에 의회

는 권리 청원을 제출하여 왕이 세금을 부과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였다. 찰스 1세는 이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11년 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 의회는 세금 징수를 반대하고 국왕의 실정을 비판하였으며, 결국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였다.

처음에는 왕당파가 우세하였으나 의회파를 이끈 크롬웰이 왕당파 군대를 격파한 후,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하였다(청교도 혁명, 1642). 크롬웰은 아일랜드를 정복하여 내전을 끝냈으며, 항해법 제정으로 네덜란드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의회를 해산하고 호국경에 올라 청교도 윤리를 앞세운 독재 정치를 펼쳤다. 크롬웰이 죽은 후 찰스 2세가 왕이 되어 왕정이 부활하였다.

찰스 2세가 전제 정치를 실시하고 가톨릭교도를 우대하자 의회는 비국교도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심사법과 국왕의 자의적인 인신 구속을 금지하는 인신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 무렵 의회에는 왕을 지지하는 토리당과 의회를 지지하는 휘그당이 형성되어 서로 대립하였다.

이후 제임스 2세는 심사법과 인신 보호법을 무시하고 다시 가톨릭교도를 우대하였다. 이에 의회는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와 그녀의 남편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하였다(명예혁명, 1688). 이듬해 메리와 윌리엄은 의회가 제정한 권리 장전을 승인하였으며, 이로써 입헌 군주제가 정착되었다.

앤 여왕 때에는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스코틀랜드를 병합하여 대영제국이 성립되었다. 앤의 사후 하노버가의 조지 1세가 즉위하였는데, 이때부터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전통 아래 내각 책임제가 시행되었다.

17세기에 많은 영국인이 종교의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찾아 북아메리카로 이주하였다. 그 결과 18세기 초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에 13개의 식민지가 건설되었다. 식민지에는 영국 총독이 파견되었으나, 독자적인 의회가 설치되어 폭넓은 자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영국은 프랑스와 7년 전쟁을 치르면서 재정이 악화되자,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여 호지세를 부과하고, 식민지로 수입되는 차·설탕·종이 등에도 관세를 거두었다. 식민지인들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저항하였다. 이에 영국은 차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을 폐지하였으나 저항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 정부가 동인도 회사에 차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특혜를 주자, 식민지인들이 반발하여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영국 정부는 보스턴항을 폐쇄하고 군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식민지를 압박하여 긴장이 고조되었다.

식민지 대표들은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대륙 회의를 개최하여 영국과의 통상 단절을 선언하고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저항하였다. 영국의 탄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영국 군대와 식민지 민병대가 렉싱턴 근교에서 무력 충돌하였다. 이에 식민지 대표들은 제2차 대륙 회의를 개최하여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독립 선언문에는 천부 인권, 주권 재민, 혁명권 등 민주주의 원리가 담겨 있었다.

독립 전쟁 초기에 식민지군은 영국군에 고전을 면치 못하였으나, 워싱턴의 활약과 프랑스·에스파냐 등 영국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유럽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전세를 역전시켰다. 결국 식민지군은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을 물리치고 파리 조약을 통해 독립을 인정받았다. 미국 혁명은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쳤으며,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에도 자극을 주었다.

독립 전쟁 이후 북아메리카의 13개 주는 대외 교역이 침체하고 물가가 폭등하는 등 곤경에 빠졌다. 이러한 사회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13개 주는 통합을 결의하고, 삼권 분립에 바탕을 둔 연방 헌법을 제정하여 연방 정부를 수립하고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 결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연방 정부는 각 주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군사권과 외교권을 행사하였다.

18세기 후반 프랑스 사회는 구제도의 모순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제1 신분인 성직자와 제2 신분인 귀족이 전 인구의 약 2%였으나, 이들은 교회·군대·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대토지를 소유하였으며 세금도 면제받았다. 반면 **제3 신분**은 정치 참여가 제한되고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였다. 특히 제3 신분 중 시민 계급은 상공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계몽사상을 받아들여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려는 열망이 높았다.

한편 프랑스 왕실은 화려한 궁중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치와 미국 혁명 지원 등으로 재정이 매우 궁핍해졌다. 결국 루이 16세는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614년 이래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던 삼부회(삼신분회)를 소집하였다.

삼부회(삼신분회)는 소집되자마자 투표의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하였다. 제3 신분은 머릿수 표결 방식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 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해산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다(테니스 코트의 서약). 국왕이 국민 의회를 무력으로 해산하려 하자, 파리 민중은 이에 저항하여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였다.

민중의 저항은 지방 도시와 농촌 등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특히 봉건적 부담에 허덕이던 농민들은 영주의 성을 공격하고 봉건 문서를 불태웠다. 결국 국민 의회는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인권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식량 위기로 고통을 겪던 여성들이 파리에서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위기의식을 느낀 국왕이 국외로 탈출하다가 체포되면서 국왕에 대한 민중의 반감은 더욱 커졌다. 이후 입헌 군주제와 제한 선거제를 규정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으며(1791), 국민 의회가 해산되고 입법 의회가 소집되었다.

혁명의 전파를 우려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등이 프랑스를 위협하자, 의회가 선전 포고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거듭 패전하여 혁명이 위기에 처하자 민중들은 ‘라 마르세예즈’를 외치며 전투에 참여하고자 파리로 몰려들었다. 전쟁으로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과격해진 파리 민중(상퀼로트)이 국왕의 퇴위를 주장하며 왕궁을 습격하였다. 그 결과 왕권이 정지되었고 입법 의회 대신 **국민 공회**가 들어섰다.

국민 공회는 공화정을 선포하고 과격파인 코벵파의 주도로 루이 16세를 처형하였다. 국왕의 처형에 놀란 영국, 러시아 등 유럽 각국은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였다. 한편 프랑스 국내에서는 반혁명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자코뱅파는

온건파인 지롱드파를 숙청하고 공화제와 보통 선거제에 기초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징병제, 의무 교육, 토지 분배,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여 민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이후 자코뱅파의 지도자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공안 위원회는 혁명 재판소 활동을 통해 반혁명 세력을 처형하는 등 공포 정치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공포 정치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온건파의 쿠데타(**테르미도르의 반동**)가 일어났고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되었다.

로베스피에르를 타도한 온건파 의원들은 공화제와 제한 선거제를 규정한 헌법을 제정하고 5인의 총재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총재 정부는 식량 부족과 물가 상승 등 국내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능함을 드러냈으며, 계속된 전쟁으로 영향력이 향상된 군대의 힘을 빌려 권력을 유지하였다. 프랑스군은 대프랑스 동맹군을 격퇴하였으며, 이탈리아와 이집트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통령 정부를 구성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평등·우애**의 이념 아래 봉건적이고 귀족적인 구제도를 타파하여 시민 사회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인권 선언과 노예제 폐지 등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확립하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조화롭게 실현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 혁명을 통해 획득한 정치적·경제적 권리는 결과적으로 부유한 일부 시민 계급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을 뿐 노동자와 농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징병제를 토대로 군사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영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평화를 회복하였다. 프랑스 국립 은행을 설립하여 산업 보호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국민 교육을 시행하여 프랑스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또한 프랑스 혁명의 성과를 반영한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여 법 앞에서의 평등과 재산 소유권을 보장하였다(1804).

이러한 개혁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은 나폴레옹은 국민 투표로 황제에 즉위하였다(**제1 제정**). 이후 영국이 조약을 파기하면서 다시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되었다. 나폴레옹은 영국 본토 상륙을 시도하였으나,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이 이끄는 영국 해군에 패하였다. 그러나 육지에서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를 격파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하여 대륙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나폴레옹은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유럽 대륙과 영국 사이의 무역을 금지하는 **대륙 봉쇄령**을 내렸다. 그러나 러시아가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과 무역을 계속하자 러시아 원정에 나섰다. 나폴레옹 군대는 러시아의 후퇴 전술에 말려들어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퇴각하였다. 나폴레옹은 대프랑스 동맹에 패하여 엘바섬에 유배되었다가 탈출하여 황제로 복귀하였으나,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과의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여 몰락하였다.

나폴레옹 전쟁은 유럽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자극하였다. 자유주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유럽 각국에서는 전제 정치를 폐지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또한 나폴레옹 군대의 침략과 지배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일어나 유럽 각국의 독립과 통일 운동이 전개되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 유럽 각국은 전후 처리를 위해 오스트리아의 제상 메테르니히의 주도로 빈 회의를 개최하였다. 빈 회의에서 정통주의를 표방하고 유럽 각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로 함으로써 **빈 체제**가 성립되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신성 동맹과 4국 동맹이 결성되어 유럽 각국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탄압받았다.

이에 곳곳에서 빈 체제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프로이센에서는 학생 조합 운동이, 이탈리아에서는 카르보나리당이 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에스파냐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그리스는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지원과 유럽의 많은 지식인의 도움으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다(1829).

빈 회의 이후 프랑스에서는 부르봉 왕조가 부활하였다. 샤를 10세는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권을 제한하였으며 언론을 통제하였다. 이에 파리의 자유주의자, 시민과 노동자들이 부르봉 왕조를 무너뜨리고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하여 입헌 군주제가 수립되었다 (**7월 혁명**).

7월 왕정에서는 소수의 대주에게 권력과 부가 집중되었으며 선거권도 부유한 시민에게만 주어졌다. 이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져 선거권 확대 요구로 발전하였다. 이 무렵 프랑스에서는 산업 혁명이 진행되면서 사회주의가 확산되었고 노동자들의 의식이 크게 성장하였다. 마침내 1848년 중소 시민 계급과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며 루이 필리프를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2월 혁명**).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유럽 곳곳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오스트리아에서도 혁명이 일어나 메테르니히가 쫓겨나면서 빈 체제가 무너졌다.

2월 혁명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루이 나폴레옹은 쿠데타와 국민 투표를 통해 황제에 즉위한 후 크림 전쟁 참전과 인도차이나 점령 등 대외 팽창을 꾀하였으나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몰락하였다. 이때 파리의 노동자들이 파리 코뮌이라는 자치 정부를 수립하고 저항하였으나 결국 진압되고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영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자유주의 개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과 심야 작업을 금지하는 공장법이 유럽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심사법을 폐지하고 가톨릭 해방법을 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산업 혁명으로 인구 이동이 늘면서 선거구 재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1832년 선거법을 개정하여 부패 선거구를 없애고 신흥 상공업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인민현장**'을 발표하고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후에 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여성들도 선거권 요구 투쟁을 벌여 20세기 초에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한편 경제 분야에서도 곡물법과 항해법이 폐지되고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어 자유 무역이 크게 발달하였다.

이탈리아는 사르데냐 왕국을 비롯한 여러 왕국과 교황령으로 분열되었으며, 북부 지역은 오스트리아의 간섭과 지배를 받

고 있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침공을 계기로 이탈리아인의 민족의식이 고조되었다.

마치니는 프랑스 2월 혁명의 소식을 듣고 청년 이탈리아당을 조직하여 자유주의적 통일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이후 통일 운동은 사르데냐 왕국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사르데냐 왕국의 제상 **카보우르**는 산업을 장려하고 군대를 양성하는 등 내정 개혁에 힘썼다. 이후 프랑스를 끌어들이어 오스트리아를 몰리치고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 지역을 통합하였다. 이때 의용군을 이끌고 남부 원정을 강행한 **가리발디**는 시칠리아와 나폴리 등 남부 지역을 통합하고, 이를 사르데냐 국왕에게 바쳤다. 이로써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하였으며(1861), 이후 베네치아와 교황령을 통합하여 통일을 완성하였다(1870).

빈 체제에서 독일은 프로이센을 비롯한 35개 영방 국가와 4개 자유시로 분열되어 있었다. 먼저 프로이센은 독일 안에서 거래되는 상품에는 관세를 물지 않기로 한 관세 동맹으로 독일의 경제 통합을 주도하였다.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자들은 프랑크푸르트 국민 의회를 열어 독일의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모두 포함하는 대독일 통일 방안과 오스트리아를 배제하고 프로이센이 주도하는 소독일 통일 방안이 대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때 프로이센의 제상이 된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통일 방법으로 **철혈 정책**을 추진하고 군비 확장에 총력을 기울였다.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북독일 연방을 결성하였다. 또한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한 후 빌헬름 1세가 독일 제국 황제로 즉위하였다(1871).

미국은 독립 이후 활발한 서부 개척을 추진하여 1840년대말에는 영토가 태평양 연안에 이르렀다. 그러나 남부와 북부가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남부에서는 흑인 노예를 고용하여 면화를 재배하는 대농장이 발달하였으며, 영국과의 자유 무역을 추구하였다. 반면 북부에서는 자유로운 임금 노동자를 바탕으로 상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영국의 값싼 공산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 무역을 주장하였다. 결국 남부와 북부의 대립은 노예제를 둘러싸고 격화되었다.

노예제 폐지에 찬성하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 7개 주가 연방에서 탈퇴하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1861). 처음에는 남부가 우세하였으나,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발표하면서 전세는 북부에 유리해졌다. 결국 인구수와 경제력이 앞선 북부가 게티즈버그 전투를 계기로 전세를 역전하면서 전쟁에 승리하였다.

남북 전쟁 이후 미국은 국민적 단합을 이루고 본격적인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유럽 등 다른 대륙의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노동력이 풍부해지고, 대륙 횡단 철도를 부설하여 시장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19세기 말 미국은 세계적인 산업 국가로 성장하였다.

러시아는 군사적 강국이었으나, 19세기에도 여전히 황제인 차르가 전체 정치를 행하였고 농노제가 유지되었다. 서유럽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와 일부 지식인들이 전체 정치 타도와 입헌 군주제 시행을 요구하는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일으켰지만 실패하였다(1825). 봉기를 진압한 니콜라이 1세는 전체 정치를 강화하고 흑해 방면으로 남부 정책을 추진하여 크림 전쟁을 일으켰으나, 오스만 제국을 지원한 영국·

프랑스 등의 동맹군에 패하였다.

이후 알렉산드르 2세는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농노 해방**, 지방 의회 설립, 국민 개병제 시행 등 내정 개혁을 실시하였다(1861). 그러나 차르의 전제 정치는 변함없이 유지되었고, 농민들의 힘겨운 생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러시아의 현실에 절망한 지식인들은 전제 정치에 맞서 혁명 운동을 벌였으며 혁명 세력을 키우기 위해 농민을 계몽하는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의 무관심과 정부의 탄압으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이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하기도 하였다. 이후 러시아에서는 차르의 전제 정치가 더욱 강화되었고 자유주의 운동은 철저하게 탄압받았다.

산업 혁명은 새로운 기계와 동력의 등장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 발전 현상을 말한다. 산업 혁명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의 결과였다. 유럽은 신항로 개척 이후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인구 증가, 식민지 확대로 시장이 확대되어 상품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에 상인 자본가들은 수공업자나 농민에게 원료, 생산 도구, 임금을 주고 상품을 생산하게 하기도 하고 (선대제), 일꾼들을 한 작업장에 모아 놓고 분업으로 상품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매뉴팩처). 산업 혁명으로 공장제 기계 공업에 의한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다.

산업 혁명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영국은 일찍부터 의회 정치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고,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 토지에서 밀려난 농민들이 임금 노동자가 되어 노동력이 풍부하였다. 또한 석탄과 철광석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공업 발전에 유리하였으며, 경험과 실험을 중시한 과학적 태도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이끌었다.

18세기 후반 면직물의 수요가 급증하여 새로운 방직기와 방적기 등이 개발되었다. **증기 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공장이 설립되면서 면직물 분야에서 처음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공장제 기계 공업은 다른 분야로 확대되었다.

18세기 후반 영국은 산업 혁명으로 세계 최대의 공산품 수출국이 되어 세계 무역을 주도하였다. 유럽 각국은 적극적으로 영국의 기계와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유럽 전역으로 산업화가 확산되었다. 19세기 초에 벨기에와 프랑스, 19세기 중반에 독일과 미국, 이어 19세기 후반에 러시아와 일본에서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양상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프랑스는 가내 수공업과 연계하여 고급 섬유 산업이 발달하였다. 독일은 제철업 등 중공업이 발달하였는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미국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토대로 자원 집약적인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농업을 기계화하여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새로운 동력으로 전기 분야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 전신, 전화, 전기 등이 이때 발명되었다. 미국은 독일과 함께 철강, 기계, 전기, 석유 화학 등 중화학 공업 분야에서 산업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제2차 산업 혁명**).

유럽은 산업 혁명을 통해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바뀌었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확립되었다. 다양한 상품이 싸값에 대량 생산되어 소비가 늘어났고 사람들은 풍요롭고 편리한 생

활을 누렸다.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여가 문화가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반면 급속한 도시화로 환경 오염, 주택 부족, 교통 혼잡, 상하수도 미비, 불결한 위생, 범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산업 사회가 형성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새롭게 대두하였다. 노동자는 엄격한 노동 규율 아래 자본가의 통제를 받았다. 초기 노동자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오랜 시간 일하였고, 여성과 아동까지 일터로 내몰렸다.

19세기 초 영국에서는 일부 노동자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적인 고통이 기계 탓이라고 여겨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을 전개하였다.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위해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결하였으며,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참정권 요구 운동을 하였다. 프랑스에서는 2월 혁명, 영국에서는 차티스트 운동을 계기로 노동자에게 선거권을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지식인은 산업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사유 재산제를 비판하고 공장을 비롯한 생산 수단을 사회 공동의 소유로 만들 것을 주장하였다.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경쟁 대신 협동을 내세우며 빈부 격차가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상하였다. 이후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고 권력을 쟁취함으로써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산업화의 확산과 더불어 유럽 각국에서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 운동이 활발해졌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단체와 정당이 출현하고 노동자들이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펼쳤다.

이에 각국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영국에서는 공장법이 제정되어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고 여성과 아동 노동자를 보호하였다. 유럽과 미국 정부는 노동조합을 합법화하고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등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갔다.

#### 44. 밑줄 친 '발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 17세기 말에는 방대한 양의 과학 지식이 축적되었다. 이러한 과학의 발전은 인간, 자연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기존의 비합리적인 사고를 몰아내는 데 기여하였다

- 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였다.
- ② 하비가 혈액 순환의 원리를 발견하였다.
- ③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을 설명하였다.
- ④ 베살리우스가 인체 해부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제시하였다.

45.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발발했을 때 의회파 군대를 이끌어 승리를 거두었어요. 항해법으로 네덜란드에 큰 타격을 주었고 아일랜드도 정복했죠.



- ① 호국경에 취임하였다.
- ② 대헌장을 반포하였다.
- ③ 권리 장전을 승인하였다.
- ④ 루이 16세를 처형하였다.
- ⑤ 리바이어던을 집필하였다.

46. (가) 혁명의 결과로 옳은 것은?

그림으로 읽는 세계사



이 그림은 [가] 시기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한 식민지군이 영국군의 항복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전투에서 식민지군은 프랑스의 군사적 지원 속에 치열한 공세를 펼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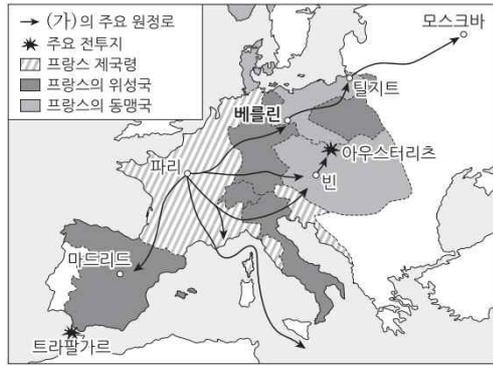
- ① 항해법이 제정되었다.
- ②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③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④ 아우크스부르크 회의가 이루어졌다.
- ⑤ 연방주의에 기초한 공화국이 탄생하였다.

47. (가), (나) 의회가 활동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루이 16세가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부회(삼신분회)를 소집하였으나, 표결 방식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발생하였다. 이에 제3 신분 대표들을 중심으로 (가) 이/가 구성되었다.
- 루이 16세 일가가 국외로 탈출하려다 발각되면서 국왕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 그런 가운데 입헌 군주제를 규정한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나) 이/가 새로 구성되었다.

- ① (가) - 총재 정부가 수립되었다.
- ② (가)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발표되었다.
- ③ (나) - 루이 16세가 처형되었다.
- ④ (나) -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일어났다.
- ⑤ (나) - 테니스코트의 서약이 이루어졌다.

48.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륙 봉쇄령을 내렸다.
- ② 총재 정부를 수립하였다.
- ③ 워털루에서 전투를 벌였다.
- ④ 이집트 원정을 단행하였다.
- 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황제로 즉위하였다.

49. 다음 가상 편지에서 밑줄 친 '혁명'의 결과로 옳은 것은?

○○에게

혁명은 내 아틀리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어. 왕실 용병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했지만, 봉기 가담자들은 당당하게 맞서 싸워 승리를 쟁취했지. 바리케이드가 내 시선을 사로잡더군. '영광의 3일' 동안 내가 조국을 위해 직접 싸우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역사적 현장을 화폭에 담고 싶었어. 마침내 사흘 10세의 퇴위 소식을 듣고 붓과 팔레트를 집어 들었지.

- ① 메테르니히가 국외로 추방되었다.
- ② 루이 필리프가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 ③ 신성 동맹과 4국 동맹이 결성되었다.
- ④ 노동자와 사회주의자들이 파리 코뮌을 수립하였다.
- ⑤ 루이 나폴레옹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50. (가),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인 나. (가)은/는 모든 문제를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민족 문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프로이센의 재상인 나. (나)은/는 모든 문제를 다수결이 아니라 철과 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통일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 ① (가)-빈 체제를 주도하였다.
- ② (가)-3B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③ (나)-두 차례에 걸쳐 모로코 사건을 일으켰다.
- ④ (나)-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 ⑤ (가), (나)-신성 동맹의 결성을 주도하였다.

51.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회가 곡물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② 오언이 협동촌을 건설하였습니다.
- ③ 정부가 공장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④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 ⑤ 사회주의자들이 계급투쟁을 주장하였습니다.

52. 그림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매뉴팩처의 등장 배경을 파악한다.
  - ㄴ. 공장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조사한다.
  - ㄷ. 제1차 인클로저 운동의 배경을 살펴본다.
  - ㄹ. 차티스트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을 알아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19세기 후반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도달한 서양 열강은 값싼 원료 공급지와 제품을 판매하고 국내 잉여 자본을 투자할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였다. 이에 서양 열강은 군사력을 앞세워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제국주의**라고 한다.

제국주의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퍼진 민족주의와 사회 진화론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였다. 극단적 형태로 변질된 강대국의 침략적 민족주의는 식민지를 확대하여 대제국을 형성하려는 민족 감정을 고조시켰으며, 사회 진화론은 백인의 인종적 우월감과 식민지 문명화의 명분을 내세우며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포르투갈은 신항로 개척 이후 가장 먼저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여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였고, 에스파냐는 필리핀을 점령하여 식민지 경영에 주력하였다. 네덜란드는 포르투갈을 밀어내고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자카르타를 거점으로 향신료 무역을 시작하였으며 자와, 수마트라, 보르네오를 합쳐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건설하였다(1904). 이어 대규모 농장을 조성하고 고무, 사탕수수, 커피 등을 강제로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을 통해 원주민을 착취하였다.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를 몰아내고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차지한 영국은 19세기 중엽 인도 대부분을 점령하였다. 이후 전쟁을 통해 미얀마를 식민지화하여 인도에 병합하였다. 나아가 말레이반도와 보르네오 북부를 차지하여 말레이 연방을 수립하였고(1895), 네팔과 아프가니스탄까지 세력을 확대하였다.

프랑스는 베트남의 중추권을 주장하던 청을 물리치고 베트남을 차지하였다. 이후 캄보디아, 라오스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하였다(1887). 프랑스는 베트남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대규모로 쌀농사를 지어 많은 이윤을 남겼다.

한편 제국주의 열강의 영토 분할은 태평양 섬 지역에서도 이루어졌다.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차지령으로 만들었고, 독일도 비스마르크 제도와 마셜 제도 등을 점령하였다. 또한 미국은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고, 하와이와 괌을 차지하였다.

신항로 개척 이후 서구 열강은 아프리카 해안 지대에 진출하여 노예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19세기에 들어 리빙스턴과 스탠리 등 탐험가들의 활동으로 아프리카의 엄청난 지하자원과 시장 잠재력이 알려지자 서양 열강은 앞다투어 아프리카 분할에 나섰다. 그 결과 20세기 초에는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를 제외한 아프리카 전 지역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었다.

아프리카 분할을 주도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였다. 영국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아프리카 최남단의 케이프타운을 잇는 아프리카 종단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맞서 프랑스는 알제리, 모로코 등을 기점으로 동쪽의 마다가스카르에 진출하는 아프리카 횡단 정책을 추진하여 영국과 대립하였다. 결국 1898년 영국과 프랑스는 **파쇼다 사건**으로 충돌하였으나, 마지막 순간에 서로 양보하여 전쟁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그 밖에 벨기에는 중앙아프리카의 콩고를 식민지로 삼았고,

아프리카 분할에 뒤늦게 뛰어든 독일은 카메룬과 토고를 차지하였으며, 동아프리카에 진출하였다. 독일과 프랑스는 모로코를 둘러싸고 두 차례 대립하였으나(모로코 사건), 영국이 프랑스를 지지하여 독일이 퇴각하였다.

아프리카를 분할 점령한 서양 열강은 원주민을 동원하여 사탕수수, 목화, 코코아 등을 재배하였다. 또한 금과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을 얻기 위해 광산을 개발하면서 아프리카인을 잔혹하게 수탈하였다.

19세기 이후 영국은 공행 무역에 따른 대청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인도산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였다. 이에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초래되자 청은 임칙서를 파견하여 아편 단속을 실시하였다. 영국은 이를 구실로 대규모 병력을 보내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1840). 전쟁에 패한 청은 상하이 등 5개 항구 개항, 홍콩 할양, 공행 폐지 등을 규정한 **난징 조약**을 체결하고 이후 추가 조약을 통해 최혜국 대우, 영사 재판권 등을 인정하였다.

이후에도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지 않자 영국은 애로호 사건을 구실로 제 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1856). 프랑스도 선교사 피살을 빌미로 영국 측에 가담하였다. 전쟁에 패한 청은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재, 크리스티교 선교의 자유 인정, 텐진 등 추가 개항, 주룽반도 일부 할양 등을 규정한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을 중재한 대가로 러시아는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얻었다.

아편 전쟁 이후 청의 위신은 크게 손상되었고, 농민들의 생활이 궁핍해졌다. 이를 배경으로 홍수전이 크리스티교의 영향을 받아 상제회를 조직하고, **‘멸만홍한’**을 내세워 태평천국을 건설하였다. 그는 천조전무 제도에 의한 토지 균분과 남녀평등을 내세우고, 변발과 전족의 금지 등을 주장하여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 난징에 도읍한 태평천국은 한때 베이징을 위협할 정도로 크게 세력을 떨쳤다.

그러나 태평천국군은 내부 분열과 향용의 공격으로 약화되었다. 게다가 베이징 조약으로 각종 이권을 얻은 서양 세력이 청군을 지지하면서 점차 수세에 몰리게 되었고 홍수전 사후 태평천국은 붕괴되었다.

청은 아편 전쟁과 태평천국 운동을 겪으면서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인식하였고, 이를 도입하려는 양무운동을 전개하였다. 태평천국군 진압에 공을 세운 중국변, 이홍장 등의 한인 관료가 주도한 양무운동은 **중체서용**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은 군수 공장을 건설하고 근대적 육군과 해군을 창설하였으며, 근대 회사를 설립하고 광산 개발을 추진하였다. 또한 신식 학교를 세우고 유학생을 외국에 파견하였다. 하지만 양무운동은 의식이나 제도 개혁 없이 서양의 기술만을 도입하려 하였고, 중앙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청일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러한 한계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청일 전쟁 이후 강유웨이와 량치차오 등 개혁적 성향의 지식인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는 등 정치 제도를 개혁하려 하였다.

이들은 광서제의 신임을 얻어 과거제 개혁, 신교육 실시, 상공업 육성 등 행정, 교육, 경제 등의 분야에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변법자강 운동**이라 한다. 그러나 서태후 등의 보수파가 일으킨 무술정변으로 100여 일 만에 끝나고 말

았다.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자 외세에 대한 민중의 반감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산둥반도를 근거지로 일부 백련교도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의화단은 '부청멸양'을 구호로 반크리스트교, 반제국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의화단은 외국인을 습격하고 교회와 철도, 전신 시설 등을 파괴하였다. 이에 영국, 일본 등 8개국은 연합군을 조직하여 의화단을 진압하고, 베이징을 점령한 뒤 청과 **신축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청은 열강에 많은 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후 보수파는 근대적 관제 도입, 신식 군대 양성, 과거제 폐지 등의 개혁을 단행하고 지방 의회를 설치하였으며 헌법 제정을 약속하였다(광서신정).

청의 지배에 실망한 유학생을 중심으로 청을 타도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자 쑨원은 도쿄에서 혁명 단체를 모아 중국 동맹회를 조직하였다. **중국 동맹회**는 삼민주의를 내세우고 공화국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청 정부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민영 철도의 국유화를 추진하자 쓰촨 지방을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청 정부가 군대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려 하자, 우창에서 혁명 세력과 연결된 신군이 봉기하면서 신해혁명으로 이어졌다(1911). 이듬해 혁명과 세력은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하여 난징을 수도로 정하고 **중화민국**을 수립하였다. 청은 위안스카이를 내세워 혁명을 진압하려 하였지만, 그가 오히려 혁명 세력과 손을 잡고 선통제를 퇴위시킴으로써 청은 멸망하였다.

쑨원을 대신하여 대총통의 자리에 오른 위안스카이는 혁명파를 탄압하고 자신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였다. 그는 제정으로의 복귀를 시도하여 황제로 취임하였으나 곧 병사하였다.

위안스카이 사후 중앙 정부의 통제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장쑤린 등의 군벌이 자신의 근거지에서 휘하에 군대를 보유하고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이들 군벌은 장제스가 북벌을 완료할 때까지 베이징의 중앙 정부를 무대로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 군벌 간의 갈등으로 정국은 혼란스러워졌다.

신해혁명 이후 천두슈 등 지식인과 학생들이 **신문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신문화 운동을 통해 봉건적인 유교 사상을 비판하고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 사상을 수용하여 중국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려 하였다. 또한 잡지 『신청년』을 간행하고, 대중이 문학과 새로운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어체로 글을 쓰는 백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개최된 파리 강화 회의에서 산둥반도의 이권 회수를 요구한 중국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1919년 베이징의 학생들이 텐안먼 광장에서 격렬한 항의 시위를 일으켰다 (**5·4 운동**). 상인과 노동자가 가세하면서 시위는 대규모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 철폐, 군벌 타도, 친일파 타도 등을 외쳤다. 결국 베이징의 군벌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으며, 이후 열강은 중국의 영토 보전을 약속하였다.

서양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고 네덜란드와의 제한적인 무역만을 허용하고 있던 일본의 에도 막부는 미국 페리 제독의 무력시위에 굴복하여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개항하였다(1854). 이어 막부는 미국의 계속된 통상 요구를 받아들여

협정 관세와 영사 재판권 등을 인정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1858). 이후에도 막부는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과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다.

개항 과정에서 서구 열강에 굴복한 에도 막부의 권위는 크게 추락하였다. 외국 상품이 수입되면서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상승하자 각지에서 농민들의 폭동이 일어났다.

이에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외세 배격 운동인 양이 운동이 일어났다. 막부에 반대하던 세력은 이러한 움직임을 **존왕양이 운동**으로 이어가며 막부 타도에 이용하였다. 사쓰마번, 조슈번 등이 중심이 되어 막부 타도 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1868년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는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추진하여 천황 중심의 근대 국가를 세우려 하였다(1868). 에도를 도쿄로 고쳐 수도로 삼았으며, 폐번치현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봉건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전국의 토지와 인민을 직접 통제하는 중앙 집권 체제가 수립되었다. 또한 신분제를 폐지하고 징병제를 실시하였으며 근대적 토지 세제를 확립하고 이와쿠라 사절단을 유럽과 미국에 파견하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헌법 제정과 서양식 의회의 설립을 주장하는 **자유 민권 운동**이 일어났다. 메이지 정부는 이를 탄압하는 한편,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을 공포하고, 의회를 설립하는 등 입헌 군주국의 모습을 갖추었다(1889). 그러나 헌법은 천황에게 입법권, 조약 체결권, 군통수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었다.

메이지 유신 추진 과정에서 소외된 무사층이 불만을 품자, 정부는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으로 관심을 돌리려 하였다. 이후 대외 침략에 나선 일본은 류큐를 합병하여 오키나와현을 설치하였고,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조선을 개항시켰다.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대립으로 청일 전쟁이 발발하였고,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여 청으로부터 막대한 배상금을 받고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았다. 그러나 이를 견제한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랴오둥반도를 청에 반환하였다(삼국 간섭). 이후 일본은 영국과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휘순의 러시아 군함을 선제공격하여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고, 한반도와 만주에서의 우월권을 인정받았다.

신항로 개척 이후 동인도 회사를 내세워 인도에 진출한 영국과 프랑스는 무굴 제국의 쇠퇴를 틈타 인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벌였다. 영국은 **플라시 전투**에서 벵골과 연합한 프랑스군을 물리치고 무굴 제국 황제로부터 벵골 지역의 통치권과 조세 징수권을 인정받았다. 이후 영국은 인도 전역으로 세력을 확대하였고 19세기 중엽에는 인도의 거의 모든 지역을 차지하였다.

영국은 인도의 복잡한 민족 구성과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 간의 종교적 갈등을 이용하여 인도를 지배하였다. 또한 무거운 토지세를 부과하는 한편, 인도인에게 면화 재배를 강요하고 값싼 면직물을 대량으로 인도에 수출하여 인도의 수공업을 몰락시켰다.

영국의 침략에 맞서 인도 남부의 마이소르 왕국, 중부의 마라타 동맹과 북부의 시크교도들이 반영 전쟁을 벌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영국의 침략과 수탈에 대한 불만은 결국 **세포이의**

항쟁으로 폭발하였다.

세포이는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인 용병으로 영국의 인도 장악에 기여하였으나 인종 차별과 종교적 갈등 등으로 점차 불만이 쌓여 갔다. 결국 대부분이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였던 세포이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탄약 주머니에 소와 돼지의 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소문이 발단이 되어 봉기하였다. 세포이들은 한때 수도 델리를 점령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영국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세포이 항쟁은 인도 최초의 대규모 민족 운동이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은 무굴 황제를 폐위시키고 인도 통치 개선법을 제정하여 동인도 회사를 해체하였다.

이후 인도는 영국 왕이 인도 황제를 겸하는 인도 제국이 되면서 영국의 완전한 식민지가 되었다(1877).

영국의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인도에서는 서양식 근대 교육을 받고 영어를 사용하는 지식인이 늘어나고, 면직물 공업을 중심으로 자본가가 성장하였다. 영국이 인도에 대한 식민 통치를 강화하자 이들을 중심으로 사회를 개혁하고 영국의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 운동이 전개되었다.

19세기 전만 서양의 근대 사상에 영향을 받은 힌두교 지도자들은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종교 운동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사회 개혁 운동으로 발전하여, 인도인의 민족의식을 고양하였다.

이에 영국은 효과적인 인도 지배를 위해 인도의 지식인과 자본가 등을 회유하여 전국적인 정치 조직을 만들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인도 뭄바이에서 영국에 협조적인 지식인, 관리, 자본가, 지주 등이 주로 참여하는 **인도 국민 회의**가 결성되었다(1885). 인도 국민 회의는 창립 당시 영국의 식민 통치에 순응하면서 인도인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890년대에 들어서 인도 국민 회의는 점차 반영 민족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영국의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인도의 국부가 유출되고 민중의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영국의 인도 식민 지배에서 최대의 거점이었던 벵골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반영 운동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영국이 행정상의 이유를 들어 벵골 지역을 이슬람교도 거주 지역과 힌두교도 거주 지역으로 분할하는 벵골 분할령을 발표하자(1905), 인도 국민 회의는 반영 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하였다. 릴라크를 중심으로 한 인도 국민 회의의 급진파는 1906년 **콜카타 대회**를 열어 영국 상품 불매, 스와라지(인도인의 자치), 스와데시(국산품 애용), 국민 교육 실시 등의 4대 강령을 채택하였다.

벵골 분할령 반대 운동이 지식인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까지 참여하면서 확대되자 영국은 전 인도 이슬람교도 연맹의 결성을 지원하여 민족 운동을 분열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분열 정책에도 불구하고 벵골 분할령에 대한 인도인의 저항이 전국적으로 퍼지자, 영국은 벵골 분할령을 철회하고(1911) 인도인에게 명목상의 자치를 허용하였다.

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에 항거하여 근왕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조직력의 부족으로 실패하였다. 판보이쩌우는 베트남 유신회를 조직하고 청년들을 일본으로 유학시키는 **동유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중국으로 망명한 판보이쩌우는 신해혁명의

영향을 받아 공화정을 지향하는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하였다.

필리핀에서는 현지인과 화교가 중심이 되어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였다. 호세 리살은 에스파냐인과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필리핀 민족 동맹을 조직하였다. 아گی날도는 미국과 에스파냐가 필리핀의 지배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자 독립을 약속한 미국을 지원하면서 필리핀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승전한 미국은 약속을 어기고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민족 운동이 시작되었다. 지식인과 이슬람교도 상인들은 민족 운동 단체인 이슬람 동맹을 결성하였다.

태국의 짜끄리 왕조는 과감한 외교 정책을 펼쳐 동진하는 영국과 서진하는 프랑스의 완충 지대로 자리매김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하였다.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아라비아반도에서는 압둘 와하브가 이슬람교 초기의 순수함을 되찾자는 **와하브 운동**을 전개하였다. 와하브 운동은 아라비아반도를 통합하는 이념적 기반으로 작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수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란은 러시아와 영국 등 열강의 침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19세기 말 카자르 왕조가 영국에 자국의 담배 제조와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넘겨주자 이란인 사이에서 반영 감정이 고조되어 담배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19세기 영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압박으로 점차 쇠퇴하던 오스만 제국은 제국의 부흥을 위해 **‘탄지마트’**라는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탄지마트는 중앙 집권적 행정 체도를 마련하고 신식 교육의 도입과 근대 개혁을 통해 제국의 부흥을 꾀하였다. 또한 헌법을 제정하여 입헌 군주 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의 반발과 외세의 간섭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후 전제 정치가 부활하자 근대화를 열망하는 지식인들이 청년 튀르크당을 조직하여 무장봉기하고 헌법을 부활시켰다(1908). 이어 근대화 산업 육성, 교육과 세제 개혁 등을 추진하였다.

53.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전문이 감도는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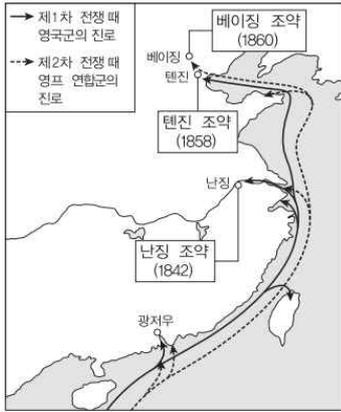
- 제1차 세계 대전의 배경이 된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갈등

<사례 1> 3국 협상 : 3국 동맹에 대항한 영국, 러시아, (가)의 결속

<사례 2> 모로코 사건 : (가)의 모로코 지배 시도에 독일이 반발하여 일어난 사건

- ① 말레이 연방을 조직하였다.
- ② 필리핀 연맹을 탄압하였다.
- ③ 캄, 하와이 등을 병합하였다.
- ④ 이란의 담배 불매 운동을 촉발하였다.
- 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3국을 식민 지배하였다.

54. 지도에 나타난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러시아와 체결한 카호타 조약의 내용을 확인한다.
- ② 과거제가 폐지되고 신군이 창설된 계기를 조사한다.
- ③ 한족 관료들이 군수 공업을 일으키게 된 원인을 찾아본다.
- ④ 전국의 여러 성들이 차례로 독립을 선언한 이유를 알아본다.
- ⑤ 쓰촨에서 일어난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의 경과를 살펴본다.

55. 밑줄 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일본과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로 위기가 고조되자, 부국·강병·양민(養民)·정치 체제 변화 등을 요구한 상서에 많은 사람들이 서명한 후 이를 조정에 전달하는 모습이다. 광서제는 상서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는 공업·상업·교육 등 수십 항목에 관한 칙령을 내렸다. 그러나 개혁은 보수파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 ① 중국본이 주도하였다.
- ② 금릉 기기국을 설치하였다.
- ③ 향용에 의해서 저지되었다.
- ④ 관리 선발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 ⑤ 차관의 담보로 이용하기 위해서 철도 국유화를 추진하였다.

56. 다음 주장이 반영되어 일어난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벽 이래 우리 나라의 군주와 백성은 하루도 서로 분리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군주가 있어야 백성이 있고, 군주가 없으면 백성도 없다. 이러한 뜻을 모르고 오랑캐의 말투를 흉내 내는 자들은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천하이다."라고 떠들면서 국체(國體)를 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도의 소군이 제멋대로 서양과 조약을 맺었으니 그를 믿을 수 없다.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무리를 모아서 체제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 ① 자유 민권 운동이 일어났다.
- ② 막부 타도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③ 이와쿠라 사절단이 파견되었다.
- ④ 의회 설립을 규정한 헌법이 제정되었다.
- ⑤ 네덜란드와의 무역이 나가사키로 제한되었다.

57. 밑줄 친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새 탄약통을 지급하면서 힌두교도에게는 소기름을 바른 탄약통을 주었고, 이슬람교도에게는 돼지기름을 바른 탄약통을 주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다. 이 소문은 꼬리를 물고 번져갔다. 마침내 미루트에서 용병 3개 연대가 봉기하였다. 그들은 노년의 무굴 황제를 내세우고, 황제의 이름으로 각지에 동참을 호소하였다.

- ① 플라시 전투 직후에 발생하였다.
- ② 인도 국민 회의의 지원을 받았다.
- ③ 스와데시·스와라지를 구호로 삼았다.
- ④ 롤렛(로레트) 법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 ⑤ 영국이 인도를 직접 통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58.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 계 사 신 문      ○○○○년 ○○월 ○○일



**유럽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줄루족의 함성!**

창과 방패 등으로 무장한 줄루족은 이산들로나 전투에서 최신 무기를 갖춘 (가)의 군대를 물리쳤다. 줄루족은 곧 반격을 받고 패배하였지만, 그 후에도 줄루 봉기 등을 통해 (가)의 지배에 저항하였다.

▲ 이산들로나 전투

- ① 앙골라를 지배하였다.
- ② 헤레로족을 학살하였다.
- ③ 알제리를 식민지로 삼았다.
- ④ 아도와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 ⑤ 아라비 파사의 혁명을 좌절시켰다.

59.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림은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난감해하는 (가)의 나세르 알 딘 샤를 풍자한 것이다. (가)은/는 한편으로 카스피해 동쪽 방면에서 남하하던 러시아와, 다른 한편으로 아프가니스탄 지역 등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 사이에서 이중의 압박을 받으며 영토를 빼앗기거나 각종 독점권을 넘겨주었다. 이에 샤는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외세의 간섭과 보수 세력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 ① 탄지마트가 단행되었다.
- ② 반동 회의가 개최되었다.
- ③ 아도와 전투가 발발하였다.
- ④ 담배 불매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⑤ 물렛법 폐지 운동이 벌어졌다.

12. 두 차례의 세계 대전

19세기 후반 식민지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열강은 세력 확대를 위해 비밀 외교 협상과 군비 확장을 계속하였다.

독일의 수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와 3국 동맹을 결성하여(1882) 유럽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프랑스를 고립시킴으로써 독일 제국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빌헬름 2세는 즉위 후 비스마르크를 수상직에서 해임하고 베를린-비잔티움(이스탄불)-바그다드 철도 건설(3B 정책)을 추진하는 등 팽창주의 정책을 강화하여 영국이 추진하는 몰카타-카이로-케이프타운 연결 정책(3C 정책)과 충돌하였다. 독일에 맞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3국 협상을 결성하여 3국 동맹과 대립하였다.

제국주의 열강 간의 식민지 경쟁과 함께 발칸반도의 민족주의는 유럽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발칸반도를 장악하였던 오스만 제국이 점차 약화되면서 이 지역에서 세력을 강화하려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중심의 범게르만주의와 러시아와 슬라브계 국가들 중심의 범슬라브주의가 대립하여 전쟁이 발발하기도 하였다(발칸 전쟁).

1914년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 포고를 하자 3국 협상이 세르비아를 지원하고 3국 동맹 측이 반대편에 가담하면서 제 1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었다.

초기에 독일군은 프랑스와의 단기전을 계획하였으나, 마른 전투와 솜 전투에서 프랑스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후 독일은 서부 전선에서는 프랑스와,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와 대립하였다.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참호전이 전개되었고 상대방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한 양측의 대공세는 막대한 사상자를 낳았다. 한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대립하던 이탈리아가 동맹국에서 이탈하여 협상국 측(연합국)에 가담하고,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 측에 참전하면서 전쟁은 확대되었다.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피해를 본 미국이 연합국 측으로 참전하자 전세는 연합군에 유리하게 돌아갔다. 한편 독일과 동부 전선에서 대립하던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하고 전선에서 이탈하였다. 이후 독일은 서부 전선에 전력을 집중하였으나,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등 동맹국의 항복이 이어지면서 전세가 불리해졌다.

이 시기 독일 내부에서는 1918년 킬 군항 수병들의 반란을 계기로 빌헬름 2세가 퇴위하고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공화국 정부가 연합국 측과 휴전 조약을 체결하면서 제 1차 세계 대전은 연합국과 동맹국 모두에게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남긴 채 막을 내렸다.

19세기 말 러시아에서는 자유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보급되었고,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자 계급이 늘어났다. 그러나 차르의 전제 정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러일 전쟁에서도 밀리자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이에 대규모 군중

시위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피의 일요일 사건, 1905). 노동자·농민의 시위가 계속되자 니콜라이 2세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시민

의 자유와 두마(외회)의 입법권 보장 등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약속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고 차르의 전제 정치는 계속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협상국 측으로 참전한 러시아는 낙후한 무기와 무능한 지휘부 때문에 독일군에 패배를 거듭하였다. 이에 1917년 전쟁 중지와 차르 타도를 외치는 봉기가 일어났고, 노동자·병사 소비에트가 결성되어 혁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제정이 붕괴되고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3월 혁명).

그러나 임시 정부는 국민의 염원과 달리 전쟁을 계속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시위가 계속되자, 레닌이 모든 권력의 소비에트 이양과 전쟁의 즉각 중지를 주장하여 노동자, 농민의 지지를 얻었다. 결국 볼셰비키가 주도한 무장봉기가 일어나 임시 정부가 무너지고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었다 (11월 혁명).

한편 레닌은 국제 공산당 조직인 **코민테른**을 조직하고, 각국의 노동 운동과 식민지 해방 운동에 인적·물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에 각국의 여러 단체와 지식인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사회주의가 확산되었다.

소비에트 정부는 독일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하여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이탈하고, 토지와 주요 산업의 국유화 등 사회주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반혁명 세력과 내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전시 공산주의 정책을 펴 식량과 노동력을 징발하였다. 이에 농민층의 불만이 높아지자 레닌은 **소경제 정책**을 시행하여 시장 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는 등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였다. 이후 생산력을 회복하고 정권을 안정시킨 레닌은 주변 소비에트 정부를 묶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을 수립하였다 (1922).

레닌 사후 집권한 스탈린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중공업육을 육성하고 농업 집단화 정책을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 통제 경제 정책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소련은 세계적인 공업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으나, 정치적으로는 반대파를 숙청하며 스탈린 독재 체제를 강화하였다.

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전후 문제 처리와 평화 체제 마련을 위해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안한 민족 자결주의 등 14개조 평화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연합국은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고, 다른 패전국들과도 개별적으로 강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되었다.

베르사유 체제는 표면적으로는 전쟁 방지, 세계 평화 확립 등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주요 결정은 승전국의 이익에 따라 내려졌으며, 패전국에는 철저한 보복과 응징이 가해졌다. 특히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과 군비 감축을 요구받았고 해외의 모든 식민지를 잃게 되었다.

윌슨의 제안에 따라 42개국이 참여한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다. 국제 연맹은 군비 축소, 각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제창국인 미국이 처음부터 불참하였고, 독일과 소련도 처음에는 참여가 배제되었다. 또한 국제 분쟁을 억제할 무력 수단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 연맹은 1930년대 일본의 만주 사변이나 나치 독일의 재무장 등을 막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평화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각국은 워싱턴 회의(1921)에서 군비 감축을 논의하였고, 로카르노 조약(1925)을 통해 독일의 국제 연맹

가입과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하였다. 또한 15개 국가가 국가 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는 쾰로그-브리앙 조약을 체결하였으며(1928), 독일의 전쟁 배상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도스안과 영안을 결의하였다.

중전을 전후하여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하였다.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도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섰다. 이와 더불어 참정권이 확대되어 유럽 각국에서 노동자 계층과 여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러시아 혁명은 중국의 민족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5·4운동에 자극을 받아 쑨원 등은 중국 국민당을, 천두슈 등은 중국 공산당을 결성하였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공동으로 군벌을 소탕하고, 군벌과 연결된 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기 위한 국민 혁명에 나섰다 (**제1차 국공 합작**).

쑨원 사후 장제스는 북쪽의 군벌 정부를 타도하는 북벌을 단행하여 베이징을 점령한 뒤 국민 혁명을 완성하고 난징에 통일된 국민당 정부를 수립하였다(1928). 이 과정에서 공산당이 탄압을 받아 제1차 국공 합작이 결렬되었다. 만주 사변(1931) 이후에도 장제스가 공산당 소탕에 전력을 기울이자 결국 공산당은 **대장정**(1934~1936)에 나서게 되었다. 일본의 중국 침략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전을 중지하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일치단결하여 항일 투쟁에 나서라는 요구가 점점 강해지면서 시안 사건이 일어났다. 뒤이어 중일 전쟁(1937)이 발발하자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과 다시 통일 전선을 형성하고 (**제2차 국공 합작**) 항일 투쟁에 나섰다.

인도는 제1차 세계 대전 중 자치권의 확대를 약속받고 영국 정부에 협력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인도 남성의 10%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롤릿법을 제정하는 등 인도인을 탄압하였다. 이에 **간디**는 롤릿법의 폐지와 완전 자치를 요구하며 비폭력·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였다. 네루는 인도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며 인도 독립 동맹을 결성하고(1929) 영국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였다. 결국 영국 정부는 신인도 통치법을 제정(1935)하여 군사와 외교를 제외한 인도인의 자치를 인정하였다.

베트남은 독립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1차 세계 대전에서 프랑스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프랑스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호찌민은 베트남 공산당을 결성하고(1930) 민족 운동을 주도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결성하고(1927) 네덜란드에 맞서 민족 운동을 전개하였다.

제 1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오스만 제국은 연합국에 의해 튀르키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영토를 대부분 잃고 내정 간섭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무스타파 케말은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고 정치 개혁을 단행하였다. 케말은 술탄 제도 폐지, 남녀 평등권 도입, 터키 문자 제정 등 근대화에 전력을 기울였다.

한편 영국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오스만 제국을 압박하고자 맥Mahon 서한으로 아랍인에게 독립을 대가로 도움을 받았다. 동시에 유대인의 지원도 얻기 위해 벨푸어 서한으로 유대인의 국가 건설도 약속함으로써 훗날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였다.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국으로 성

장하였다. 전쟁 중에 미국은 연합국을 상대로 군수 물자를 판매하고, 전쟁 후에는 유럽 국가들의 복구를 위해 민간 자본과 차관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전후 호황 속에 과다하게 이루어진 투자와 생산이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불황으로 빠져들었다. 1929년 뉴욕 증권 거래소 주가가 대폭락하는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수많은 은행과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미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유럽, 아시아 등도 타격을 받아 공황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공황 극복을 위해 자유방임주의 경제 원칙을 일부 포기하고, 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한 케인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도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자국과 식민지를 연결하는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공황에 대응하였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세계 무역이 크게 위축되고 소비 시장은 더욱 축소되었다. 한편 국내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넓은 식민지를 갖지 못하였던 국가들은 더욱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합국에 비해 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종전 후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자가 증가하자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솔리니**는 파시스트당을 결성하고 1922년 로마 진군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무솔리니는 파시스트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해산하여 파시스트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대공황으로 경제 사정이 더욱 악화하자 국가 지상주의와 군국주의를 강화하였다.

독일은 제 1차 세계 대전의 패전 책임과 배상금 부담 속에서 정치적·경제적 혼란을 거듭하였다. 대공황의 발생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자 **히틀러**와 나치당은 베르사유 조약 폐기, 극단적인 인종주의와 국가주의를 내세워 독일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선거를 통해 나치당은 제1당이 되었으며 이후 히틀러는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하고 총통이 되었다(1934). 히틀러는 국제 연맹을 탈퇴하고 독일의 재무장을 추진하는 한편, 비밀경찰인 게슈타포를 동원하여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중 경제적 호황을 누렸던 일본도 대공황의 위기를 대외 침략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일자 국제 연맹을 탈퇴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등 일본의 군국주의가 더욱 강화되었다.

1936년 에스파냐 내전을 계기로 독일과 이탈리아가 추축국 동맹을 체결하였다. 이후 독일과 일본이 맺은 방공 협정에 이탈리아까지 가입하면서(1937) 전제주의 세력은 3국 추축 진영을 형성하고 대외 침략을 본격화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후의 영토 분할에 불만이 있었던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침략하고(1935) 일본도 만주 사변에 이어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1937).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강제로 합병한 후 체코슬로바키아의 수테텐 지방까지 요구하였다(1938). 독일을 이용하여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으려고 유화 정책을 펴던 영국과 프랑스는 체

코슬로바키아와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뮌헨 협정을 체결하여 더 이상의 영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테텐 지방을 독일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히틀러는 약속을 깨고 체코슬로바키아를 병합하고 폴란드 회랑 지대도 요구하였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를 거절하자 독일은 소련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폴란드를 침공하였다. 이에 폴란드와 원조 조약을 맺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 포고를 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었다.

독일은 신속하게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로 진격하고 프랑스 파리를 점령하였다. 프랑스 남부에서는 독일에 협조적인 비시 정부가 들어섰고, 이에 반대하여 드골 장군은 영국에 망명 정부를 세웠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프랑스 공방전에 참전한 뒤 그리스를 침공하였다. 이후 독일은 발칸반도를 점령하여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나아가 1941년에는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까지 침공하였다.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이 장기화되자 원유를 비롯한 지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 전체에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며 동남아시아를 침략하였다. 이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 석유와 전쟁 물자 수출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자 일본은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였다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군이 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를 점령하면서 전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전쟁은 1942년부터 연합국에 유리하게 돌아갔다.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소련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탈리아는 전세 악화와 비판 여론 속에서 무솔리니가 몰락한 뒤 연합국에 항복하였다. 1944년 연합국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 파리를 회복하고 독일을 압박하였다.

1945년 5월 소련군이 베를린을 점령하자 독일군은 무조건 항복하였다.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소련이 만주로 진격해 오자 무조건 항복하였다. 이로써 제2차 세계 대전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은 5,000만 명에 달하는 희생자를 남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었다. 곳곳에서 자행된 학살, 전후방이 따로 없는 무차별 공습과 폭격, 기아와 질병 등으로부터 비롯된 민간인 피해도 극심하였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연합국 대표들은 카이로, 알타, 포츠담 등지에서 회담을 열고, 전후 처리와 평화 유지 및 새로운 질서에 대해 논의하였다. 패전 후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으며, 일본은 미군의 지배를 받다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1951) 을 통해 주권을 되찾았다.

전쟁이 끝나고 독일 뉘른베르크와 일본 도쿄에서는 전쟁 범죄를 처리하기 위한 국제 군사 재판이 열렸다. 이를 통해 침략 전쟁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전쟁 중 저질러진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한편 1941년 북대서양의 함상에서 만난 루스벨트와 처칠은 대서양 헌장을 공동으로 발표하여 **국제 연합 (UN)** 창설을 결정하였다. 1945년 10월에 출범한 국제 연합은 평화와 안전 유지, 국제 우호 증진 등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가 총회보다 우선시되었으며, 미국·소련·영국·중국·프랑스의 5개 상임 이사국들은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었다. 국제 연맹과는 달리 침략 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이 가능하였으나, 국제 연합은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의 이해와 냉전 상황에 좌우되는 등 한계를 노출하기도 하였다.

60. 밑줄 친 '그 전쟁' 중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라예보 사건으로 촉발된 그 전쟁은 몸서리치게 참혹했다. ...(중략)... 마른 전투 이후 서부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오랜 전쟁 기간 동안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하고 무참한 일들이 벌어졌다. 수많은 젊은이가 진흙탕 참호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처참한 학살이 자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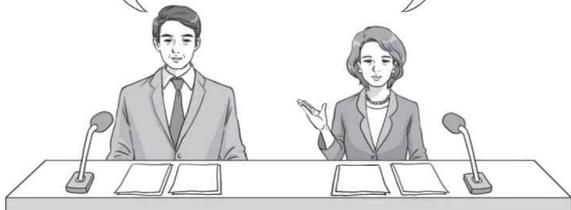
- ① 방독면 공장에서 일하는 프랑스 여성
- ②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수행하는 독일 수병
- ③ 원자 폭탄을 투하하는 미국 폭격기 조종사
- ④ 터키 전선에서 기관총을 쏘는 인도인 병사
- ⑤ 유럽 전선에서 탱크를 타고 진격하는 영국 군인

61. (가), (나)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회 학술 대회 : 러시아 혁명과 전쟁  
일시 : 2017년 △△월 △△일    장소 : □□대학교 □□강당

(가)에서 러시아가 불리해지자 전쟁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차르가 이를 무시한 것이 2월 혁명의 주요한 원인이었죠.

맞습니다. 러시아에서 혁명은 전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돌이켜보면 '피의 일요일 사건'도 (나)의 전개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 ① (가)-독일이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면서 확대되었다.
- ② (가)-두마 설치 등 니콜라이 2세의 개혁이 선언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나)-러시아에서 농노 해방령이 선포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④ (나)-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 ⑤ (가), (나) 사이에 두 차례의 발칸 전쟁이 일어났다.

62. 다음 연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중국은 여전히 제국주의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정이 수립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군벌이 전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의 역량을 모아 국민 혁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의 마음을 하나의 당으로 모아야 합니다. 오로지 국민당만이 보편적인 국민혁명당이 될 수 있으며, 국민 혁명을 이끌어 민족을 해방하고 민권을 회복하며 민생을 편안하게 하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리다자오 -

- ① 시안 사건 이후 발표되었다.
- ② 쑨원의 임시 대통령 추대를 요구하였다.
- ③ 도료에서 혁명 단체의 통합을 촉구하였다.
- ④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합작을 지지하였다.
- ⑤ 장제스가 중국 국민당의 실권을 장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63. (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러시아 볼셰비키가 독일 제국 및 그 동맹국들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불리한 강화 조건을 감수해야 했으나, 전쟁에서는 벗어났다.

(나) 이탈리아 파시스트가 로마 진군을 단행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파시스트당 지도자 무솔리니가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의 지명을 받아들여 총리에 취임하였다.

- ①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다.
- ② 히틀러가 총리에 취임하였다.
- ③ 켈로그·브리앙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④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었다.
- ⑤ 이탈리아가 프랑코의 반란군을 지원하였다.

64.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1조 (가)와/과 소련은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세력과 연합하여 서로에 대해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는다.

제2조 조약 체결국 한쪽이 제3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체결국은 그 세력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3조 체결 당사자인 양국은 공동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한다.

:

1939. 08. 23.

- < 보 기 >
- ㄱ. 폴란드를 침공하였다.
  - ㄴ. 국제 연맹을 탈퇴하였다.
  - ㄷ. 포츠담 회담에 참가하였다.
  - ㄹ. 코민포름 창설을 주도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5.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료로 보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

황국의 국시는 팔굉일우(八紘一宇)의 건국 정신에 따라 일본, 만주, 중국의 강고한 결합을 통한 대동아의 신질서를 건설함에 있다. …(중략)… 황국의 외교는 우선 그 중점을 중국과의 전쟁 완수에 두는 한편, 앞으로의 국제적 변화를 잘 살피 국운의 진전을 기한다.

- 일본 내각 결의문 -

진주만 공습 1년여 전에 작성된 이 결의문의 내용처럼, 실제로 군국주의 일본은 국제적 변화를 틈타 제국주의 침략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 결의 이후 발생한 국제적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①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였습니다.
- ②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였습니다.
- ③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 포고를 하였습니다.
- ④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방공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⑤ 프랑코의 반란으로 에스파냐에서 내전이 발발하였습니다.

13. 현대 세계의 변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동유럽 여러 나라에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에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고 있던 그리스와 터키에 군사·경제 지원을 약속하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듬해에는 서유럽 경제의 재건을 위해 대규모 기금을 제공하는 **마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소련은 정보기관인 코민포름과 동유럽 경제 협력 기구인 코메콘을 설립하였다. 또한 미국과 서유럽 국가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를 결성하자, 소련 측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를 결성하여(1955) 군사 동맹을 강화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은 독일에서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서베를린을 점령하고 있던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독 지역에 새로운 통화 제도를 도입하자, 소련은 베를린 봉쇄를 단행하였다. 이후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었으며,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었다(1961). 또한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등 양 진영은 곳곳에서 대립하였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베트남도 공산 진영의 북베트남과 자유 민주 진영의 남베트남으로 분단되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났다(1975).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이 탄생하였다. 이들 중 미국 중심의 자유 민주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 중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는 **비동맹 중립주의**를 내세운 국가를 제3 세계라 한다.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저우언라이가 발표한 평화 5원칙을 기로(1954), 이듬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반동 회의에서 아시아·아프리카의 29개국 대표들이 모여 평화 10원칙을 발표함으로써 제3 세계의 성립이 공식화되었다. 1961년 티토, 네루, 나세르 등은 베오그라드에서 제1차 비동맹 회의를 열고, 미국 및 소련이 주도하는 군사 동맹의 불참과 비동맹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선언하였다.

제3 세계의 비동맹 중립주의와 더불어 미국과 소련의 대립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유럽 여러 나라가 미국과 소련에 대항하여 유럽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였으며(1958), 프랑스가 미국 중심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 통합군을 탈퇴하였다(1966).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진영 내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국경 문제로 소련과 분쟁을 겪었다.

전후 20년 이상 계속된 냉전 체제는 미국의 **닉슨 독트린**으로 긴장 완화의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이후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하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또한 소련과 전략 무기를 제한하는 협정(SALT)을 체결하였다(1972).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도 동방 정책을 내세워 동독과 교류하고, 국제 연합에 함께 가입하였다(1973). 이처럼 냉전 체제가 완화되자 이념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증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냉전의 한 축을 형성하였던 소련은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의 등장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흐루쇼프는 스탈린의 실정을 비판하고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 공존을 도모하였으나 보수파의 반발로 축출되었다. 이후 브레즈네프 집권 시기에 소련은 총체적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1970년대 석유

파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1980년대 들어 경제 성장 둔화, 공산당 관료 체제의 강화, 부정부패 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냉전의 한 축을 형성하였던 소련은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의 등장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흐루쇼프는 스탈린의 실정을 비판하고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 공존을 도모하였으나 보수파의 반발로 축출되었다. 이후 브레즈네프 집권 시기에 소련은 총체적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1970년대 석유 파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1980년대 들어 경제 성장 둔화, 공산당 관료 체제의 강화, 부정부패 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1985년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레스트로이카**(개혁)·**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이윤 추구 보장, 시장 경제 원리 도입, 언론 통제 완화, 정치 민주화 등을 추구하였으며,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불간섭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경제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글라스노스트의 영향으로 소련 연방 내 각 공화국이 독립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독립 국가 연합(CIS)이 출범하고 소련은 해체되었다(1991).

동독 주민들은 서독과의 경제 격차가 커지자 서독으로의 탈출을 감행하였으며, 통일과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그 결과 동독에서 여행 자유화 정책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이듬해 동독에서 첫 자유 총선거가 시행되었고,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동독이 독일 연방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1990).

소련과 동독 외에 동유럽 각국에서도 개혁의 요구가 분출하였다. 폴란드에서는 자유 총선거에서 레흐 바웬사가 이끄는 자유 노조가 승리하면서 비공산당 정권이 수립되었으며(1989), 헝가리에서도 다당제가 도입되고 대통령제를 규정한 헌법이 마련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바츨라프 하벨이 주도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티토를 중심으로 독자 노선을 걸었던 유고슬라비아에서는 티토의 사망 이후 민족주의가 대두하면서 각 공화국의 분리 독립 요구가 커졌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중국에서는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 간에 일어난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이 수립되었다(1949). 마오쩌둥은 은행과 각종 기업의 국유화, 농업과 상공업의 집단화, 토지 개혁 등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흐루쇼프의 평화 공존 원칙에 반대하여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인민 공사를 조직하고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류사오치, 덩샤오핑 등의 실용주의 경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마오쩌둥은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던 세력을 몰아낸 후 권력을 장악하였다. 어린 학생 조직인 홍위병을 앞세워 공산주의 원리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의 전통문화가 파괴되고 많은 예술인과 지식인이 억압을 받았다.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덩샤오핑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덩샤오핑은 '후묘백묘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동남 해안 지대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화교와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

가 빠르게 성장하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개혁과 개방에 따른 급속한 경제 성장은 새로운 갈등을 낳았다. 빈부 격차가 커지고 공산당원과 관료의 부패에 대한 불만이 쌓여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1989년 톈안먼 광장에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 정치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였으나, 중국 공산당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톈안먼 사건**).

민주화 요구를 억누른 이후에도 중국의 경제 성장은 계속되었다. 풍부한 인력과 지하자원, 넓은 시장은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1997년에 홍콩이, 1999년에는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었으며, 2008년에는 베이징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1980년대 중반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된 이후 소련은 물론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 양국 정상이 1989년 12월 **폴타**에서 **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냉전 체제를 종식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한다는 역사적 선언이 이루어졌다.

탈냉전 시대가 전개되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 대립이 완화되었지만 새로운 대립과 갈등이 나타났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념을 넘어서 민족, 종교, 인종, 영토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얽혀 억눌려 왔던 대립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은 공통의 이념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외교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동유럽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소련, 중국, 베트남과 수교하였다. 하지만 탈냉전 시대에도 여전히 한반도의 분단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1951년 리비아가 이탈리아로부터 독립한 것을 시작으로 40여 년 동안 40여 개의 나라가 독립하였다.

그러나 식민 지배 당시 아프리카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제국주의 국가들이 실시한 차별 정책과 독립 후 자원을 둘러싼 유럽 국가들의 개입으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르완다에서는 다수인 후투족이 식민 지배 당시 자신을 차별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소수인 투치족을 억

압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콩고는 권력을 장악한 독재 정권과 민주화 세력 간의 대립으로 내전이 시작되어 많은 희생자가 나타났다. 또한 금·다이아몬드 등의 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 외국 기업의 개입 등이 얽히면서 분쟁이 지속되었다.

인도는 극심한 종교 갈등으로 인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종교에 따라 인도(힌두교)와 파키스탄(이슬람교)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인구 대다수가 이슬람교도로 구성되어 있던 카슈미르를 강제로 인도에 편입시키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국제 연합의 중재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통치권이 설정되었으나 양국의 소규모 교전은 계속되고 있다.

서아시아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랍계 이슬람교도와 유대인 간 영토 분쟁이 종교와 인종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팔레스타인인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팔레스타인에 거주하

던 아랍인은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PLO)를 창설하고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1994년에는 이스라엘과 평화 협상을 체결하고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수립하였으나, 양측의 대립은 현재 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유럽의 옛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는 연방의 해체 과정에서 대규모 학살과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내전은 1991년 유고슬라비아 연방군이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막기 위해 슬로베니아를 침공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전쟁 과정에서 연방군의 세르비아 대통령은 극단적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표방하여 수만 명을 학살하였다. 내전 결과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마케도니아·신유고 연방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2006년 몬테네그로가 독립하여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4년 미국에서 세계 경제 질서 재편과 무역 자유화에 대해 논의하는 브레턴우즈 회의가 열렸다. 이어 개발 도상국에 대한 개발 원조와 국제 무역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 부흥 개발 은행(IBRD), 국제 통화 기금(IMF)이 설립되었다. 또한 국가 간 관세를 조정하여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IT)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자국의 무역 이익을 위해 취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단속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GATT를 대신한 새로운 국제기구의 마련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각국의 무역 불균형과 마찰을 감시하고 자유 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계 무역 기구(WTO)가 출범하였다(1995).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각국은 국가 간 상호 경제 협력을 위해 국경을 넘어 지역 간 협력체를 구성하였다. 1950년 이후 유럽에서는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모색하였고, 마침내 1992년에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조인되어 1993년 유럽 연합(EU)이 출범하였다. 유럽 연합은 '유로'라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여 경제적 통합을 추구하였다.

1967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이 창설되었으며, 1969년에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남아프리카 관세 동맹(SACU)이 체결되었다. 1989년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가 설립되었다. 1991년에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 등 남미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해 남미 남부 공동 시장(MERCOSUR)이, 1992년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의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IA)이 성립하였다.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 지구촌이 하나의 단일화된 공간으로 통합되고, 모든 구성원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세계화'라 한다.

1995년 결성된 세계 무역 기구(WTO)는 무역과 금융 자본 투자, 지적 재산권 보호 등에서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자유 무역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세계는 국가와 지역 장벽을 뛰어 넘어 거대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인력과 물자, 정보의 전 세계적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이러한 가운데 다국적 기업과 금융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은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가 눈부시게 빨라졌으며, 이는 세계화를 더욱 촉진하였다.

세계화는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세계인의 교류와 상호 의

존도를 증가시켜 세계 공동의 문화를 창출하였다. 하지만 개인·기업·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으며, 그 결과 경쟁력을 갖춘 쪽과 그렇지 않은 쪽 간의 빈부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대 과학의 성과는 기술에 적용되어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인간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다. 특히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넷이 등장하여 쌍방향 정보 검색과 편리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 전화가 보급되어 세계 각 지역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 인간과 소통하는 인공 지능의 개발도 활발해져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리학 분야에서는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의 운동을 연구하는 양자 역학이 등장하면서 원자력이 개발되었다. 원자력은 핵무기로 개발되어 인류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의료, 신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방사능 유출이나 폭발 사고의 위험성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두하여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다.

냉전 시대부터 인류의 우주 진출도 활발하여 미국과 소련은 경쟁적으로 인공위성, 달 착륙선, 우주 왕복선 등을 쏘아 올렸다. 이후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등이 가세하여 우주 개발에 힘썼으며, 오늘날에는 많은 국가가 통신·군사·방송·기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력파의 발견으로 천체의 생성과 작동 원리를 밝히는 등 우주 과학 발전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전 공학에서는 유전자 정보가 담겨 있는 DNA 구조가 밝혀져 시험관 아기가 탄생하고 장기 이식이 가능해졌으며 식량 증산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 식품은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인간 복제 등을 둘러싸고 윤리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의학도 발전을 거듭하여 인간의 수명 연장에 기여하였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소아마비, 홍역 등의 질병이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항생제의 남용으로 인한 슈퍼 바이러스와 조류 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질병이 등장하여 이를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화로 국가 간에 활발한 경제 교류가 이루어졌지만, 부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북반구의 선진국들은 더욱 부유해진 반면, 남반구의 개발 도상국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남북문제).

기아와 질병이 만연한 지역에서는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폭력적인 분쟁이 잇따르고, 이것이 다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 열악한 교육과 보건 체계, 부의 편중 현상 등에 반발하여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화는 대륙 간 빈부 격차뿐만 아니라 국가 내의 빈부 격차도 심화시키고 있다. 공공 서비스가 축소되고 산업 구조가 조정되면서 노동자들의 힘은 점차 약화되었으며, 그 결과 계층 간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금융 위기 등으로 중산층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세계 대부분 나라는 다인종 사회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다수를 구성하는 인종이 소수 인종의 문화나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 인종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종교의 다원화 현상 속에서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종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종교 갈등은 인종, 지역, 계급 갈등이 복잡하게 중첩되어 발생하기도 하며 정치적 개입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그리스도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말을 낳을 만큼 지구촌 곳곳에서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충돌은 주로 테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세력은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테러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테러의 범위는 전 세계로 확대되어 테러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인종이나 종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하며, 인종과 종교 차별을 금지하고 상호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화가 일으킨 가장 큰 폐해는 에너지 고갈과 환경 파괴이다. 무분별한 개발 과정에서 삼림이 파괴되었으며,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유한한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어 에너지를 둘러싼 경제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 개발 과정에서 하천과 해양, 대기가 오염되면서 지구 대기를 둘러싼 오존층은 점점 얇아졌고,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 홍수, 폭한과 폭염, 폭설 등 기상 이변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자연환경의 변화는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세계 각국은 산업 개발과 환경 보호를 함께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국제 연합 환경 개발 회의가 개최되어 '환경과 개발에 관한 공동 선언' (리우 선언) 이 이루어졌다. 이후 산업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교토 의정서**가 발표되었다. 이는 현재 세대의 필요를 위해 미래 세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공동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세계 각국은 코펜하겐 회의 등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선진국, 개발 도상국 등 각국의 상황이 달라 실효성이 없었다.

최근 파리 기후 협약에서 2020년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신하여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정해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여성 운동은 19세기 후반부터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이래 꾸준히 여성의 권리 신장에 기여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남녀 평등 사상의 확산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 진출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 국가 내에서 도시와 농촌 간, 사회 계층 간 여성 차별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일부 저소득층 여성이나 개발 도상국 여성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여 문맹률이 상당히 높다. 최근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복지 예산 삭감, 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졌다.

한편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의사 결정에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수자의 의견이 무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다수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소수자의 권리가 강조되고 있다. 소수자라는 개념은 인종, 민족, 성, 경제력, 나이, 신체상의 장애, 사상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을 때 쓰인다.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국제 이주가 증가하면서 인종과 문화의 상호 교류가 활발해졌다. 종교, 인종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문**

**화주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고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관념으로, 다양성과 관용, 통합을 중시한다.

66. 밑줄 친 '이 계획'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계획의 목적은 자유주의 제도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경제를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제공할 원조는 일시적 완화책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책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을 통해 제2차 세계 대전으로 파괴된 유럽 경제의 재건 과업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 국가는 미국 정부의 충분한 협조를 받을 것입니다. 반면, 경제 회복을 방해하려고 책동하는 국가는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미국 국무부 장관 -

- ① 트루먼 독트린의 내용을 조사한다.
- ② 교토 의정서가 발표된 배경을 알아본다.
- ③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한다.
- ④ 세계 무역 기구(WTO)의 활동을 찾아본다.
- ⑤ 레이저노믹스가 세계 경제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다.

67. 밑줄 친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도네시아 반등에서 인도, 미얀마, 중국 등 아시아·아프리카 29개국이 참가한 회의가 열렸다. 참가국들은 전후 냉전 체제의 고착에 반대하며 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들은 국제 연합 존중, 평등과 평화, 자주와 정의의 실현 등을 촉구하였다.



< 보 기 >

- ㄱ. 트루먼 독트린에 영향을 주었다.
- ㄴ.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에 반대하였다.
- ㄷ. 참가국들은 비동맹 국가(제3 세계)라고 불렸다.
- ㄹ. 세계 무역 기구(WTO)의 창설을 적극 지지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8. (가), (나) 발표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미국은 그리스 정부로부터, 자유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달라는 긴급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그리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터키도 지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리스와 터키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나)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체결한 조약을 지키고, 우리 동맹국이 핵의 위협을 받을 경우 직접 방어에 나설 것입니다. 그 밖의 내란이나 침략이 있는 경우 아시아 각국은 스스로 협력하여 대처하기 바랍니다.

- ① 국제 연합이 창설되었다.
- ② 대서양 헌장이 발표되었다.
- ③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었다.
- ④ 독립 국가 연합[CIS]이 결성되었다.
- 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시행되었다.

69. 다음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냉전의 격화
- ② 전체주의의 대두
- ③ 제국주의의 등장
- ④ 비동맹 중립주의의 출현
- ⑤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

70. 밑줄 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후의 세계 경제 질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각국 대표 여러분! 우리는 미국 달러의 가치를 금을 기준으로 고정하고, 각국 통화의 가치는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① 유럽의 재건을 위해 마셜 계획을 승인한다.
- ② 코메콘을 창설하여 상호 원조를 활성화한다.
- ③ 영안을 채택하여 독일의 전쟁 배상금을 경감한다.
- ④ 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 부흥 개발 은행을 설립한다.
- ⑤ 상호 협력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를 결성한다.

2023학년도 수능 대비 모의고사 주요 문항 정답

1	①	2	①	3	②	4	①	5	②
6	②	7	①	8	②	9	②	10	②
11	③	12	②	13	⑤	14	①	15	③
16	②	17	④	18	②	19	④	20	②
21	⑤	22	④	23	⑤	24	⑤	25	③
26	③	27	③	28	③	29	③	30	⑤
31	④	32	④	33	⑤	34	⑤	35	①
36	③	37	②	38	④	39	②	40	⑤
41	⑤	42	①	43	④	44	③	45	①
46	⑤	47	②	48	②	49	②	50	④
51	①	52	④	53	⑤	54	③	55	④
56	②	57	⑤	58	⑤	59	④	60	③
61	⑤	62	④	63	①	64	①	65	①
66	①	67	③	68	③	69	⑤	70	④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